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2014. 7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7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 경 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연구원 이 종 환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 철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소 지 영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목 차

I. 평가개요	1
1. 기금사업 평가개요	3
2. 기금사업 평가방법	7
3. 기금사업 평가절차	10
4. 기금사업 추진체계	11
 II. 평가결과 요약	 15
1. 점수 및 등급	17
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총평	18
3. 사업별 평가등급 분포	21
 III.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평가결과	 23
1.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25
2. 생활 속 예술 활성화	337
3. 지역문화 예술진흥	421
4.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463
 IV. 개선과제	 593
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개선과제	575
 V. 사업 성과지표 분석	 601
1. 성과지표의 개념	603
2. 성과지표 개발 원칙	606
3.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분석	609

I

평가개요

1. 기금사업 평가개요
2. 기금사업 평가방법
3. 기금사업 평가절차
4. 기금사업 추진체계

1. 기금사업 평가개요

□ 평가목적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에 대응한 책임성 강화 및 기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의 성과와 재원의 적정 배분 체계 마련

□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성과의 평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출범함에 따라 자율성 신장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06년부터 실시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성과의 평가】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년도 기금사업 평가 대비 '13년도 개선사항

항목	개선 의견	개선 방안
평가지표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사업 중복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관련 사업 등 · 사업 모니터링 평가 강화 · 집행률 및 모니터링 지표의 배점 구간조정 필요 · 평가지표의 연쇄적 영향 줄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목표치-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평가 중심으로 평가대상사업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평가 폐지 - 예산편성 구조 및 세세부사업 중심 · 사업 모니터링 세부평가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체계와 성과 평가지표 구분 · 평가지표의 배점 구간 합리화(세분화) · 평가지표 간 상호 연동성 합리화
평가절차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현장방문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성 확보 어려움 · 평가결과 활용 방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공유 및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현장방문 절차 삭제 · 최종평가 전, 평가내용 검토·확인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사항 이의제기·조정 및 오타 수정 · 사업별 우수사례 평가지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사업, 프로그램, 사업 절차 등

□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 평가대상 : 4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

[기금사업평가 대상 단위사업]

평가분과	평가대상사업	예산비중	사업예산 (백만원)	관리부서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101] 문학창작지원	2.33%	2,550	예술지원부
	[102] 시각예술창작지원	1.42%	1,550	예술지원부
	[103] 공연예술창작지원	6.76%	7,400	예술지원부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0.73%	800	예술지원부
	[105]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1.20%	1,314	미술관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1.17%	1,278	예술지원부
	[107] 예술인력재교육	0.70%	766	인력개발원
	[108] 국제교류활성화지원	2.28%	2,500	국제교류부
	[109]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2.01%	2,200	국제교류부
생활 속 예술활성화	[201] 문화복지(문화바우처)	31.93%	34,946	문화복지부
	[202]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	21.18%	23,175	문화복지부
지역문화 예술진흥	[301] 지역문예활동지원	18.78%	20,560	예술지원부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4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0.72%	789	사업평가부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0.48%	520	정책기획부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7.39%	8,093	예술나눔부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0.91%	1,000	미술관
4분과	16개	100%	109,441	

※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세부사업 중 평가실익이 없는 원로문예인복지지원(일몰제사업)은 평가제외

○ 평가체계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집행-성과의 연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고객만족도 등 사업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준용

- 평가부문의 체계적 구성을 통한 성과 창출 활동의 연계성 확보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외부평가지표 연계·활용을 통한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대상인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이며, 기타 사업 실적 작성을 위한 항목

[’1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사업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4-3 우수사례 평가	3
전체합계			100

2. 기금사업 평가방법

□ ‘기준충족형’ 및 ‘등급형’ 지표 평가

○ 평가지표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준충족형’ 또는 ‘등급’ 평가 병행

※ ■ 기준충족형 평가 :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기준별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의견 기술

■ 등급 평가 :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을 등급화하고 등급별 점수를 반영

□ 비계량지표 평가

○ 비계량지표는 3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별로 평가하고, 평점은 6등급 기준으로 부여

○ 지표별 평가등급에 대응하는 ‘등급별 환산점수’가 해당지표의 평점

[평가관점]

평가관점	정의	평가관점별 세부 내용
관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리방법 사용하는 관리방법과 지표 요구사항 및 조직 환경과의 적합성 기관의 관리방법 사용의 효과성 관리방법이 반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도와 신뢰성 있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는 정도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관리방법이 적용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방법이 기관에 적합하고 중요한 평가지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된 정도 기관의 관리방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된 정도 기관의 관리방법이 모든 적절한 작업단위에서 적용된 정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연구, 경험, 혁신 등을 통해 획득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조직과 개인 수준의 학습을 모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개선 사이클을 통한 관리방법의 개선 정도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정도 개선 및 혁신 결과를 조직 내 관련 작업 단위 및 프로세스와 공유하는 정도

[평가지표의 평가등급]

구분	E	D	C	B	A	S
관리 방법	관리방법 부재 (임의적 접근)	가장 기본적인 관리방법 적용 시작 특정 영역에서만 기본적인 관리방법 적용	지표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관리방법 적용 이 방법이 체계적·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미약	지표에서 요구되는 일부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방법 적용 이 방법이 일부 영역에서 체계적· 효과적이라는 증거 존재	지표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방법 적용 이 방법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체계적· 효과적이라는 증거 존재	지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방법 적용 이 방법이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 효과적이라는 증거 존재
실행	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실행 하고 있다는 증거 없음	관리방법의 체계적 실행 시작 단계 특정 영역에서만 관리방법의 체계적 실행 시작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리방법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실행 실행의 효과 없음	일부 영역에서 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잘 실행 일부 영역에서 실행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남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리방법을 큰 차이 없이 체계적으로 잘 실행 대부분의 영역에서 실행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남	모든 영역에서 관리방법을 문제 없이 체계적으로 잘 실행 실행의 실질적 효과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남
학습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만 대응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의 초기단계 개선지향적 체계로 변화하는 초기 단계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지표관리를 위해 핵심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작	핵심 프로세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를 통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법 실행 개선의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	평가를 통한 개선과 성과의 공유를 통한 조직학습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요한 경영활동이 됨 공유와 학습의 결과로서 개선과 혁신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증거 존재	평가를 통한 개선과 성과의 공유를 통한 조직학습이 모든 조직 단위에 걸쳐 주요한 경영활동이 됨 전사차원의 공유와 학습의 결과로서 개선과 혁신이 모든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비계량지표 평가등급별 점수표]

등급	E	D	C	B	A	S
등급별 환산점수	30점	45점	60점	75점	90점	100점

□ 평가결과 등급화

- (최종점수) 단위사업의 성과는 해당 세부사업별 성과의 합으로 창출되므로 평가 점수는 해당 세부사업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 산식

- 단위사업 평가지표별 점수 = (∑해당지표의 세부사업별 점수) / 세부사업 수
- 기금사업평가 최종점수 = ∑세부사업(16개) 점수 / 16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가중치 적용 시 조정점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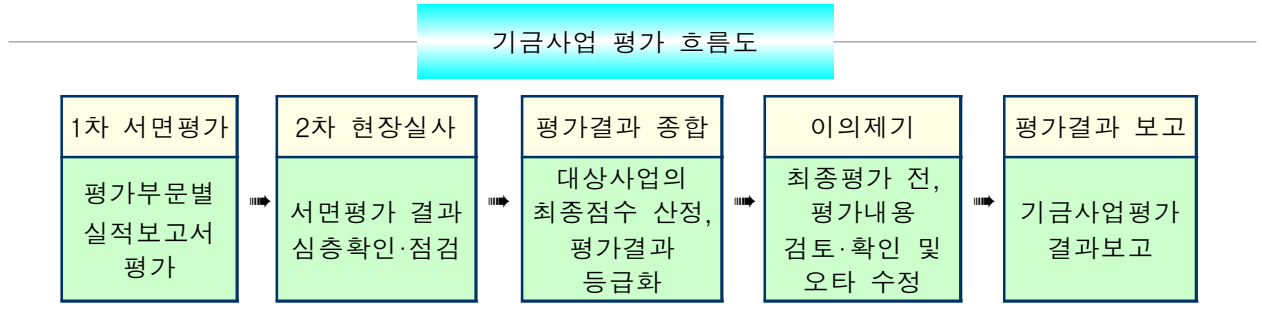
- (등급화) 단위사업·세부사업별 평가점수 결과를 토대로 절대등급화 실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별 점수	90점 이상	80~90점 미만	60~80점 미만	50~60점 미만	50점 미만

※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상의 등급화 기준 적용

3. 기금사업 평가절차

□ 평가절차



① 서면평가

- 평가부문별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사업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1차 점수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시 확인·점검 사항을 기술

※ 계량지표는 사무국 및 계량지표 평가위원에 의해 일괄 평가 실시

구분	평가결과	
	평가의견 기술	평가점수 산출
사업평가	○	○

- 평가위원별 서면평가 후 서면평가결과 공유를 통한 점수 조정 및 현장실사 점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 의무적 실시

② 현장실사

- 1차 서면평가 결과 심층 확인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2차 점수 부여

※ 현장평가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업무 설명 청취 및 심층질의를 수행하며, 세부사업별 최대 2회로 제한

③ 평가결과 종합

- (평가등급 산정)사업평가별 최종 점수 집계·평가등급 산정

※ 평가등급 : 사업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보고서 작성)기금운영 사업평가 총괄 보고서, 단위사업별 평가보고서, 세부사업별 평가보고서

④ 평가결과 보고

- '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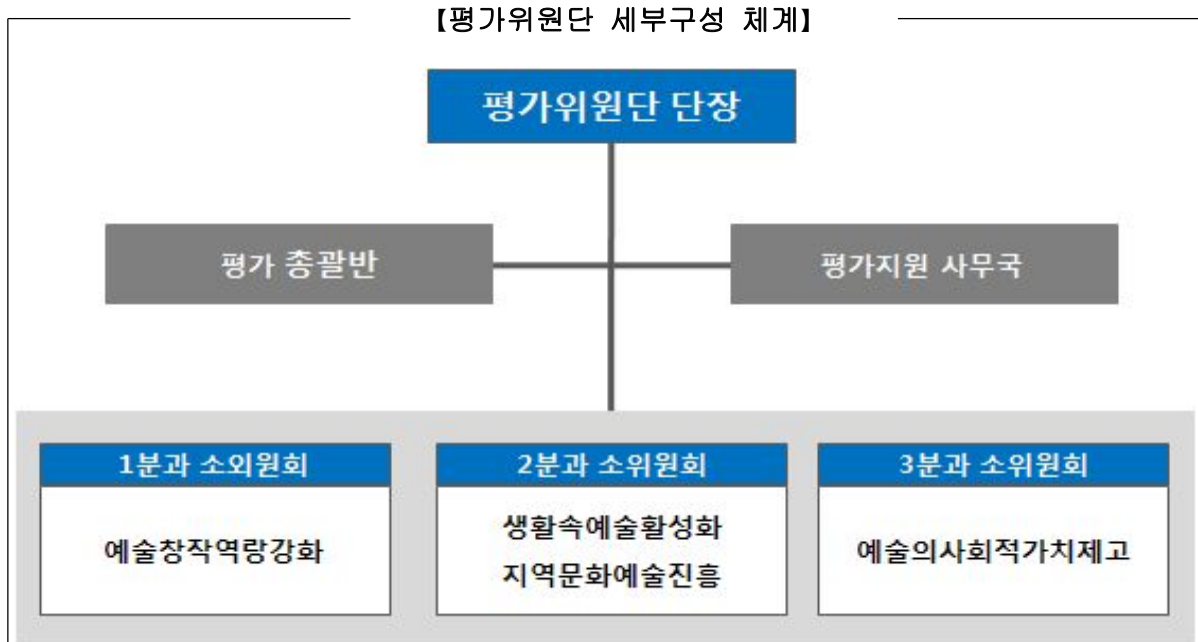
□ 평가진행 과정

분 류	주요 내용	일정
착수보고	◦ 계약 및 일정계획 보고/업무협의	4.10
평가설명회 개최	◦ 기금평가단 대상 평가설명회 개최 ◦ 평가개요, 지표내용 및 평가방법, 보고서 작성기법 등 설명	4.24
서면평가 실시	◦ 기금평가단 서면평가 실시	4.28 - 5.09
현장평가 실시	◦ 기금평가단 현장평가 실시	5.12 - 5.20
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5.26 - 5.30
평가보고서 회람	◦ 주요 평가결과 회람 및 이의접수	6.16 - 6.24
소위원회 개최	◦ 이의접수 타당성 및 보고서 내용 적절성 검토	6.17 - 6.27
이의신청 반영	◦ 이의신청 결과 반영	6.27 - 7.03
평가결과 확정(안) 회의	◦ 평가결과 확장(안) 회의	7.04
개선과제 도출 및 평가체계 보완	◦ 문예진흥기금사업 개선과제 도출 ◦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체계 및 지표 보완	7.07 - 7.18
최종 보고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내용 수정 및 보완	7.21

4. 기금사업 추진체계

□ 평가단 구성방식 및 주요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기금사업평가를 총괄하고, ‘예술창작의역량강화’, ‘생활속예술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4개 단위 사업에 대해 3개 분과 소위원회 운영



-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
- 세부 추진체계는 6개의 소위원회별로 심의조정(위원장), 세부점검(평가위원), 실무지원(간사) 등의 역할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
 - 심의조정은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결과(안)를 심의·조정하는 역할
 - 세부점검은 실적보고서 확인·점검, 근거자료 확인 및 1·2차 점수 부여, 세부사업 점검
 - 실무지원은 사무국 소속으로 평가권이 없으며, 소위원회별 진행상황 총괄 및 현장실사 지원
- ※ • 소위원회별 주요 산출물 :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최종 점수 및 보고서
 - 기금사업평가 총괄보고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1차 작성책임을 가지며, 필요시 소위원회 내 타 평가위원에게 위임 가능

□ 평가단 구성현황

분 과	평 가 위 원		
평가단	평가단장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소위원장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평가위원	조광석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평가위원	강익모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평가위원	정철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위원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평가위원	정달영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평가위원	변상형	한남대학교 예술문화학과 교수
	평가위원	하홍열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생활 속 예술 활성화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	소위원장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평가위원	권병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평가위원	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평가위원	강성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소위원장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위원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평가위원	홍문기	한세대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평가위원	류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II

평가결과 요약

1. 점수 및 등급
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총평
3. 사업별 평가등급 분포

1. 점수 및 등급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등급 결과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최종점수 및 등급]

단위사업명	평가점수	등급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85.01	우수
생활 속 예술활성화	86.13	우수
지역문화 예술진흥	92.43	매우우수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84.26	우수

단위사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101] 문학창작지원	73.75	보통
	[102] 시각예술창작지원	83.80	우수
	[103] 공연예술창작지원	73.00	보통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82.00	우수
	[105]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84.80	우수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91.11	매우우수
	[107] 예술인력재교육	93.47	매우우수
	[108] 국제교류활성화지원	90.31	매우우수
	[109]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92.84	매우우수
생활 속 예술활성화	[201] 문화복지(문화바우처)	87.76	우수
	[202]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	84.49	우수
지역문화 예술진흥	[301] 지역문예활동지원	92.43	매우우수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4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84.55	우수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81.25	우수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89.44	우수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81.78	우수
최종 평가점수		85.42	우수

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총평

-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에 대응한 책임성 강화 및 기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음.
-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는 4개 단위사업 이하 16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종합적으로 평가대상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등 사업발전을 위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다만,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사업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사례의 추천근거 및 객관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평가의 기초가 되는 실적보고서의 충실성도 뒷받침되어야 함.
-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술창작 역량강화’ 부문은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역량이 강화되어 온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이와 같은 지원범위와 역량 강화는 예술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인정할 만 함. 그러나 지원범위와 역량강화가 예술 역량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연계성 미흡, 성과지표의 부적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동 평가를 통해서는 성과지표와 결과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물리적 산출에 집중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지원 이후 관리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생활 속 예술 활성화’ 부문은 분명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음. 동 단위사업의 주요 성과로 ‘문화복지’ 사업은 정부 최초 문화부문의 통합바우처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문화나눔의 사업은 문화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펼쳤으며, 유관부처와 합동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민관합작의 지원노력이 양호함. 그러나 성과지표는 동 단위사업의 특성을 살려 최종이용결과 시점에서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 외에 소외계층의 문화향수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성지표도 고려되어야 함.
- ‘지역문화 예술진흥’ 부문의 사업목적은 기관의 미션 및 비전에 부합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실행계획과 추진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동 단위사업의 주요성과로는 낙후된 지역의 활동공간과 활동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공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여건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지역의 필요사업들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분담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적절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논리적 연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부문은 사업목적 및 운영방식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동 단위사업의 주요 성과로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은 문예연감의 발행으로 나타났고,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은 문예진흥 40년 지원정책 연구 등이 있음. 이어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은 「예술나무키우기」의 명칭을 포함해 창의적이고 우수하게 사업이 추진되었고, ‘공공미술사업운영’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공공미술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음. 다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특화된 사업운영 및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 한편,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는 대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평가지표의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한 보다 정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시도하였음. 즉, 전년도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별 의견에 대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개선제안을 중심으로 기술이 이루어졌으나, 금년도 평가에서는 각 해당 지표에 대하여 기준충족 여부 및 근거, 등급산정의 기준을 추가로 넣어 평가의견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이어 긍정적 측면, 미흡한 측면, 발전방안 순으로 제시하였음.
- 그리고 동 평가에서는 각 세부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이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표가 사업 속성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정확한 성과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적정여부를 지표개발 관점에서 조명하여, 사업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인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성과지표 속성에 맞추어 각 사업성과지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였음.
- 아울러, 기존 성과체계 및 성과평가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는데, 현행 성과평가지표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표 간 연계성이 약하여 정밀한 성과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었음. 이어 사업의 속성과 상관없이 단일한 지표를 적용함에 따라 성과지표가 사업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지표 간 연동을 해제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여 기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함. 그리고 지원사업과 집행사업의 속성이 상이함에 근거하여 성과평가지표를 조정하여 사업의 속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함.

- 금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평가결과, 최종 평균점수는 85.42점으로 우수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단위사업 중에서 ‘지역문화 예술진흥’ 단위사업이 92.43점으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음. 반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단위사업이 84.2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세부사업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은 ‘예술인력재교육’ 사업으로 93.47점을 받아 전체 평균점수를 8.05점을 상회하였으나, ‘공연예술창작지원’ 사업은 73.00점을 획득하여 평균점수보다 12.42점 낮게 나타남.
- 2013년의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평가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사업성과를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이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피평가기관, 평가단의 동 기금사업평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함.

3. 사업별 평가등급 분포

등급	점수구간	사업명	개수
매우우수	90점 이상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107] 예술인력재교육 [108] 국제교류활성화지원 [109]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301] 지역문예활동지원	5
우수	80점 ~ 90점 미만	[102] 시각예술창작지원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105]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201] 문화복지(문화바우처) [202]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 [4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9
보통	60점 ~ 80점 미만	[101] 문학창작지원 [103] 공연예술창작지원	2
미흡	50점 ~ 60점 미만	-	0
매우미흡	50점 미만	-	0

III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평가결과

1.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평가결과
2. 생활 속 및 예술활성화
3. 지역문화 예술진흥
4.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1.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 [101] 문학창작지원
- [102] 시각예술창작지원
- [103] 공연예술창작지원
-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 [105]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 [107] 예술인력재교육
- [108] 국제교류활성화지원
- [109]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1.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 동 부문은 총 9개 사업으로 5개 지원사업과 2개 교육사업, 2개 집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원사업(문학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지원, 예술다양성증진지원, 국제교류활성화지원)은 그 성격이 지원을 통해 예술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 범위와 역량을 강화시켜 수혜대상의 양적증대를 가져온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사업들은 대체로 지원 활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원 활동 이후 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로 이를 측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확성이 떨어짐.
- 따라서 수혜대상의 양적증대와 더불어 수혜내용의 질적향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예술역량이 증진되었으며, 보다 큰 향상을 위해 지원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함.
- 교육사업(차세대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은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 역량을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노력이 사업목적을 통해 엿보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요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업목적과 세부사업의 인과성이 떨어지는 면이 평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 가능성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어, 인재 육성과정과 그 이후 창작역량 향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사업(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은 공간운영 또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역량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며 실제 이를 위한 인프라(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 예술가의 집, 국제교류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전시콘텐츠, 소통 및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통해 구동될 수 있는 콘텐츠 구축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동 분야의 전체 평균점수는 85.01점으로 전년 평균 78.86점에 비해 6.15점 향상됨.
- 문학창작지원사업은 73.75점을 획득, 전년도 81.8점 대비 8.05점 하락하였고, 시각예술창작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평가 적용된 사업으로 83.80점을 획득함.
-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은 73점을 획득, 전년도 84점 대비 11점 하락하여 분과 사업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으며, 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82점을 획득하였고, 전년도 73.3점 대비 8.7점 향상됨.
-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사업은 84.8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77점 대비 7.8점 향상되었고, 차세대 예술인력육성(AYAF)사업은 91.11점을 획득, 전년도 93.3점 대비 2.19점 하락함.
- 예술인력재교육사업은 올해 처음 평가 적용된 사업으로 93.47점을 획득하여 분과 사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국제교류활성화지원사업은 90.31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75.8점 대비 14.51점 향상된 결과를 보여 분과 사업 중 가장 높은 향상을 나타냈고,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사업은 92.84점을 획득, 전년도 83.2점 대비 9.64점 향상됨.
- 전년 대비 성과가 향상된 사업은 4개(예술다양성증진,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국제교류활성화지원,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사업이며, 하락한 사업은 3개(문학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지원, 차세대 예술인력육성(AYAF))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동 부문 사업은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가시적인 산출요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음. 사업 초기에는 이 같은 현상이 매우 당연한 것이며, 유지·보수를 위한 측면에서도 이러한 관심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성과산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결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업은 집행의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음. 모든 사업이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가시적인 산출보다는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실현과 참여자 간 거버넌스의 변화, 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다변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요망함.
- 아울러 매년 대상사업 변동이 잦고, 동일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명 변화가 빈번한 것은 사업목적 및 목적 달성여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평가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101] 문학창작지원

- 동 사업은 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사업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목적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치밀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성과관리에 있어 단순히 수치상 산출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사업성과지표의 내용이 작품 건 수, 만족도 등으로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원 사업이 갖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 이후 실제 문학창작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에 있어 단순히 수치상 지원금액 또는 목표 달성도, 만족도 파악에 그치지 않고, 발굴·지원된 문학창작역량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는 태도가 필요함.
- 아울러 동 사업은 상업성에 기반 하지 않은 순수예술창작물에 대한 지원과 기초예술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목표 하에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창작활동 운영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집필공간을 잘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한편, 사업시행 전에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으며,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과 결과적인 목표치 간의 연계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을 유도함.
- 그리고 목표에 수반되는 정책의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업 관련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체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적인 사업 체계 구상을 시도한다면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5.5억원

- 지원대상 : 문학 분야 예술단체 및 개인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직접수행(사이버문학광장)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지원

- 전 사업 자부담 10% 원칙
- 문학창작활동지원 : 포상금 형태 지급(정산 의무 없음)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보조금의 원고료 지급 의무화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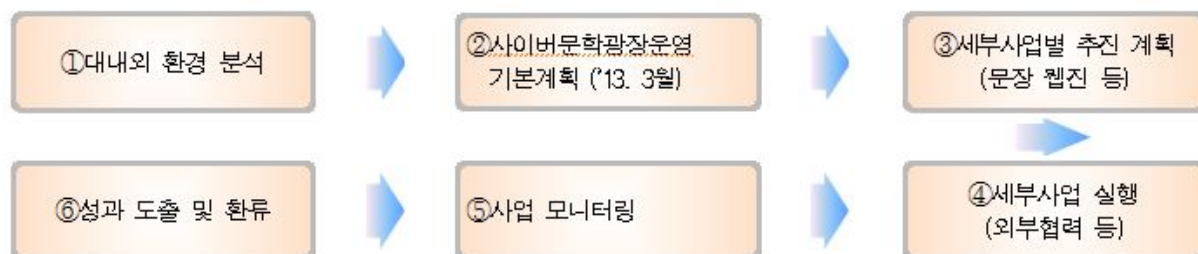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문학창작지원	2350	2550	3200	650	25.5
▪ 문학창작활동지원	800	800	1000	200	25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700	700	1000	300	42.9
▪ 사이버문학광장운영	650	500	500	-	0
▪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	300	500	200	66.7
▪ 문학조사연구지원	-	50	200	150	300
▪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200	200	-	△200	순감
□ 세출예산비목	2350	2550	3200	650	
▪ 일용임금	4.56	4.05	4.05	-	0
▪ 일반수용비	599.4	489.95	509.95	20	4
▪ 공공요금및제세	6.74	2.4	2.4	-	0
▪ 사업추진비	3.72	3.6	3.6	-	0
▪ 포상금	800	800	990	-	23.7
▪ 민간경상보조	900	1250	1690	440	35.2
▪ 기타직보수	32.4	-	-	-	
▪ 기타직보수	2.7	-	-	-	
▪ 국내여비	0.48	-	-	-	

□ 사업추진 절차

- 문학창작활동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문학조사연구지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4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9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9.75	
	4-3 우수사례 평가	3	2	
전체 합계			100	73.75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문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창작활성화를 꾀하고 문학 분야의 자료 축적 및 공간지원 등의 창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체계화된 창작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을 설정함.
- 따라서 동 사업은 상업성에 기반 하지 않은 순수예술창작물에 대한 지원과 기초 예술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목표 하에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이 문학 분야의 현장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세부사업들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전년도 평가의 지적사항이었던 창작지원 중심의 사업목적 명확화, 이에 따른 성과 지표의 재구성 및 추가개발, 분기별 예산 집행을 개선, 모니터링의 확대, 평가기준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목적과 정책수행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방식을 개선하면서 사업을 통한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문학창작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의 경우에 공간 선정기준과 운영지원의 방향성이 모호함. 창작집필공간과 기존 문학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지역의 문학관이나 유사한 창작공간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향유층 프로그램 등은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창작활동 운영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집필공간을 잘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발전 방안]

-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예술지원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문제의식과 진단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예술분야가 처한 현황을 진단하여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함.
- 신진 예술과 재능의 발굴 및 육성 후에 경력관리, 인적자원관리, 국제적 예술가 성장 등 사업과 사업 간의 유기적인 지원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시점임. 특히 기초 예술분야 중에서도 자생력이 약한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생태계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순수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역량 및 기반 중심 지원 강화가 필요함.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목적은 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기반 조성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는 ‘문학 분야 창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 지원 확대와 ‘문학 창작활동 다양화’를 위한 문학 분야 자료 축적 및 체계화임.
- 이는 기관의 3대 전략 목표인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14대 전략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전략에도 부합하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반면에 세부사업의 추진전략이 성과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함.
- ‘문학 분야 창작 활성화’를 위해 개인 작가에 대한 창작지원금 지원과 집필공간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문예지 및 사이버문학광장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문학 집필 및 발표를 용이케 하였음.
- 특히 작고문인들의 선집발간사업과 신규 사업인 문학조사연구 사업은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써 문학유산과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연구·조사와 아카이브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은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의 목적이 예술창조역량 강화 및 창작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지원 내용과 방식은 예술가지원, 문예지지원, 집필공간지원, 출판지원, 사이버문학관 운영 등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다수의 사업이 문학 분야의 창작활동에 기여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함.

[미흡한 측면]

-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목적간의 연계구조는 전략적 체계 속에서 확립되어 있으나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함.

[발전 방안]

- 사업의 추진전략에서 ‘문학분야 자료체계화를 통한 문학창작의 풍부화 및 다양화 달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창작활동의 토대가 되는 기반조성이나 생태계 구축’ 등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해 보임.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 또한 동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제1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내용에 부합함. 더불어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관한 조항과도 부합하여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로서 타당함.
-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기초예술의 특성상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재정지원이 적절하고 타당함. 특히 문학 분야는 상업적으로 발달한 일부 장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장르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취약한 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어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긍정적인 측면]

- 문학계에는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장편소설 출판’을 제외하고는 창작 및 출판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문학성이 뛰어나지만 상업성이 없어 자생력이 부족한 문학작품의 발굴·육성은 우리 문학의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적 지원의 영역임.
- 경기침체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출판시장의 지속적인 위축, 문예지 퇴조, 장르문학의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임. 잠재성이 있는 작가에게 창작금 명목의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문학창작활동지원>은 세부장르(시, 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문학, 평론)별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비인기 장르 작가들에게 창작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문학조사연구지원> 등은 공공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또한 기 축적된 각종 문학자료(작가정보, 작품,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를 아카이빙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공영역의 허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학예술 DB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이버문학광장>은 공공지원이 필요함.

[미흡한 측면]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 지역사업으로 이관한 지자체 문학관을 지원하는 사업과의 변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발전 방안]

- 자생력이 취약한 문학 분야의 경우 순수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타 장르와 비교해 볼 때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 반면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문학관 운영 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임.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학창작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에도 각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민간 재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개인 창작지원 및 문예지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재하며 문학 장르의 특성 상 전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이 필요함. 각 지역 문화재단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의 작가 혹은 문예지(동인지)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타의 사업과 비교해 사업목적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이나 <사이버 문학광장> 운영의 경우에도 기초예술의 창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하면 민간 분야 및 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지자체 및 타 기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 수요를 파악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임. 특히 타 공공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한 점은 긍정적인 점임.
- 특히 <문학창작활동지원>은 전국적으로 각 지역재단이나 민간재단에서 작품에 지원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으며 작가 자체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성격임. 이러한 방식은 보조금 지급절차와는 차이가 있어 작가들에게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함.
- 또한 신규사업인 <문학조사연구지원>사업은 공공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서 창작활동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임.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은 기존 5개년 간 발간지원사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학 유산의 보존 및 보급이라는 목적에 부합함.

[미흡한 측면]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사업의 목적이 ‘문학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작가 간, 작가와 독자 간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입주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학 창작여건을 활성화하는 것임’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런 경우 지역사업으로 이관한 지자체 문학관을 지원하는 사업과의 변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발전 방안]

- 공간지원의 목적이 작가와 작가 간, 독자 간의 교류를 위한 지역 거점공간의 활성화라면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함. 더욱이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문학창작집필공간의 개념과 공간운영지원의 사업 수행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방향성이 맞는 공간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세부사업은 총 6개이며 사업수혜 대상은 문인, 출판사, 작가문인, 예술가 및 연구자,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사업수혜 대상의 중복 및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음. 타 기관 또는 지자체 수행사업과 비교하여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전국 단위 예술인과, 국민이 사업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사업과 차별화를 이룸.
- 세부사업에서 <문학창작지원>사업과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사업, <작가문인선집발간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인이며 <우수문예지발간사업>의 수혜대상은 문학 관련단체 및 유관단체, <문학조사 연구지원>사업은 예술가, 연구자, 교육가, 비평가, <사이버 문학관장 운영지원>사업은 예비작가, 신진작가, 국민 등으로 다양하여 사업수혜대상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문학창작지원>사업은 향후 2년 내에 작품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포상금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지원의 형식이라 볼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이 문학 분야에 지원되는 유사사업들과 차별화를 꾀하게 하고 있으며 작가들의 창작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지원사업 대상 결정 시에 중복 선정을 피하기 위해 타 기관들과 지원대상 선정 명단을 공유하는 절차는 적절함.
- <문학조사연구지원사업>과 <작가문인선집발간지원>사업은 민간 출판업계에서 추진하기에는 순수문학작품의 연구·출판 사업이란 점에서 공공지원의 의미가 있으며 문학 분야의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비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수혜의 효과가 문학 분야 전반에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이버문학광장>은 점차 다양화되는 매체와 출판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사이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순수기초예술작품에 대한 소개 및 정보공유, 비평, 신진작가들 인큐베이팅, 아마추어 창작활동 참여, 멘토링 시스템 등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공공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사이버문학광장> 경우에는 콘텐츠 내용에 비해 사이트가 활발하게 이용되어지지 못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들이나 작품들 경우에도 사이트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수, 문학집배원서비스 이용자 증가 수만으로는 사이트 이용률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율과 이용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사이버문학광장> 사업수혜의 대상이 전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적극적으로 수요자 층을 개발하고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 지자체 등 타 기관 등과 사업수혜대상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6개 세부사업은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며, 사업추진방식도 창작지원, 집필공간 지원, 포상금 지급, 상이함. 따라서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수행, 단체 및 기관의 기금지원대상자 선정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적절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문학창작활동지원>, <우수문예집발간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 하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문학광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체 기획, 자체 수행하고 있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연의 업무이며 사업수행 주체는 적절함.
-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을 하는 사업은 <문학창작집필공간운영지원>, <문학조사연구지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전문성에 의해 적절하게 선정됨

[긍정적인 측면]

-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사업자 선정은 사업 신청 단체의 보급/확산 계획을 바탕으로 각 단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선집의 발간뿐만 아니라 문학축제, 전시,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급 및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사업 수행 주체들은 이를 추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들로 선정되었으며, 작고한 문인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임.

[미흡한 측면]

- <사이버문학광장>은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확대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며 홍보를 통한 접근성이 제일 중요함. 홈페이지 누적회원가입수와 문학집배원 서비스 이용자만으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수요자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일일 접속자수 등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지표를 개발하여 정확한 활용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총괄적으로 기획 운영을 하더라도 전문적 영역은 협업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사이버 문학광장> 경우에는 기획에서 운영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민간사이트들에 비해 홍보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음. 따라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아마추어, 일반인, 독자 등, 자발적인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전문단체나 기관과 협력하여 협업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목적은 문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기반 조성을 위함. 이러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사업의 주된 내용은 작가 창작활동 지원, 집필공간지원, 연구조사, 문예지발간지원, 작고문인선집발간 지원, 사이버문학관장 운영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긍정적인 측면]

-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순환적인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구성이 적절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기반여건 중에서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측면에서 문예지 발간의 경우 시장침체로 인해 점차 자생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발표 및 비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온라인 발표 공간인 <사이버문학광장>은 국민들의 문학 창작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이며, 동시에 기존의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가능케 함.

[미흡한 측면]

- 문학 분야의 수요에 비해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함. 대체로 세부사업의 체계와 구성은 적정하지만 예산에 비해 세부사업이 많다보니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 문학창작활동지원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줄이고 건수를 늘이는 식의 방향 전환은 바람직하지 못함.

[발전 방안]

- 25억 예산에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세부사업 수가 예산에 비해 많은 편임. 세부사업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통합하여 사업의 개수를 조정하고 단위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의 개수보다는 충실성과 정책효과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선별적 지원, 사후지원, 간접지원의 원칙에 충실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액 다건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함. 타 장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사이버문학광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 축적 및 자료 공유와 더불어 플랫폼기능을 확대해야 함. 멘토링사업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참여자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홍보기능을 강화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예술나무 포탈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공유, 공동 생산 등).
- 타 기관과의 의 적극적인 연계도 필요하며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전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활용 될 수 있음.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학창작활동지원>, <사이버 문학광장> 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문예진흥기금과 민간자금과 매칭, 자부담 10%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특히 2013년 우수문예지발간지원금은 발간 총액에서 15%만 지원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한 재원분담률을 준수하였음.

[긍정적인 측면]

- <문학창작활동지원>사업에서 개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은 자부담 및 정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으로 전환하여 작가들이 창작에만 전념케 한 것은 적절함.

[미흡한 측면]

- <문학창작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의 경우에 기존의 문학관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또한 사업목적과 상이한 측면이 있음. 순수하게 작가의 창작활동에 집중한 사업이 아니고 공간운영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라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지역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함. <사이버문학광장>의 협력체계를 좀 더 다양화하고 주체들의 참여방식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부족함.

[발전 방안]

- <문학창작집필공간운영지원>은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된 문학관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작가집필공간만을 지원해야 함. <사이버문학광장>은 공공성을 지닌 문학창작 및 발표, 정보공유의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함. 따라서 자체기획 사업으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타 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꾀해야 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수혜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해 구성된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문학창작활동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문학창작집필공간운영지원>, <문학조사연구지원> 사업은 문학 책임심의위원들의 심의에 의해 선정되었으므로 적절함.
- <작고문인선집발간>사업은 공모절차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직접사업인 <사이버문학광장>운영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여 선정하고 있음. 대체로 문예진흥기금사업 보조금운용지침 준수 의무에 따르고 있으며 선정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문학집필공간지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집행 과정에서 선정된 4개의 사업 중에서 2건이 사업포기 또는 사업을 변경하였고 문학조사연구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총10건의 선정 대상 중에서 2건의 사업포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타남.

[긍정적인 측면]

- <문학창작활동지원> 사업의 취지는 유명 작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잠재력"이 있는 선정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차 심사 시 원고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음. 이에 대한 결과로 창작지원을 받은 작가들의 주요 문학상 수상 실적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문학창작집필공간운영지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학창작집필실 유지를 위해 공간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입주작가 대상 서비스 향상, 부대 문학행사 개최 등을 통해 시설운영 발전을 독려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재정자립도 여부로 지원대상을 결정하기보다는 작가들의 창작과 집필여건이 갖추어진 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함.
-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금을 공간 활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본 사업의 목적이 공간운영활성화인지 작가 창작지원인지 사업목적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문학관협회의 전국문학관 대상 ‘문학활성화사업’은 본 지원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발전 방안]

- <문학창작집필공간운영지원> 수혜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지자체 사업과 차별화를 꾀하기 바람. 문학조사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선정 후에 사업포기나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심의 당시에 불확실한 사업계획서는 걸러내는 심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 의지에 대해 판단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함. 책임심의위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심의방식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예술가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짐. 보조금 지급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방식을 지향하지만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은 사전에 예술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예술가 창작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방식으로의 변경은 적절함.

[미흡한 측면]

- 문학창작집필실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사업의 당초 의도와 다르게 재정자립이 어려운 창작공간들의 경상비 또는 사업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원조건과 기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공간지원을 통해 의도한 성과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우수문예지 발간사업의 경우에 단순히 지원건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문예지의 기준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문예지만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대체적으로 지원 수요에 대한 예측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학창작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에 비해 지원건수가 과다하고 문학조사연구지원은 신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신청건수가 저조함.

[긍정적인 측면]

- 문학창작지원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신청건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원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한 것은 적절함. 반면에 지원금을 포상금으로 전환하면서 소액 다건식의 나눠주기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함.

[미흡한 측면]

-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문학집배원 이용자, 창작공간 응모작품 수 등 수요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활용도를 판단하는 명확한 통계가 없음. 사이버문학창작공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수요예측이 필요함.
- 문학집필공간지원과 문학조사연구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포기와 사업변경이 발생하는 등 사업수요 예측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남.

[발견 방안]

- 신청건수가 저조하거나 단순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미집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학창작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점검하기 바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대상 만족도, 평균창작활동수,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을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의 2가지 요소인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에 대해 반영하는 것으로 3개의 결과지표가 지속발전과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양적, 질적 평가를 수행함.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평균창작활동수,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대상 만족도

- 정의 : 지원대상인 작가들이 사업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 산식 : PCSI 조사 방법 및 산식 적용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해당 단위사업 만족도점수)

- 평균창작활동수

- 정의 : 문학 분야 지원사업 당 평균창작활동수
- 산식 : $\sum \text{지원사업 전체 창작활동수} \div \text{지원사업 건수}$

- 주요문학상 수상 실적

- 정의: 3년 간(1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학창작기금 수상자의 '13년도 주요문학상 수상실적
- 산식 : 주요문학상(149개) 역대 지원대상자 수상실적 추출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2013년도 예술지원부 업무성과계획 및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각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및 관리를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 시행 이전에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객관성을 유지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사업만족도 경영실적평가 PCSI 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를 적용해 개선도 100점 만점 수준의 목표치 설정을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의욕적 목표설정에 따른 사업개선의 원동력이 마련됨.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고객만족도, 평균창작활동수는 지원사업 연간 모니터링 확대 계획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사업 컨설팅, 선정단체 간담회를 반영하여 경영실적평가 S등급을 목표로 설정함.

[긍정적인 측면]

-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과 결과적인 목표치 간의 연계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사업개선을 유도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지원금 지급이 100% 이루어지지 않음.
- 분기별 집행계획은 있으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4/4 분기에 집중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대부분 예산 집행이 전용된 증거가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지급 집행 완결된 사업의 경우 운용계획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별,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 미지급의 개선을 위한 연중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함.
- 선정된 사업에서 12월 중 사업 포기통보가 있을 때까지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미지급이 발생 할 경우 지원 변경이나 보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사업별,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 모니터링 하여야 함.
- 미지급은 지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안 된 경우가 되므로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모니터링이 필요함.
- 미지급이 생겼을 경우 문화 육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문학창작지원의 경우 포상금형식이므로 모니터링 없이 선정하고 있음.
- 문학 조사 연구지원의 경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연말에 포기할 때까지 독려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음.

[긍정적인 측면]

- 모니터링의 매뉴얼을 설정해놓고 있음.
- 전문가 평가와 같은 외부 모니터링으로 객관적 평가를 추구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추진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만이 모니터링을 하여 미지급된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제시가 없음.
- 모니터링 시기를 ‘상반기 1회’, ‘연중수시’로 하여 모니터링의 실행의 구체성이 떨어짐.
-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발전 방안]

- 문학조사 연구지원의 경우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자체 사업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함.
- 문제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 모니터링으로 얻은 문제해결 노력이 미흡하고, 사업에 대한 외부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를 알 수 없음.

[긍정적인 측면]

- 실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수렴과 분석 해결의 과정이 잘 이루어짐.
- 다양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문학창작지원’은 포상금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과 포상금의 성격이 다른데 창작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예 : 포상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 후 저작발간을 2차 지원하는 제도).
- 미지급된 ‘사이버문학광장’, ‘문학조사 연구지원’의 심층적인 문제점 도출과 해결 방안이 요구됨.

[발견 방안]

- 문학 창작지원의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면서 차후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함. 이는 지원금의 효율성 평가와 관련된다고 사료됨.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평균창작활동수는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주요문학상 수상실적이 미달됨.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평균창작활동수는 101.4%로 목표치를 달성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문학자료 축적 및 체계화가 개선과제 중 향수와 창작 중 창작에 중심을 둔 결과 지표이며, 주요문학상 수상 실적의 14건, 56% 달성은 문학의 본질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사이버문학광장의 운영과 향후 대응체계가 시대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와 체계에 따라 고민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려 노력하는 등 긍정적임.
- 문학콘텐츠생산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지원사업 체계가 고도화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이미지와 도록 등이 아닌 텍스트가 주종이고 문학자료의 특성이 큰 책이나 발간물들의 자료 리스트나 목록이 전무하여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벤치마킹 사업, 콘텐츠다양화, 지원사업체계고도화 등 각종 기획의 실천가능성과 수행능력의 배가가 요구되며, 현실적이면서도 지원의 가치가 상생이 가능하고, 향후 적용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함.

[발전 방안]

- 현재 문학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중심 기능을 염두에 두고 문학의 본래 목적이자 기능인 글쓰기와 창작산실이라는 명제에만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계 장르인 무용대본, 연극희곡, 음악작사 등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가교역할이나 협업을 통한 창작실천성을 배가하는 전략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 문학축제 등은 교육부와 지자체단체와 상의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요구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창작기반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이 다수 포진하였는가를 근거로 하였음.
- 관성에 의한 사업의 지속과 연속 사업이 많았고 손에 꼽을 만한 우수한 사례가 다소 찾아보기 어려움.
- 집필환경조성과 자료축적이 과연 문학의 정서와 맞는 것인지 동시대 사회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문제점을 알고 수정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타당해 보이며, 각 형태의 모니터링제도가 다양하고 분석과 발견, 참여시스템을 만든 것은 고무적임.
- 작고문인선집발간과 같은 중장기 사업의 지속이 눈에 띈.

[미흡한 측면]

- 6개 세부 사업 중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력과 문제발견이 늦어 실적이나 평가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고 타 문학 지원아이디어와 비슷하거나 차별화에 고민을 덜한 상태로 머물고 있어 책임심의위원의 조언과 사업방향성 전략의 다양화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조사연구지원의 집행률을 제고할 시뮬레이션 및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고, 늘어난 사업과 축소, 통폐합된 부서의 인력 재배치와 상급자의 관리 감독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등과 연계하는 민들레예술문학상 등의 필요성 확인과 동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요망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창작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등의 수행 적극성을 반영함.
- 3년간의 예산액 변화와 추이를 보면서 수행 적극성의 안착보다 가치와 적용의 상향변동의 우선순위가 높으며, 예산총액의 집행과 모니터링 통한 문제해결의 성과를 살펴봄.

[긍정적인 측면]

-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작업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고, 목표재설정과 사업재배치는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두고 볼 때 가치 있는 작업임.

[미흡한 측면]

- 노숙인 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등과의 연계 사업은 그 지원이 시설로 들어가 제대로 쓰이고 문학 활동의 본래취지를 달성하는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펀딩이 잘 이루어지고 그 시설의 활용과 수혜자가 긍정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문학창작활동수를 지수로 나타내는 계량지표 보다 다른 계량지표를 만들고 홍보를 병행하여 나가는 것이 좋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 등과 같이 민들레 예술문학상의 공개특강, 시화전 등의 결과를 자료로 남기고 데이터화하는 형식의 근거와 백서를 만들어 홍보와 실적 제출의 두 가지 목적으로 선례남기기가 필요하다고 봄.
- 지원사업관련 작가 풀을 공개하고 추가, 변경, 누락자 추후기재 등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문학창작활동지원은 너무나 중요한 지원이므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문학지원금 평가가 한계에 이를 정도로 다소 부진하고 신선하지 못한 한계를 지님.

[긍정적인 측면]

- 창작지원금 명목의 1천만원 집필여건 조성의 지원 폭이 타당함.
- 고민과 해결안을 문학적으로 평이하게 풀어내 이해를 높임으로서 해결책을 쉽게 찾아냄.

[미흡한 측면]

- 필수 자부담 10%의 조건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예지 발간 독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하기는 어려움.
- 수상실적은 지원과 창작의 활성화 효과를 알 수 없는 지표임.

[발전 방안]

- 작고문인 선집 지원발간의 경우 미발표나 비평이 새롭게 가해진 세월의 평가를 덧입힐 경우, 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 단순한 재발간의 의미를 벗어나는 아이디어 발표와 수립이 중요함.
- 2005년부터 누계를 실시한 사이버문학광장운영의 경우, 6000명 정도 가입에 머문다는 것은 실수요의 평가가 덜 된 부분이라 평가됨. 개인 블로그 하루 방문자수가 3500명을 넘는 문학 사이트들이 즐비함을 반대급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창작공간인 집필공간에 상근인력이 과연 필요한 지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문학조사연구지원이 이론적인 가장 합리적이고 지원의 근거에 합당한 것이라 판단됨.
- 선정건수가 10건은 유동적이지 못한 건수인지 부차적인 설명과 지원금액의 상관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지원금 배분만으로 문학창작능력 강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모니터링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공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아쉬움.
- 풀, 클라우드 펀딩 등의 다양한 용어정립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이름에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발전 방안]

- 문학지원의 방법은 다양함. 미디어와 연계하는 방안과 각종 문학 단체들과 연계하거나 각 단체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음. 다양한 방법과 긍정적 프로그램의 안착과 궁리가 필요함.
- 문서나 보고서, 실적자료 등의 공유가 사업의 긍정적 요소와 활동성을 알리는데 좋을 것임.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전략과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정립]

- 동 사업은 사업 추진전략과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지표 개발 및 설정은 사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린 결과인지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분명한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회피]

- 동 사업 중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사업은 지자체 문학관 지원 사업과 변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사업목적과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지므로 각 세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목적 및 전략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성과지표 검토]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원대상 만족도, 평균 창작 활동 수,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가운데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은 동 사업의 목적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산출지표로서 결과지표로의 재검토가 필요함. 고객만족도 역시 단순 수치에 근거한 판단으로 일관할 경우 실제 만족과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함.

□ 집행

[문학창작지원의 사후 관리 강화]

- 우선 문학창작 지원이 창작 독려를 위한 지원 성격인지, 우수작품에 대한 포상 성격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원 이후 관리 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산집행의 모니터링 강화]

- 자체적인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실제 어떤 문제가 제기 되었는지, 이후 처방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음. 모니터링 제도의 본래 의도를 분명히 이행하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한 문제와 이에 대한 처방내역을 명백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성과지표 편향 방지 노력 필요]

- 성과지표 가운데 문학작품 수상실적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사료됨. 이는 성과에 있어 계량 산출에 보다 민감한 성향 탓이기도 하나 바람직하지 못함. 성과지표에 대한 고른 인식으로 특정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며, 실적내역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되어야 함.

[102] 시각예술창작지원

- 동 사업은 시각예술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현장의 담론생산 여건을 개선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성과목표 역시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시공간 지원 및 시각예술행사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각예술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며 시각예술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 사업에서 사업 포기가 발생하는 것은 이 같은 성찰이 부족한 가운데 사업에 대한 목적의식이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증명함.
- 한편, 동 사업은 실제적인 세부사업 내용에 있어 새로운 담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집이 부족한 측면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등 창작 인프라에 대한 운영 및 사업지원과 시각예술 창작 담론생산을 위한 시각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 등으로써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각예술 분야가 수요에 비해 도외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성과와 구체적인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바, 사업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요망됨.
-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을 하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시각예술을 통해 실제로 인간의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자세가 요망됨.
- 무엇보다 담론생산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단순한 수사(修辭)로 그치지 않도록 시각예술 전시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열린 공간을 형성하여 활성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등 창작인프라에 대한 운영 및 사업지원과 시각예술창작 담론생산을 위한 시각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창작활동을 활성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01 ~ 2013.12,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600 백만원
- 사업규모

시각예술창작지원	1,600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1,000
▪ 시각예술행사지원	400
▪ 시각예술비평활성화	150

- 지원대상
 - －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32개처
 - － 시각예술행사지원: 6건
 - － 시각예술비평활성화: 19건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사업비 일부지원
 - － 자부담 총소요예산의 최소 10% 부담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시각예술창작지원		1,537	1,675	138	8.2
▪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1,000	1,025	25	2.3
▪ 시각예술행사지원	500	400	500	100	20
▪ 시각예술비평활성화		137	150	13	8.7
□ 세출예산비목		1,537	1,675	138	8.2
▪ 민간경상보조		1,537	1,675	138	8.2
계		1,573	1,675	138	8.2

□ 사업추진 절차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4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0	
	4-3 우수사례 평가	3	3	
전체 합계			100	83.80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시각예술행사 등에 대한 운영 및 사업지원과 담론생산을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조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설정함.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비평물 발간 지원 등 공공성에 기초한 생태계 조성 사업들은 시각예술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문제인식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방향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전년도 평가의 지적사항이었던 공간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공간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사용 명목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절함.

[미흡한 측면]

- 시각예술행사 지원의 경우에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동 사업에서 지원되는 전국단위 행사와의 차별성을 근거를 들어 제시해야 함.

[발전 방안]

-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예술지원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함. 국가 전반의 문화재정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문예진흥기금은 고갈에 이르러 기금 확충 문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임.
-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권기금과 공연예술분야 창작지원금 예산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시각예술에 대한 창작지원금 예산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

는 실정임. 문예진흥기금 운용과 더불어 장르 간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

- 시각 예술분야가 처한 현황을 진단하여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함.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시각예술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함(가령 신진 예술가 지원 후에 경력관리, 비평을 통한 발전, 국제적 발표기회 획득 및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 등).
- 개별 세부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과 생태계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지자체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이양하고 신진예술가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기초적인 기반조성과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식과 정책 개발 요구됨.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시각예술창작 및 발표 공간 운영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비평활성화 지원을 통해 예술 활동 거점을 확충하고 현장의 담론생산 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기반 조성 및 담론생산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각예술창작을 활성화 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표임.
- 이는 기관의 3대 전략 목표인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라는 기관의 목표에 부합하며 14대 전략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전략에도 부합함.
- 따라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인과관계는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발표 작품 수, 창작비평 건수 및 관객의 확대, 고객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지표가 성과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행사지원을 통해 창작의 거점공간을 만들고 특히 신규 사업인 비평물 발간사업은 시각예술분야 새로운 담론생산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은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의 목적이 시각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담론생산을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방향성을 근간에 두고 공간, 행사, 비평 등의 활동을 일관된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판단되며 사업지원 내용과 방식은 대체로 적절함.

[미흡한 측면]

- 새로운 예술에 대한 담론 생산을 위해 전국단위 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구체적으로 시각예술 행사 중에서 이러한 실험성과 담론 생산성을 지닌 축제나 행사개최 실적은 미미한 상황임. 행사 성격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함.

[발전 방안]

-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목적간의 연계구조는 전략적 체계 속에서 확립되어 있으나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함.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목표를 이루기까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추려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하위 전략체계가 상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고 있지 못함. 예술가 또는 공간에 직접 지원되는 창작활성화 지원방식과 더불어 창작 기반조성을 위한 비평, 담론생산, 국제교류 등 세부사업 보완이 요구됨.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 또한 동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제1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내용에 부합함.
- 더불어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관한 조항과도 부합하여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로서 타당함.
-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기초예술의 특성상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재정지원은 적절하고 타당함.
- 특히 시각예술 분야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일부 작가들이나 상업화량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예술가나 비평가, 비영리공간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동하기 어려운 취약한 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어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긍정적인 측면]

- 실험성이 강한 신진작가들의 창작활동이나 담론생산을 위한 비평집 발간 등은 특히 시장논리에 취약한 대표적 영역임. 기존의 연구 및 조사사업을 비평분야로 국한시켜 지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급변하는 국제 시각예술의 흐름에서 살펴 볼 때 실험적인 예술의 지속적인 발표, 이를 통한 담론생산, 비평을 통한 예술 창작 활성화 등의 선순환구조는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주도해 내는 매우 중요한 공공적인 영역임.

[미흡한 측면]

- 기반조성을 위한 창작발표, 공간운영, 행사지원 등의 사업 외에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술가 창작활동 직접 지원 사업이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지역기반의 행사지원 사업의 경우에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지자체 매칭비율을 확대하거나 지자체사업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함.

[발전 방안]

- 자생력이 취약한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순수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공연예술 등 타 장르와 비교해 볼 때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 타 장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 확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기 바람.
- <시각예술행사지원>사업의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행사성, 축제성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임.
- 새로운 담론생산과 실험예술의 지속적 발표를 위한 전시공간지원사업의 수혜자 자격 및 기준에 대한 방향성 제고가 필요함. 사립미술관을 지원할 경우에 타 미술관과 차별화되는 변별력을 갖춘 전시 또는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에도 각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민간재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그러나 동 사업은 전국 단위의 등록 사립미술관 및 대안공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당지역 소재의 전시 공간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이나 문화재단 사업과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지자체나 타 기관의 사업이 주로 공간운영과 작가 레지던시 지원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우수기획전시 콘텐츠 생산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음. 따라서 여타의 사업과 비교해 볼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과는 목적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비평집 발간사업> 지원의 경우에는 민간 및 타 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비상업적인 영역이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예술의 사회적,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며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긍정적인 측면]

- 창작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기획전의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우수기획자의 확보가 어려워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중앙의 우수 독립큐레이터 소개 및 전시내용 컨설팅 수행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우수 전시콘텐츠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타 기관 및 재단의 사업과 차별화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비평 발간물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열악한 국내 비평 환경을 감안할 때 공공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서 창작활동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임.

[미흡한 측면]

- 단순히 발간에서 끝나지 않고 담론 생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발간지원사업의 성과를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나 전공자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시각예술 행사지원> 사업의 경우에 관광축제와 차별화되는 예술성이 높은 행사

위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아직 시행 2년차 사업으로서 사업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움. 회원들이 기획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역량 있는 기획자가 참석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기준 역시 담론생산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음. 보다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발전 방안]

- 시각예술창작지원 분야의 대표적인 세부사업인 공간지원의 경우에 수년간 연속적으로 특정 공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물론 특정 공간의 콘텐츠 생산 능력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본래 사업의 취지인 새로운 예술담론을 이끌어가는 실험성 높은 작품의 인큐베이팅이나 작가 담론에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일괄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세부사업은 총 3개이며 사업수혜 대상은 작가, 사립미술관 또는 대안 공간 운영자, 큐레이터, 연구자, 유관단체 및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동 사업 간의 사업 수혜대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수혜 단체 혹은 작가가 지자체나 재단 등 타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한 공간에서 레지던시 사업이나 시각예술행사 지원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획전을 개최하기 위해 공간 운영자가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작가가 개별적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사업과 지자체 또는 재단의 레지던시 사업 간의 수혜 대상자 중복 선정을 피하기 위해 국가지원시스템의 전국공유와 타 기관들과 지원 대상 선정 명단을 공유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 또한 중복사항이 발생했을 때 컨설팅을 통해 예산 조정을 권고하고 다음 심의 시에 신청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됨.

[미흡한 측면]

- 2년간 ‘공간운영에 사용경비’로 장기 지원받는 동 사업 수혜단체가 타 지원기관에 개별적인 단일 작품으로 추가 지원받는 사례 등 다양한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공간운영이나 행사의 경우에 지역에서 수행하는 지역협력형 사업 등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음.
- 이 같은 사례는 가능성이 있는 예술가나 작품에 집중 지원하는 선택적 지원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과 내용이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여러 기관에서 지원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수혜자 선정대상에 있어서 중복 선정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시각예술창작지원 사업의 핵심 사업인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사업의 성과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현재 보고된 심층성과보고서는 수혜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공간 운영에 대한 2년간의 성과만을 분석하고 있으나 그간에 다년간 진행되었던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함.
- 지역재단의 역할과 지역문예진흥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창작역량 활성화 사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됨.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 사업 중에서 시각예술에 국한한 고유한 사업 영역이므로 타 장르 또는 타 지원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며 사업추진방식도 창작지원, 공간운영지원, 행사지원, 비평 발간물 지원 등 상이함. 따라서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적절하게 추진되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고 장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유사사업간 통합 추진이 어려움.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시각예술비평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에 공모를 통해 확보된 원고에 한해 발간물 편찬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출판물에 대한 확산과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담론생산과 비평 활성화차원에서 보면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 따라서 발간된 비평서적의 보급과 확산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 또한 비평서적을 출판함과 동시에 비평가 지원 등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비평담론의 장 형성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기획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목적은 작가, 기획자, 비평가를 지원하여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시각예술분야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임. 이러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사업의 주된 내용은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등 창작인프라에 대한 운영 및 사업지원과 시각예술창작 담론생산을 위한 시각예술 비평활성화 지원 등으로써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동 사업은 공간지원, 행사지원, 비평지 발간지원 등의 사업지원방식을 피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작가, 기획자, 비평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한다는 목표를 추구함.
- 이러한 지원방식은 기성작가나 작품에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실험성이 강한 작품과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에 지원함으로써 토대와 기반을 구축한다는 간접지원의 방식이며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정책의 방침과 원칙에도 부합함.
- 특히 생태계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기반 중에서 자생성이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측면에서 비평잡지 지원이나 비평집 발간의 경우 공공지원의 근거나 충분하고 지원의 논리가 분명함.

[미흡한 측면]

- 동 사업의 목표인 시각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작가, 기획자, 비평가 지원을 위한 사업구성 체계와 방향 등은 적절함. 반면에 실제적인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담론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부족함.
- 새로운 예술과 담론을 생산하는 작가지원방식이 굳이 공간지원과 행사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적으로 격변하는 미술시장의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시각예술 분야가 수요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와 구체적인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사업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시각예술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예술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작가의 역량 못지않게 비평 및 큐레이터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개발이 요구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모두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문예진흥기금과 민간자금과 매칭, 자부담 10%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공간지원과 행사지원은 총사업비의 30~50% 규모에서 기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개인 비평집 발간사업의 경우에 지원건당 700만원에서 1,50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경향이 있음. 자부담비율을 확대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적정히 조정하여 발간 후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발전 방안]

- 행사지원사업의 경우에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지역 매칭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시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년간 지원된 기존 공간의 경우에는 점차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고 새로운 공간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각예술비평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비평집 발간 못지않게 발간된 비평집의 확산과 배포를 통한 담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수혜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해 공모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음. 대체로 문예진흥기금사업 보조금운용지침 준수 의무에 따르고 있으며 선정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공간지원사업과 행사지원 사업의 경우에 당초 지원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수혜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일부 이루어짐.

[긍정적인 측면]

- 동 사업은 3개 세부사업 모두 시각예술분야 전문성을 지닌 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사업주체 대상이 선정되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음. 다년간 사업의 경우에 전년도 수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현장평가 결과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두어 차등 지원한 것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비영리 전시공간과 대안공간 등의 실험성 있는 공간들에서 담론을 주도하고 기획되는 작품들에 대한 전시 지원의도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당초의 의도와 달리 단지 오래된 대안공간이나 명성이 있는 사립미술관 등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수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수혜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이 비영리공간이나 재정이 열악한 사립미술관의 공간운영활성화인지 작가와 전시 등의 창작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간지원인지 사업목적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행사지원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지자체 사업과 차별화를 꾀하기 바람. 비평집발간사업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트나 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발간집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선정 후에 사업포기나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심의 당시에 불확실한 사업계획서는 걸러내는 심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 의지에 대해 판단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함.
- 책임심의위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심의방식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 심의위원의 풀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예술가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짐. 보조금 지급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시각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전시기획 컨설팅 사업과 예술행사 지원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과 조건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은 긍정적임. 비평집 발간의 경우에 신규 사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원고확보가 되어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행사지원의 경우에 경쟁력 있는 담론생산과 우수 전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단순히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론생산의 명확한 사례를 제시하여 공모의 조건으로 제시하기 바람.

[발전 방안]

- 행사지원사업과 비평지발간사업의 경우에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지원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도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바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시각예술창작지원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적절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짐. 비평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임.

[긍정적인 측면]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년간 지원실적을 감안한 적절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음. 비평활성화사업의 경우 타 세부사업에 비해 신청건수가 저조하지만 신규사업임을 감안하면 적절하게 수요예측이 이루어짐.

[미흡한 측면]

- 공간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발전 방안]

- 일부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미집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각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점검하기 바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등급 산정 근거]

- 사업추진을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창작활성화를 기하고자하는 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창작작품 수 및 참여관객 수는 창작 및 전시공간, 시각예술행사, 시각예술 비평 영역의 활성화의 창작과 향수적 측면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임.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등급 산정 근거]

- 모두가 계량화된 정량적 지표들로서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 지표임.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등급 산정 근거]

- 고객만족도의 경우, 기획재정부 실시 결과를 반영하였고, 단위사업별로 명확한 측정방식에 의거 신뢰성 있게 실시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등급 산정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사차원에서 평가 담당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전 목표치를 설정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등급 산정 근거]

- 기관전체 평가 수준을 '우수' 등급을 목표로 전년대비 1등급 상향 설정한 바를 준용함.

[미흡한 측면]

- 예산 증감에 따라 지표의 달성량이 점증될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행과 같이 최근 2-3년간의 추이를 참고로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110% 정도의 의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등급 산정 근거]

- 달성도의 점증 향상을 통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설정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지원금이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중도포기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98.5%를 집행하여 완전 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분기별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긍정적인 측면]

- 예산 전용과 같은 용도 변경이 없고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원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적절하게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미흡한 측면]

-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분석을 하여 차후 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원금 지급이 전반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면 분기별 지급을 미리 실행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

[발전 방안]

- 연중 지원 지급현황을 분석하여 지원금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함.
- 지원금 포기가 소액지급에 따른 사업 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연중 분기별 예산계획과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 지원금 사용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액 측정에 활용하여야 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이행, 효율성, 개선과제 등 목표와 결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 평가단에 의한 평가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제도 개선과 피드백의 적용 실태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미지급의 경우 회계연도 하반기까지 이르기 전에 수행의 가능성을 독려하여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여야 함.

[긍정적인 측면]

- 지급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항목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 모니터링은 내·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추구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앞의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와 평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
-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여러 번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 일자가 복수로 기재 되지 않은 점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발전 방안]

- 모니터링의 복수화로 실행과정의 적절성을 분석하여야 함.
- 모니터링 분석으로 얻은 결과를 이후 제도적 개선 실행에 적용방법이 필요함.
- 사업 실시 모니터링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되므로 그들은 문제점을 잘 찾아낼 것으로 보임.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설정에 적극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새로운 담론생산을 위한 동기 부여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전문기획자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전문기획자의 선별방법이 필요함.
- 또한 전문인의 구성 분포가 적을 경우 동일인들의 중복 참여를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함.
- 전시공간 지원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동일공간에서 이루어질지라도 두 개의 사업이 공간지원이나 작가지원으로 분리되어 다른 사업일 수 있는데 지원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고급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연구가 필요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추진에서 중복수혜, 장기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잘 대비하고 있음.
- 한국적 담론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작품의 제작 수자나 관람객의 수가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경쟁력 있는 담론 생산을 위해서 사업의 평가방법과 사업 결과 분석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사업 추진에서 지원금 미지급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차후 방지를 위한 대비가 없음.

[발전 방안]

- 지원금 수혜자들의 유형과 그들로 부터 돌출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이 필요함.
- 지원금 신청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그들의 활동에 대비하여 지원금의 필요성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지원금 신청 미술관이나 단체의 개인의 활동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고객만족도(99.1%)를 제외한 평균발표작품수(102.2%), 평균관람객수 (121.7%) 모두 목표치를 달성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전시담론의 생산성을 극대화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8개의 시각행사지원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정도를 검토하였고, 비평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성과를 중심으로 산정함.

[긍정적인 측면]

- 고객만족도를 높인 점이 인정되고, 전년대비 각종 만족도 수치가 증가하였으며, 개방형공모 지원선정이 자리를 잡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작고세대 발굴보다는 생존작가의 발굴과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발전 방안]

- 비평제안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단가를 300만원대로 낮추고 실적의 규정을 완화시킨다면 다양하고도 즉각적인 시대상과 미적 가치를 담은 자료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국민예술향수권 달성률이 높은 것을 응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생활화나 공공기관의 특징으로 삼을 대표 사례발굴이 시급함.
- 창작공간 등 지원사업은 사진이나 도록 등으로 심사를 하거나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 각종 공간 등의 사업은 CCTV 도입을 권유하고, 향유권자 누계나 실사 점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시각예술행사지원 우수답론 생산 중심의 전시콘텐츠 개발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시각분야지원사업의 새로운 물꼬와 돌파구를 제공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
- 2012년도의 각종 지적과 지표개선의 이행과 더불어 2014년의 새로운 지표설정과 목표지점 탐색은 신선한 노력의 결과로 보였고,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긍정적인 측면]

- 시각예술의 사례수 99건은 타 부서의 사례 수에 비하여 월등하고 높은 수적 우위를 보임.
- PCSI의 장르별 수치(87.4점)는 평균(88.2점)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례수(99건)를 감안하면 긍정적임.
- 시각예술창작전시공간지원의 87.6점에 요소만족과 사회적 만족이 뒤떨어짐에도 전반적 만족이 높음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시각예술의 창작지원사업의 목표관객수를 어떻게 산정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상승곡선을 그리는지 이에 대한 기술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음.
- 전시공간운영의 집중과 선택방식전환에서 아르코미술관이나 융·복합 예술다양성 부서와의 협의체나 공동모색 프로젝트나 기획이 없어 아쉬움.

[발전 방안]

- 아르코미술관과 융합예술다양성분야의 시각이 너무나 비슷하고 용어의 혼돈을 가져옴. 우선 용어의 정립과 그 용어가 지닌 함의를 예술가들과 젊은 향수인들 특히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며 각종 문명의 이기와 SNS등과 모바일 환경

의 급변으로 시각과 융합다양성의 정체성이 날로 바뀌어가는 추세를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과 미술, 시각, 예술가의 집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각 기관과 부서가 어떤 의견과 진보적 개념정리와 실천적 행정을 내어 놓을 것인지 내부적인 T/F를 꾸리는 것도 좋을 듯함.
- 시각분야의 지원과 대안공간 지원 우수작품이나 설치 가능한 우수작품은 아르코 미술관을 통한 일반인 관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14대 전략과제를 상징하고 목표극대화를 꾀하였고, 전국 32개 미술관, 8개 시각 예술행사 지원 등의 구체적인 형평성과 모든 시설을 하나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고 차등화 하지 않으려는 애정이 눈에 띈.
- 사업분야 중 낙후된 시각분야비평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임.

[긍정적인 측면]

- 미션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담겨 있으며, 고객만족도가 상향추세에 있음.

[미흡한 측면]

-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과 구체안이 설명되지 않음.
- 지방이전에 따른 신 성장 동력이 어떻게 확보되고, 나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국제교류역량강화와 국제교류협력체제는 같은 범주로 파악하여 국제교류 하나로 묶는 간략화가 필요함.

[발견 방안]

- 국제교류관련 사업의 중심 추진 전략을 하나로 묶고 강력한 가치를 표방하는 형식은 단순화와 강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문화향수활동 활성화는 추상적이고 구체적 방향이 미흡한 바, 이를 단순화 하고 사업의 실질 효과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타이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라는 슬로건에 대한 설명과 구체전략이 나타나야 하며,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서 전략이 공유되는 등 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사업성과에 따라 총 사업비의 30~50% 규모의 기금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자부담 10% 요구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점은 우수사례로 꼽힘.
- 30개 내의 공간지원 중 재정 자립도가 약한 대안공간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좋으며, 시각적인 성과에 대비한 융·복합과의 융합전략 추진가능성을 살펴보았음.

[긍정적인 측면]

- 지역축제 성격의 행사를 제외한 다양한 행사인 대형주제 기획전에 지원을 한 것은 높이 인정됨. 또한 관광기금 통한 지역축제지원을 배제한 것은 긍정적인 시도이며, 기금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재정자립도를 든 것은 좋은 선례임.

[미흡한 측면]

- 시각예술 비평 활성화의 경우 선정건수 19건의 건수 지원은 어떤 함의를 갖는가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며, 비평 활성화 지원건당 지원비가 700-1500만원의 경우 너무 높은 비용지급으로 판단됨.

[발전 방안]

- 기금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재정자립도를 시행 것은 좋은 케이스이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데이터를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 필요가 있음.
- 비평 활성화 지원건당 지원비는 700-1500만원의 경우 너무 높은 비용지급으로 판단되며 300만원이상의 지원으로 다양하고 폭 넓은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우선 지원자가 많고 널리 지원할 방안은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와 지속적인 지원층을 넓히는 계기가 됨.
- 발간을 위한 원고확보의 존재유무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함. 이미 원고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단행본이나 지원 장려 실적용으로 지원금의 용도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나 지원금을 받고 비평에 착수하려는 신선한 의도와는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작고1세대 평론가 비평앤솔로지 발간으로 미술비평사의 핵심기록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인정됨. 생존작가 발굴에 이은 나머지 후속순서는 신진작가발굴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상당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알 수 있음.
- 경쟁력 있는 시각예술 담론 개발과 생산노력은 크라우드 펀딩 연계로만 출구를 찾으려는 안이한 발상을 벗어날 필요가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지원대상 단체에 전문 큐레이터가 반드시 참여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며, 지역 미술관 역량을 강화하는 임무를 시각지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큰 기능을 보이는 긍정적인 가치임. 전시공간 운영의 집중과 선택방식 전환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시각예술창작 지원의 경우 지원컨설팅 전시기획 대상미술관이 광주와 고흥에 밀집한 나주인근의 지역성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성 담론 생산위주의 우수기획전시라 함은 한국성이라는 담론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방대하고 추상적이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2014년부터 지원대상 단체에 전문 큐레이터가 반드시 참여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어떤 능력이나 특수한 응집력을 요구하는지 상세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널리 알리거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인재풀과 흥미로운 홍보방안이 필요함.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목적의 분명한 이해]

- 동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시각예술행사가 가져야 할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음. 이는 지원대상 행사가 시각예술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 외에 다른 차별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각예술이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창작성이 도출될 수 있는가에 지원의 목적이 맞춰져야 할 것임.
- 지원대상은 시각예술이라는 예술 속성이 아니라 시각예술을 통해 표현되는 작가의 의도와 창의성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직접지원의 강화]

- 동 사업은 시각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창작발표, 공간운영, 행사 지원 등 간접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줌.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한 직접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도전적인 목표설정 요구]

- 사업목표 설정은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얼마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하지만, 동 사업의 목표는 최근 2~3년간 성과추이를 바탕으로 전년대비 110%라는 기계적인 목표설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욕적인 목표'라는 수사까지 더하여 혼란을 주고 있음.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계적인 목표설정을 지양하고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한 보다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필요로 함.

□ 집행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사업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담당자의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함.

[실질적인 결과지표의 개발]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작품 제작 수 및 관람객 수로 이루어져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닌 관계로 경쟁력 있는 담론을 생산해내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평가방법과 사업 결과분석을 객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성과목표산정 및 관리의 투명화]

- 성과를 단순한 산출지표에 의존하고 있어 성과 목표 산정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과목표 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한 과거 실적 관리를 병행하여 성과에 대한 심층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사업의 지역적 편재 극복]

- 지원 컨설팅 대상 미술관이 모두 호남지역으로 지역적 편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 지역성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103] 공연예술창작지원

- 동 사업은 공연예술 관련 국가 재정지원이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공연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 됨.
- 동 사업은 공연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 비평활성화 등의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문제인식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제시되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세부사업의 적절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목적이 상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편, 동 사업은 수요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수혜로 인해 직·간접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은 편임. 그러나 사업수혜자 선정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음은 사업수혜자 선정에 공연예술과 무관한 외부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여기에 모니터링의 실시마저 미흡한 상황은 동 사업에 대한 수행 의지를 짐작케 함.
- 지원 사업은 사업 속성상 지원 내역 이상으로 지원 이후 관리가 중요함. 이런 관점에서 동 사업은 지원 이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공연예술과 무관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이 좌우될 위험을 막기 위해 지원 이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기 바람.
- 아울러, 공연은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동 사업 운영을 통해 얼마큼의 공연예술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보다는 만들어진 공연들이 얼마나 관객 및 일반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민간예술가(단체)를 대상으로 공연물 제작에 대한 지원(직접 지원)¹⁾과 공연장 및 담론장 등 창작기반 지원(간접지원)²⁾을 통해 창작을 활성화하고, 국의 문화예술향유 접근기회 간접 증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74억원 (민간경상보조 70억 기준/운영비 4억 별도)

* 기 투자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

- 사업규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액	지원건수	지원결정액	건당평균지원액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2,350	63	2,350	37
공연예술행사지원	3,250	33	3,250	98
공연예술창작발표 공간지원	1,100	23	1,100	47
공연예술비평 활성화사업지원	300	28	254	9
합계	7,000	147	6,954	47

-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
- 지원형태 : 민간보조 (공모지원)
- 지원조건 : 사업별 차등지원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1) 해당사업 : 공연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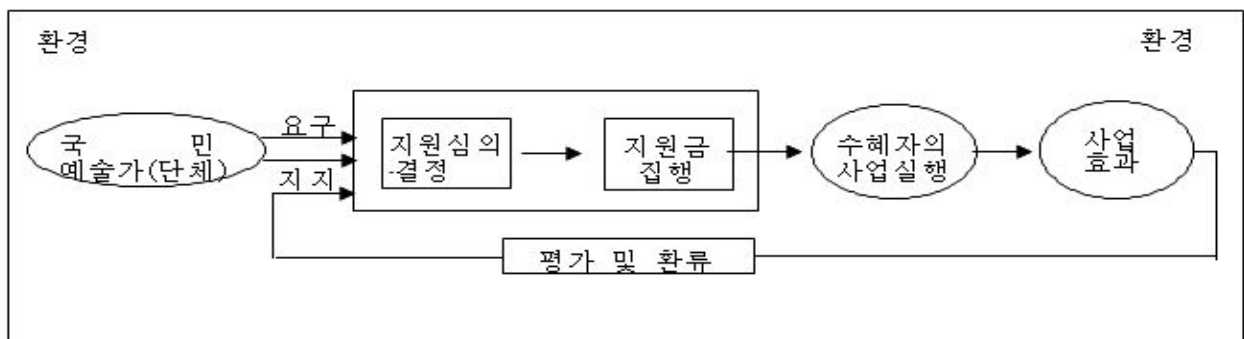
2) 해당사업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 공연예술창작기금	2,250	2,476	-	사업폐지	
▪ 공연예술행사	4,099	3,422	6,100	2,678	78.3
▪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2,630	1,100	1,100	0	0
▪ 공연예술비평활성화	508	243	340	97	39.9
▪ 기초공연예술활성화			10,800	(신규)	
▪ 공연연습공간조성및운영			10,000	(신규)	
▪ 시민참여형프로젝트			500	(신규)	
▪ 창작뮤지컬육성지원			5,000	(신규)	
▪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5,000	(신규)	
▪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1,580	(신규)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2,779	(신규)	
합계	9,499	7,254	43,213	2,775	595.7
□ 세출예산비목					
▪ 민간경상보조	9,499	7,254	32,754		
▪ 일반수용비	-	284	3,952	10,470	1,391.5
▪ 국내여비	-	131	11	▲120	▲8.4
▪ 사업추진비	-	3	3	0	
▪ 기타직보수	-	-	792	(순증)	
▪ 공공요금및제세	-	-	396	(순증)	
▪ 임차료	-	-	5,100	(순증)	
▪ 시설장비유지비	-	-	60	(순증)	
▪ 연금지급금	-	-	145	(순증)	

□ 사업추진 절차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4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9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9	
	4-3 우수사례 평가	3	2	
전체 합계			100	73.00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공연예술 민간분야 창작지원을 통한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공연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비평활성화 등의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명확한 문제인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긍정적인 측면]

- 전년도 평가의 지적사항이었던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취약장르에 대한 균형지원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분야별 균등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절함.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행사 지원의 경우에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동 사업에서 지원되는 전국단위 행사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해야 함. 또한 여전히 특정 장르에 지원이 집중되어 장르 간 지원금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

[발견 방안]

- 문예진흥기금의 확충 문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분야 창작지원금 예산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예산 규모는 확대 된 반면에 분야 간, 장르 간 지원금의 불균형 문제, 시장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순수예술창작 작품 제작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한편 공연예술창작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국고사업의 이관으로 인해 향후 사업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공연예술분야가 처한 현황을 진단하여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함.
- 중·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공연예술 생태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함.
- 세부사업의 지원이 별도의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세부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과 생태계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특히 기초예술의 창작지원과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이양함이 바람직함.
- 타 기관이나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실험성, 수월성, 공공성을 지닌 작품들에 대한 지원과 신진예술가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기초적인 기반조성과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식과 정책 개발 요구됨.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공연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등의 직접지원과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등의 담론생산 간접지원을 통해 공연예술분야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외 문화예술향유 접근기회를 증대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
- 이는 기관의 3대 전략 목표인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라는 기관의 목표에 부합하며 명확한 인과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대 전략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전략에도 부합함. 예술가와 행사 또는 공간에 직접 지원되는 창작활성화 지원방식과 창작 기반조성을 위한 비평, 담론생산, 국제교류 등 세부사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인과관계는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공연예술지원사업의 목적은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의 공연물 제작지원 및 창작기반(공간, 매체 등의 담론장)지원을 통해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이는 관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다는 관객개발의 문제를 제기한 문제인식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목적간의 연계구조는 전략적 체계 속에서 확립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및 사업 간의 연계성이 모호함. 특히 관객개발 및 국민공연예술 향유권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사업내용이 부재함.

[발전 방안]

- 성과목표,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목표를 이루기까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추려 노력하고 성과목표에서 제기된 국민 문화향수권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사업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 또한 동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제1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내용에 부합함.
- 더불어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관한 조항과도 부합하여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로서 타당함.
-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기초예술의 특성상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재정지원은 적절하고 타당함.

[긍정적인 측면]

- 문예진흥기금은 공연예술분야의 공공 재정지원의 대부분이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 및 국공립 시설 건립에 쓰이는 상황에서 민간공연예술단체와 민간공연예술 작품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액 민간 공연예술단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예술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기금이 라 할 수 있음 특히 순수공연예술의 경우에 공공재원 투입을 통해 단체존속 및 창작활동 유지가 필요하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은 타당 하고 필요함.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의 경우에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임. 기 제시된 기준인 ‘지역 간 교류 혹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연예술 행사와 그 외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 등에 관한 기준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공연예술 분야 중에서도 자생력이 취약한 순수예술과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비인기 장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임. 공연예술 장르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발전 방안]

-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공연제작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순수 기초예술의 작품제작을 위한 창작지원금의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함.
- 비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술행사지원사업의 경우에 점차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재원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모든 장르별로 협회단위의 행사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하모니카 페스티벌의 경우 타 행사에 비해 장르별 대표성이 떨어진 것으로 사료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을 통하여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타 기관이나 지자체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사업목적이 구분되어 있음.
- 정부에서도 공연예술분야 창작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국립 예술단체 및 시설 건립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공립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동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명확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공연예술분야의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에 대한 운영지원과 출판 및 세미나 등의 비평 활성화 지원은 열악한 국내 비평 환경을 감안할 때 공공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서 창작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임.
- 또한 비평 활동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결과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전문지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해당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게 제시한 점은 적절하고 타당함.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 행사지원>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행사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예술의 새로운 담론 형성인지 국민들의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불분명함. 현 기준으로는 최소 3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전국규모 행사 위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국제성, 공공성, 실험성, 수월성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분명한 사업목적의 설정이 요구됨.

[발전 방안]

-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함.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기보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정과 공연예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순수예술 창작물에 대한 작품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지원, 담론형성을 위한 비평활성화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과 시장 경쟁력이 없는 장르의 우선지원 등이 필요함.
- 각 세부사업별로 지원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방식이 개편되기 바람.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세부사업은 총 4개이며 사업수혜 대상은 예술가, 민간예술단체, 공연시설 운영자, 기획자, 연구자 및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동 사업 간의 사업 수혜대상의 중복 및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음.
- 타 기관 또는 지자체 수행사업과 비교하여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전국 단위 예술인과, 국민이 사업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사업과 차별화를 이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의 진흥을 통한 창작활성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우수한 예술창작 활동을 견인해 내고, 지역(지자체)은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등 향수권 신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수혜대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공정적인 측면]

-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은 실연심사를 통해 이미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단체를 선별, 지원의 효과를 높임. 단순한 양적 창작물 증대가 아닌 우수한 창작물 제작 가능성을 높이고 관객 유인효과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
-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은 타 기관이나 지자체와의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사업수혜 대상이 명확히 구분됨. 또한 분야별로 지원됨으로써 소외장르(무용,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 토대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의 경우에 무료입장이 가능한 대규모 야외행사의 경우 지자체 행사 또는 타 기관의 행사와도 중복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주체의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발견 방안]

-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수혜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4개 세부사업은 각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며, 사업추진방식도 창작지원, 행사지원, 창작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 비평연구활성화 지원 등 상이함.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전문성에 의해 적절하게 추진됨.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수행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방식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적절함.

[긍정적인 측면]

-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은 기금지원의 파급효과가 전국규모의 예술창작거점 활성화에 사용되도록 하는 공간을 사업수행 주체로 한정함. 창작 및 발표가 가능한 예술전용공간을 운영하는 예술인 및 단체 중에서 공공영역이나 기업에서 운영되는 공간을 제외함으로써 동 사업의 수행 주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당위성과 기준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행사지원> 의 경우에 공모사업, 비공모사업의 단체 선정기준이 모호함. 비공모사업의 경우에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각 행사별 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미흡함.
- 동일한 사업수행 주체의 중복지원 및 수혜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는 건수에 대한 제한 기준만을 두고 있으나 지원금 규모, 다년간 연속지원 기준 등이 미흡함.

[발전 방안]

-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에서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심의 규정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선정단체의 자격기준을 선정하기 바람. 비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권위 있는 행사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상징성과 대표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목적은 예술가(단체)의 공연예술창작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민문화에 술향유 기회를 제고하는 것임. 공연예술창작지원 분야의 세부사업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행사지원을 통한 창작역량 강화, 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을 통한 창작활성화 기반 마련, 비평 및 연구 활성화를 통한 담론 형성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순환적인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구성이 적절함. 공연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품에 대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강화 사업도 추진함. 이런 측면에서 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 및 비평지 발간 지원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 개별적인 성과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연예술분야 우수 창작품과 예술 공간사업의 협업을 통해 사업 간 교류 및 협업을 유도. 창작역량의 제고, 네트워크 형성 등 창작·교류·확산을 위해 컨설팅과 사업지원을 이끌어 낸 점이 돋보임.
- ‘13년도 총 9개 공간에서 14작품이 협업 추진하고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 증진지원’ 사업 등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분야별 네트워크 형성한 점이 긍정적임(사업간 연계,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동일 산업간 연계 등의 실적).

[미흡한 측면]

- 세부사업 내용의 구성은 적절하나 세부사업의 목적이 상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함. 특히 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얻고자하는 사업의 효과성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발전 방안]

- 공연예술은 장르와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각 장르별 예술현장의 환경이나 생태계 기반도 다양하여 장르별로 세심한 지원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타 예술분야보다 지원금 예산이 크지만 그만큼 지원해야 할 대상도 방대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분야임.
- 따라서 형평성, 공공성, 효율성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함. 공공 지원이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순수예술, 기초, 소외장르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며 장르별 균형 있는 지원금 배분기준이 시급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대부분의 사업들은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인 문예진흥기금과 민간자금과 매칭, 자부담 10%이상을 준수하고 있으나 공연예술행사지원의 경우에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긍정적인 측면]

- 문화예술진흥기금 창작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창작관련 사업비(공연물 제작 등) 지원에 국한하고 있으며, 단체 및 공간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 반면에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은 단체 운영비 및 공간 운영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각 공간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공간운영 방식이 가능하여 우수사례 등이 발생한 점은 긍정적임. 다년간 지원사업이므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차등 지원토록 한 점은 적절함.

[미흡한 측면]

-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 경상비 지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구축이 마련되어야 함. 점차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평가기준에서 자부담 노력에 대한 지표를 마련.

[발전 방안]

- 자생력이 취약한 민간공연예술 단체와 공간에 재원분담의 비중을 갑자기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다년간 사업지원을 통해 수년간 지원을 받은 단체나 공간에 대해서는 점차 자부담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함.
- 또한 예술행사 지원의 경우에는 자부담 노력 여하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보하여 자부담 비율의 확대를 유도함이 바람직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수혜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해 구성된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공연예술 책임심의위원들의 심의에 의해 선정되었으므로 적절함.

[긍정적인 측면]

- 공간 사업의 경우 2개년 연속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를 재결정하는 등의 선정방식 도입함. 차등지원 폭 확대를 통한 평가의 변별력 확보 및 개별 사업 간 경쟁력을 증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고 전년도 평가결과를 환류한 선정심의 및 지원대상 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됨.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의 경우 연례행사로 지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들이 있어 심의기준과 사업수행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함.

[발전 방안]

- 선정 후에 사업포기나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심의 당시에 불확실한 사업계획서는 걸러내는 심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 의지에 대해 판단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함. 모니터링과 현장평가까지 병행해야 하는 책임심의위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심의방식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예술가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짐.
- 사업 운영 시,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짐. 공간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실제공연을 심사하여 우수한 공연에 대한 사후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임.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여 사업수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간의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한 성과를 제고한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중에서 비공모사업의 경우에 지원의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일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비공모사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바람.

[발전 방안]

-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작, 유통, 향유 등의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해야 함. 공연예술분야는 장르별로 창작활동이 매우 상이하므로 일괄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장르별 맞춤형 지원정책의 개발이 요구됨.
- 예술가 개인과 예술단체의 지원체계도 상이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 바라며, 공연예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 및 스태프에 대한 지원방식도 개발되어야 함.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공연예술창작지원의 경우에 지원신청대비 선정 건수를 보면 해마다 약 20% 내외를 유지하며 그 외에는 중기재정계획 및 연간운영 계획에 의거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장르별 지원예산 배정 시 전년도 지원선정 현황과 당해 연도 지원신청 건수 등의 수요 추세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2013 공연예술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의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사업 수요에 대한 신청 추이 및 현장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함.
-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선정기준 미달은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5천7백만원 예산잔여 발생. 선정단체의 사업포기 2건으로 사업예산 1천만원 불용 발생 등 사업포기와 사업변경이 발생하는 등 사업수요 예측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남.

[발전 방안]

-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미집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연예술 시장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장수요 예측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사업이 지원대상 예술인·단체의 창작역량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수행된 사업을 통해 발표된 창작작품과 이를 향유한 수요자의 사업만족도를 측정함.

[긍정적인 측면]

- 창작역량강화 및 창작여건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공연예술 민간분야 창작지원을 통한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제고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예술향수권 간접 확대라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나타내는 결과인 작품제작의 활성화, 지원대상자의 지원사업에 전반적인 만족도, 창작작품의 개발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설계되어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산출지표의 계량적 성과를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 지원대상만족도, 평균창작작품수, 평균관람객수를 성과평가지표로 정하고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13년도 사업성과계획서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음.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은 본 사업의 추세치, 잠재역량 및 서비스 수준제고, 효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 성과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의욕적인 수준으로 설정함.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예산의 증가가 없는 상태임에도 5개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 전년도평가 지적사항 이행,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등의 피드백 활동을 전개하여 상시문제 발견 및 해결을 기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욕적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사업지원’ 사업에서 사업포기 2건이 발생하였음.
- 과거 2년 동안 ‘정기간행물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에서 미지원이 나타난 항목을 폐지하고 새로운 항목으로 대치하여 개선을 시도하였음.

[긍정적인 측면]

- 예산 목적 외의 전용이 없고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사업지원’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신설하여 지원 분야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 실연 심사, 현장 방문과 같이 사업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사업지원’에서 신청건수 대비 선정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포기가 나온 원인 분석이 필요함.
- 분기별 집행현황에서 2/4분기, 4/4 분기에 예상보다 초과 되고 있는데 분기별 지급 예산편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선정률이 높은 항목에서 미지급 현상이 나타나므로 예산 편성에서 지원을 대비 선정에 따른 균등화가 필요함.
- ‘공연창작기금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 후 사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선수금을 지원한 후 성과 평가에 따른 잔여금지원이 가능한지 절차적 검토가 필요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주기, 실시회수, 일시 등이 명시되지 않았음.

[긍정적인 측면]

-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외부전문기관 평가용역 모니터링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연중수시’와 같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모니터링 운영 실적(결과 보고서, 평가서)에 대한 제시가 없음.

[발전 방안]

- 지원사업마다 각기 다른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공연예술의 특성상 행사시기에 맞추어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공간지원의 경우 수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여야 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제시된 자료에 3개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해결실적을 제시하였으나 ①번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 ③번 문제점의 해결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예술인 현장 모니터링’에서 문제점 해결은 지원금 수급, 보고 과정의 문제점으로 구조적 해결보다는 교육, 인지적 측면으로 보임. 구조적 문제와 해결이 요구됨.

[긍정적인 측면]

- 문제점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
- 사업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정성평가를 시도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11년도 12년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연말에 사업포기와 같이 지원금 미지급이 나타나지 않도록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발전 방안]

- 지원금의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단체 선정의 다양화를 위해 연중 여러 번의 지원 선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정례화 된 사업에 대한 고정적인 지원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평가인단을 확대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을 조정하여야 함.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고객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 지원의 예산지속 하락과 집행률의 이완은 환류이행의 목적과 의도가 빗나간 결과로 볼 수 있음.
- 연극, 음악, 전통예술분야 등의 수상실적을 창작부문의 목표로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목적의 부적합성을 지적할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29개 극장지원의 불협화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 노력의 지표이며, 공연예술전체의 사업운영으로 개별화를 통합한 노력이 인정됨.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과 융·복합 R&D의 프로젝트 확장에서 다원 예술은 예술다양성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수행방법의 획일화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는 국고보조 등 사업 확장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다소 부족함.
- 사업보고서에 각종 사업의 관련 사진과 진행시 관객, 참여자의 의견을 가감 없이 포함시키거나 설문조사의 양식과 결과 등도 포함하였으면 매우 긍정적 효과와 사업 확장과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었을 것임.

[발전 방안]

- 국고이관사업 시행이전 2012년과 2013년의 미완과제나 미흡과제를 다시 재검토, 다각적 협력모색과 고민이 필요함.

- 기재부의 국고보조 사업기금은 별도로 평가되어 현행의 방식과 비교될 구분화가 미리 준비하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봄.
- 극장별 사업지원과 지역별 사업분배, 그리고 지원자의 지원빈도와 심사자의 공정성 여부를 긴밀하게 체크하고 주시해야 할 것임.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지원의 경우 수행필요성은 사회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요소만족에서는 전반적 만족에 미치지 못함.
- 세부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은 2012년과 2013년이 동일한 반면 2014년은 새로운 사업의 변화가 모색되었음.
- 기금 지원 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절성은 높은 편임.

[긍정적인 측면]

- 단계별 창작지원방식이 도입되어 긍정적이며, 국고이관사업의 증대로 인원이나 인력의 확장에 대한 구체적 계기가 마련되었고, 개별 프로그램 단위가 많음에도, 사업이 적절히 운영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미흡한 측면]

- 공연의 다양성 측면에서 음악, 무용, 연극의 부류를 더욱 확대하고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운영전문극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그 지원 빈도와 지원결과 자료 구축이 다소 미흡함.

[발전 방안]

- 전국연극제와 전국 무용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음악제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고무적임. 이를 위한 용역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조사결과나 설문 등의 증빙자료도 확보하여 향후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운영어야 할 것임.
- 기존사업 대비 편입 사업의 종류와 규모, 연계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문, 설계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사례의 경우, 부가적인 보너스 형태의 지원별도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할 자율적인 여분을 마련하면 보다 능률적일 것이라 전망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주요추진활동이 전년에 비하여 예산규모가 줄었음에도 사업 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 수행 적극성을 높이 평가하였음.
-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을 골고루 수용하고 대응한 점을 감안하였음.
- 심사와 집행의 결과를 전략적으로 수정할 것을 근거로 들었음.

[긍정적인 측면]

- 무용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음악제의 수행적극성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다행한 시도가 진행됨.
- 대형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의 증대가 안정적이며, 4개의 창작활성화 작업이 궤도에 오른 것처럼 평이한 안정성을 보인다는 것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창작뮤지컬 육성 안에서의 관객개발 프로젝트 운영의 년 단위 프로그램이 구체화 되지 않음.
- 중장기 전문인력 육성 강화의 방법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다양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발전 방안]

- 각종 심사위원을 전문화 하고, 중복심사나 공정성을 훼손할 인력편성을 경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적극성과 성과에 대한 지표가치(점수가중치)가 높은 만큼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안과 담당자의 역량발휘가 우선시될 프로그램과 책임제에 대한 연구와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 능률적이고 자동적인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 향후 사업들의 지원효과가 크게 대두 될 것임.

기준 3. 사례 성과

[긍정적인 측면]

- 문화융성 사업으로 늘어난 예산으로 인해 창작역량강화의 호기를 맞고 있고, 극장 활성화 2년 지원은 안정성의 사업측면에서 좋은 구상이며, 관람객증대효과를 지표에 넣고 계량적으로 산출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함.

[미흡한 측면]

-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연예술행사지원의 올바른 평가를 위한 공정성 담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발전 방안]

- 분야별 전문극장의 시설강화와 편의성, 전문성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는 선별안이 필요함.
- 생산, 창작 보다 참여와 소비의 측면이 강한 특성은 지속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함.
- 창작발표공간지원만 생산창작과 매개유통과 참여소비를 만족시키고, 비평가 창작기금지원, 창작기금, 행사지원의 경우 설정된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업 영역과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기준 4. 파급 효과

[배점 근거]

- 발표공간지원이 가진 생산 창작과 매개유통, 참여소비의 가치를 통틀어 성과 향상이 이루어짐.
-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지원이 예술다양성증진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우수사례로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실익이 없는 전시행정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 긍정적이며, 다원예술의 공연분야 활동이 두드러짐.
- 문화융성과 문화바우처의 수혜혜택을 널리 응용할 분야가 퍼포먼스분야임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해외 퍼포먼스 출전이나 글로벌화 진행이 없음이 아쉬우며, 연극분야 9건에 비추어 음악과 전통분야 수상실적이 다소 적으며, 수상 실적이 없는 무용분야는 발레, 전통, 현대 무용 등 분야의 세분화도 필요함.

[발전 방안]

- 수상실적을 내세워 구체적인 창작역량의 가시화를 피한다면 각 예술장르의 세분화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금의 집중화도 필요함.
- 무용분야의 수상실적이 없음은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재즈, 무용이론과 스토리창작, 안무 등의 세분화에 지원금을 나누어 수상실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 축제와 극장, 지원작 등 심사와 평가위원의 5명중 2명 이상은 항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연극이나 퍼포먼스분야의 형평성도 따져 고려되어야 함. 예를 들어 음악 1명, 무용1명, 연극1명, 뮤지컬 1명, 전통예술분야 1명 등의 조합이 필요할 것임.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전략과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정립]

- 동 사업은 사업 추진전략과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지표 개발 및 설정은 사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분명한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재정지원의 명확한 기준 설정]

- 공모사업의 경우, 제시기준 가운데 ‘지역 간 교류 혹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연예술 행사와 그 외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 등에 관한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전반적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집행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사업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담당자의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함.

[지원금 포기 방지를 위한 노력]

- 연말에 사업포기로 인한 지원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함. 지원단체 선정의 다양화 또는 연중 지원 선정 횟수 증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사업수행방법의 다양화 노력]

- 획일적인 사업수행방법의 적용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수행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공연 종류의 세분화 및 사업 발전 방안 구체화]

- 공연의 다양성 측면에서 음악, 무용, 연극의 부류를 보다 확대,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관객개발,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진출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임.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 동 사업은 사회 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예술활동을 건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예술담론 생산과 융복합형 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과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적사항이었던 명확한 지원사업 기준 확립에 대한 보완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사업계획 시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준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방향성 설정, 비예술분야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의 다양한 시도를 꾀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원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재조정과 일부 지표를 강화함으로써,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적절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명칭(특히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음.
- 이어 사업 목적을 추진하기에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 시스템 등이 빈약한 문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실험’과 ‘융·복합’이 주는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기준 설정 이전에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의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사업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돋보임. 급변하는 예술환경에 민감한 분야이므로 사업과는 별도로 예술환경 트렌트 파악에 주력하여 실현가능한 실험과 융·복합 성향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선도적으로 실험예술과 융·복합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예술활동을 견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예술담론 생산과 융복합형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함
 -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과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로 이원화하여 추진
 -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예술현장의 환경조성과 사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 일반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신청단체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형 공동기획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추진
 - － 종래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사업’을 예술장르간 및 학제간융복합을 지향하는 실험적예술활동(다원예술)로 전환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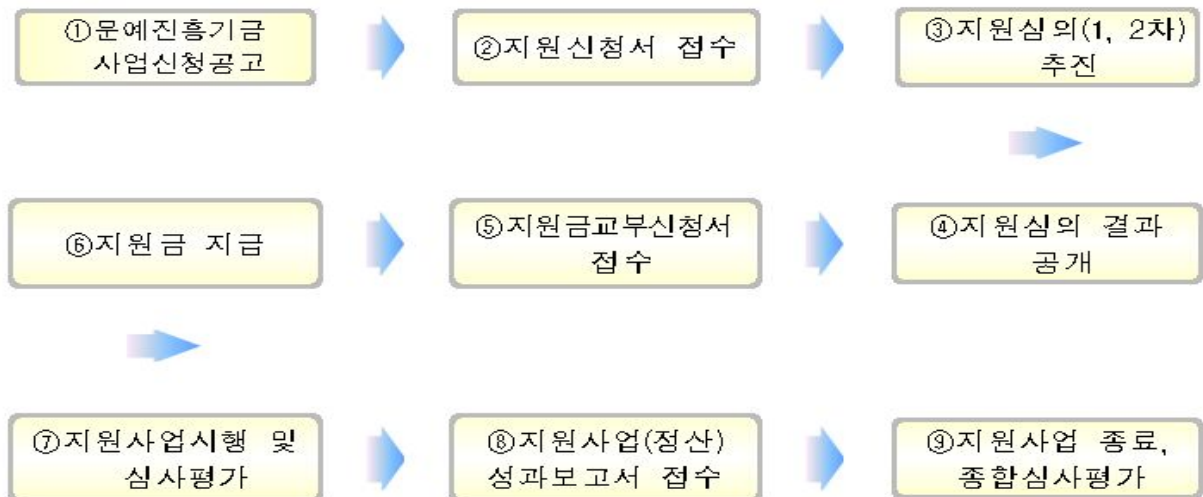
- 사업기간 : 1개월~1년 이내
- 총사업비 : 800백만원
- 사업규모 : 과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및 체계적 지원 도입
 - － 1단계 : 10백만원~50백만원
 - － 2단계 : 50백만원~100백만원
- 지원대상 : 융복합형예술창작을 추구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 1단계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 2단계 :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협업코자하는 과학기술 및 인문학 등 타 분야의 단체
- 지원형태 : 민간보조, 기관협력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지원, 사업수행단체 자부담 10% 이상
 - － 1단계 : 직접 경비, 선정자간 네트워크를 위한 워크숍 참여
 - － 2단계 : 지원금액의 30% 경상비 사용 가능, 사업 전담 기획인력 1인 이상 참
- 사업시행 주체 : 예술인 및 예술단체 또는 타 분야의 단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예술다양성증진지원	500	800	1,000	200	25
▪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 증진지원	500	500	600	100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	300	400	100	
□ 세출예산비목	500	800	1,000	200	25
▪ 민간경상보조	500	782	950	168	
▪ 일반수용비	-	18	50	32	

□ 사업추진 절차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3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9	
	4-3 우수사례 평가	3	2	
전체 합계			100	82.00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 2015에 의거 급격한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예술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장르체계나 예술개념으로 수렴되지 않는 새로운 예술 활동과 예술주체, 예술가치를 요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인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과 자체 기획사업인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함. 문제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방향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됨.

[긍정적인 측면]

- 전년도 평가의 지적사항이었던 지원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역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황분석을 실시함.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준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방향성 설정, 비예술분야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의 다양한 시도를 꾀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예술담론을 생산하고자 시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미흡한 측면]

-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을 ‘실험성 및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세부사업의 내용도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사업으로 명명하였으나 여전히 개념상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다양성 증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함.

[발전 방안]

-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이 늘

재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은 기존 장르체계의 지원시스템 내에서 발휘되기보다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의해 기금운용의 성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문예진흥기금에서 수년간 다원예술에 지원을 해 왔지만 정책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이는 다원예술이 지니는 개념상의 모호성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음. 반면에 새로운 정책 목표로 제시된 학제간, 장르간 융·복합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의 방향은 기존의 다원예술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 장르와 타 장르 간의 융·복합프로젝트의 기획을 통해 새로운 예술담론을 생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예술 활동을 건인하기 위한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담론 생산과 융·복합형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예술담론 생산과 융·복합형 예술창작기반을 조성함을 성과목표로 설정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대 중점 추진과제인 ‘융·복합예술창작 거점 수립’과 기관의 3대 전략 목표인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라는 기관의 목표에 부합함. 따라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인과관계는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융·복합예술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타 장르간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사업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므로 프로젝트의 기획력에 따라 새로운 담론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인식시키려는 기관의 비전과도 일치함.

[미흡한 측면]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기획사업의 추진은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반면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이 필요함.

[발전 방안]

- 기존 예술장르의 경계를 벗어나 실험적 예술과 융·복합 예술에 대한 지원과 실험을 병행한다는 사업지원 내용과 방식은 대체로 적절함.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목적간의 연계구조는 전략적 체계 속에서 확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부재함. 하위 전략체계 및 이원화된 사업추진내용간의 상호연계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므로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됨.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을 보완하여 성과목표와의 논리체계를 강화함이 바람직함.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 또한 동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제1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내용에 부합함.
- 더불어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관한 조항과도 부합하여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로서 타당함.
- 특히 다원예술, 융·복합예술은 기존의 장르체계와 예술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실험적이고 새로운 예술창작활동이므로 시장경쟁력과 자생력이 기존 예술장르에 비해 더욱 어려운 분야임. 따라서 다원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타당함.

[긍정적인 측면]

- 실험성이 강한 새로운 예술은 공공적 성격의 재정지원 없이는 도전과 시도가 어려움. 따라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사료됨.

[미흡한 측면]

- 새로운 예술에 대한 시도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성과 체계의 개발이 요구됨.

[발전 방안]

- 신규사업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기획사업인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사업의 경우에 새로운 분야와 영역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새로운 예술생산을 주도하고 재원확보 및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단순히 공공기관과의 제휴를 넘어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의 협업방식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다원예술분야인 실험예술과 다양성증진지원사업과 융·복합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타 기관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유사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개인 창작지원 및 단체를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특성상 해당지역에 국한된 지자체 및 그 외 지역재단의 사업과 비교해 볼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과는 목적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다원예술분야는 지역, 장르, 영역 등의 제한이 없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13년 신규사업인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사업은 지원방식의 이원화를 통해 단계별 지원방식을 도입하였음.
- 기존의 결과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과정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다각적인 매체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목적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는 지자체 등 그 외 지원사업과는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시도되는 지원방식으로서 창의성과 실험성을 요하는 다원예술 및 융·복합 예술의 특성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사업의 경우에 기존예술과의 명확한 구분 및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고 사업목적이 혼용 될 우려가 있음. 개선된 지원기준 및 심의기준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발전 방안]

- 지난 10년간 다원예술 지원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 사업을 개편하면서 다원예술의 개념을 '실험적이며 다양한 예술'이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는데 여전히 개념상의 모호성이 존재함. 다원예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지원심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도하는 융·복합예술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의 담론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렇게 구체성을 띄면서 기존에 없던 예술창작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세부사업은 총 2개이며 사업수혜 대상은 실험예술 및 융·복합예술 활동을 추구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예술가들과 협업코자하는 과학·기술 및 인문학 등 타 분야의 단체 등이 있음. 사업수혜 대상이 지자체 또는 타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의 수혜 대상과 비교하여 상이하여 유사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을 통해 기존에 사업주체들과는 상이한 타 영역의 다양한 창작 주체들을 개발하는 계기가 마련됨. 타 영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예술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예술의 창작 및 생산 주체로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임.

[미흡한 측면]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의 경우에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고 창작물이 아닌 예술창작 과정의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공유되거나 전수되지 못하고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우려가 있음.

[발전 방안]

- 특이사항 없음.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 사업 중에서 다원예술에 국한한 고유한 사업 영역이므로 타 장르 또는 타 지원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적절하게 추진되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고 장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유사사업간 통합 추진이 어려움.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특이사항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의 목적은 실험성 및 융·복합형창작을 추구하는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이러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 2개의 공모사업과 1개의 협력기획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사업의 내용은 1단계 사업인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과 2단계 사업인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사업으로 구분됨. 1단계는 장르 예술간 협업에서 비예술로 넘어가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형 지원 단계이며 2단계는 비예술 분야와 협업 및 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민간예술단체가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임.
- 그러나 세부사업간 구성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세부사업의 내용구성이 전략체계를 통해 사업목적 달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타 기관들이 협력하여 장르의 영역을 뛰어 넘는 새로운 융·복합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함. 융·복합형예술의 창작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 집과 연계한 융·복합형 예술의 플랫폼 기관으로서 초석을 닦은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기획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단순한 기술 및 물리적인 협업 정도에 머물고 있어 융·복합예술의 창작활동을 시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의 1단계사업과 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전략체계가 부재함.
- 사업목적 달성을 추진하기에는 세부사업 내용이 빈약함. 타 단위사업에 비해 예술다양성 증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도 적고 세부사업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융·복합 프로젝트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파일럿 지원프로그램의 성격

이 짚음. 궁극적으로 예술다양성 증진을 위한 창작, 유통, 공간, 비평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동 사업의 목적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 내용이 상호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창작역량강화 사업과 기반조성 사업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함. 현재 구성된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으로서의 새로운 시도는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책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지원사업의 예산규모와 내용이 미흡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모두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일부지원 원칙(문예진흥기금과 민간자금과 매칭, 자부담 10%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다양한 타 기관과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재원분담과 인프라 기반을 공유하여 예술과 타 분야와의 연계지원이 강화됨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자연과 미디어에뉴알레 사업을 협력 추진하고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등의 재원다각화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업무협력의 대상이 과학기술 기반의 공공기관이 대부분이어서 융·복합예술의 창작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발전 방안]

- 향후 실제로 예술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및 민간차원의 전문가들과의 참여와 협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수혜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해 공모절차에 의해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다원예술 책임심의위원들의 심의에 의해 선정되었으므로 적절함.
- 대체로 문예진흥기금사업 보조금운용지침 준수 의무에 따르고 있으며 선정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기존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는 예술과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접근과 방법을 모색하며 새 융합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시도, 다양한 확장이 가능한 무엇보다도 과정을 중시하는 열린 프로젝트로 추진한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특이사항 없음.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신청·공모를 통해 ‘예술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예술’에 주목, 다양한 다원예술 유형의 우수한 예술프로젝트를 엄선하여 지원, 다원예술 분야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원심의제도와 함께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예술가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짐. 보조금 지급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의 경우에 혁신적인 창작물 개발 전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하여 한국형 융·복합예술의 모델 구축을 위한 확산과 공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기존장르를 넘어서는 경계를 허무는 창작 작업이므로 타 분야와의 협력과 융합의 경험이 중요함 소통방식과 협업방식에 대한 새로운 예술지원방식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다원예술 분야는 여전히 실험적 예술과 기존 예술이 혼재되어 지원되는 경향을 보임. 기존 예술의 지원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

[발전 방안]

- 간접 예술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비재정적 매개지원을 확대하는 등 타 분야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추가재원 및 창작공간 확보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건수 대비 지원건수의 선정률은 15% 내외임.
- '13년 신규 사업으로 시행 추진된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46건 신청에서 3건을 선정하여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동 사업의 적절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함.

[긍정적인 측면]

- 다원예술 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용역 조사 등을 통해 다원예술의 동향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미흡한 측면]

-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

[발전 방안]

- 특이사항 없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평균 창작 신작수, 평균 창작 참여자수, 평균관람객수”가 각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함.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재조정과 일부 지표를 강화함으로써,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적절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새로운 창작 활성화, 창작 소통 및 협력 공유, 다원예술 저변확대 및 인식확산과 비평 활성화 등 3개 지표는 사업운영 결과로 산출되며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임.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사업시행 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사업시행 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 설정함.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전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결과,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사업 개선을 추진하여 성과제고를 위하여 노력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예산집행이 99%에 이르고 있지만 예산 절감으로 지원금 미수급과 다른 차원임.
- 분기별 계획에서 3/4분기는 미달되고 4/4분기에 초과 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 명칭이나 내용에서 지원 분야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계획하였던 사업 실적이 잘 이루어졌음.
- 급변하는 문화 예술의 분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찾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변화하는 문화 장르에 대한 보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새롭게 출현하는 예술 형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 명칭에 의해 제한된 장르가 아니라 장르개념을 분류할 수 없는 예술형식에 대한 수용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이라는 항목의 제목만큼 분야의 설정이 모호할 수 있음. 반면 ‘실험’이라는 주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지니고 있으나, 다른 사업과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2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단계별로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에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보여줌.

[미흡한 측면]

- 예술창작의 수요자인 관람객의 관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발전 방안]

- 새로운 예술 창작이 비정형적이고 비 장르적이라는 점을 참작한다면 ‘다양성’, ‘융복합’이라는 어휘조차 정형화 하는 태도라고 보여짐.
-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르 영역을 무제한으로 열어 놓을 수 있는 분석 자료를 구축하여야 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참여자 간의 소통문제, 지역 주민간의 불화와 같은 문제점은 단순한 화합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간 분석 및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창작 작품의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었으나 장기적 유지관리 차원의 계획이 미흡함.

[긍정적인 측면]

-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 이외에 사업 중 발생한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실험성과 다양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목적과 성과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해결이 보이지 않음.
- 사업 현장 모니터링, 책임심의 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해결노력은 보이지 않았음.

[발전 방안]

- 사업주제가 융복합인 만큼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타 사업 참여 지원자를 모니터링 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고객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예술다양성 증진지원이 융합을 중심으로 사회상의 변화와 심리를 대변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집중 관찰하고 분석하였음.
- 동 사업은 시대변화에 따른 예술환경을 견인하기 위한 담론형성과 협업형 공동기획 프로젝트의 저변을 넓히는 등 노력이 가시화되는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사회문화통섭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과학과 인문학, 예술의 상호인식의 틀을 높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간과 기관, 단체와 개인의 융합과 콜라보레이션을 적절히 관심 갖게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측면]

- 환경의 가장 큰 변화인 스마트폰과 SNS를 융복합에 적절하게 한 섹션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한 것은 아쉬움.
- PCSI 결과에서 예술다양성증진지원은 사례 수 5개에서 전체평균 75.7점에 못 미치는 73.3점으로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사업 중 가장 최하위인 70점대로 사회적 불만족, 요소 불만족 등 모든 항목에서 분발을 요구하는 추세임.

[발전 방안]

- PCSI 지수측정을 위한 응답자 사례 수에서 예술다양성 증진지원은 5건으로 아주 적은 분포를 보임. 이 분포로는 응답지수와 평가결과의 객관적 도출이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변인들의 사례가 적어 왜곡 가능성도 높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5%에 불과해 예술다양성증진지원의 사회적 가치에 맞는 지원규모와 행정적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사업 중 가장 최하위인 75.7점의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의 코드가 우선 잘못 연결이 된 것은 아닌지, 오해와 타부서간의 협력 시스템은 안전한지 점검해보아야 함.
- 융·복합 예술의 어려운 차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불만족, 요소 불만족 등 모든 항목에서 과감한 혁신이 요구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실험적 예술과 다양성증진지원을 따로 떼어내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별 지원정책에 아주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예술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세부항목에서 여전히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누리게 하자’는 목적은 공허하고 국민전체가 향유하자는 것인지 다양성증진을 위한 참여자와 수혜자들만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하자는 것인지 애매함.
- 다만, 융·복합형 예술창작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필요가 있음.

[긍정적인 측면]

- 타 분야와 소통을 확장하려는 기획과 부서의 노력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고무되어야 하며, 새로운 융합의 모델을 우선 국내에 국한하고 모델개발을 확산하려는 노력도 참신함.

[미흡한 측면]

- 융·복합 공동기획프로젝트의 분리시도는 좋으나 그 이론과 경계가 모호하고, 홍보 단계 역시 미흡하며, 정부의 융·복합 분야 선제적 활동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함.

[발전 방안]

- 예술기반 과학, 테크놀로지,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합과 복합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학제, 형식, 분야, 장르 간 인위적, 장·단기적 패러다임 형성하려는 시도와 그 형태의 개방은 가급적 제한과 금지조항을 두지 말고 긍정적이고 열린 상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예술활동과 예술주체 등의 슬로건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술가치 발굴과 기능강화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다양성 분야와 융합

분야에서 이론발굴과 예술분야의 환경변화와 문화산업을 기록하고 관찰해야 할 것임.

- 융합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획하는 문화다양성 분야는 이상적인 단어와 문화와 예술이 담당할 먼 ‘책임’ 등을 지양하고 현장실정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거론할 필요 있음.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예술다양성 증진지원금이 해마다 증액되는 것은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민간경상보조를 늘린 것 역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융복합 공통기획 프로젝트의 01권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의 자료는 반드시 그 성과를 알려야 함.
- 다원예술 인식 및 비평 확산의 기치는 훌륭함.

[미흡한 측면]

- 제주도 김녕마을과의 협업은 다양성예술과 문화의 융합과는 거리가 있음.
- 타이틀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그 속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발전 방안]

- 인문 예술 잡지와 다원 예술 매개 공간 등의 자료는 이미지나 도록 자료, 기타 텍스트로 소개되어 설명이 준비되길 원함.
- 공공미술·융합·관광 다기능 플랫폼의 융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함. 지역, 관광객, 작가의 체험 프로젝트 구분이 모호함. 자세한 설명과 지역 측의 환경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면 훨씬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임.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새로운 예술활동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며 이는 창조적 예술다양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예술활동의 경우 실패를 감안한 혁신적인 시도를 수용하려는 태도에 성과 배점을 줌. 이어 사업계획자문단과 인력 계획을 개방형으로 하여 공고나 외부 인사를 적극 투입한다면 성과가 더 클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연계된 미술자원 중에서도 02권이 융·복합 개발 모형 발굴과 착상에 편재성이 강했다면 03권의 프로그램들 안무, 공간에서의 사유, 음악탐색 등은 매우 바람직한 융·복합임.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의 연극, 무용, 음악 중 최소 어느 한 장르와도 비슷한 지원금으로 융복합 콘텐츠의 실용성과 성과가 입증되어야 함.
- 정책용어 정립이 처음부터 체계화되고 홍보가 지속화 되어야 하며, 예술 다양성과 이를 융합하기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함.

[발전 방안]

- 예술+인문, 예술+해양과학, 예술+종교 등의 융·합형을 우선 발굴하고 다원예술의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이론정립 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방송, 언론 등과의 관계, 블로그 등의 초정을 통한 설명으로 강한 혁신의 분위기와 붐을 만들어야 함.
- 미술분야 혹은 공연예술처럼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계획서나 효과도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이론적인 토대가 불안하고 안개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임. 종사자들의 배경지식 향상을 위하여 역사, 과학, 의학, 해양학, 지구의 다양성, 문화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임. 자체 개발이 힘들면 외부 수장을 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기준 4. 파급 효과

[배점 근거]

- 결합, 통섭, 연계 등의 경계지점임을 통찰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컨버전스 확대와 참여 패러다임을 공유, 개방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집중지원 사업의 도입을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안정화 단계구축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협력체계 강화 및 다각적 매개 노력은 긍정적 측면이며, 사업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자세가 돋보임.

[미흡한 측면]

- 책임심의위원 중 하나는 새로운 인력시장을 찾지 못하고 좁은 인재풀을 사용한다는 점이 아쉬움.
- 융합형인재가 프로그램기획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담당자들의 인력관리와 노력을 강화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매개처와 매개인력, 전문가 수급계획, 새로운 예술장르의 공표 등의 수월이 추가되고 가능해야 함.

[발전 방안]

- 이 분야는 완전한 외부개방형의 인재를 등용하고 그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예술과 정책이 융합된 인사를 등용하여 관리를 맡길 필요가 있음.
- 기간이나 실제 나타난 실적보다는 이론과 추후 먼 방향의 사업가시점을 추구하되 그 방법이나 인력의 사용 수급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이고 탄력적인 방식을 택해야 함.
- 새로운 융합모델 제시가 참신하지 않으며, 본질을 온전히 통찰하지 못하고 있음. 융합모델 제시에 대한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와 산업영역을 탐색하는 등 참신함을 더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함.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 개념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예술 다양성’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개념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전파 노력이 절실히 요망됨.

[사업 목표의 구체화]

- 사업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시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많음. 사업목표를 구체화 하여 성과체계의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지원기준과 심의기준도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야 사업의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공유, 전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집행

[사업목표에 맞는 세부사업의 개발]

- 예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함.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업목표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함.

□ 성과

[다양한 성과도출 방안 강구]

- 생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예술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성과도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융·복합 다양성 증진에는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환경(SNS, 스마트폰 등)이 적용되어야 함.

[105] 전시 · 창작소통공간운영

- 동 사업은 아르코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을 통해 일반적인 미술관과 차별화하여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과 융·복합, 다원적 확장성에 입각한 시각예술 전시 개최, 동시대 예술자료 및 미디어 전문아카이브 제공,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각예술 현장을 주도하고 있음.
- 또한 작가의 창작과 발표를 위한 생산적 장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새롭고 실험적인 시각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지원,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기획 강좌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예술지원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기초예술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자료구축 및 보존활동을 지원하여 예술현장의 소통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사업목적에 가지고 있음.
- 동 사업은 명확한 사업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갖추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이들 공간 운영이 단순히 존재만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 것임에도 이들 공간을 활용하는 범위는 다채롭고 창의적이지 못함. 사업성과 역시 ‘전시 횟수’, ‘이용자 수’, ‘이용고객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음은 공간운영에 집중한 나머지, 공간을 채울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시사함.
- 예술가의 집을 통해 창작매개소통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나 정보 공유를 위한 DB 구축 등 창작소통매개를 위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요망됨.
- 아르코미술관은 미술관의 기본역할인 전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금보다 아카이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함. 아카이브 DB 증대는 창작소통 자료로서 축적될수록 그 파급효과가 뛰어나므로 창작소통 및 아이디어 창출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사업개요

〈아르코미술관 운영〉

□ 사업목적

- 일반적인 미술관과 차별화하여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과 융복합, 다원적 확장성에 입각한 시각예술 전시 개최, 동시대 예술자료 및 미디어 전문아카이브 제공,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각예술 현장을 주도하고 작가의 창작과 발표를 위한 생산적 장 역할을 수행함 국민들에게 새롭고 실험적인 시각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핵심기능으로 전시중심의 동시대 시각예술 창작, 연구, 교육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 시각예술의 발전에 기여
- 자생력이 부족한 비상업적, 실험적인 신진작가 및 기획자의 창작 및 담론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시각예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764백만원
- 사업규모 : 아르코미술관 시설운영 및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전시·교육·아카이브 운영. 외부 협력 융복합 사업 운영 및 예술가의 융복합형 프로덕션 지원, 차세대 예술가 및 큐레이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지원대상 : 예술가, 일반국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아르코미술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 아르코미술관	847	760	900	140	15.6
□ 세출예산비목					
▪ 인건비	0	0	58	58	100.0
▪ 일반수용비	551	541	692	151	21.8
▪ 공공요금및제세	21	5	22	17	77.3
▪ 특근매식비	1	1	1	0	0
▪ 임차료	15	0	0	0	0
▪ 시설장비유지비	20	20	14	-6	-42.9
▪ 재료비	4	0	0	0	0
▪ 국내여비	2	2	1	-1	-100.0
▪ 국외여비	7	5	7	2	28.6
▪ 사업추진비	10	9	10	1	10.0
▪ 민간경상보조	80	50	0	-50	0
▪ 연금지급금	0	0	5	5	100.0
▪ 설계비	0	0	20	20	100.0
▪ 시설비	109	100	20	-80	-400.0
▪ 자산취득비	27	27	50	23	46.0
계	847	760	900	140	15.6

□ 사업추진 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세부사업, 프로그램 추진	모니터링 시행 환류 및 내·외부사업 평가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내외·부 평가, 자문의견, 모니터링결과 환류 및 내외부 환경분석 ○사업목표, 추진방향 설정 ○연간 계획 수립 ○개별 사업계획 수립 ○공모전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심의,지원자 선정발표 ○외부평가단 등 자문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기획전 개최 ○기획공모전 개최 ○예술가창작지원(신진작가 및 기획자) ○일반교육프로그램 운영 ○아카이브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추진 ○사업홍보 및 후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평가단 -사업운영자(강사)평가 -일반관객모니터링 ○내부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평가단 -문예진흥기금사업자체 평가 ○외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부처(문화부)주관문예진흥기금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 결과 차기 사업계획 수립 등 환류 -중장기비전전략설정 반영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연간사업계획반영 -세부사업별업무개선 반영

〈창작매개활동지원사업〉

□ 사업목적

-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지원,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기획 강좌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예술지원정보 제공
- 기초예술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자료구축 및 보존활동을 지원하여 예술현장의 소통 및 창작활동 활성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550백만원(창작매개활동지원)
- 지원대상 :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국민
- 지원형태 : 자체집행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지원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창작매개 활동지원					
▪ 예술가소통공간지원	335	529	330	△20	△6
▪ 예술지원정보서비스	181		-	△200	△100
□ 세출예산비목					
▪ 인건비	83	50	50	-	-
▪ 일반수용비	393	352	177	△175	△50
▪ 공공요금및제세	3	8	1	△7	△87
▪ 시설장비유지비	20	96	88	△8	△8
▪ 사업추진비	3	3	4	1	33
▪ 연금지급금	5	4	4	-	-
▪ 자산취득비	9	16	6	△10	△62

□ 사업추진 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세부사업, 프로그램 추진	모니터링 시행 환류 및 내·외부사업 평가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내외·부 평가, 자문 의견, 모니터링결과 환류 및 내외부 환경분석 ○사업목표, 추진방향 설정 ○연간 계획 수립 ○개별 사업계획 수립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공간구성 및 시설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기획프로그램 진행(융복합, 시민과의 소통, 예술가 창작등) ○대관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대관 (분기별 운영자문위원회 외부심의 확정) -수시대관 (수시로 내부심의 확정) ○협업프로그램 진행 (외부 단체, 기관과 협업프로그램 진행) ○예술가의집 생성 콘텐츠 아카이빙 진행 ○예술지원정보 수집 및 제공(주1회 뉴스레터 및 MMS문자알림서비스) ○예술지원정보 온라인 컨설팅 진행 ○사업홍보 및 시설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평가단 - 예술가 모니터링 - 일반참여자 모니터링 ○내부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평가단 -문예진흥기금사업자체 평가 ○외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부처(문화부)주관 문예진흥기금사업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 결과 차기 사업계획 수립 등 환류 -중장기비전전략설정 반영 -중기재정운영계획반영 -연간사업계획반영 -세부사업별업무개선 반영 -고객서비스개선반영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5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0.8
	4-3 우수사례 평가		3	3
전체 합계			100	84.80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사업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대 중점 추진 과제 중 아르코미술관과 예술가의집을 중심으로 대학로 융·복합예술창작 거점을 수립하고자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었음.
- 새로운 전략 체계에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을 “융·복합창작 플랫폼의 구축 운영으로 새로운 예술의 창작 및 확산”으로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재구성하였음.
- 아르코미술관 융·복합 플랫폼 사업으로의 방향전환은 문화부 중점과제 “문화가 있는 삶” 16개 중에 하나이기도 하여 문화부 방침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사업에 대한 문제설정과 해결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적절함.

[긍정적인 측면]

- 동 사업은 전년도 문화부 평가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적사항인 미술관 사업방향 재정립과 이에 따른 유사사업의 재조정, 성과지표 재조정 등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한 결과임.
- 예술의 흐름과 정책 환경이 변함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전략체계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새롭게 재구축하였음. 이러한 노력은 아르코미술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아르코미술관의 방향성이 새롭게 구축됨에 따라 예술가의 집 운영 방향성도 함께 변화됨.
- 그 간에는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 간에 상호연관성과 프로그램 연계가 부족하여 개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간 개념을 단위 건물이 아닌 ‘융·복합 예술창작 거점공간의 연계와 확장 개념’으로 설정하면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전체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보한 것은 적절하고 긍정적인 변화임.

- 그동안 아르코미술관이 타 미술관과 차별화 하지 못하고 예술가의 집 기획 프로그램 역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새롭게 변화된 사업운영의 방향성과 목적성은 선명한 방향과 내용을 지니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융·복합 예술에 대한 정의와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표피적인 융합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프로그램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초기 단계수준에 머물러 있음.

[발전 방안]

- 위원회 이전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마로니에 공원,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 집은 새로운 문화적 전기를 맞고 있음. 아르코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임.
- 1970년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건물이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을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면 2000년대 예술가의 집을 위시한 마로니에 공원이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점공간으로 거듭나야 함.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아르코미술관>은 예술의 창작과 발표를 위한 생산적 장을 수행하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중심이 아닌 전시중심의 미술관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실험성이 강한 동시대 예술을 시의 적절하게 생산하는 창작, 연구, 교육 기능이 복합된 예술가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공공적 기능과 개방적 성격이 강함. 따라서 예술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성과목표는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라는 기관의 목표에 부합하며 기관의 7대 중점과제와 연계하여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인과관계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예술가의 집> 사업목적은 예술현장의 소통 및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창작매개, 예술가 소통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은 분명하여 적절함.

[긍정적인 측면]

- <아르코미술관>은 그동안 유사한 국·공립 미술관과의 차별성과 변별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미술관이 설립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 고유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 그러나 2013년에 <아르코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을 중심으로 ‘융·복합 창작 플랫폼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사업목적을 수립하면서 창작-매개-유통-향유-소통으로 이어지는 통합된 생태계조성을 수립하는 복합적인 의미의 미술관으로서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마련됨

[미흡한 측면]

- 융·복합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목적간의 연계 구조는 전략적 체계 속에서 확립되어 있으나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함.

[발전 방안]

- 창작플랫폼의 거점 공간으로서 <아르코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이 상호 연계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와 함께 마로니에 공원의 예술적 성격도 재 규명 될 수 있음.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 또한 동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제1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내용에 부합함.
- 더불어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관한 조항과도 부합하여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로서 타당함.
- 특히 <예술가의 집>운영은 예술가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공공기반의 창작 및 소통을 위한 지원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기초예술의 특성상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재정지원은 적절하고 타당함.

[긍정적인 측면]

- 아르코미술관은 작품 소장 중심의 전통적 미술관 개념이 아닌 동시대 시각예술의 창작·생산, 실험적인 작품 전시기능으로 운영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점이 인정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성격상 외부 기획자에 대한 영입과 참여가 자유로운 운영 시스템을 꾀하고 있어 지속적인 담론생산과 새로운 예술에 대한 전시기획이 가능한 점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함.
- 또한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이 자리한 마로니에 공원 자체가 우리나라 예술의 역사와 전통을 대변하는 상징성이 큰 장소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마로니에 공원의 예술적인 공공성과 새로운 가치 확립을 위해 공공지원이 필요함

[미흡한 측면]

- 공공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창작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새로운 예술의 근원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담론을 생산하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이 미흡함.

[발전 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사의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함. 예술가의 집은 단순히 공간 대여 기능에서 벗어나 기획력을 갖춘 프로그램이 요구됨.
- 담론형성과 예술가들의 소통을 위한 예술창작의 플랫폼 역할이 필요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아르코미술관>은 소장품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적형태의 미술관이 아니라 동시대 현장성과 실험성에 입각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생산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방향성을 지닌 공공미술관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모델로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유사 또는 중복성이 없음
- <예술가의 집>의 주된 프로그램인 예술가소통공간지원,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사업 등은 타 부처나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아르코미술관>은 자체기획전과 병행하여 현장의 기획자 및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아르코미술관과 외부 기획자가 공동 협력기획방식으로 전시를 기획함. 이러한 사업 추진방식은 미술관의 기획력 향상과 우수큐레이터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사업효과를 동시에 취할 수 있음.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들과 공공미술, 융·복합예술 추진 등 아르코미술관, 인사미술공간, 예술가의 집이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획력을 실천하는 플랫폼으로서 시너지 효과와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은 지원기능과 공간을 동시에 보유하지 못한 타 기관의 사업과는 분명하게 차별화 된 사업임.

[미흡한 측면]

- 그러나 위와같은 방식이 한편으로는 <아르코미술관> 자체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는 소장품이 부족한 기획전시중심의 미술관이 지니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서 경쟁력 있는 기획전시가 지속되어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음. 예술가의 집에 대한 정체성도 모호한 측면이 있음.

[발전 방안]

-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의 역할은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측면이 때로는 장점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 미술관의 정체성이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독립된 미술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예술이나 융·복합 사업을 수용하는 중용의 전략이 필요함. 어떤 경우에도 미술관 본연의 기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예술가의 집은 기획력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기능을 보완함이 바람직해 보임. 예술가의 집 내부 공간구성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아르코미술관의 수혜대상은 작가, 큐레이터, 기획자, 비평가, 연구자 등과 더불어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타 기관 또는 지자체 수행사업과 비교하여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전국 단위 예술인과, 국민이 사업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사업과 차별화를 이룸.
- 예술가의 집 운영의 사업수혜 대상자는 전 장르의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음. 예술가의 집 운영은 타 지자체와 기관의 시설운영 방식과는 차별화 된 열린 매개공간이라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아르코미술관은 작가 뿐 아니라 우수한 큐레이터들에게 전시기획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향후에는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기획자들의 실험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예술가의 집은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일반시민 간 소통을 지원하는 매개형 열린공간을 지향함. 소통과 나눔을 위한 매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술가의 집에 대한 운영방침은 적절한 방향임.
- 점차 예술지원정보와 예술가지원서비스를 강화코자 시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대관사업에서 예술가의 집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대관건수의 급격한 증가추세도 긍정적인 측면임.

[미흡한 측면]

- 예술가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월에 개소한 콜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발전 방안]

- 예술가의 집이 지닌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대관에서 벗어나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궁극적으로 예술가지원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예술지원센터의 역할로써 기능해야 함.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등에 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자체사업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 운영, 예술가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임. 상이한 주체에 의한 유사 중복사업 추진은 없으며 사업수행 주체는 적절함.

[긍정적인 측면]

- 아르코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사업이지만 외부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전시를 기획하거나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특히 융·복합 예술창작지원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새로운 목표 하에 예술분야 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거점 공간으로서 가능성이 열림.

[미흡한 측면]

- 공간운영에 관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이 상호 유기성이 떨어지며,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발전 방안]

-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집중과 선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아르코미술관 운영의 목표는 실험성, 국제성, 공공성에 입각한 예술생산 및 향유를 위한 선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예술창조역량 강화라는 기관의 전략방향과 부합함.
- 세부사업으로서 예술가 창작플랫폼 구축으로 창작활성화지원, 신진예술가 및 기획자 양성기반 구축, 시민예술교육 확대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사업내용 구성은 적절함.
- 예술가의 집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술현장의 소통 및 창작활동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창작지원, 소통지원, 정보지원 등의 적절한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지원,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기획 강좌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예술지원정보 제공, 기초예술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자료구축 및 보존활동의 지원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긍정적인 측면]

- 아르코미술관을 둘러싼 대내외 거시적, 미시적 환경 분석과 국내·외 정책 환경, 시각예술 현장 분석을 통해 미술관 운영에 관한 방향성과 장기비전을 도출하여 새로운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긍정적임.
- 특히 미술관 프로그램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국민 소통을 늘리고 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하여 시각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측면]

- “융·복합창작 플랫폼의 구축 운영으로 새로운 예술의 창작 및 확산”을 위해 전시 창작소통공간운영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정

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구색 갖추기 사업인 콜센터, 정보지원도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사업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새로운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좋으나 선택과 집중을 요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발전 방안]

- 예술가의 집 운영이 단순히 대관 차원을 넘어서서 창작-유통-매개-예술지원정보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예술자료, 정보, 지원서비스 등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임.
- 그러나 자료구축이나 정보지원서비스 등은 예산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기반사업임.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적인 운영방침이 필요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 운영은 직접사업이 대부분이며 일부사업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기초 기반시설인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의 공공성에 기반한 사업성 격상 자체사업으로 운영됨이 적절함.

[긍정적인 측면]

- 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 공공미술관의 성격을 감안할 때 민간 및 지자체와의 재원분담 가능성은 낮으나 필룩스 등 외부재원유치를 통해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한 점은 긍정적임. 또한 보조사업을 진행 할 경우에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을 설정하여 진행 한 점은 적절한 조치임.
- 일부 기획프로그램(건축학교)의 경우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참가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 사업의 경우 기업후원과 참여건축가의 재능기부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인 성과임.

[미흡한 측면]

- 미술관의 경우에 기업 후원금과 더불어 미술관 멤버십, 클라우드 펀딩 등 개인 지지그룹에 대한 개발도 병행해야 함.

[발전 방안]

- 외부재원개발 및 후원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미술관 후원그룹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임.
- 예술나무 포럼의 후원자 그룹, 기업 메세나, 타 분야의 전문가 그룹, 시민 등 다양한 후원자 층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재원모금 방안을 모색해야 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미술관 운영은 직접사업이 대부분이며 일부사업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해 구성된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정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술가의 집의 예술가들의 창작 소통을 위한 공간대관은 높은 수요가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예술가·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문위원 심의를 통해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긍정적인 측면]

- 미술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예술가의 집 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등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공간과 시설운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되 기획사업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전 방안]

- 예술가의집 운영은 자체 기획사업 및 대관사업 등으로 이루어짐으로 사업성격에 비추어 직접사업이 적합하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기획사업과 더불어 외부의 우수한 콘텐츠를 통합 패키지로 유지하여 위탁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진행되는 다양한 콘텐츠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는 방안).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은 전문가와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만나는 공간임. 따라서 예술가의 집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함. 폐쇄적인 건물구조와 엄숙한 분위기로 인해서 예술가,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느낌으로 인식되지 못하며 공간운영 인력들이 예술가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함양이 요구됨.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미술관 운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와의 전략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방향의 일관성, 지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전시, 전문교육, 미디어아카이브 등 대부분의 사업을 직접 기획, 추진하는 현행 방식이 적합함.
-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획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 및 지원(보조)방식으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이 적정함.
- 예술가의 집 운영은 예술가의 집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 하에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직접수행 및 위탁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은 적정함.

[긍정적인 측면]

-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을 연계한 융·복합 예술의 창작거점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는 타 학문과 타 장르로와 결합하여 다양한 정책지원 수혜자 층을 개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임. 자체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측면]

- 예술가의 집 공간의 활용도 문제 제고가 필요함. 명예의 전당, 창작2실 열린공간 등 1층과 2층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짐. 국립예술자료원과 연계한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시스템 활성화 방안 제고를 요함.

[발전 방안]

- 예술가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물적, 인적, 프로그램 등 인프라의 종합적 재구성이 필요함. 소통 및 매개기능과 더불어 정보지원 및 예술가서비스지원 시스템의 강화 방안이 요구됨.
- 미술관과 더불어 통합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열린 마로니에 공원을 활용하여 대학로의 새로운 융·복합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대체적으로 지원 수요에 대한 예측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예술가의 집 이용건수 및 이용객수가 현저하게 증가됨.

[긍정적인 측면]

- 미술관의 수요예측 체계를 '11년부터 연중 상시조사로 전환하여 '13년 아르코미술관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추진한 점이 돋보임.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공간 대여, 프로그램 기획, 시민들에 대한 강좌 등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예술가의 집 전체 이용객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각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수요예측과 각 공간의 가동률 및 활용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대한 재편계획이 요구됨.

[발전 방안]

- 예술가의 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이에 대한 수요예측 계획 강구하기 바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아르코미술관>

- 성과지표 1 ‘미술관 이용객수’의 경우, 미술관 이용객 수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가 반영된 결과지표로, 이용객 수에는 전시 관람객, 교육 참여자, 아카이브 등 이용자 수 모드를 집계하여 반영
- 성과지표 2 ‘미술관 고객만족도’는 아르코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 시설이용, 직원 친절 등 미술관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일반 관람객 및 이용객에 조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아르코미술관>

- 성과지표1 미술관 이용객수는 예술가 및 전문관객(1차 이용객수), 일반시민(2차 이용객수) 등으로 설정. 시민들의 교육수준 및 문화향수 욕구 증진, 정부의 적극적인 예술향수 확대지원정책에 따라 이용객수 증가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예술가의 집>

- 사업목적은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지원,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기획 강좌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예술지원정보 제공, 기초예술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자료구축 및 보존활동을 지원하여 예술현장의 소통 및 창작활동 활성화로 볼 수 있음.

<아르코미술관>

- 미술관 목표는 융·복합 예술창작 플랫폼 구축 운영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작 및 확산 등으로 간주됨.

[긍정적인 측면]

<아르코미술관>

- 미술관운영 사업은 예산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사업의 목적, 필요성, 파급성, 기여도, 효율적인 면에서 사업과 명확한 연계성이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예술가의 집>

- 성과지표 1 : 예술가의집 이용자 수
- 성과지표 2 : 예술가의집 만족도

[긍정적인 측면]

<아르코미술관>

-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평가 방식 적용을 통한 비교 가능

[발전 방안]

<아르코미술관>

- 미술관의 전시 및 기타 프로그램들에 대한 미술전문지 반응(연례 우수 전시 평가나 전시 리뷰 소개 빈도, 평가 내용 등), 평론가, 작가들의 반응과 평, 전문관객(시각예술 블로그 등)의 반응을 수집, 반영하는 방법을 향후 고려해야 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예술가의 집>

- 자체 고객만족도 결과에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반영으로 변경
- 자체 모니터링 자료 및 설문조사 실시('13년)
 - 예술가의집 기획프로그램 및 대관 관련 모니터링 실시

<아르코미술관>

- 사전 설정 여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평가부에서 2013년 5월 기금사업 전체 성과계획서를 수립함. 기관 비전전략체계에 맞추어 상위사업 목표와 하위사업 목표를 일치시키고, 추진과제별 지표 검토 및 목표치를 설정함.

[긍정적인 측면]

<아르코미술관>

- 아르코미술관은 대중적인 전시보다는 융·복합적, 실험적인 다양한 기획 위주로 운영하여 타 미술관과 차별화

[미흡한 측면]

<아르코미술관>

- 2013년도에 융복합예술창작플랫폼구축운영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나 융복합 사업 방향성과 현장과의 갭이 존재, 보다 현장성 있는 융·복합 개념 설정에 대한 예술가군으로부터의 요구, 점점 마련 필요

[발전 방안]

<아르코미술관>

- 2013년도 아르코미술관 융복합예술창작사업 구축하여 2014년도 아르코미술관 융복합예술창작사업 정체성 확립 및 확산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예술가의 집>

- 예술가의집 이용자수 : 신설지표로서 작년 45,406명
- 예술가의집 이용자 만족도 : 신설지표로서 미술관 모표인 85.4점

<아르코미술관>

- 성과지표 1 미술관 이용자 수
- 성과지표 2 미술관 만족도

[긍정적인 측면]

<아르코미술관>

- 최근 3개년 추이로 알 수 있듯 예산은 점점 감소하는 있으나 이용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아르코미술관>

- '13년도 이용자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가 나타남

[발전 방안]

<아르코미술관>

- 이용자만족도 예측모델을 설정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환경 분석 필요할 것임.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예술가의 집>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

<아르코미술관>

- 아르코미술관 전시기획 역량제고 및 우수전시 개최
- 시각예술 전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 이용자 확대 성과 가시화

[긍정적인 측면]

<아르코미술관>

- 전시차원의 비전과 연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 아래 타 미술관과 차별화한 시각예술미술관으로써의 변화 및 프로그램 개선

[미흡한 측면]

<아르코미술관>

- 융복합예술창작프로그램을 위한 내부 실무인력 부족

[발전 방안]

<아르코미술관>

- 융복합 사업을 위한 인프라 보완 필요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 집행률은 100%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벗어나 예산 사용이 1/4분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즉 비용 절감으로 예산 집행이 완결되지 않았음.
- 예술가의 집 집행률은 96%이며 매분기당 일정한 잔액을 남기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물가 상승에 비례하여 본다면 예산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노력을 하고 있고, 예술가의 집에서 예산 집행현황을 월별 제시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 ‘미술관기획공모’의 경우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각예술 창장지원과 중복의 가능성이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에서 전시기획 및 건축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 배정을 알 수 없음.
- 예술가의 집의 경우 전체 예산에 비해 대비, 자문위원 운영, 기타 잡비 등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

[발전 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업별로 정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은 건축학교 운영의 성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데, 미술관 본연의 임무인 전시기획의 충실성을 담보해야 함. 건축학교 운영이 전시와 연계된 사업이어야 하고 그 외에 워크숍, 아카이브 조성 등은 전체 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은 전시장은 전시를 중심으로 전체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며, 양적 면보다 질적 전시가 이루어져야 함. 해외 교류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평가에서 이들의 실제 효과를 규명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은 전시 평가를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에 관한 상세한 모니터링이 없음. 예산 사용의 적절성 분석이 요구됨.
- 예술가의 집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 문제제기와 분석이 없음.

[긍정적인 측면]

-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대한 질적 향상을 시도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은 미술관 운영계획과 전시운영 자금 배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요구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은 각각의 사업별 자금 사용 내역이 사업시기 별로 제시되어야 함.

[발전 방안]

- 연도별 전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금배정과 모니터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모니터링의 결과 전시기획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예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은 문제점 발생과 지적의 근거가 대부분 이용자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전문가 모니터링 등에서 지적된 사항과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긍정적인 측면]

- 제시된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하고 해결을 노력 함.

[미흡한 측면]

- 제시된 문제 이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 예술가의 집 활용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함. 예를 들어 전시장 방문객의 제한적이고, 전시가 미술계에 아무런 반응을 이끌지 못하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발전 방안]

- 기획전시의 인지도가 낮은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사회전체에 반응을 이끌지 못해도 미술계에 관심을 끌도록 다양한 기획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예술가의 집’ 활용을 위해 인지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여야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의 전시기획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 미술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시 이외의 프로그램을 ‘예술가의 집’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예술가의 집>

- 2개의 성과지표 모두 100% 달성

<아르코미술관>

- 2개의 성과지표 중 만족도는 달성 못함
- 이용자수 달성, 고객만족도 미달성
- 이용자수는 102.7%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만족도는 96.7% 미달성함.
- 미달성 사유로 고객만족도 예측모델을 설정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의 추세 및 내·외부환경, 자원역량을 분석하여 만족도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13년도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전년대비 2.0% 하락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환류 이행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하였고 그에 따른 설명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음.
- 고객만족도 PCSI 95점 중장기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행하였음.
- 문화예술공간운영에서 약간의 흠결이 보이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의 보다 한발 앞선 노력과 개선이행으로 수치와 목표, 운영이 분명함.

[긍정적인 측면]

- 새로운 융합의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카이브시설이나 건축과의 융합에서 가능성을 보임.
- 예술기반 과학, 테크놀러지,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합과 복합의 다양성 요구 시대에 미술이라는 장르에 더하여 학제, 형식, 분야, 장르 간 장·단기 패러다임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비엔날레에서 한국이 최초의 수상을 한 것과 시각분야와 전시창작공간의 협업과 융합이 돋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미흡한 측면]

- 예술가의 집은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지향해야 하나 외부 용역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음.
- 하나의 아이টে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계성도 미약할 뿐 아니라 사업역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외부협찬이 오히려 사업의 정체성을 흐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발전 방안]

- 아카이빙 구축은 관련 부서와 조율하여 한 곳으로 예산, 인력, 시설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인력과 자금으로 새로운 융합과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할 여지가 있음.
- 융·복합 R&D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다원 예술은 프로듀싱, 페스티벌, 극장, 미술관 등 협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시적인 성과와 수상실적을 활용하여 가치로 삼을만한 프로젝트를 응집할 필요가 있음.
- 문학에서의 노숙인 문학교실을 외부 주택시설을 서울시 등과 연계 활용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만 지원해주는 형식인데 미술관이나 예술가의 집 기관내부 시설로 끌어들이 단기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시각예술과 건축의 주제기획전이 올바른 효과를 가져와 비엔날레에서 거둔 초유의 성과를 가져온 것 등은 좋은 구심점이 되는 사례임.
- 이병복을 발굴하고, 시각과 공연의 융합이라는 과제를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다원 융·복합과 실험성, 해외교류로의 확장성도 의도를 지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둠.

[긍정적인 측면]

-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대비 성과를 이루어냈고, 각 사업구상과 전략적 적용에서 전략 부합도를 점차 높이고 있음.
-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원과 협찬까지 계획하고 성과를 얻었음.

[미흡한 측면]

- 국내성 제고에 획기적 성과를 위한 홍보, 연구, 마케팅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민예술교육 확대와 접근성에서 마로니에 광장, 인근 환경의 변화 외에 미술관 독립활동에 의한 관객참여, 접근성 등이 개선되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줄고 있는 이유와 관객이용률상향의 성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지표에 근거한 성과를 하나둘 쌓으며 예산을 늘려 가는 장기적인 노력과 설득을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에 하여야 함.
- 트랜스페어 한국 국제교류전의 경우 홍보를 강화하여 자국은 물론 타국의 언론에 까지 보도가 되어야 하고 특히 인터넷은 기술과 방법상 용이하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IT 강국면모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기 바람.
- 예술가의집 콜센터 개설은 재고해보아야 함. 인력과 예산낭비로 보여질 수 있음.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예술가의 집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의 운영이 더욱 적극적이며 성과를 올렸으며, 예술가의 집도 성과가 나기 힘든 사업의 성격과 눈에 띄지 않는 사업상의 작업을 고민한 흔적은 역력함.
- 일본 문화재단과의 사업연계와 교류, 지구촌 학교, 꿈나무, 건축학교 등의 발굴에 적극성이 보임.

[긍정적인 측면]

- 아르코미술관 전시결과 보고서는 홍보팀 운영 결과와 가시적 성과를 위한 분석이 적절하며, 작가 포트폴리오를 신규 구축하는 등 기본적 노력과 데이터 관리가 착실함.
-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미술관 구축에 가시화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미흡한 측면]

- 이병복 3막 3장의 미술사적 가치에 더 집중하거나 유사한 다른 사례의 예술가 발굴에 큐레이터들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병복의 케이스는 다른 공연계의 박물관 전시로 이미 신선감은 상실되었음.
- 융·복합 공통기획 프로젝트의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는 그 폭을 좁혀 전문성이 더 드러나게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발전 방안]

- 공공미술과 융합, 관광 등의 다기능 플랫폼을 한꺼번에 찾기보다 지역, 관광객, 작가의 체험 프로젝트 구분이 모호함을 손보고 예술과 건축이 함께한 베니스비엔날레처럼 가시적 성과를 위한 데이터 축적과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면 좋을 것임.
- 융·복합형 기획의 다변화를 피하고 잘되는 기획은 2년 이상의 장기적 플랜으로 가져가는 복수형이 좋을 것이며, 예술가 집의 경우 30분내 민원해결의 의지는 좋지만 120번 다산콜센터에 업무협약을 맺고 예술가의 질문은 넘겨도 좋을 것임.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전시창작소통 공간지원업무와 창작매개활동 지원은 점수로 볼 때 빈약하나 그 기능성과 한국 문화계의 상징성은 너무도 크기에 고치고 수정하여 새로운 발전모델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었음.
- 아르코미술관의 사업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전개와 관련자료 축적은 놀라운 성과와 책임감을 보여준 바, 적은 인원으로 알찬 협업을 이루어지는 것은 타 부서의 귀감임.

[긍정적인 측면]

- <그의 공화국>은 소박미와 깔끔한 편집디자인이, 감각의 구축은 한영 언어의 비교와 동시 편집이 우호적 성과 담보함. 신 중국 미술의 노란색 사용은 컬러나 흑백에 대한 효과적 가능성을 제기하였음.
- 관객들의 재방문의사가 높은 것은 고무적이며, 비슷한 상인들의 출연과 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미흡한 측면]

- 트랜스페어의 한국과 독일의 동일한 목적사업에 부하나, 체류에 관한 합당한 성과가 가시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 언론보도의 실적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팀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였으나 관람객이나 일반관객의 반응은 그 꼼꼼한 관리에 미치지 못함.
- <그의 공화국> 등에서 지면 광고나 홍보 시, 인터넷이나 블로그, SNS활용의 기법연구에 주목하는 방안연구가 필요함.

[발전 방안]

- 아르코미술관 이용객 연구는 공공성 이외 아르코미술관의 특정한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대학로의 공간들과 연관한 프로젝트로 연기와 코미디, 그리고 다큐멘터리 형식의 전시와 관극행위가 필요하고 연구되어야 함.

기준 4. 파급 효과

[배점 근거]

- 문화예술 진흥기금 아르코미술관 성과계획서가 매우 상세하고 방증자료가 긍정적이며, 특히 새로운 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는 수준급임.
- 적은 예산을 감안하면 창작 향수 실적이 우수함.

[긍정적인 측면]

- 구체적이고, 성실한 연구 자세는 높게 평가됨.

[미흡한 측면]

- 9000건의 자료로 아카이브 전문 운영 미술관이나 미술관의 중추 기증은 낭비성에 해당함. 그에 더해 다원예술아카이브는 미술관이라는 기본설정과 어울리지 않음.
- 이병복의 공연예술과 복식사 등의 차별화는 인정되나 새로운 발굴 없는 타 전시 자료의 재활용이라는 의구심도 강함.

[발전 방안]

- 미술관람 행위 후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점을 응용하여 세련된 휴게공간과 저렴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기여하는 방법이라 사료됨.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경복궁 옆 기무사 터의 미술관 개관 등으로 인한 분명한 정체성은 더욱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함. 20대 이하 방문자 60% 목표를 상회하려면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실천성이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함.
- 지속적 발전과 확장을 위해 심사자나 선별자의 인력풀을 만들고 고견을 들으며 단체소속 편중유무, 객관성 확보, 지원가치의 고려 등에 대한 가중치와 예외성 마련도 필요함.

4. 개선과제

□ 계획

[공간활용을 위한 분명한 개념 정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을 중심으로 융·복합 예술창작 거점을 수립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융·복합 예술에 대한 개념정립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체계화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효과적 공간활용을 위해 보다 명확한 사업개념 정립이 요망됨.

[사업전략과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정립]

- 동 사업은 사업 추진전략과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지표 개발 및 설정은 사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린 결과인지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분명한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공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과 예술가의 집 모두 공간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한 것으로 지적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간의 정체성이 좌우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다 안정적인 정책운영 의지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집행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사업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담당자의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함.

[공간 활용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 강구 필요]

- 아르코미술관과 예술가의 집 모두 공간 활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기획전시의 낮은 인지는 공간운영을 위한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사회 전체의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시 기획을 위해 각계 각층의 기획자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함.

□ 성과

[공간 서비스 제공의 직영화]

- 현재 서비스 제공이 외부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영 서비스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홍보, 연구, 마케팅 강화 노력]

-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사업의 속성상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홍보, 연구, 마케팅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홍보 및 마케팅의 강화만으로도 공간 활용성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됨.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 동 사업은 미래를 선도할 역량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중견 예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사업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 수혜자들은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자신의 자질이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부가로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 판단됨.
-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를 세부사업이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고 단순히 지원 자체에 머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음. 이는 사업 목적에 대한 사업 수행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육성사업인 관계로 지원내역과 사업성과 이외의 눈에 띄지 않는 섬세한 관리가 있어야 함. 하지만 예산집행의 타당성이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의 계획수립이나 목표치 설정과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 수혜자의 만족을 성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소양이 온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이 같은 태도와 소양은 동 사업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며, 동 사업은 이를 성과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사업 수혜자 선정과정에 있어 수혜 지원자가 예술가로서의 태도와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또 그들이 지닌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동 사업 참여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산출하여 이를 달성하였는가를 판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수혜 지원자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YAF는 우리나라 예술계의 미래를 선도할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 및 기획인력을 발굴하여 창작 및 연구 등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중견 예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다년간 지원(최대 3년)
- 총사업비 : 12.78억원
- 사업규모 : 1인당 연간 8백만원 ~ 3천만원 지원(총 40명)
- 지원대상
 - 공모접수 연도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의 개인(초, 중, 고, 대학생 제외)
단, 문학분야는 등단 5년 미만 만 35세 이하, 실연자(예술영재)는 중학생~대학생(만 24세)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및 문화일반 분야
 - 음향, 조명, 무대, 의상, 분장 등 관련 분야 종사자
 - 기획, 행정, 경영 관련 분야 종사자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창작활동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주체 : 개인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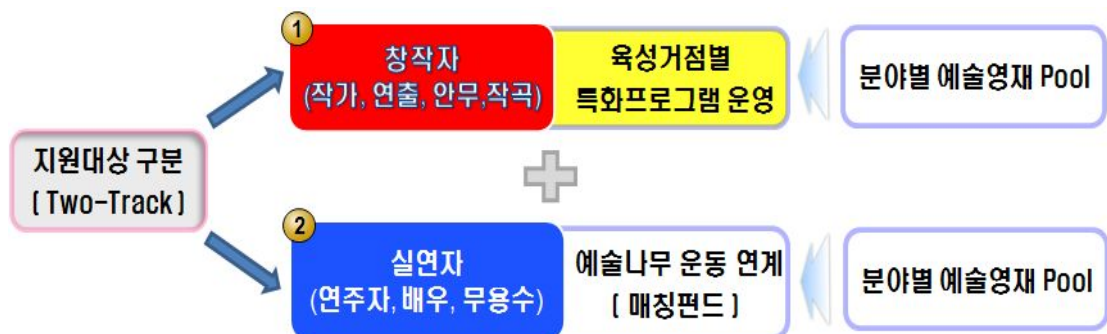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아트프론티어	972	1,229	1,500	222	18%
□ 세출예산비목					
▪ 민간경상보조	957	792	865	73	9.2%
▪ 일반수용비	15	430	569.5	139.5	32.4%
▪ 사업추진비	-	7	8	1	14.2%
▪ 포상금	-	-	50	50	-
▪ 공공요금 및 제세	-	-	7.5	7.5	-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방식은 기존의 단순한 장르별 구분에서 탈피하여 예술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창작자와 실연자로 이원화하여 지원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4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2.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10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0	
	4-3 우수사례 평가	3	2.61	
전체 합계			100	91.11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차세대 예술인력'의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차세대 중견 예술가로 육성한다는 사업목적의 기술이 명확함.

[긍정적인 측면]

- 차세대 예술인력의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차세대 중견 예술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한 사항은 없으며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발전 방안]

- 특이사항 없음.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목표를 사업경쟁력 강화, 창작역량 향상 및 객관적 검증, 창작발표 기회 제공 확대의 세 가지로 제시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경쟁력 강화, 창작역량 향상 및 객관적 검증, 창작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고, 기관의 미션과 비전 기술이 미흡함.

[발전 방안]

- 사업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업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성과를 목표로 제시해야 함.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재정지원이 아닌 규제(또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에 의해서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사업임.

[긍정적인 측면]

-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성취되기 어려운 사업임.

[미흡한 측면]

-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서술되어야 함.

[발견 방안]

-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신진 예술가에 대한 발굴, 육성이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이나 기업에서 유사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젊은 예술가를 지원한다는 사업의 특성상 지원대상이나 방식에 대한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이 모델이 되어 전국 각 지역에 확산되어 나가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동 사업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긍정적인 측면]

- 서울문화재단의 유망예술육성지원사업NArT, CJ문화재단의 CJ Creative Minds 등 유사사업과의 비교가 잘 정리되어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에서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사업목적과 달리 “국가를 대표할 차세대 예술인력 발굴·육성”으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목적은 유사하나 사업 수혜대상의 중복성은 없음.

[긍정적인 측면]

○ 대상 예술가, 대상 지역, 대상 장르에서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점은 없음.

[발전 방안]

○ 특별히 미흡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 수행 주체가 다름.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특이사항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이라는 단일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 및 체계가 사업목적에 부합함.

[긍정적인 측면]

- 기관 비전 전략과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짐.

[미흡한 측면]

- 사업명에서 ‘예술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업목적에서는 ‘젊은 예술가 및 기획인력’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실적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 발굴 및 육성”으로 기술된 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 아트 프론티어’ 등 사업명 통일 필요

[발견 방안]

- 사업목적에 대한 통일된 기술이 필요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자부담 최소 10%의 재원 분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재원분담의 원칙에 대해 잘 기술함.

[미흡한 측면]

- 정산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재원 분담 현황 제시 필요

[발전 방안]

- 실제 재원 분담 현황을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분야별 선정 기준 세분화, 책임심의위원 외에 전문가 심의를 병행하여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선발 연령 구분하여 대상 선정이 이루어짐.

[긍정적인 측면]

- 최적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분야별 세분화 시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함.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특이사항 없음.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직접 지원에 더하여 추진 가능한 간접 지원 체계를 부가적으로 시행하였음.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직접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간접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 신청 건수 대비 선정율 7.4%로 현장 수요는 확인되었음.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분야별 수요나 수요의 질적 요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발전 방안]

- 분야별 신청 및 선정 현황을 제시하였고, 지원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시 해야 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는 사업의 내용을 모두 포괄 하고 있음. 본 사업의 목적은 미래를 선도할 젊은 예술가 및 기획인력을 발굴하여 창작 및 연구 등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차세대 중견 예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임으로 다음에 오는 3가지 성과지표의 내용으로 볼 때 사업내용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됨.
- 첫째, ‘사업수혜자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질적·양적 측면에서 목표달성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둘째, ‘1인당평균 수상 및 초청실적’을 통해 창작역량 강화성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셋째, ‘지속지원기반 마련’ 성과를 통해 기존의 단발성 지원과는 다른 중견예술가로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계지원 성과를 측정 할 수 있음.
- 이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신진예술가의 예술창작 여건 개선 및 마련’이라는 측면이 강함으로 사업내용을 포괄 하고 있다고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명, 지표특성 등 성과지표와 사업내용과의 연계성이 잘 나타남.
- 특히 사업목적과 함께 본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요인인 사업경쟁력강화, 창작역량 향상 및 객관적 검증, 창작발표 기회 제공 확대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성과지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측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을 인지 할 수 있었음.
- 또한 단순 투입·산출지표 대신 수혜자만족도(점), 1인당평균 수상 및 초청실적(건), 지속지원기반마련성과(건)을 지표화 함으로써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가지는 여부는 평가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를 통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실임. 따라서 아무리 제공된 자료가 연계성 여부를 잘 파악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성과지표의 의미에 따른 사업내용을 단순 사업목적과 성과 목표 측면에서 계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적용된 항목기준에 의거한 과정들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판단됨.
- 예를 들어, 사업지표인 사업수혜자 만족도(점)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기준을 보여주거나 실제로 사업수혜자가 만족도를 표시한 시트지를 샘플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이 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판단됨.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다음과 같은 업무과정에 따른 지표 체계로 ‘투입→과정→산출(양,질)→결과’ 따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결과지표로 설정 되어 있음을 보여줌.

투입	재정: AYAF 선전자 개인당(8백만원~3천만원) 인력: 분야별 사업 담당자7명, 민간 전문 평가위원 14명																			
▼																				
과정	사업의 적기성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다양한 운영시스템, 개인별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개인별 활동계획 및 관심분야 등에 대한 DB 관리→상호교류기회제공																			
▼																				
산출(양, 질)	본 사업 수혜자가 느끼는 사업에 대한 세부 만족도 파악																			
▼																				
결과	<table><tr><th>성과지표</th><th>계 획(A)</th><th>달 성(B)</th><th>달 성률(B/A)</th></tr><tr><td>사업 수혜자 만족도(점)</td><td>91.9</td><td>95</td><td>103.4%</td></tr><tr><td>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건)</td><td>0.90</td><td>0.93</td><td>103.3%</td></tr><tr><td>지속지원기반마련성과(건)</td><td>2</td><td>3</td><td>150.0%</td></tr></table>				성과지표	계 획(A)	달 성(B)	달 성률(B/A)	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91.9	95	103.4%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건)	0.90	0.93	103.3%	지속지원기반마련성과(건)	2	3	150.0%
	성과지표	계 획(A)	달 성(B)	달 성률(B/A)																
	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91.9	95	103.4%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건)	0.90	0.93	103.3%																
	지속지원기반마련성과(건)	2	3	150.0%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 발굴 및 육성 사업 운영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써 설정되는 당위성을 미국과 영국의 예술지원정책의 해외 사례(예술분야의 성과측정지표는 창작작품수, 관람객수, 예산투입대비 지원사업수 등을 주로 채택함)를 통해 본 평가의 올바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기존 계획에서 보다 높게 초과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의미가 전혀 없어서 실제 본 사업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음.

[발전 방안]

- 달성률을 근거로 한 결과지표에 대한 해설을 첨부한다면 추후 파급효과나 기대효과 및 발전 방향성을 도출 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을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판단되어짐.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측정산식의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과 측정방법 등 표처럼 정확히 명시함.

성과지표	개념	측정산식	측정방법
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예술가들이 사업에 느끼는 만족도	PCSI 조사방법 및 산식적용	AYAF 지원자 중 샘플 조사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건)	국내외에서 수상하거나 초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실적	장르별지원대상자 수상 및 실적 총합 ÷ 지원대상수	AYAF 지원자 3기 40명 전수
지속지원기반 마련성과(건)	신진예술가의 지속지원기반마련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MOU 및 협력건수 집계	장르별 MOU 및 협력 건수 집계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의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조사주체(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설문대상(기금지원을 받은 예술인, 단체), 조사방법(설문조사), 표본구성(AYAF 85명 중 샘플링)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방법을 택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보여줌.

[미흡한 측면]

- 사업수혜자 만족도를 제외하고 다른 2개의 성과지표(1인당 평균수상 및 초청실적, 지속지원기반마련성과)는 내부적으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정이 가능한 것 일지라도 본 사업을 평가하는 시각에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원한다면 외부수행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사업을 건강하고 투명성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인당 평균수상 및 초대실적(건)’은 국내외에서 수상하거나 초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건수를 파악하는 성과지표인데 과연 이 건수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유는 초대실적이 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적인지 아니면 본 사업 전에 네트워크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 도중에 진행됨에 따라 건수로 기록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발전 방안]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측정방법의 내용을 지금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했으면 함. 현재는 단순 명료하게 요약적 방법으로 키워드로만 설명을 했지만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결과도출을 이야기 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 근거로써 보여 질 수 있다고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긍정적인 측면]

- 실적 목표치가 이전 연도의 실적에 비례하여 안정적인 측면 및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흡한 측면]

- 목표치보다 급격한 성과치 (예: CS점수 및 수상실적)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수상 및 초청실적은 “건”수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발전 방안]

- 너무 과도한 또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보다는, AYAF 특성에 맞는 점진적인 목표치가 바람직 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긍정적인 측면]

- 사업 전 기준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설정이 되어 있음.
- 목표치 설정과 그에 따른 실적이 매우 양호함.
- 전 직원의 전사적/협력적인 측면이 향후 목표치 설정 및 실질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수상실적의 초과는 잠재 수상자의 실적이나 그에 따른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날 수 있음.
- 실제로 잠재성이 있거나, 지원이 절실한 후보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평가도 필요할 수 있음.

[발견 방안]

- 실적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차기연도에 그에 대한 강점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함.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구성원들의 노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20% 목표치 향상에서 그 대로 반영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밀착형 서비스 등 만족도 향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사업비 축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조직 구성원의 성취감 및 향후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

[미흡한 측면]

- 지원자들에 대한 잠재력(Potential)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검토가 필요함.

[발견 방안]

- 미흡한 사항으로 나타난 내용에 대해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4/4분기 예산의 적시 집행 불이행되어 있음. 즉 목표치보다 2배 이상 집행되어, 적시 집행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 이전 분기는 목표치보다 적게 집행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

[긍정적인 측면]

- 집행률이 계획과 매우 차이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

[미흡한 측면]

- 적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함. 예산의 밀어내기 사용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음.

[발견 방안]

- 평가 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작년 시업 비교 올해 집행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과 집행 분기를 결정해야 함.
-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4/4분기 과도 집행이 이루어짐. 이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임.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업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매월 수시 혹은 매월 1회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준(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실시)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모니터링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특히,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면 그에 따른 일지 또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나 이러한 근거자료가 부재하기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구분	모니터링 주기 및 실시(일자)
장르별 담당자 통합 모니터링	매월 수시
국정과제 진행사항 점검회의	매월 1회

[긍정적인 측면]

- 사업 모니터링에 대한 프로세스(지원신청→지원신청접수→지원심의→지원금교부→사업추진→성과보고)의 도식화와 함께 설명은 모니터링 과정이 어떤지에 관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자료임.

[미흡한 측면]

-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으나 모니터링을 언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특히 모니터링 주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 예술인력개발원, 인사미술공간, 분야별담당자’ 라고 기술된 바, 모니터링에 대한 주체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발전 방안]

-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 내용(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이 추가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모니터링 주체도 관련 유사 파트를 모두 쓰지 않고 명확하게 관련 담당자 혹은 다수로 표현해야 하며 점검내용 및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사업추진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 및 해결함.
- 먼저, 문제점 ‘신진 예술가 대상 사업 추진 프로세스 개선필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짧은 사업기간동안 다수의 사업추진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을 적극 발굴하고 직접적으로 예정된 쇼케이스를 폐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결실적으로 제작프로듀서 도입을 하여 쇼케이스 폐지로 인한 중간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과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및 조언을 하도록 함.
- 장르별 산발적 추진 체계도는 내·외부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예술영재 조기 발굴 및 지원 필요성 제기, 신진 예술인력 육성을 통한 인적기반 강화 필요,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산 필요)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해결로 과감히 공연예술분야 실연자 트랙을 신설하여 총 15명의 지원을 하고 예술영재 Pool을 확보하여 민간기업과의 후원을 연계하였음.

[긍정적인 측면]

- 문제점의 발굴, 내용, 원인부터 세부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프로세스 도출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명시와 함께 바로 사업에 적용함.
-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발굴은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는 과정 이었다 생각됨.

[미흡한 측면]

- 장르별 산발적 추진체계’의 문제점 발굴 과정이 간략하게 내 외부 간담회라고 있으나 신진 예술가 대상 사업 추진 프로세스 개선 필요의 문제점처럼 구체적인 간담회 일정 및 과정과 함께 주요 내용을 작성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 해결만 보

여 주었음. 이는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 해결에 대한 사업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지에 대한 반응은 할 수 없음 상태임.

- 따라서 향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실적과 함께 사업 그 해결책에 대한 대상자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조사하여 넣는다면 보다 적절한 문제점 대응을 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사료됨.
- 사업 중 발생한 문제점을 모두 열거하고, 그에 대한 해결제시를 한 점과 못했다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이 이루어 지기 바람.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전반적인 목표치 및 결과지표를 근거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목표치와 실적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역시 잘 제시되어 있음.

[미흡한 측면]

- 미흡한 측면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다만, 목표치는 너무 과도하게 제시하는 것은 향후 실적 및 목표치 제 설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너무 과도한 목표치보다는 각 사업부의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예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매년 1-2가지의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는 필요도 있음.
- 특히, 예산의 한계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대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즉, 선택과 집중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신규 성과지표 개발, 창작활동 공간 발굴 및 연계지원을 통한 효율적 진행 및 개선과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과제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설계방식의 자율평가지표 보완을 완료하였고, 창작 작품의 질적 평가 요소 평행 보완이 이루어졌고,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공간 매칭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짐.

[긍정적인 측면]

-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은 국내 예술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예술가, 기획 인력을 발굴, 향후 국내 창작 및 연구 등에 필요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자에 담당자별로 밀착하여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안정적 활동기반을 마련함.
- 제작프로듀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공연예술분야 창작자의 작품제작 과정전반에 대한 전문가 밀착형 모니터링을 통한 자기설계방식 시스템보완의 의미와 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공간매칭을 통한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활성화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림푸스와의 MOU를 통한 일정 정도의 성과(연간 12회 공연)와 기관차원의 후원행사 및 축제행사를 통한 사업목적에 접근한 방식은 자율적 성장을 위해 매우 창의적이고 효율적 방안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개선과제 가운데, 우선순위 1위였던, 창작품의 질적 평가를 병행 할 방안 마련에 대한 보완점은 미흡함.
- 즉 개선과제를 위한 신규성과지표개발(정량지표에 대한 정성지표의 자체개발 이행 계획)추진을 위한 세부이행계획이 ‘설문조사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결국 정성적 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로 순환하게 되는 문제점에 봉착하여 개선과제를 이행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향 설정을 수정이 요구됨.

[발전 방안]

- 창작활동 공간 매칭 활성화사업의 일시적 성과를 단기적 유형에서 장기적 유형으로 발전해 나감이 바람직함.
- 첫째,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요구됨.
- 둘째, 질적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신진예술가의 예술적 성장조건을 지나치게 계량화시키는 지원 정책은 개선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신진예술가들의 성과측정하고 견인할 지표개발이 요구됨. 오히려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제안함으로써 가능한 평가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셋째, 질적평가를 위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절실히 요구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사업의 적정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긍정적인 측면]

- 생애주기형 육성체계로 전환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한 예술영재 발굴을 통해 향후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
- 특히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영재 발굴사례는 매우 훌륭함.

[미흡한 측면]

- 공연예술분야에 있어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과 융합의 트렌드에 맞춰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영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쉬움.

[발전 방안]

-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관의 관심과 지원으로 차세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절실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긍정적인 측면]

- 신진예술가를 위한 안정적 창작 시스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한 공연예술계의 제작환경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 신진예술가들의 진입경로 마련책에서 멘토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력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 기존 장르별 단순 구분법에서 탈피하고 분야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협력을 통한 지속적 지원을 이끌어내어 예술의 가치를 통한 사회적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생성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으로 정착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으로 확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요구됨.
- 지나친 경쟁 구도 속에 공공의 목적성이 상실되지 않을 지원의 영역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목적의 분명한 이해]

- 동 사업은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과 성과목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음은 과업 및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동 사업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증명함.
- 사업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서라면 동 사업의 목표가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함.

[무의미한 사업명칭 변경 지양]

- 동 사업명은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이나 작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 아트 프론티어(한국문화예술위원회 Young Art Frontier; AYAF)’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받았음. 사업명칭 변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외래어를 한국어로 변경한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음.
-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사업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함.

[사업목적에 대한 성과지표의 연계 강화]

- 이번 평가에서는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에 대한 사업담당자들의 인식이 높다하더라도 이를 객관화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업 담당자는 성과지표의 사업목적에 대한 연계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 이를 객관화 하여야 할 것임.

□ 집행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사업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담당자의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함.

□ 성과

[성과목표산정 및 관리의 투명화]

- 성과 목표 산정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과목표 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한 과거 실적 관리를 병행하여 성과에 대한 심층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과제 개선의 목적 이해]

- 과제 개선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임에도 해당 과제에 대한 단순한 터치만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과제 개선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고 유효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임.

[107] 예술인력재교육

- 동 사업은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을 통해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창작 여건을 개선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대부분의 평가영역에서 90점 이상 득점한 것은 사업의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사업 성과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함.
- 하지만, 이 같은 고득점이 사업영역이 좁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임. 동 사업은 사업목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단 2개(무대예술 전문교육,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에 그치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53.8%를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운영에 할애하는 등 예산 지출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유사 기능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을 통한 ‘예술인력 재교육’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 분야의 트렌드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사업 대상자 범위에 비해 사업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사업속성이 다른 인력육성과 재교육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목표가 없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동 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항목부터 다시 연구, 검토해야 하며, 사업명에 걸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을 줄이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함. 성과지표를 교육생 수, 교육생 만족도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이 교육장 운영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은 개선을 필요로 함.
- 또한, 사업에 대한 핵심 아이덴티티를 갖춘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성과지표가 지닌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요구받는 필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연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무대예술전문인력을 양성 및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기반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7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3년도 766백만원
- 사업규모

구분	예산	사업내용	참여자 수	대상
무대예술전문교육	181백만원	교육프로그램 16회	480명	국내 활동 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173백만원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 8회	300명	국내 활동 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개발원운영	412백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	교육프로그램 및 개발원 시설 이용자

- 지원대상 : 문화예술 매개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일부재원 민간부담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사업시행 주체 :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예술인력재 교육	921	741	1,000	259	
▪ 개발원운영	371	398	500	102	
▪ 무대예술전문교육	201	177	248	71	
▪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208	166	252	86	
▪ 찾아가는교육	22	(사업폐지)	-	-	
▪ 공연예술인큐베이터	119	(사업이관)	-	-	
□ 세출예산비목	921	726	1,000	259	
▪ 기타직보수	-	-	106	106	
▪ 일용임금	-	-	4	4	
▪ 일반수용비	535	340	442	102	
▪ 공공요금 및 제세	84	83	97	14	
▪ 피복비	1	1	1	0	
▪ 급량비	25	23	25	2	
▪ 연료비	24	25	25	0	
▪ 시설장비유지비	111	150	145	△5	
▪ 차량 선박비	15	14	14	0	
▪ 국내여비	4	-	-	-	
▪ 국외여비	28	26	32	6	
▪ 사업추진비	9	5	5	0	
▪ 시설비	70	59	89	30	
▪ 자산취득비	15	15	15	0	

□ 사업추진 절차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3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5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10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0.8
		4-3 우수사례 평가	3	2.67
전체합계			100	93.47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공연장 및 그에 종사하는 무대기술 전문인력의 급증, 무대기술분야의 신기술 발전, 관련 교육기관의 부재 등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을 통한 공연예술분야 무대기술 전문인력 대상 재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유사 기능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을 통한 ‘예술인력 재교육’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국제분야의 트렌드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 대상자가 공연예술분야 무대기술 전문인력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데 비해 사업명이 ‘예술인력 재교육’으로 되어 너무 포괄적으로 보임.
- ‘인력 재교육’과 ‘인력 육성 및 양성’은 사업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발견 방안]

- 공연예술분야 무대기술 전문인력 재교육 사업의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명을 개정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이 사업의 성과 목표를 “예술창작 여건을 개선한다-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와 만족도 제고”로 설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와 만족도 제고’라는 하위 목표가 ‘창작 여건 개선’이라는 상위 목표 달성에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

- 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창작 여건 개선’이라는 목표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창작 여건 개선’이라는 목표는 너무 넓은 범주로 되어 있음. 예를 들면 ‘공연예술 분야 무대기술 환경 개선’ 정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발견 방안]

- 중기적으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와 만족도 제고’에 더하여 공연장 관리자 또는 공연자(배우, 연출가 등)의 ‘무대기술 부분 창작 여건 개선 정도’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은 유사 교육기관이 없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영 사업으로 재정 투입이 없으면 성취되기 어려운 사업임.

[긍정적인 측면]

- 예술인력 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대체로 적절하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무대기술 분야 유일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이 무대기술 발전에 기여함.

[미흡한 측면]

- 무대기술 관련 교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바 민간부문의 수익사업으로는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기술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재정 지원 없이 민간부문의 수익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무대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의 국제적 역량강화 교육 등 타 교육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고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유사 또는 중복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에 유사·중복성이 없는 고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아카데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대예술자격을검정위원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중복성이 없음이 인정됨.

[미흡한 측면]

- 사업명이 ‘예술인력 재교육’이라는 포괄적 명칭으로 되어 예술경영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아카데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유사사업’과 비교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성격은 무대기술분야의 전문교육프로그램으로 국내 유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고유사업이므로 굳이 실적보고서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
- 또한 무대예술자격을검정위원회는 자격관리 기구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역시 실적보고서에 다를 필요가 없음.

[발전 방안]

- 유사 프로그램이 없는 고유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필요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 수혜대상이 “전국 무대예술 관련 현장업무 종사자”로 설정되어 중복성이 없음.

[긍정적인 측면]

- 예술경영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아카데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대예술자 격검정위원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수혜 대상에 유사·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음.

[발전 방안]

-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으므로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 시행 기관이 다르므로 사업 수행 주체가 다름.

[긍정적인 측면]

-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움.

[미흡한 측면]

- 실적보고서 작성 시 다른 기관에 의해서는 동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쉬우며,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고유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예술경영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아카데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대예술자 격검정위원회 등 기관명만 기술되어 있고 각 기관들의 미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무대예술 전문교육’과 ‘국제공연예술 전문가 시리즈’의 두 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대예술 전문인력 재교육 및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기관 전력 목표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구현에 적합한 사업임.

[긍정적인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 개발원의 비전 및 전략 목표 설정 속에서 동 사업을 배치함.

[미흡한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 개발원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목표를 확장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 동 사업은 현재와 같이 ‘무대기술 전문인력 재교육’ 사업으로 한정하여 유지해 나가고, 새롭게 추진할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기술이 필요하며, 기획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술인력 프로그램과 구분하여 추진해야 함.

[발전 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 개발원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목표를 확장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동 사업의 위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일부 부담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움.

[미흡한 측면]

- 각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부담 기준, 실제 수강료 현황 자료를 실적보고서에 제시해야 함.

[발전 방안]

- 수강료 관련 현황 자료 제시하기 바람.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직영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움.

[미흡한 측면]

- ‘대상의 적정성’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이라는 점을 고려 전국의 공연장 종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지, 과다하게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강자 선정 방식(예, 선착순 등)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현장 종사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무대기술 전문인력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직영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방식의 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움.

[미흡한 측면]

-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움.

[발견 방안]

-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색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전문가 그룹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통한 수요 예측 등의 방법으로 교육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공연예술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향후 확대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 수요 예측이 전문가 그룹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통한 수요 예측, 기존 통계 자료 인용 등을 통해 적절하게 제시함.

[미흡한 측면]

- 다만 공연장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나 전체 종사자 가운데 교육생 현황(비율, 추이 등)에 대해 기술하면 더욱 좋을 것임.

[발전 방안]

- 교육 대상자의 양적 수요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요 조사를 병행하면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는 사업의 내용을 모두 포괄 하고 있음. 본 사업의 목적은 예술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각종교육(연수)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높이고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함임.
- 따라서 성과지표인 ‘교육생 만족도’는 교육프로그램의 현업도움도, 사업(콘텐츠)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등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가자의 전문성 향상 여부의 정도 측정 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로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두 번째 성과지표인 ‘교육생 수’는 본 사업의 교육이수자 수를 근거로 한 지표로서, 이를 통해 무대예술전문인력과 공연예술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양적인 성과 달성도 가늠을 할 수 있고 기 배출된 이수자는 문화예술 창작기반의 요소로써 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을 반영하기 때문에 구체적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두 가지 방향성(인과성, 신뢰성)에 의해서 명확히 잘 나타나 있고 특히, 신뢰성의 교육생 만족도는 자체조사와 정부(기획재정부)의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지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구조를 사업목적 이후 단계적으로 성과목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과지표 달성 등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자는 의도는 이해 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메인 성과지표(결과지표)인 ‘교육생수, 교육생 만족도(후행지표)’가 아닌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향상도(선행지표)’라는 새로운 성과지표(투입과정지표)를 언급하여 평가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따라서 예술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향상도’를 성과지표라 정의를 한다면

당위성과 함께 성과지표로서 활용을 해야 할 것이나 아니라면 다른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 할 필요가 있음.

[발견 방안]

- 성과지표인 교육생 만족도를 자체조사와 외부조사 모두 시행했기 때문에 두 결과 모두를 첨부하여 보여줌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사료됨.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다음과 같은 업무과정에 따른 지표 체계로 ‘투입→과정→산출(양, 질)→결과’ 따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결과지표로 설정 되어 있음을 보여줌.

투입	재정: 2013년 기준 766백만원 인력 및 시간투입: 2013년 기준 원장 포함 7명		
▼			
과정	사업의 적기성, 타당성 지표(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계획), 운영시스템의 타당성 지표(의사 결정구조, 업무절차, 평가제도), 이행사항의 점검 제도와 추진 적정성 지표(사업모니터일 추진 적정성 등)		
▼			
산출(양, 질)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무대예술인 재교육 확대 강화('13년도 16회)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추진(워크숍4회, 초청강연4회)		
▼			
결과	성과지표	구분	2013년
	교육생 만족도(PCSI)	목표(명)	90.0
		실적(명)	95.8
		달성도(%)	106.4
	교육생수	목표(명)	780
		실적(명)	924
		달성도(%)	118.5

[긍정적인 측면]

- 산출 적인 양으로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무대예술인 재교육 확대 강화’는 ‘11년도 10회에서 ’13년도 16회로 발전 하였으며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추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4회 실시하고 초청강연을 4회 실시하여 보다 긍정적인 사업결과의 확대를 보여줌.

[미흡한 측면]

-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업무프로세스 체계에서 산출 양의 근거는 정량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질의 근거는 단순히 재교육의 횟수가 늘어난다든가 워크숍이나 초청강

연의 횟수를 통해서는 인지 할 수 없음.

[발전 방안]

- 결과지표로서 ‘교육생 만족도가 106.4%, 교육생수가 118.5%’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기 때문에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목표 달성률의 의미와 함께 기대효과를 언급함으로써 본 사업의 의의를 보여 줄 필요가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 아래 표처럼 정확히 명시함.

성과지표	개념	측정산식	측정방법
교육생만족도	예술인력재교육 교육생 만족도	경영평가 고객만족개선도 산식 적용	해당기간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무작위 선정 조사
교육생 수	예술인력재교육 교육생수 예술인력개발원 교육프로그램 무대예술전문교육과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교육 이수자수	교육과정(프로그램별) 교육이수자 목표 정원의 합계	예술인력개발원 자체 교육이수자 인원 전수조사 합산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인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조사주체(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설문대상(2012.7~2013.6까지의 무대예술전문교육, 국제공연예술가전문시리즈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이수자 중 중복인원을 제외한 46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 실시), 조사항목(12개의 요소별 교육프로그램의 편익성, 전문성, 공감성, 대응성, 지원성,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 청렴성, 공익성, 안전성에 대한 37개의 세부항목 평가), 표본구성(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중 무작위 선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방법을 택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보여줌.

[미흡한 측면]

- 교육과정(프로그램별) 교육 이수자 수를 자체조사로 파악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 자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 의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발견 방안]

- 성과지표인 교육생 만족도에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 자체 고객만족도 내용을 첨부하여 기존 기획재정부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도출 하는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목표치에 대한 명확한 제시 및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수요예측, 공급예측,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노력 등 매우 양호함.
- 교육생 만족도 측정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매우 인상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의지가 향후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양호한 수준이나, 아래 발전방안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양적평가보다는 예술의 특수성을 가미한 질적지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교육생수 지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지표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적지표 개발이 쉽지 않으므로, 현 사업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독특한 개량지표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치, 그리고 설정근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 및 합리적 설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전반적인 목표치 및 성과를 이해하는데 쉽게 정리되어 있음.
- 평가자가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적절히 작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미흡한 부분이 없으나, 아래의 발전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음.

[발전 방안]

- 교육생의 수업 이후 실시하는 평가에 대한 피드백 반영 여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음.
- VOC를 통해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보강 및 강화 노력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치, 그리고 설정근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개선노력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노력이 우수함.
- 무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실시가 인상적임.

[미흡한 측면]

- 이미 수강한 예술가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등 지속적인 피드백 노력을 통해 향후 수강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3년 이후 재 실시되는 업데이트가 현실을 반영하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진화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무대기술 분야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잠재성이 우수한 예술가를 2-3개월 파견 형식으로 최첨단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함.
- 예산이 허용된다면 1년에 1-2명 정도 꾸준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예산에 대한 적시 집행률을 기준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의 제시는 매우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4/4분기 예산 적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 분기별 집행률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적시 집행 계획을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함.

[발전 방안]

-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작년 시업 비교 올해 집행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과 집행 분기를 결정해야 함.
-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4분기 과소집행, 3/4분기와 4/4분기 과도 집행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보다 계획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모니터링 대상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에 따라 격월(연6회), 연2회(상하반기 각1회), 연16회(연중), 연4회(연중)등 다양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에 대한 정보도 제시 되어 있음.
- 또한 모니터링 주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 있고 특히 단순 사업의 집행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특히 점검내용 및 방법 중 일반 간단한 설문조사 차원이 아닌 3개 단위 27개 항목의 모니터링 기준이 있고 이에 대한 7단계도 설문조사 및 분석을 했으며 점검내용을 자문회의를 통해 한 모니터링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충실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모니터링 주체에 대한 진도점검 및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모니터링의 명확한 날짜와 횟수가 명시 되어있고, 모니터링 운영의 체계적인 계획단계가 설정되어 있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별첨으로 따로 작성하여 단순 사업의 진도 점검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 있음.

[발전 방안]

- 향후 모니터링 운영을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에 맞춘다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 할 것이라 판단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사업추진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 및 해결함.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당년도에 바로 수정하거나 차년도에 바로 수정 및 적용함.

구분		주요내용
예술인력재교육 지속적 예산 축소에 따른 예술인력육성사업 위축	문제점 발굴	운영자문회의, 강사만족도 설문조사 및 현장전문가 모니터링, 경영회의 및 자체 워크숍
	개선방안 및 해결실적	예술인력육성 중심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전략체계 수립 및 중장기 사업개편안을 마련: 내 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예술인력개발원 비전·전략 체계수립, 중장기 사업 개편안 수립
	문제점 발굴	운영자문회의, 교 강사만족도 설문조사 및 현장전문가 모니터링, 경영회의 및 자체 워크숍
무대예술전문교육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 필요	개선방안 및 해결실적	교 강사, 교육시설, 교과과정, 운영규정 등 기능 강화 및 개선: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 교육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대폭 정비
	문제점 발굴	운영자문회의, 경영회의 및 자체 워크숍
	개선방안 및 해결실적	산 학 단체와의 협력형 사업 추진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 및 사업성과 제고: 유관 문화예술기관 및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콘텐츠 강화를 위한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시설노후화에 따른 낙후된 교유시설 및 편의시설	문제점 발굴	교 강사만족도 설문조사, 경영회의 및 자체 워크숍
	개선방안 및 해결실적	교유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워크숍 추진 결과를 반영한 선순위 환경 개선 공사 추진: 교육생 및 강사요청 실습기자재 제공강화, 교육환경 개선
	문제점 발굴	교 강사만족도 설문조사, 경영회의 및 자체 워크숍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교육공간 접근성 문제 해결	개선방안 및 해결실적	교육생 니즈를 반영한 교육공간 운영필요: 국제뮤지컬 워크숍: 충무아트홀 교육공간 확보/국제음향 워크숍: 동국대 문화기술연구소 서라운드 음향 녹음실 교육 공간 확보/국제무대디자인 워크숍: 대학로 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공간 사용
	문제점 발굴	교 강사만족도 설문조사, 경영회의 및 자체 워크숍
	개선방안 및 해결실적	교육생 니즈를 반영한 교육공간 운영필요: 국제뮤지컬 워크숍: 충무아트홀 교육공간 확보/국제음향 워크숍: 동국대 문화기술연구소 서라운드 음향 녹음실 교육 공간 확보/국제무대디자인 워크숍: 대학로 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공간 사용

[긍정적인 측면]

- 문제점의 발굴, 내용, 원인부터 세부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프로세스 도출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명시와 함께 바로 사업에 적용함.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발굴은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는 과정으로 생각됨.

[미흡한 측면]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 해결만 보

여 주었음. 이는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결에 대한 사업대상자들의 만족하는지에 대한 반응은 알 수 없는 상태임.

[발견 방안]

- 향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실적과 함께 사업 그 해결책에 대한 대상자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조사하여 넣는다면 보다 적절한 문제점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것임.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전반적인 목표치 및 성과를 근거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각 품질지수 및 사업내역이 매우 충실히 수행되었음.
- 비계량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 및 그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이 매우 높음.

[미흡한 측면]

- 성과 목표치에 대한 달성 부분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다만, 아래에서 제시된 발전 방안을 참조할 필요는 있음.

[발전 방안]

- 교육생수보다는 사업부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갖출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고용보험기금 지원 신규사업 중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또한 고용보험기금이 일시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공연예술분야의 전문 인력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한 문화예술 창작여건에 중점을 둠.
- 개선과제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 예술인력 개발원 중장기 사업개편안 수립 및 재원 확충 : 지속추진
 - 예술인력 재교육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개선노력
 - 예술인력 개발원 모니터링 확대 강화 및 다각화 추진 : 지속추진
 -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초청강사 국가의 다각화 필요 : 개선노력
 - 외부재원 확충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 기반 조성 : 개선노력

[긍정적인 측면]

- 중장기사업개편안을 수립하고 재원확충을 위한 개선과제 이행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차기년도 중장기 사업을 위한 기반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됨.
- 강화된 사업 진행시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적절한 분배를 통한 적정성 제고노력으로 보이는 사전홍보계획 및 성과, 모니터링체계구축 및 다각화 추진, 온라인 교육을 도입한 교육인프라 기반마련 등은 긍정적이라 보임.

[미흡한 측면]

- 사업성과 환류위한 모니터링 다각화 필요 개선사항에 주기적, 체계적, 그룹별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통한 개선이행의 노력이나 과제도출을 통한 피드백 활동은 긍정적이나 평가분석 대상이 실질적 내부인사에 그치고 있으며, 평가분석 내용상 사업목적과 인과관계가 고려된 지표개발이 아쉬움.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사업의 적정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를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교육운영기관으로서 예술인력개발원의 미래와 비전을 전략적으로 제시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예술인력개발원 기능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노력은 긍정적임. 특히, 사업개편안 검토 및 수립, 워크숍, 외부재원유치 노력,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를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4대전략목표수립 , 중장기 사업개편안 수립 및 확정, 외부재원 유치와 국고이관 사업 유치 및 문예기금 신규 사업개발 등은 긍정적임.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와 기대효과를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서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였고, 인적자원개발 사업 모드로 발전을 도모함.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목적의 분명한 이해]

- 동 사업은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과 성과목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음은 과업 및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동 사업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증명함.
- 또한 동 사업의 목표가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목적실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

[고유사업에 대한 강조 미흡]

- 동 사업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는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이 고유사업이라는 자체 인식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함.

[사업전략과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정립]

- 동 사업은 사업 추진전략과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지표 개발 및 설정은 사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린 결과인지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분명한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집행

[예산의 적시 집행 노력]

- 동 사업은 분기별 예산집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4/4분기 예산의 적시 집행 불이행으로 예산의 밀어내기 사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분기별 예산 목표액 수립과 이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진행 체계 명시]

- 사업에 대한 진도를 명시하듯 모니터링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성과

[사업목적과 성과의 인과성 강화 노력 필요]

-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개선이행 노력과 과제도출을 통한 피드백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인과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됨. 지표개발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나 사업목적과의 인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표개발을 비롯,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함.

[108] 국제교류활성화지원

- 동 사업은 국제 문화교류활동지원을 통한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과 글로벌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매우 분명한 사업목적과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성과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등 외형상 기본 형식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음.
- 또한, 사업 모니터링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타 사업에 모범이 될 만함. 현재의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보다 훌륭한 사업모니터링이 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동 사업은 국제 문화예술교류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국제 문화예술교류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업 추진의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제 문화교류활동지원과 예술창작역량강화와의 인과성이 다소 미약하며, 성과목표 중 ‘예술특집행사의 과급력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기초예술 한류 확산 도모’나 성과지표 중 ‘평균 창작 작품 수’는 사업목적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
- 그리고 사업목적과 기관의 미션 및 비전, 경영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되지 못함은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함.
- 성과에 있어서도 산출근거와 평가방식, 그리고 평가실적에 대한 우수성이 여타 사업보다 탁월하며, 문제점 발굴과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됨. 다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채널의 다각화, 체계화 노력은 보이나 모니터링 주체의 전문성과 내용의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향후 동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한 지부터 체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목적의 적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 140건 내외 사업 지원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팸스협력사업지원
 - 한국예술특집행사지원
- 지원대상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일반공모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자체부담 10% 이상
 - 기획형 사업의 경우 별도의 추진단 설립 후 사업추진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예술단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국제 교류 활성화지원	2,800	2,500	2,800	300	12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공모)	2,100	1,800	2,100	300	16.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팜스 협력사업지원	400	400	400		
▪ 한국예술특집행사	300	300	300		
□ 세출예산비목					
▪ 민간보조금	2,800	2,500	2,800	300	12

□ 사업추진 절차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3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4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3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10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9.70	
	4-3 우수사례 평가	3	2.61	
전체 합계			100	90.31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국제 문화예술교류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국제 문화예술교류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업 추진의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사업 선정률이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임. 그러나 보조금에 대한 신청 수요가 있다는 것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미흡한 측면]

- 다른 유관기관(국제교류재단 등) 국제 문화예술교류 사업, 심지어는 평가대상사업인 국제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과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사업목적에 기술된 “창작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술이 필요함.
- 이 사업에서 추진하는 ‘국제 문화예술교류’란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업목적, 성격, 내용을 명확히 설정한 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동 사업이 국내 예술계의 창작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 목표의 설정으로 보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과 성과 목표를 제시한 후 그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을 기술하였음.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에 없는 ‘한류 확산’ 부분이 성과목표에 기술되었다는 점과 동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략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서술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

[발전 방안]

- 국내 예술계 창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제예술교류 지원’ 및 ‘해외 예술활동 지원’과 한국문화를 외국에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은 사업의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예술특집행사’ 지원이 동 사업에 적합한 내역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국제교류 파트는 내역사업 재배치 등을 포함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봄.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예술계의 국제교류 활성화는 재정 지원이 없으면 성취되기 어려운 사업임.
- 재정 지원이 아닌 규제(또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에 의해서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사업임.

[긍정적인 측면]

- 국내 예술계의 해외 진출 및 해외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글로벌 시대 예술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미흡한 측면]

- 동 사업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서술이 미흡함.

[발전 방안]

- 동 사업과 'K-Arts 한류'의 관계를 사업목적 설정에서부터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다른 기관의 국제문화예술교류와의 사업목적상 차별성이 거의 없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 내용에서 일부 사업목적 비교를 보완해 주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팸스 협력사업과 같이 기관 간 중복성을 시너지로 극복하고 있는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편성한 부분

[미흡한 측면]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의 비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비교만 있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발전 방안]

- 국내 예술계의 창작 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한류 등 국제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방향을 정한 후 사업목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류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국제교류재단 등과의 유사·중복성 발생에 유의하기 바람.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 수혜 대상이 민간 예술인 및 예술단체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유사사업 사업대상의 유사성이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대상의 중복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팸스 협력사업과 같이 긍정적 시너지로 극복하고 있는 부분임.

[미흡한 측면]

-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과의 충실한 비교 후, 논리적으로 동 사업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

[발견 방안]

- 사업 대상의 차별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목적, 사업성격, 사업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동 사업의 사업 수혜 대상을 한정하여 설정함으로써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강조할 필요가 있음.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 수행 주체가 다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팸스 협력사업은 시행 주체의 중복으로 보지 아니함.

[긍정적인 측면]

- 국제문화예술교류는 기관간 협력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팸스 협력사업은 평가할 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 주체’의 비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비교만 있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발견 방안]

- 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설명에서는 각 기관의 미션, 법적 성격,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기관 비전 전략체계는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문화예술 글로벌 역량 강화에 동 사업이 부합함.
- 다만 한국예술특집행사 지원 사업은 ‘창조역량 강화’보다는 ‘기초예술 한류 확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긍정적인 측면]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국제교류중기 기획 프로젝트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팸스 협력사업 지원, 한국예술특집행사 지원 등 내역사업이 동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함.

[미흡한 측면]

- 기관 비전 전략과 사업의 연계성, 내역 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 측정기준별 기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기관 비전 전략체계(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문화예술 글로벌 역량 강화)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이 필요함.
- 일반적인 국제문화교류보다는 우리나라 예술의 세계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의 국제교류 활동을 중심에 두어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그러한 성격의 사업을 위주로 내역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자부담 최소 10%의 재원 분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재원분담의 원칙에 대해 기술함.

[미흡한 측면]

- 정산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재원 분담 현황 제시가 필요하며, 10% 자부담이 동 사업에서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음.

[발견 방안]

- 동 사업과 관련 민간단체 자부담의 적정 비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단체 정산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자부담 비율을 제시해야 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국제교류중기 기획 프로젝트 지원’은 공모 방식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팸스 협력사업 지원’은 예술경영지원 센터의 서울아트마켓을 통해 선정하고 있어 그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다만 ‘한국예술특집행사 지원’은 상대국가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긍정적인 측면]

- 내역사업의 특성에 맞게 대상 선정 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측면]

- ‘한국예술특집행사 지원’ 선정시 인근 국가 순회 가능한지,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지 등의 기준은 사업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 후 재검토가 필요함.

[발전 방안]

- ‘한국예술특집행사 지원’ 선정시 해당 사업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한 후 그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함.
- 세부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관계 속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근 국가 순회 여부, 쌍방향 교류 가능 여부 등이 적합한 선정 기준이 되는지 재검토 바람. 그보다는 한국 문화예술(K-Arts)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네 개 내역사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 추진 방식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 ‘한국예술특집행사 지원’의 경우 파리 세계문화의집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

[긍정적인 측면]

- 한국예술특집행사의 지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점은 없음.

[발전 방안]

- 현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각 내역사업별로 수요 예측의 근거 및 내용을 알 수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사업 설계 및 추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며,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없음.

[발견 방안]

○ 사업별로 사업 타당성 검증, 수혜 대상 여건 검토,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는 사업의 내용을 모두 포괄 하고 있음. 본 사업의 목적은 국내외 개최되는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함임.
- 따라서 성과지표인 ‘지원대상 만족도(점)’는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유무와 사업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활용 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됨.
- ‘평균창작작품수(건)’은 지원단체의 창작여건 강화와 여건개선을 확인하는 지표로 국제교류를 통한 창작역량 및 의욕제고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특집행사순회횟수’는 투입예산 대비 우리 예술이 해외에 효과적으로 소개되는 기회가 확대되는지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3개의 모든 성과지표는 사업내용을 포괄 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사업목적의 핵심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인과 관계를 구성하고 있어 적절함.
- 특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평균창작작품수’, ‘특집행사순회횟수’, ‘지원 대상만족도’는 사업목적과의 적절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타 지원 사업에 비해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특히 가장 중요한 인과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내용이 부재함.

[발전 방안]

-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와 성과목적 등 성과내용에 잘 부합하지만, 타 지원사업의 설명의 비해 간략하게 설명됨. 따라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됨.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다음과 같은 업무과정에 따른 지표 체계로 ‘투입→과정→산출(양, 질)→결과’ 따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결과지표로 설정 되어 있음을 보여줌.

투입	2013년도 지원예산 규모 확정(민간보조: 2,500백만원) 공연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사업 실시			
▼				
과정	국제교류활성화 사업 추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아크코-팸스협력사업지원, 한국예술특지행사지원)			
▼				
산출(양, 질)	2013년 총 203건, 3,177백만원 지원			
▼				
결과	지원대상 만족도: 창작역량 강화를 통한 지원 단체의 만족도 제고 평균창작작품수(건): 지원 단체의 국제교류 활동 확대 및 창작 역량 제고 특집행사순회횟수: 한국예술 해외 소개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			
	성과지표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지원대상 만족도(점)	90.0	90.9	101%
	평균 창작작품수(건)	21	21.4	102%
	특집행사순회횟수(건)	3	3	100%

[긍정적인 측면]

- 업무과정에 따른 지표 체계와 함께 관련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 지표체계와 더불어 있어 결과 지표로써 활용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업무과정에 따른 지표체계에서 단순히 양적으로 2013년 총 203건, 3,177백만원 지원에 대한 사항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산출의 질적 측면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추가적으로 정성적, 정량적 결과를 근거로 추후 파급효과나 기대효과를 보여준다면 보다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 ‘지원대상만족도(점)’와 ‘평균창작작품수(건)’의 성과지표의 정의나 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거나 ‘특집행사순회횟수(건)’은 그렇지 못함.
- ‘특집행사순회횟수’의 경우 한국예술특집행사지원으로 2013년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협력 건에만 국한되었기(일회성 행사) 때문에 2014년에는 성과지표로의 설정이 불가능 할 것처럼 보임. 따라서 성과지표로써의 합리성은 결여 되어 있다 사료 됨.

[긍정적인 측면]

- 특집행사순회횟수(건)을 제외하고 다른 2개의 성과지표(지원대상만족도, 평균창작작품수)에 대한 지표개념과 측정산식, 측정방법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향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측정방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 했으면 함. 현재는 단순 명료하게 요약적 방법으로 키워드로만 설명을 했지만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결과도출을 이야기 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 근거로써 보여 질 수 있다고 판단됨.

[발전 방안]

- 성과지표를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와 함께 정해야 한다고 판단됨. 단순히 본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키워드라 할지라도, 관련 자료가 모호한 상태에서 성과지표로 정하고 사업평가를 진행한다면, 평가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만족도 및 창작 작품수의 향상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 2013년 산출 목표치의 근거 제시가 매우 논리적이고 평가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으며, 전반적인 근거 제시가 만족스러운 수준임.

[발전 방안]

- 목표치가 매우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수동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향후 성과실적을 고려해야 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 충족 여부를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지원대상 만족도 점수의 목표치를 의욕적으로 설정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의욕은 충분히 정상참적이 되지만, 과하면 그 후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따라서 보다 수동적인 목표치 설정이 제시되는 것이 향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발견 방안]

- 위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존에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약점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목표치와 실적 기준을 근거로 충족 여부를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만족도, 창작작품수, 특집행사순회횟수 점진적 확산 등 매우 우수함.
- 예산 투입 대비, 성과지표의 향상은 매우 인상적임.

[미흡한 측면]

- 목표의 과대 계상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임.

[발전 방안]

-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집행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필요도 있음.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분기별 예산의 적정 집행을 기반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체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고,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대한 실적이 매우 양호함.

[미흡한 측면]

-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으며, 현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전 방안]

- 중장기 사업일 경우, 1, 2, 3년치 실적에 대한 각 해의 가중치가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교육부에서 실시 중임).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모니터링 주체에 따라 국내개최사업(책임심의위원, 담당자), 해외개최사업(현지거주 문화계인사) 현장 모니터링과 기획사업 전문가(현장전문가, 언론인) 모니터링 등 3가지로 매월 수시 혹은 6월에 각각 모니터링을 함.
- 또한 2013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해외개최행사 모니터링 현장보고서(별첨자료)에 따라 1.모니터링 개요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따른 2.모니터링 결과, 3.모니터링 종합의견, 4.현지 언론·전문지의 반응,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6. 사업집행의 이미지 자료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 단순 집행 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구분		내용
1	모니터링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기간, 사업장소, 점검자명, 모니터링 일자
2	모니터링 결과	현장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기준(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에 의거 체크
3	모니터링 종합의견(총평)	사업에 대한 장점 및 단점으로 혹은 총평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구성
4	현지 언론·전문지 반응	일시, 지면, 기사내용, 제목 URL 주소까지 파악되어 링크 되어 있음
5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6	사업집행 이미지 자료	사업이 진행된 장소 및 현장 이미지

[긍정적인 측면]

- 2013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해외개최행사 모니터링 현장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도출 했을 뿐 아니라 본 실적 보고서에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도 매우 정확하게 이행을 하여 모니터링 운영의 표본이라 생각됨.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음.

[발전 방안]

- 국제 교류사업은 타 지원사업에 비해 특수한 사항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주체들의 관련 DB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유지 될 것이라 판단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해결책 방안을 마련함. 특히, 문제점명 ‘국제교류 활성화지원사업의 지역문화재단 중복 지원 발생’은 지원대상 예술단체의 VOC 수렴 및 지역문화재단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으로 기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주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간 선정내역을 시스템적으로 공유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하였음.
- 해결 실적으로는 2013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하여 기존 시스템을 웹기반 베이스로 전환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 지역 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심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선정내용을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사업간 실시간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
- 국내창작공간 자원과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사업 간 연계 미비 노력으로 해외 예술지원기구의 VOC 수렴 및 국내창작공간 입주외국작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당사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국내 창작 공간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
- 기획인력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창작공간 운영진 간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 국내창작공간 외국입주작가 전시 개최, 인도 세라믹 창작 레지던시 사업 신규 개발 등으로 해결 하려고 함.

[긍정적인 측면]

- 문제점의 발굴, 내용, 원인부터 세부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명시와 함께 바로 사업에 적용함.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발굴은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는 과정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문제점의 발굴 출처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일정 및 과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이 없다는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발전 방안]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 해결만 보여 주었음. 이는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 해결에 대한 사업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지에 대한 반응은 알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향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실적과 함께 사업 그 해결책에 대한 대상자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조사하여 넣는다면 보다 적절한 문제점 대응을 했다고 판단될 것임.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전반적인 사업의 목표치 및 실적 근거를 기반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산출근거와 평가방식, 그리고 평가실적에 대한 우수성이 기타 사업팀보다 탁월함.
- 문제점 발굴과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미흡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다양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예술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어 매우 효과적임.
- 사업의 전략체계를 검토하고 사업목적과 연계된 분명한 성과목표 제시를 위한 워크숍 개최, 사업평가결과 및 컨설팅 결과분석에 따른 개선반영 등 노력이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세부사업 포트폴리오 및 추진방식 개편으로 중복사업의 요소해소 위한 방안마련과 유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제고 기반 마련 등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분명한 성과목표 재정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가 아쉬우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채널의 다각화 및 체계화 등의 노력은 보이나, 모니터링 주체의 전문성과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함.

[발전 방안]

- 실질적인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마련하여 다각적 평가가 이뤄져야 함. 사업의 특성화가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모니터 방법론으로는 질적 평가 측정이나 효율적 사업의 환류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요구됨.
- 정량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비계량적 성과측정을 위한 신규지표 제시 요소인 국제공동제작 작품 수(정량적지표로 환원됨), 국제교류지원작품 해외 관객만족도(일반관객), 지원사업현지평단반응지수 등은 질적 성과지표의 성격보다는 정량적 지표로 판단되므로 정성적 평가 방안에 대한 지속적 탐구 및 현실적 방안 제시가 필요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사업의 적정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를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국제교류사업의 일회적 성격을 극복하는 한국예술 시즌기획프로그램이 긍정적이며, 일방적 문화소개방식에서 벗어난 현지화 된 한국문화수용 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략적 문화 예술교류를 강화, K-Arts 한류 기반조성 및 인근 국가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성과를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안정적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및 현지 니즈가 요구된 반영 프로그램의 역할과 전문 기획 인력 활용한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를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현지 담론 형성 및 K-arts 확산 토대마련, 지속적 해외진출 확대 유럽 내 거점을 마련함.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와 기대효과를 근거로 함.

[긍정적인 측면]

- 2014 상상축제 최초로 한국공연 개막작 확정, 라디오 프랑스 협력 한국음반 ‘아리랑과 민요’ 출시 등으로 현지 언론사대상 홍보를 극대화함.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목적의 분명한 이해]

- 동 사업은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과 성과목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음은 과업 및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동 사업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증명함.
- 사업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서라면 동 사업의 목표가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함.

[유사·중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이외에도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진행되고 있음.
- 위 사업과 AKRO의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함.

[사업전략과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정립]

- 동 사업은 사업 추진전략과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지표 개발 및 설정은 사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린 결과인지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분명한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집행

[사업추진 프로세스의 세심한 관리]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이 진단되었으면 어떠한 경로로 진단되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적시가 있어야 함.

□ 성과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담당자의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진도를 명시하듯 모니터링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다 명확히 밝혀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함.

[109]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 동 사업은 문화예술 국제기구, 국가기구, 주요 인사 등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다각화하고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동 사업은 사업의 집행과 성과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계획에 있어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부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 때문에 우수한 성과관리 실적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아르코와 해외 예술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국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사업 목적 및 성격이 명확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사업목적보다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 추진 특정상황에 대한 기술이 필요함.
- 문화예술위원회의 11대 전략과제 중 본 사업과 연관된 전략과제를 통해서 본 사업의 사업목표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결과적으로 추진전력과 성과지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으나, 체계도 이외의 설명이 부족하며 성과지표 가운데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는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 를 요구함.
- 전반적으로 동 사업은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하여 단기 돌출변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여 본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명과 사업목적이 지닌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세부사업을 기획한다면 국제교류활성화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유학, 거주 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단기적 파생활동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한 네트워크 체계가 국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중·장기 활동방안을 근거로 한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국제기구, 국가기구, 주요 인사 등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다각화하고 협력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교류 활성화의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197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35건
-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 32건(거점 26개소 운영)
-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 7건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지원(6억원)
-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5건
- 해외예술인 초빙사업 27회 18개국 68명
- 해외문화예술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25개국 44건 추진

- 지원대상 :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일반공모사업의 경우 자체부담 10% 이상, 기획협력형 사업의 경우 개별 약정 체결 후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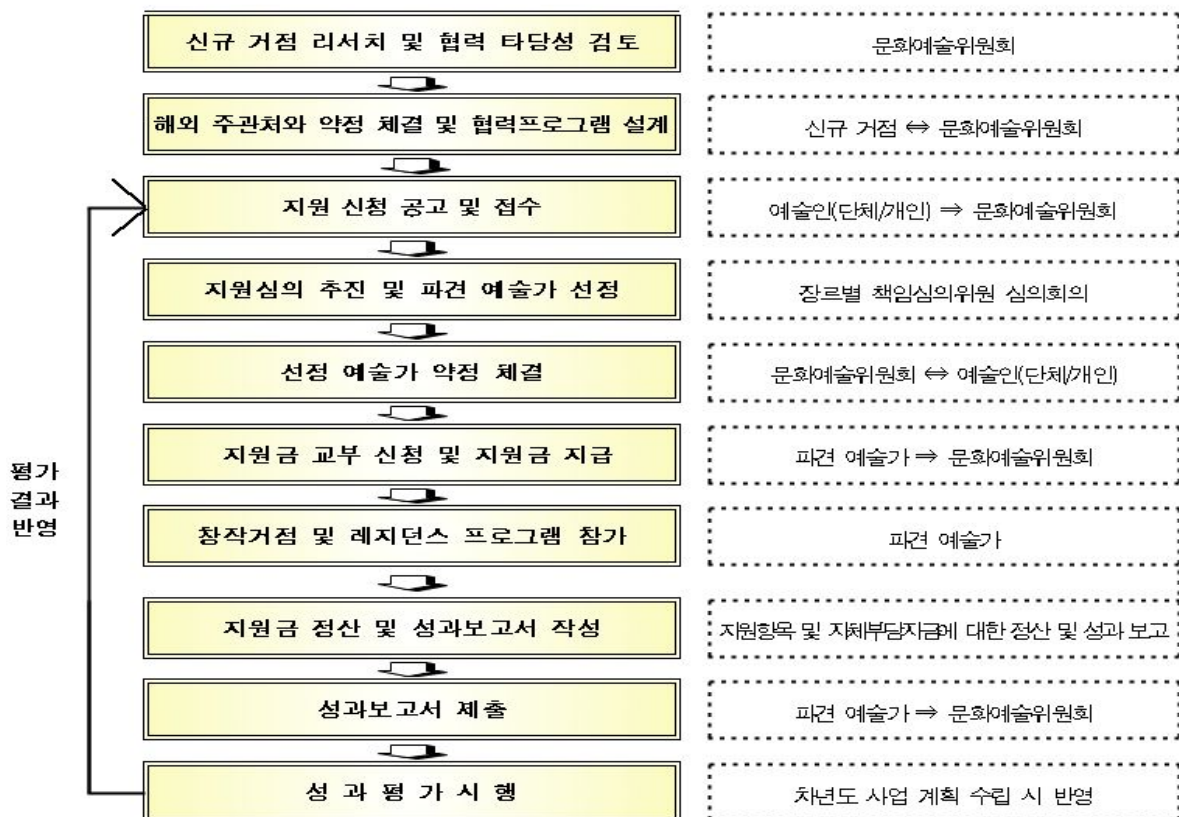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2,173	2,161	4,609	2,409	109.5%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00	198	300	102	51.5%
▪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지원	370	544	600	56	10.3%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및 전시	599	599	700	101	16.9%
▪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	215	300	350	50	16.7%
▪ 국제 문화기 관협력지원	589	520	-	-	-
▪ 한국문학세계화(신규)	-	-	250	-	-
▪ 서울아트마켓지원(신규)	-	-	400	-	-
▪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신규)	-	-	1,280	-	-
▪ 아리랑세계화(신규)	-	-	729	-	-
▪ 전통예술민간합작사업지원(신규)	-	-	300	-	-
□ 세출예산비목					
▪ 일반수용비	462	498	166	△332	66.7%
▪ 공공요금및제세	12	8	7	△1	△12.5%
▪ 임차료	44	14	1	△13	△92.9%
▪ 국외여비	241	240	25	△215	△89.6%
▪ 사업추진비	43	43	9	△34	△79.1%
▪ 민간경상보조	1,371	1,399	4,401	3,002	214.6%

□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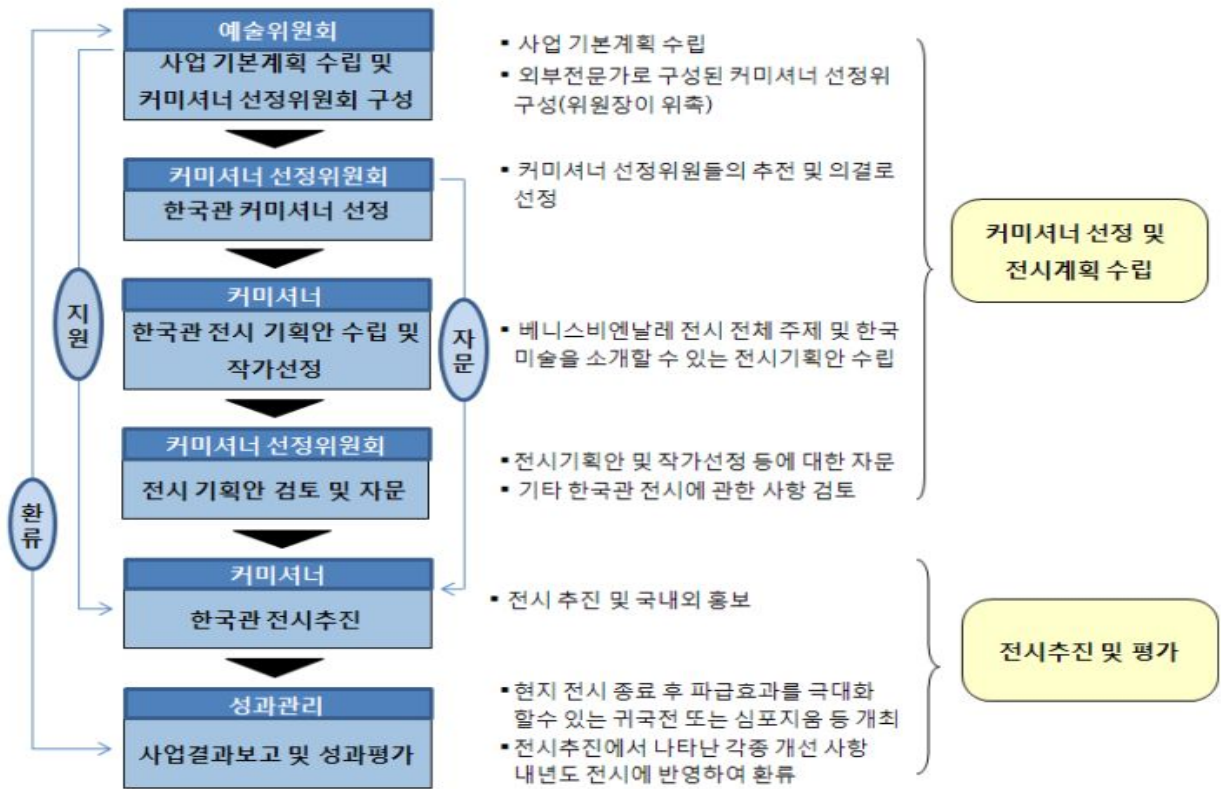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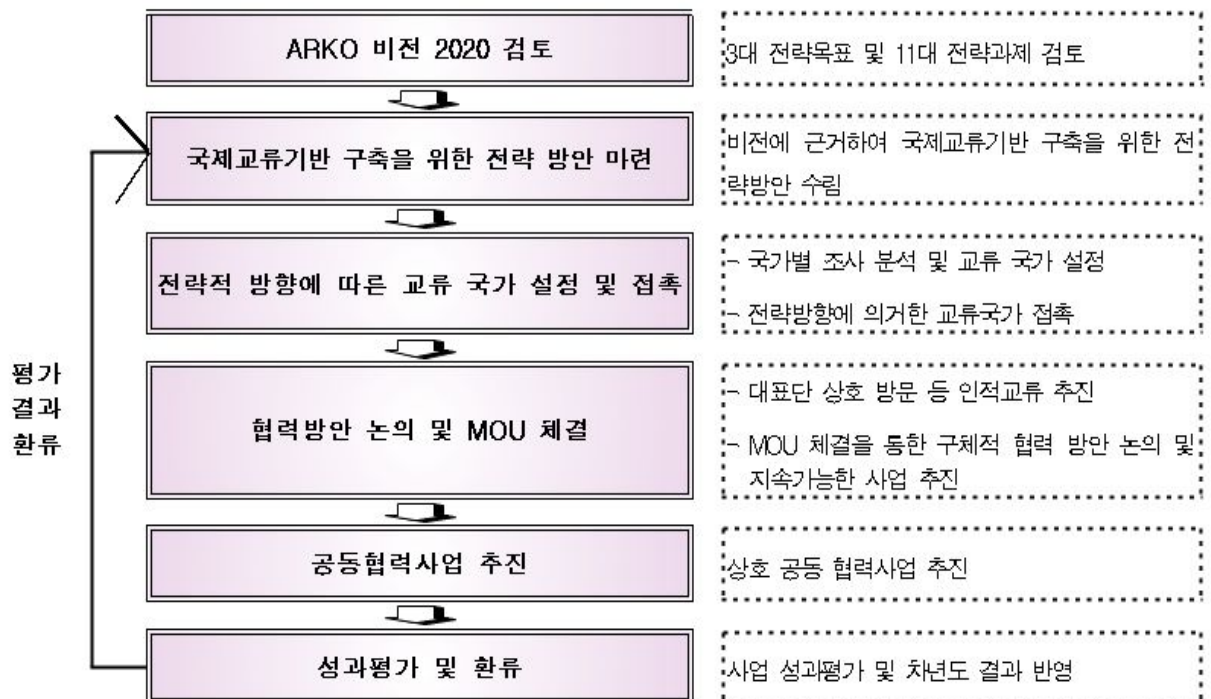
○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 및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 국제문화기관교류사업 및 국제공동협력사업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3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4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3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10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0.2	
	4-3 우수사례 평가	3	2.64	
전체 합계			100	92.84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외 예술 관련 기구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예술계(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사업목적에 사업 추진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긍정적인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해외 예술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국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사업목적 및 성격이 명확함.

[미흡한 측면]

- 플랫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 협력 체계 확대, ② 국내 예술계의 협력 체계 활용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사업 추진의 ‘특정 상황’이 기술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양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국제적인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국제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 및 방향을 기술하는 것도 고려해야하고,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관련 보고서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목적은 ①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와 ②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로 제시하고 있고, 성과 목표는 ①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견인, ②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 ③ 문화예술교류 기관간 협력 체계 확대로 제시하고 있음.
- 사업목적과 성과 목표의 내용적 연관성은 충분하지만, 목적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목적과 목표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과 성과 목표를 제시한 후 그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을 기술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에 대한 기술이 다양함. 동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가 사업의 목적인지, 아니면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를 통한 창작 역량 강화가 사업의 목적인지 혼란스럽게 기술하고 있음.
- 단기적 파생 활동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한 네트워크 체계가 국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또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없음.

[발전 방안]

- 사업목적과 성과 목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목적이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를 통한 국내 예술계의 창작 역량 강화인지 아니면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를 통한 국내 예술계의 국제 예술교류 활성화인지에 따라 성과 목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후자의 경우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 교류협력 체계 확대 및 ② 국내 예술계의 협력 체계 활용 확대라는 두 방향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예-예술가의 국제 이동성)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사업으로, 구축된 협력 체계를 활용한 사업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긍정적인 측면]

- 국내 예술계가 국제무대에서 예술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한 국내 예술 교류 네트워크가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흡한 측면]

-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서술은 있지만, 동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함.

[발견 방안]

- 동 사업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바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국제 예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은 예술지원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상 차별성이 분명함.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아트마켓 및 예술기관 협력 체계는 국내 예술단체의 해외 예술시장 진출 및 예술경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내 예술계의 창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영역상 차별성이 뚜렷함.

[긍정적인 측면]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의 비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아트마켓 참가 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기술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만 하는 국제예술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음.

[발견 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만 하는 국제예술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사업목적을 재기술해야 함. 사업명도 ‘국제 예술교류 플랫폼 구축 및 활용’과 같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압축적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 수혜 대상이 민간 예술인 및 예술단체라는 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공통되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이 공연단체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사업 수혜 대상’의 비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국제 아트마켓 참가 지원 사업과 비교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최근 3년간의 사업 수혜 대상 현황을 정리한 근거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발전 방안]

- 사업 대상의 차별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 수행 주체의 차별성이 분명함.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므로 다각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설명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션, 법적 성격, 주요 사업(특히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함께 기술되어야 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기관 비전 전략체계(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문화예술 글로벌 역량 강화)에 동 사업이 부합함.
- ①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 지원, ②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사업, ③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④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⑤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등의 내역 사업이 동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기관 비전 전략과 동 사업의 연계성, 내역 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민간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국제 예술교류 활동 지원 기반 제공하는 사업과 비엔날레 운영 사업, 국제문화기관협력 사업 등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발전 방안]

- 민간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국제 예술교류 활동 지원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과 비엔날레 운영 사업, 국제문화기관협력 사업 등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사업을 구분하여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요시 국제교류활성화지원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내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재원 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자부담 최소 10%의 재원 분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내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재원 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정산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재원 분담 현황 제시 필요
- 10% 자부담이 동 사업에서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되지 않음.

[발견 방안]

- 각 사업별로 민간단체 자부담의 적정 비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단체 정산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자부담 비율 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 지원’,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사업’,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공모 방식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사업으로 진행
- 사업 특성에 맞는 대상 선정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내역 사업의 특성에 맞게 대상 선정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

[미흡한 측면]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의 경우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커미셔너를 선정한다는 표현과 ‘책임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통일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해야 함.

[발전 방안]

- 세부 측정기분별 작성 필요가 있음.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각 내역사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 추진 방식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 각 사업별 협력기관의 협력을 받아 추진

[긍정적인 측면]

- 각 사업별 협력기관의 협력을 받아 추진한 점이 긍정적임.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측면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등과 협력하여 사업 홍보, 현지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짐.
- 남극 노마딕 레지던스 등 극지 관련 사업 측면에서 극지연구소(대한민국 정부기관, 남극 세종기지 등 운영)는 현지 체류 과학자들과의 협력기회를 제공함.
- 해외 예술인 초빙사업의 경우 업무 효율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영국문화원 등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파트너 기관 예술인 초빙 실무 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포지엄 등 주요 사업을 운영함.

[미흡한 측면]

-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에 대해 논리적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사전지원 및 사후지원 등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초점이므로 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 선정률만으로 수요예측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 선정률이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미흡한 측면]

-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사업 설계 및 추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기술이 보완되어야 하며,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미흡함.

[발전 방안]

- 사업별로 사업 타당성 검증, 수혜 대상 여건 검토,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 내용을 실적보고서에 기술하고, 그 근거 자료 첨부이 필요할 것임.
- 사업 선정률만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사업이 어떠한 수요 예측 속에서 설계되고, 계획된 것인지 보여주는 설명이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는 사업의 내용을 모두 포괄 하고 있음. 본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 국제 및 국가 기구, 주요 인사 등과의 교류 협력 채널을 다각화 하고 협력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 하고 자 함임.
- 따라서 본 사업의 3개 성과지표인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국제적 지원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외창작거점 공간수’를 통해 국제교류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대 할 수 있음.
- ‘협력사업추진건수’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국제 교류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본 사업의 3개 지표는 모두 사업내용을 포괄할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기관 미션 및 성과목표 등 지표간의 체계도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11대 전략과제 중 본 사업과 연관된 전략과제를 통해서 본사업의 사업목표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결과적으로 추진전략과 성과지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기관 미션 및 성과목표, 지표 간 체계도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으나, 체계도를 설명하는 도식화를 제외하고 그 외 기술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발견 방안]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를 인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지만, 부과적인 설명 없이 다이어그램으로만 기술된 바,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당위성을 포함하여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다음과 같은 업무과정에 따른 지표 체계로 ‘투입→과정→산출(양, 질)→결과’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결과지표로 설정 되어 있음.

투입	기금지원, 예술행정/인력서비스/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해외 네트워크			
▼				
과정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일반공모) 예술가 파견지원, 거점기관간 협력프로그램 발굴 운영,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전시진행			
▼				
산출(양, 질)	분야/권역별 거점공간 확대, 관람객 및 참여예술가 확대, 보고서 및 언론홍보 창작물 생산, 전시 등 창작 관련 행사			
▼				
결과	국제교류사업파생효과, 협력사업 추진 건수: 예술가 국제진출 및 연계사업 확장 해외창작거점수: 국제교류 기반 및 네트워크 확대			
	성과지표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115.5	120	104%
	해외창작거점수	25	26	104%
	협력사업 추진건수	39	44	113%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미흡한 측면]

- 업무과정에 따른 지표체계에서 산출(양,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 할 수가 없음. 특히 현재 제공된 자료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이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자료인지 검토가 필요함.

[발전 방안]

- 추가적으로 정성적, 정량적 결과를 근거로 추후 파급효과나 기대효과를 보여준다면 본 사업을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판단되어짐.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인 ‘해외창작거점 공간수’와 ‘협력사업추진건수(건)’의 개념정의와 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거나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의 의미와 측정산식, 측정방법 등이 애매하게 근거 자료로 제공 되어 있음.
- 특히 이 사업 종료 후 관련 사업이 어떻게 발전 및 확장되고 그에 따른 파생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긍정적인 측면]

-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를 제외하고 다른 2개의 성과지표(‘해외창작거점 공간수’와 ‘협력사업추진건수(건)’)에 대한 지표개념과 측정산식, 측정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 향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임.

[미흡한 측면]

- 국제교류 파생효과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적 해석이 필요하며 성과지표 ‘해외창작거점 공간수’와 ‘협력사업추진건수(건)’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약이 되겠지만 평가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가급적 외부기관에 평가 의뢰를 모색 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성과지표의 개념을 단순히 단어 사용에 입각한 의미적 해석이 아닌 사업의 형태나 성격에 따른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정리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에 맞는 측정산식과 방법도 단순 키워드의 정리가 아닌 서술형태의 설명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그에 따른 실적을 기반으로 충족 여부를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목표치 수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충실함.
- 목표치 대비 실적이 매우 양호함.

[미흡한 측면]

- 예산 대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함.(예: 협력사업 추진건수)

[발전 방안]

- “건”수는 상대적으로 지표달성이 쉬운 부분이 있으므로,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그에 따른 실적을 기반으로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논리에 따라 설정한 부분이 매우 양호함.

[미흡한 측면]

- 미흡한 부분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 다만, 아래의 발전방안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추진건수의 목표치 과대 계상은,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임을 반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지적한 것처럼 질적인 사업(평가)부분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그렇지 않다면,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양적지표의 개발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수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목표치 설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또는 근거를 기반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전사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치 설정 및 실적 달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음.
- 국제교류사업의 파생효과가 매우 인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미흡한 측면]

- 건수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어, 차기 목표는 건수를 더 높여 잡아야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목표치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위에서 제시된 미흡한 측면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예산 집행계획 및 집행을 기반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각 세부사업에 따른 집행을 제시가 매우 이해도가 높음.
- 지원방식 제시가 인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별 지원방식 구축 및 운영부분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이 우수함.

[미흡한 측면]

-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흡한 면을 찾기가 어려움.

[발전 방안]

- 사업 집행 후 피드백 반영/ 그 이후 결과도 제시하면 향후에도 매우 우수한 평가가 예상됨.
- 각 사업단위에 대한 집행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분기에 집행되었는가를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국제교류 성과 관리 워크숍, 해외개최사업 현장 모니터링, 사업성과 외부 공유 시스템 구축, 창작거점사업 파트너 기관, 2013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현장 모니터링 및 자문회의 개최 등을 근거로 삼음.
- 또한 2013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해외개최행사 모니터링 현장보고서에 따라 1. 모니터링 개요, 2. 모니터링 결과, 3. 모니터링 종합의견, 4. 현지 언론의 반응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6. 사업집행의 이미지 자료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 단순 집행 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구분		내용
1	모니터링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기간, 사업장소, 점검자명, 모니터링 일자
2	모니터링 결과	현장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기준(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에 의거 체크
3	모니터링 종합의견(총평)	사업에 대한 장점 및 단점으로 혹은 총평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구성
4	현지 언론·전문지 반응	일시, 지면, 기사내용, 제목 URL 주소까지 파악되어 링크 되어 있음
5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6	사업집행 이미지 자료	사업이 진행된 장소 및 현장 이미지

[긍정적인 측면]

- 2013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해외개최행사 모니터링 현장보고서가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 도출 했을 뿐 아니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도 매우 정확하게 이행을 하여 모니터링 운영의 표본이라 생각됨.

[미흡한 측면]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 체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성실하나 모니터링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에 따른 해결실적이 없어서 형식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발전 방안]

- 모니터링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실적 내용을 추가한다면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타 사업적인 부분에도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장점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사업추진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 및 해결함.
- ‘해외파트너 기관과의 국내 협력 프로그램 미비’는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사업,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으로 국내 레지던스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개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무용 전문 레지던스 홍은 창작스튜디오와 협력하여 인도측 안무가 국내 레지던스 활동지원을 하고 클레이 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인도 세라믹 작가들을 대상으로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 수행 함.
- ‘베니스비엔날레 관련 국내 유관기관 협업체계 미비’에서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및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베니스비엔날레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베니스비엔날레 부대전시 지원사업 성과 확산 및 공유를 하고 한국관 개막식 참가 기자단을 활용한 타 기관 전시 내용 홍보 추진하고 국립현대미술관-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 문제점명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종료 후 전시성과 국내환류 체계 미비’ 경우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및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성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베니스비엔날레 성과 공유 포럼을 개최 (12.20 대학로 예술가의 집)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보였음.

[긍정적인 측면]

- 문제점의 발굴, 내용, 원인부터 세부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명시와 함께 바로 사업에 적용함.
- 특히 타 사업과는 달리 세부사업에 따른 추진 중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실적을 정리해서 보여준 것은 많은 유사한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자들에게 일목요연한 지침을 보여 줌으로써 매우 명확한 답변 근거가 되었다 사료됨.

[미흡한 측면]

- 문제점의 발굴 출처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일정 및 과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이 없다는 점이 미흡한 자료라 판단됨.

[발전 방안]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 해결만 보여 주었음. 이는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결에 대한 사업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지에 대한 반응은 알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향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실적과 함께 사업 그 해결책에 대한 대상자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조사하여 넣는다면 보다 적절한 문제점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것임.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전반적인 사업 목표치 및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함.

[긍정적인 측면]

- 국제교류사업의 파생효과는 이 사업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매우 잘 정리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됨.
- 왜 국제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파생효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매우 우수하게 목표치와 실적, 그에 따른 파생효과를 논리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흡한 측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음. 매우 우수함.

[발전 방안]

- 국제교류효과는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단기적인 측면뿐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제시한다면 더욱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정체성이 명확해 질 수 있음.
- 파생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리제시가 가능하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더욱 돋보일 것으로 판단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긍정적인 측면]

- 사업의 지속적 수행으로 정량적 지표를 통한 만족도, 지원 예술가들, 해외거점 기관 등 비교적 큰 증가에 따른 긍정적 측면

[미흡한 측면]

- 타 기관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적 사업을 벗어나기 위한 개선사항에 따른 이행과정에 대한 노력은 보이나 여전히 중복적 지원이 보임.
- 질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실시에 대한 개선책 부분은 특정사업을 반영하는 특정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된다. 형식일변도의 모니터의 경우 아무리 다 채널이라 해도 질적 개선의 내용이 수반되기 어렵고 사업성과와 연계된 환류성도 확인할 수 없음.
- 모니터링 채널의 다각화 및 체계화에 적합한 모니터링 주체의 전문성과 내용보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단이 꾸려져 다수에 걸친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며, 일관된 모니터링 업무의 체계적 시스템이 요구됨.
- 현실적으로 해외거주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 그 적정성과 효과성 그리고 국외지역이란 문제 탓에 그 모니터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부재, 피드백을 통한 개선책이나 방안마련도 힘들. 피드백을 통한 영향력 관계 확인 불가능 등 문제 제기

[발전 방안]

- 창작역량의 문제보다 정보와 기회제공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사업의 적정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를 근거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반복적인 개별적 작가 지원프로젝트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창작 거점사업을 통한 예술가의 창작역량강화로 지속적 창작활동 가능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성과를 근거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파견지역, 체류기간, 협력기관 등 지원조건에 따른 차등지원하고,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홍보지원을 수행함.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를 근거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해외 창작거점 예술가 파견사업의 주요한 성과지표인 지원사업 파생효과 30건 건인을 이룸.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사업의 추진성과와 기대효과를 근거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시인 고은 카포스카리 대학이 명예교수 임명 등 총 30여건의 우수한 사업 파생효과가 발생한 점과 파견사업 수행을 통해 참여한 작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여 작가의 자발적인 후속활동이 일어나도록 사업성과 견인을 이룸.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 방향성 명확화]

- 동 사업의 목적과 성격은 나름대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향성은 충분히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음.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목적과 성격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할 것임.

[사업추진 프로세스 확립]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간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프로세스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집행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사업 모니터링은 매우 구체적이고 성실하나, 모니터링 시 발견된 문제점의 해결에 대한 실적이 부족한 것은 모니터링의 형식적인 시행이 있을 수 있음.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담당자의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진도를 명시하듯 모니터링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다 명확히 밝혀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함.

[다각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모습은 매우 소극적임. 사업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함.

□ 성과

[사업 모니터링 체계의 점검]

- 일부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의 검증시스템이 없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다수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단 구성 등으로 모니터링 주체의 전문성과 내용 보강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관된 모니터링 업무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특정사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함.

2 생활 속 예술 활성화

- [201] 문화복지 (문화바우처)
- [202] 문화나눔 (문화바우처 외)

2. 생활 속 예술활성화

- 생활 속 예술활성화 단위사업은 총 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문화복지(문화 바우처),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사업이 이에 해당함.
- 동 단위사업은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이라는 기관 미션에 아래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문화 양극화의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복지 및 문화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복지(문화 바우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음.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은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분명한 사업임.
- 종합적으로 동 단위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명확히 갖고 있으며, 법령상 근거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도 양호한 수준임.
- 동 단위사업의 주요 성과로 문화복지(문화 바우처)는 정부 최초 문화부문의 통합바우처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다음으로 문화나눔의 사업은 문화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펼쳤으며, 유관부처와 합동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민관협작의 지원노력이 양호함.
- 동 단위사업의 특성을 살려 문화복지 사업의 성과지표는 ‘수혜자 수’, ‘문화카드이용률’로 설정하였고, 문화나눔 사업의 성과지표는 ‘수혜자 수’, ‘만족도’ 등으로 최종이용 결과 시점에서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 외에 소외계층의 문화향수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성지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나은 성과지표 탐색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살펴보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함.

- 한편,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에는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대상문화나눔 사업으로 단일사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문화복지(문화바우처)사업과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으로 세분화되어 사업이 운영되었음.
- 동 단위사업의 금년도 평균점수는 86.13점으로, 문화복지(문화바우처)사업은 87.76점을 받았으며,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사업은 84.79점을 받아 모두 우수등급 사업으로 평가됨.
- 동 단위사업은 전년도에 84.40점을 획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86.13점을 획득하여 1.73점 소폭 향상하는 성과를 보여줌. 그 이유로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는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요인으로 분석됨.
- 향후, 동 단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수혜자인 소외계층의 정의는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층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바우처의 제도와 정책형태가 타 사업과 유사하므로 효율적인 사업방식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동 단위사업은 공급자 중심 사업들에 비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서 효과성이 큰 사업임을 강조하고, 장차 국가의 문화복지 방향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문예진흥기금의 핵심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 문화복지(문화바우처)

- 동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한다는 뚜렷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기준을 충분히 충족함.
- 특히, 해당사업을 통해 비이용자 대비 관람률, 관람의향, 문화공간 연간 이용률, 문화공간 행사 참여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이 대부분 수혜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인데 반해, 문화이용권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욕구를 끌어내고, 정서적인 행복감을 제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으로서 추진됨.
- 동 사업의 주요 성과로 문화이용권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으로서 정부 최초로 문화부문 통합바우처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한편, 성과목표치 달성측면에서는 ‘수혜자 수’와 ‘문화카드 발급률’은 100%를 상회하였지만, ‘수혜자 만족도’와 ‘문화카드 이용률’은 100%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음.
- 향후 소외계층의 정의가 시대별로 다르고,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층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대상의 명확한 정의가 논의되어야 함. 동 사업은 복지사업의 형식으로 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제도라는 정책형태에서 타 사업과 유사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이용권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연도별 문화사각지대와 소외된 세대계층의 현황 및 문화생태계 데이터를 충실히 구축하여 전국적 차원의 공공단위 빅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이는 국가의 문화복지 방향 가늠에 유용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간주될 것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2월 ~ 2014년 1월
- 사업규모 : 49,346백만 원(복권기금 : 34,946백만원/지방비 : 14,400백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약 187만 가구(332만명)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지방비 30% 매칭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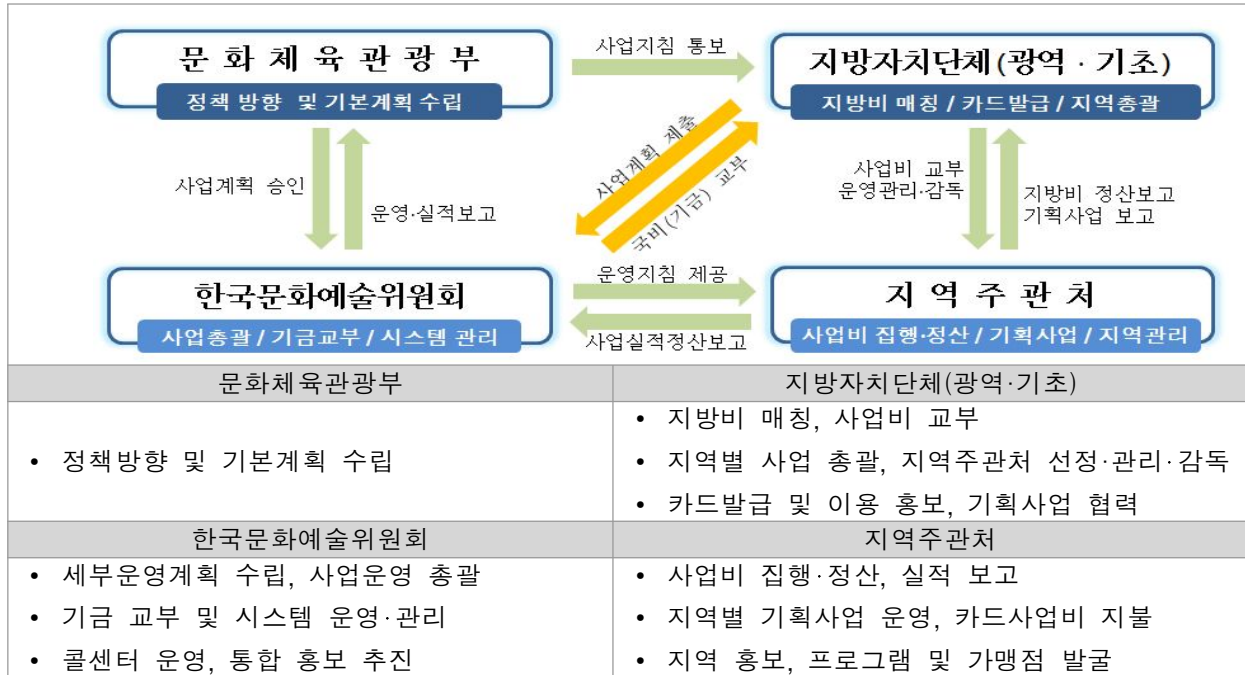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 문화이용권	34,094	34,852	51,091	16,239	146.6
□ 세출예산비목					
▪ 기타직보수(110-03)	180	240	381	141	158.8
▪ 일용임금(110-03)	7	11	18	7	163.6
▪ 일반수용비(210-01)	293	985	1,074	89	109.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1	1	-	-
▪ 복리후생비(210-12)	0	1	2	1	200.0
▪ 국내여비(220-01)	9	10	24	14	240.0
▪ 사업추진비(240-01)	4	4	15	11	375.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	33,600	33,600	49,516	15,916	147.4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추진절차

주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시·도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승인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교부신청서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금(기금) 지급
시·도/기초지자체	지원금(기금) 수령, 지역주관처에 지원금(기금+지방비) 지급
지역주관처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및 관리
지역주관처	결과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집행 잔액처리 및 정산 심사)
시·도	결과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후 평가결과 환류 조치 결과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2. 평가점수 종합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 획 (25)	사업 계 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5
	성 과 계 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4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 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4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9
성 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1
		4-3 우수사례 평가	3	2.76
전체 합계			100	87.76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화이용권은 문예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의 의거하여 추진하는 법정사업으로서 목적이 뚜렷하고 명확함.
-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을 충분히 충족함.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업을 통해 비이용자 대비 관람률, 관람의향, 문화공간 연간 이용률, 문화공간 행사 참여율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 수혜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촉발시키고, 만족도를 높인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대상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목적성과 목표달성, 이를 위한 실행 노력 등이 명확하며,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함.
- 카드 발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부정발급 사용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과 사례별 대응방침, 콜센터의 운영 등이 제한적인 인력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됨.

[미흡한 측면]

- 만족도는 높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특정상황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이 되므로 정보소외계층, 취약계층, 노인계층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함.

[발전 방안]

- 특정상황의 다양한 발생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청방식 개선 등의 제도 개선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외계층의 정의가 시대별로 다르고,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층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대상의 명확한 정의가 업데이트 되어야 함.
-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높은 사업으로 나타나는 바, 예산의 추가적인 투입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목표 1은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체험기획 확대, 성과목표2는 문화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책정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여 적절함.
- 성과목표 1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체험 기회의 확대, 사업목적 2는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집중함.
- 문화이용권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으로부터 출연된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사업목적이 명확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됨.
-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과목표 1은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체험 기획확대, 성과목표 2 문화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임. 이는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논리적 인과관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관계 및 당위론은 제시하고 있으나, 연계성을 설명할만한 충분한 기술과 근거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에 대해 논리적 인과관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완 자료 내지 도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와 기술이 요구됨.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저소득층 국민들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큰 만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복지 차원의 공공지원사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긍정적인 측면]

- 공급자 중심 사업들에 비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서 효과성이 큰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이 인정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이용권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예술행사 관람률, 관람의 향, 문화공간의 연간 이용률, 문화공간의 행사 참여율 등을 들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공공지원의 경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문화복지 차원에서 기한이 없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민간과의 역할분담 등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것으로 보임.

[발전 방안]

- 공급자 중심 사업들에 비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서 효과성이 큰 사업이므로 수요자들의 수요 증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본 실적보고서에도 요약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효과성 자료를 연계시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시한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사업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 등의 경우, 분야별 특화된 이용권 제도로써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사업목적의 차별성을 이루고 있음. 문화이용권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여행이용권 측면에서 여행기회를 갖기 어려운 여행소외계층의 기회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스포츠관람 이용권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스포츠관람 활성화 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

[긍정적인 측면]

- 중복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중복요소가 있는 사항을 2014년 통합카드 발급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함.
- 일부 중복의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문제, 사업목적에 있어서의 문화 및 여가 향유의 문제 등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특성 때문에 타 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2013년 사업 경우에는 중복성이 일부 존재함.
-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 수혜대상의 동일성, 사업방식의 문제 등 일부 중복의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문제, 사업목적에 있어서의 문화 및 여가 향유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선해야 함.

[발전 방안]

- 2014년도부터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3개 분야를 단일카드로 통합 추진·시행하고 있어 미흡한 측면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범사업 형태의 운영결과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통합방식의 사업운영에 대한 지속화가 요구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다른 사업과 사업의 수혜 대상이 같기는 하지만, 사업목적과 분야가 다르고, 이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사업과의 불필요한 유사, 중복사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4년부터 단일카드로 통합 추진되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방향전환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유사·중복사업의 내용을 장애요인 분석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분야의 특화된 이용권 제도로 각각 분야별 특성으로 볼 때, 타 사업과 중복성이 크지 않음.
-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조사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사업내용 도출 통해 사업의 개선 노력이 잘 나타나 있음.

[미흡한 측면]

- 수혜대상의 차별성에 대한 사업수행의 노력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술은 부족함.
- 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같으며 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제도라는 정책 형태가 유사하므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함.

[발전 방안]

- 복지사업 형식으로서 타 부처 사업과의 비교 및 차별성 등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수혜대상의 차별성에 대한 사업수행 노력 결과,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시행되게 된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시해주면 좋을 것으로 보임.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 관람이용권 등 3개 이용권의 통합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3개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기관 일원화하였고, 사업수행 주체의 중복성이 없음.

[긍정적인 측면]

- 다른 사업과의 불필요한 유사, 중복성이 없음을 명료하게 표기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혜자 VOC 및 수요조사 분석, 개별사업별 장애요인을 분석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위한 연간 사전 준비체계의 구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측면]

- 3개 개별사업들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문화이용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지만, 시행주체라는 측면에서 중복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발전 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3개 이용권의 통합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운영기관 일원화와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 대한 로드맵과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VOC 수렴과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비를 통해 전략적인 체계를 잘 갖추고 있음.
-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각 시도별 지역 주관처를 두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그 총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한 사업 구성과 전략체계의 구비가 확인됨.

[긍정적인 측면]

- 환경분석 및 조정을 통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준비추진을 통해 통합 바우처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운영도 무리 없이 이루어짐.
-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에 의한 법정사업으로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이 대부분 수혜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인데 비해 문화이용권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욕구를 끌어내고,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제고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됨.

[미흡한 측면]

- 문화예술지원의 기관 미션과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 창 의와 나눔, 책임의 핵심가치에 따라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대한 적극성 부족, 사업시행에 따른 미비한 점들의 관리체계의 명확성(선착순 카드발급의 정당성) 등을 설명하기에는 사업초기에 미흡한 점이 나타남.

[발전 방안]

-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문화누리카드 전담팀제 신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잘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재원부담의 비율을 국비와 지방비를 7:3으로 부담함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짐.
- 전국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16개시도의 지방비 매칭 의무화 30%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제고 및 유관기관 등 협력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공정적인 측면]

-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원분담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함.
- 전국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16개시도의 지방비 매칭 의무화(30%)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유관기관 등 협력망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전국대상 수요자중심의 지역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이 확인됨.

[미흡한 측면]

- 통합카드제의 실행을 통해 볼 때, 향후 시행착오를 거쳐 문화와 관광, 스포츠 수요에 해당하는 관련 재원의 매칭이 효율적으로 연동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수요예측 등은 단순계산으로 나타나 미흡함.

[발전 방안]

- 재원부담의 비율을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할 것임.
- 특히, 통합카드제의 실행을 통해 볼 때,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가설을 통한 문화와 관광, 스포츠 수요별 관련 재원의 효율적인 매칭과 연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수요예측과 소요재원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필요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이며, 지원대상 검증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적절하게 잘 이루어짐.
-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약 187만 가구를 332만 명을 선정함.

[긍정적인 측면]

- 수혜대상자 선정이 법정사업의 근거로서 현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짐.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이며, 지원대상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검증함.

[미흡한 측면]

-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지, 지금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지원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정당성과 향후 지원확대 및 필요성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발전 방안]

-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자의 확대 및 수준 유지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전국 저소득층 약 327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문화카드제 추진하였음.
- 전국 16개 시·도, 200여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16개 지역 주관처와 유기적 협력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긍정적인 측면]

- 계속사업으로서의 연속성이 양호하고, 세부사업의 목적에 따른 지원방식과 조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임.
-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근거와 국정과제사업으로서의 목적성이 적정하는 등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임.

[미흡한 측면]

- 새로운 대안에 대한 검토는 사업특성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카드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선착순 발급 등에 대한 민원 및 문제점 제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 있음.

[발전 방안]

- 보다 효율성이 높은 대안에 대한 사업방식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임. 수혜 대상의 적정성을 예산 범위 내에서 고민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의 수혜 확대 및 기대효과 증가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40만명 및 법정 차상위계층 185만명 등 총 324만명 중 총 161만명으로 나타남.

[긍정적인 측면]

-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이 양호하게 이루어짐.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에 의한 법정사업으로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사업수행 만족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혜대상들의 사업성고가 우수함.

[미흡한 측면]

- 사업의 대상이 너무 명확하여 기계적이고, 확장된 대상에 대한 추가 타당성 검토 및 여건 검토, 지원 규모의 적정성 논의는 배제됨.
- 카드발급률이 96%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요 예측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을 보임.

[발전 방안]

- 현행 사업방식이 2014년도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효율성, 합리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
- 시범사업 형식의 현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각 세부 항목별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및 문제해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카드신청 시점과 카드 사용 후의 만족도 등 사업내용을 포괄하면서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이 돋보임.

[긍정적인 측면]

- 이 사업의 목적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간의 상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수혜자수, 수혜자 만족도가 문화격차 해소, 문화향유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면, 보다 더 넓은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것을 설문조사에 의해 주요실적 및 성과에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이를 지수화한다면 이 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발전 방안]

- 계량지표의 산출뿐 아니라 사업내용과 관련된 비계량지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수혜자수, 문화카드이용률 등 최종이용결과 시점에서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카드를 이용하여 성과지표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미흡한 측면]

- 보다 외국의 사례를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관람객수 외에 다른 지표로 설정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심층적으로 탐색해보야 함.

[발전 방안]

-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양호하지만, 향후 계량지표 뿐 아니라 비계량지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카드 이용이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신청대비 카드 이용률, 카드 이용 시기의 분포, 신청금액의 분포 등 다양한 각도에서 통계를 이용하여 보조지표를 추가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널리 통용되는 방법대로 적절히 설정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계량지표의 산출, 측정방법 등은 성과관리 이론에 충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흡한 측면]

-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되고, 집행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이 잘 구성됨에 따라 다른 사업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성과지표의 산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발전 방안]

- 수혜자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만을 끌어낼 수 있는 전반적 만족도 외에 다른 비교대상과 대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는 상대적 만족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세부항목의 부문별로 정확하게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의 목표를 매년 사업 실시 전 부처 성과관리계획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 성과계획 시 설정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여타 평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지표 중 수혜자 수는 계획치를 상회하는 달성치를 보이고 있으며, 수혜자 만족도, 카드 발급률, 카드 이용률 역시 모두 85% 이상의 달성치를 보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발견 방안]

- 목표치의 설정함에 있어 목표치가 향후 어떻게 상향될 수 있을 것인지 달성치를 통해 추세분석을 실시하면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대체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달성치를 보임. 다만,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의 근거를 강화해야 함.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 중 수혜자 수는 별도의 예산증액 없이 수혜인원을 늘리고자 한 노력이 인정됨. 더불어 성과지표 중 수혜자 만족도와 문화카드 발급률, 문화카드 이용률은 높은 달성치를 보여주고 있어 안정된 발급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 중 수혜자 수는 2010년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는 달성치를 보임. 이는 현실적으로 목표치 설정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3개년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이 도전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함.
- 성과지표 중 수혜자 만족도와 카드 발급률, 카드 이용률은 모두 85%를 상회하는 달성치를 보이고 있어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한계를 지님.

[발전 방안]

- 성과지표 중 수혜자 수는 투입예산을 대비함으로써 수혜자 증가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중 수혜자 만족도와 카드 발급률, 카드 이용률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지표(안)가 고려되어야 함.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각 지표별로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열거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과향상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 중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매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상자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한 카드 발급률의 제고 역시 실적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인정됨.
- 카드 이용률은 문화카드 주 이용계층인 농어촌 거주자 및 고령층을 위해 다양한 점점 홍보 강화를 시도한 노력이 돋보임.

[미흡한 측면]

- 수혜자 만족도는 목표치 설정 시 목표달성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 카드 발급률은 발급을 위한 노력이 형식적인 발급수치향상에 치중된 것으로 판단됨. 95%를 상회하는 발급률 수치는 카드수요에 대한 적절한 발급이었는지 고민할 여지를 제시함.

[발전 방안]

- 문화카드 발급과 함께 실질적인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수혜자 만족도의 경우 복권기금 뿐만 아니라 여타 기금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2013년 예산집행률은 99.6%를 기록하였음.
- 2011년 79.3%, 2012년 87.3%에 이은 결과로 예산집행률의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
- 분기별 집행 역시 계획대로 이루어졌음.

[긍정적 측면]

- 문화이용권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검증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적격자에게만 발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함.
- 분기별 집행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드사를 통한 집행을 통해 재원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

[미흡한 측면]

- 사업특성상 불가피하게 교부금액과 실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발견 방안]

- 정부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분기별 집행계획이 아닌 월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장함.
- 교부금액과 실 집행액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교부금액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추후, 카드사 정산 결과를 통해 추인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다양한 방식에 의해 시기별, 기관별 모니터링 체제가 잘 설정되어 있고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긍정적인 측면]

- 집행률, 이용계층, 이용 지역 등에 대한 적정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법을 찾아내고 있음.
- 카드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실사용자 무작위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미흡한 측면]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도 패널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패널조사는 이용자 모니터링 강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발전 방안]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가 모호하거나 너무 당연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바우처 이용과 관련하여 과정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긍정적인 측면]

- 이용자의 관점에서 문화, 여행, 체육의 칸막이를 없애고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높이 평가되는 요소임.
- 농촌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카드사를 NH농협으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문제해결 사례로 볼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문화활동의 이용에서도 도서 및 영화의 이용 편중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이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지 혹은 선택요소가 이런 편중 현상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부문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러한 편중현상이 정책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면 보다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이용방법을 분리하는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문화이용권의 이용 시기를 보다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연 2회 또는 전·후반으로 구분하여 이용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행시기를 연간 2회 등으로 구분하면서도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1반기에 신청자를 150% 정도 선정하고, 1반기의 집행실적으로 감안하여 2반기에 조정하는 방법 등 보다 탄력적인 집행방법을 추가적으로 더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선정방식도 현재의 선착순에서 무작위추출, 예비후보 등 새로운 선정방법의 가능성이 없는지도 검토함으로써 선정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임.

- 문화활동의 이용 편중이 심하다면, 그 이용조건에는 불평등 요소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가 생활 속에서 이용 접근 방법이나 혜택 등이 문화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지속적으로 편중이 심해진다면, 문화, 여행, 체육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며 이 바우처는 문화바우처로서의 역할 밖에는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성과목표치는 수혜자 수와 문화카드 발급률은 100%를 상회하였으나, 수혜자 만족도와 문화카드 이용률은 100%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임.

[긍정적 측면]

- 각 지표별로 문화이용권 사업 성과지표 목표체계 관리 체계에 의해 연중관리 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성과 달성하지 않은 사유를 도출, 분석하고 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해 비계량 성과목표 달성 수준까지 파악하여 동 사업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문화카드의 이용처 및 관람·구입 장소의 이동 편리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가 나타남.
- 문화카드 사용 시 필연적으로 잔액이 남는 상황이나 잔액 사용에 대한 방안이 부족해 보임.

[발전 방안]

- 카드 이용처의 확대, 이동 편의성 제고를 통해 카드사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획 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맞춤형 기획 확대가 요망됨.
- 문화카드 사용 후 잔액에 대한 사용방안을 다방면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개선과제의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여부측면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① 수요조사, ② 수요자 데이터구축, ③ 이용권 성과연구 작업을 추진, ④ 워크숍, ⑤ 지역주관처회의, ⑥ 사업추진단운영, ⑦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 ⑧ 전문가 및 수혜자의 의견수렴 등 사업환경 분석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이용권사업의 계획과 정착과정이 모범적임. 또한 집행률 미진부분에 대한 진단분석과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기준 및 인력운용기준을 마련하여 개선조치 함.
- 개선과제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① 예산확보, 데이터 축적활용, 인식도 및 만족도조사, 수요조사, 사업환경 및 수혜자분석을 위한 계획의 실천 및 과정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였음. ② 지역별 모니터링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편차와 사업자별 편차를 극복하여 집행과 과제관리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
- 개선과제 이행완료 여부 측면에서, ① 문화이용권 수요자조사 및 사업조정, 데이터구축, 성과요인분석 등 지적사항의 개선조치 우수, ② 정부최초 문화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률 상승, 높은 국민호응 등 국회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 및 양호사업 평가사례로 입증함.

[긍정적인 측면]

- 문화이용권사업의 문화복지 파급효과 측면에서,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절차적 면에서, 소외계층국민호응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의 브랜드사업으로 높게 평가될 만한 사업성과임.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파급효과가 높은 면모 있는 사업이며, 정부 최초 문화부문 통합바우처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고, 우수기관 선정 등 년차별 성과산출이 돋보인 성과사업임.
- 문화이용권을 사업주관처로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실행하는 점은 적절함. 즉, 각 지역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인 지원, 교육, 복지 3가지 중 문화복지 축을 충족하는 사업분야로 기여하고 있음.
- 문화이용권은 기존 소외계층에게는 먹고사는 수준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과정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한 수단임.

[미흡한 측면]

-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이용권 지급사업은 수혜당사자들에게 배분에 있어 현 단계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그리고 사업주관처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용권 배분혜택과 선정지급 원칙의 개선이 필요함.
- 예산구조면에서, 각 지자체 사업주관처는 도비, 시비, 군비로부터 매칭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매칭자금 조성과정에 따른 초기 사업 준비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됨.
- 3차년도 전개되는 이용권사업은 매해년도 운영지침이 달라져와 비교적 정착단계로 진입해 가고 있지만, 보다 신속히 운영체계와 운영지침의 안정성을 완비해 확산효과를 대비하기 바람.
- 문화이용권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별 인력의 대우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성과확산에 한계가 있음.

[발전 방안]

- 각 지역별 시행주관처 업무담당자 처우개선 조치 절실한 점을 반영하기 바람. 현재 문화이용권사업 등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지역별 주관처의 인력의 대우수준과 고용형태가 대다수 기간제 및 인턴 형태로 유지되고 있고,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하여 성과확산 및 사업관리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조치가 가능하도록 고용개선 및 예산지원방법의 혁신이 요구됨.
- 수혜자 이용권 지급원칙의 개선 및 수정조치를 들 수 있는데 먼저, 현재 카드수령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하는 방침을 변경하여 수혜자에게 야기되는 불공정, 부당한 갈등요소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개선방안 3가지 중 한가지 선택하거나 또는 혼합 선택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① 기초와 차상위 대상자 중 기초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로 차상위를 지급하는 원칙의 마련, ② 매년 전년도 미지급자에게 우선순위 지급 후 전년도 수급자는 후순위로 지급, ③ 지역별 기초 및 차상위 소외계층 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문화사각지대이자 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우선지급하고, 지역별 문화소외 심화지역 우선순위 배당 등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문화이용권 활용 장르의 확대와 기획사업 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 유도를 조치하기 바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이용권을 활용하는 수혜자 만족도 지수가 높으나, 관람 장르가 치우쳐 있는 점과 참여프로그램의 제한점을 개선해야 함.
- 즉, 카드소지자는 영화와 CD구입에 주로 사용하고, 이용권 기획사업은 무대예술로 한정된 상태임. 따라서 수혜자 관람 및 사용 장르의 확대유도와 기획사업 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됨.
- 사업성과에 힘입어 지급대상을 현행 ‘기초 및 차상위’에서 ‘기초에서 차차상위’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 추가확보의 대의명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차상위와 차차상위의 삶의 수준이 크게 다른 바 없으나 차차상위로 지정된 경우, 일체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으니 해소방안 마련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수행필요성 측면에서 전략적 문화복지 확대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성을 위해 부처 간 다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필요성을 제고함.
- 목표와 세부사업 연계성 측면에서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문화여가 활동부문에서 이용자 중심의 정부 최초 통합 바우처 운영시스템 개발을 완수함.
- 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여 문화복지 부문의 서비스 품질제고 효과가 높음.

[미흡한 측면]

-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별 문화이용권 이용방안 세부계획 마련하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별 운영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고령사회에서 문화습관과 인터넷 경험부재에 따른 소외계층에게 인터넷 사용환경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유인방식 및 돌봄서비스를 구체화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추가적인 예산 확보까지 선택적 복지로 가되 운영방침을 개선하여 혜택의 범위를 충족시켜야 함. 향후, 보편적 복지개념을 적용해 현행 5만원 지급규모에서 더 낮게 책정하는 저비용 다다익선 방식의 고려는 파급효과를 헤칠 것임.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주요 추진활동 측면에서 수요예측 및 욕구측정, 만족도조사, 운영기관 일원화, 카드시스템 통합, 사업환경 분석 등 파급효과 및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업무 대처가 우수함.

-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만족도 저하요인 분석 및 이용권 사용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우수함.

[긍정적인 측면]

- 적극적 업무수행과 조정, 기관망 협조체제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문화서비스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증대된 상태이며, 문화서비스의 확산과 공익성이 우수한 상태임.

[미흡한 측면]

- 문화이용권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연도별 문화사각지대와 소외된 세대계층의 현황 그리고 문화생태계를 충실히 데이터화 하여 전국적 차원의 공공단위 빅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장차 국가의 문화복지 방향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진흥기금 사업데이터로 활용될 것임.
- 지역에서 매칭자금과 관련한 예산수급구조의 어려움을 감안한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 매칭자금 협조환경이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전체예산 중 사업운영비는 현행 2.7%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그 중 인건비 비중을 85% 이내로 조치 바람. 이를 통해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위해 채용된 전국단위 상근직 비정규직자의 열악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임.
-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적 추진기반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인건비와 처우에 의존하여 수행되는 것은 또 다른 소외계층을 양산하는 방식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정량적 측면에서는 통합이용권사업으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했는데, 생산 유발효과 185억원, 고용유발효과 127명, 취업유발효과 204명, 세수효과 등 산출이 이에 해당됨.
- 정성적 측면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의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 문화관련 단체와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소외계층의 연대망 구축효과를 창출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 성과산출 내역은 동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을 충실히 제시하였고, 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계량적 효과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 정부부처간, 지자체 단체간, 이용자간 일원화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성과환류의 형식과 방식을 잘 드러내준 모범사업임.
-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과 이용권에 따른 소외계층 삶의 행복지수 추이분석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기초 및 차상위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전원 지급방식으로 갈 것인지 일부 지급배제로 갈 것인지 선택이 필요하며, 일부 미지급대상자에게 남겨지는 갈등이 상존함.

[발전 방안]

- 성과를 환류하고 확산하는 안정된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수혜자에 대한 전원 만족할 만한 지급방법과 지급원칙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예산부족에 따른 전원지급에 있어 작게 널리 주는 원칙보다 년차별 지급순환제 및 지역별 열악한 지급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적절함.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첫째, 삶의 지수 측면에서 문화이용권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삶의 만족도에서 이용자는 3.31점으로 나타났고, 비이용자는 2.53점으로 조사되어 긍정적임.
- 둘째, 벤치마킹 측면에서 국회 및 정부부처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고 통합이용권시스템 개발 및 파급효과 사례로 문화소비부문의 국격을 높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셋째, 환류 측면에서 정부부처간 시스템 통합 및 공유로 사업추진 및 성과의 환류 체계를 정비함.

[긍정적인 측면]

- 이용권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기초 및 차상위층과 참여예술가, 지역단체, 기획사 등 여러 단위가 함께 참여하는 바 고용창출, 문화비즈니스, 공동체 형성 등 시너지가 높음 사업임.
- 부처간 모범적인 운영관리시스템 및 환류체계를 제시하여 벤치마킹의 가치가 있으며, 성과의 환류방식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성공으로 제반사업의 통합모델로 예시될 만함.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전체사업 중 대표사업으로 육성지원 할 만한 큰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간주됨.

[미흡한 측면]

-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현재 총 수요대비 지원금 부족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이용권지급은 45%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머지는 기획사업 참여프로그램으로 충당되고 있음.
- 이 기획사업은 기초 및 차상위대상자들에게 문화체험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방식임. 비단 수혜자뿐만 아니라 참여예술가, 기획사, 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공동체성 성격으로 적극 확대해 가야함.

- 소외계층에게도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화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용권사업에서 카드 지급 이외에 다양한 예술전문성을 갖춘 참여인력의 확대를 추진해야 함.

[발전 방안]

- 첫째, 성과확산의 제도화 조치 및 통합형 문화복지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본 사업은 기초 및 차상위층과 참여예술가, 지역단체, 기획사, 공연장, 개인 등이 함께하는 문화참여형, 고용창출형 문화공동체사업의 성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문화복지지원의 관점에서 제반사업과 통합적 문화복지지원체계로의 승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문화복지사 인증제도 시행으로 문화복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행 지역주관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사 인증제도 시행으로 문화복지사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하여 본 사업의 수행 인력을 제도화하고 전문화하여 파급효과를 촉진할 필요 있음.

4. 개선과제

□ 계획

[수요예측과 소요재원에 대비책 마련]

-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재원부담의 비율을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임. 특히 통합카드제의 실행을 통해 볼 때,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가설을 통한 문화와 관광, 스포츠 등 수요별 관련 재원의 효율적인 매칭과 연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종합적으로 지속적인 수요예측과 소요재원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필요함.

[현행 성과지표 검토]

- 현행 성과지표를 수혜자 수와 수혜자 만족도로 설정한 바,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보다 더 넓은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표 검토가 요구되며, 계량지표의 산출뿐 아니라 사업내용과 관련된 비계량지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집행

[예산의 교부금액과 실금액의 차이발생 문제점 보완]

- 사업특성상 불가피하게 교부금액과 실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정부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분기별 집행계획이 아닌 월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장함.

[문화이용권 이용시기 분산 방안 고려]

- 바우처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나, 향후 문화이용권의 이용시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연 2회 또는 전·후반으로 구분하여 이용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행시기를 연간 2회 등으로 구분하면서도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1반기에 신청자를 150% 정도 선정하고 1반기의 집행실적으로 감안하여 2반기에 조정하는 방법 등 보다 탄력적인 집행방법을 추가적으로 더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선정방식도 현재의 선착순에서 무작위추출, 예비후보 등 새로운 선정방법의 가능성이 없는지도 검토함으로써 선정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임.

□ 성과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

- 성과목표치는 수혜자 수와 문화카드 발급률은 100%를 상회하여 긍정적이지만, 수혜자 만족도와 문화카드 이용률은 100%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 현재 이상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문화카드의 이용처 및 관람·구입 장소의 이동 편리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문화이용권 배분혜택과 선정지급 원칙 개선]

- 개선과제의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 먼저,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이용권 지급사업은 수혜당사자들에게 배분에 있어 현 단계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그리고 사업 주관처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용권 배분혜택과 선정지급 원칙의 개선이 필요함.
- 다음으로 3차년도 전개되는 이용권사업은 매해년도 운영지침이 달라져 비교적 정착단계로 진입해 가고 있지만, 보다 신속히 운영체계와 운영지침의 안정성을 완비해 확산효과를 대비하기 바람.

[문화복지의 방향을 가늠하는 우수사례 도출]

- 문화이용권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연도별 문화사각지대와 소외된 세대계층의 현황 그리고 문화생태계를 충실히 데이터화 하여 전국적 차원의 공공단위 빅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장차 국가의 문화복지 방향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진흥기금 사업데이터로 활용될 것임.

[202] 문화나눔 (문화바우처 외)

- 동 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양극화 해소, 문화복지 정책을 통한 문화복지 강국을 실현하는 등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이를 통한 예술의 생활화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목적을 두고 집행됨.
- 특히,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분명한 사업임.
- 이러한 사업목적 아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하였고, 세세부 사업별 운영성과를 극대화하며,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동 사업의 주요성파로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문화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펼쳤고, 유관부처 합동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민관합작의 지원노력이 우수함. 그리고 소외지역으로 구획화된 쪽방이라는 집산촌을 행사의 용어로 선택한 것도 훌륭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기관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기대효과의 연관성을 놓고 볼 때, ‘수혜자 수’와 ‘만족도’로만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사업의 심리적 효과는 무형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량지표와 더불어 질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비계량지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발전을 위해 여러 용역을 통해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해 가고 있으나 현재는 사후평가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이루어지므로 사전계획에 의한 현장 중심적 모니터링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경제, 사회, 지리, 기타 특수한 환경적 여건에 대한 소외계층의 명확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타 복지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생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기타 특수한 환경적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양극화 해소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이 창의적 힘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함

○ 문화복지 정책을 통한 문화복지 강국 실현

-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문화예술 복지정책을 통해 문화복지 강국 실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3,175백만원

○ 지원대상 : 장애인, 어르신, 아동·청소년, 읍·면단위 거주자, 군인, 재소자, 실직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문화소외지역과 계층

○ 지원형태 : 민간보조금

○ 지원조건 : 민간보조(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사랑티켓 1:1 매칭)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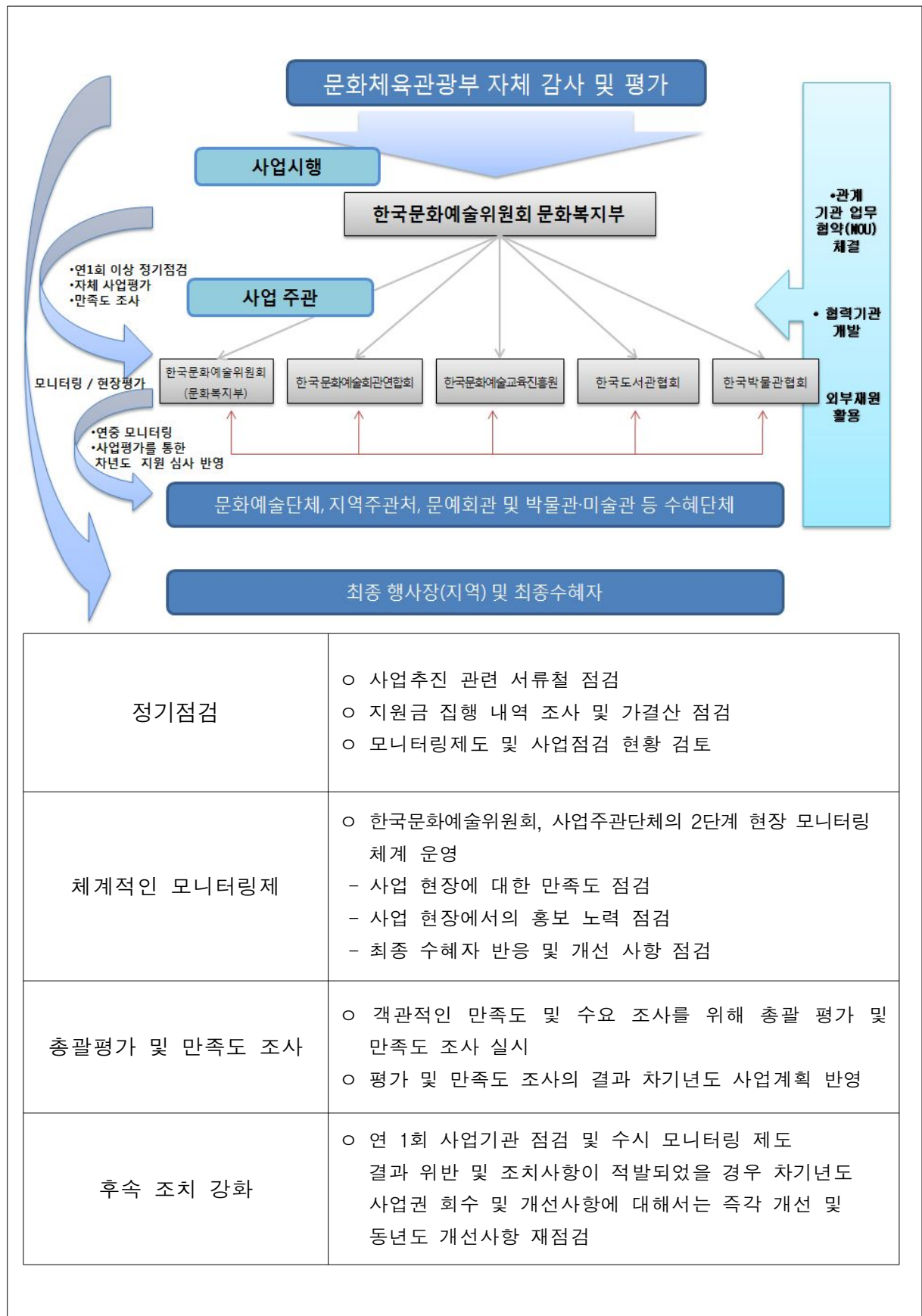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 소외계층문화순회	9,300	9,505	10,000	495	5.2
▪ 사랑티켓	2,000	1,956	1,251	△705	△36.0
▪ 지방문화재단 특별공연프로그램 지원	4,800	4,704	7,983	3,279	69.7
▪ 우수문학도서보급	4,000	3,930	0	△3,930	-
▪ 공공 박물관 · 미술관 특별 전시프로그램 지원	800	787	0	△787	-
▪ 장애인창작및 표현활동지원	1,000	1,088	0	△1,088	-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200	1,180	1,200	20	-
□ 세출예산비목					
▪ 기타직보수(110-02)		16	347	331	-
▪ 일용임금(110-03)		0	6	6	-
▪ 일반수용비(210-01)		337	399	62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0	0	0	-
▪ 복리후생비(210-12)		0	11	11	-
▪ 국내여비(220-01)		2	10	8	-
▪ 사업추진비(240-01)		20	18	-2	-
▪ 민간경상보조(320-01)	23,100	22,775	18,583	-4,192	-
▪ 연금지급금(320-03)		0	60	60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0	1,000	1,000	-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집행 및 책임관리 체계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5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4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1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4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8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0
	4-3 우수사례 평가		3	2.49
전체 합계			100	84.49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양극화 해소, 문화복지 정책을 통한 문화복지 강국 실현 등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이를 통한 예술의 생활화 및 문화 양극화의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양극화 해소라는 목적에 집행됨.

[미흡한 측면]

- 7개 세부사업에 대해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과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은 증액되었으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경우는 동액 대지 유지, ‘사랑티켓’사업은 감액되었으며, ‘우수문학도서보급’, ‘공공박물관 미술관특별전시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의 경우는 '14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통합을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문화나눔’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보면 사업 성격 상으로 볼 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함.
- 전체사업의 목적성을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잘 구현되는지 등이 잘 명시되어 있지 않음. 세부사업들의 상황 및 문제가 상이한 만큼, 향후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방향이 잘 드러나지 있지 않음.

[발전 방안]

- 2013년까지의 사업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만큼, 사업의 연계 및 통합 이후 예산 분배 및 조정, 우선순위를 통해서라도 사업의 목적의식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성을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통합 이전과 이후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달라지는 점, 사업공백의 방지책 등을 통합이후의 장·단점 관점에서 기술하고, 혹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되어 기술되어야 할 것임.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을 통하여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키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감 증진을 통해 문화 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한다는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이 분명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로서 관람객 만족도와 수혜자 수를 설정하여, 경제적·사회적·지리적·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이는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하도록 한다는 효과 등이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잘 명시되어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이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집단이나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향유 정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및 연계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발전 방안]

- 각각의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에 대한 성과목표 및 비전을 세부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성과목표 달성 전략을 통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기타 특수한 환경적 여건에 대한 소외계층의 명확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필요성, 복지사업과의 차별성,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

-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극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및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입증을 위해 사업이전과 이후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 문화복지 정책을 통한 문화복지 강국 실현을 위해 단순복지와 문화복지사업의 차별성과 지향가치, 문화복지에 대한 대상층의 만족도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을 필요할 것임.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화나눔사업에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근거가 명확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문화나눔사업이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예산만으로 문화복지 시책을 완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복권기금을 활용함이 분명함.
- 복권기금의 운영에서 공익사업에 문화예술 관련부분이 들어가 있으므로 문화복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함.
-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의해 2003년 12월부터 모금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문화향수사업에 대한 대체 재원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근거가 확실함.

[긍정적인 측면]

- 복권기금의 문화나눔사업 환경 및 수요대상 분석에 따른 근거를 잘 기술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냄.
- 문화나눔사업이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예산만으로 문화복지 시책을 완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하였음.
- 복권기금의 운영에서 공익사업에 문화예술 관련부분이 들어가 있으므로 문화복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함.
-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의해 2003년 12월부터 모금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문화향수사업에 대한 대체재원적 성격이 잘 설명됨.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의해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실현하고,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됨.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환경 및 수요대상 분석에 따른 사업 시행하여 해결 과제로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를 축소함.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통해 '10년도 저소득층과 국민 평균 4.5배에서 '12년도 1.2배로 격차 축소에 기여함.

[미흡한 측면]

- 사업근거에 따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외계층의 자립성을 도모하고, 만족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한시적인 기한 설정 등이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중국에는 사업이 소멸되는 것이 문화융성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니만큼,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기한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저소득층과 일반 국민의 예술행사 관람률 등의 격차 축소는 단지 문화복지 정책만의 원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 및 주기적인 사업추진의 피드백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득 격차가 축소된다는 사실은 격차가 줄어들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시적인 측면에서의 사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장애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의 출연근거 및 사용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음.

[긍정적인 측면]

- 개별사업별 특징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장애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의 공공성격이 잘 드러남.
- 공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잘 기술되어 있음.

[미흡한 측면]

- 특별히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2013년 사업 추진 현재시점으로 볼 때, 대상층이 다르면서 사업목적이 유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합 및 연계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타 부처 사업의 경우에도 중복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함.

[발견 방안]

- 불필요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크게 없으나, 국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사업과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연계·통합을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가 제시되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국고사업과 기금 사업과의 연계 및 효과성, 역할 분담에 대한 보다 큰 그림과 로드맵의 마련이 문화나눔사업의 전체 목적 및 비전과 연계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대상인 장애인, 어르신, 아동·청소년, 읍·면단위 거주자, 군인, 재소자, 실직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문화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거주자,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시설거주자, 교정시설수용자, 새터민 등으로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개별사업별 특징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장애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한 탓에, 사업수혜대상의 차별성이 나타나 있는 사업임.
- 공공사업목적에 매우 잘 부합하며,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수혜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미흡한 측면]

- 사업의 수혜대상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크게 없으나, 2013년 시업 시점으로 보았을 때 사업수혜대상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 등을 통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국고운영의 효율성 뿐 아니라 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임.

[발전 방안]

- 사업의 수혜대상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크게 없지만 국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사업과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연계·통합을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가 4개 사업 수준에서 잘 제시되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대체적으로 사업시행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되어 있어 사업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7개 세부사업에 있어 일부 유사사업간 통합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의 성격상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경우, 주관기관이 동일하여 통합 추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의 경우 시행주체에 차이가 있음.
- 사랑티켓 사업은 1991년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사업이며,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유사사업이 없음.
-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은 ‘우수학술·교양도서선정’ 사업의 경우 주최와 주관기관과 차이가 나며, 공공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지원사업은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임.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마을미술 프로젝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과 시행주체가 다름이 확인되었고,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통합 가능성이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 기대효과, 사업내용에 따라 단순한 시행주체의 동일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근거를 잘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
- 2014년 일부 사업에 대해 운영 주체 변경을 통한 사업이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 소외계층문화소외, 사랑티켓 등의 사업을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함.

[미흡한 측면]

- 사업내용 등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동일하여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 등은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발전 방안]

- 사업의 시행주체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크게 많지 않으나, 국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사업과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연계·통합을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가 시행주체의 유사성이라는 차원에서 잘 제시되어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화나눔사업의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모두 문화 소외지역·계층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이를 통한 예술의 생활화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세부사업별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고 모니터링, VOC 수집,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이 잘 나타남.

[긍정적인 측면]

-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이라는 기관 미션에 맞게 사업이 기관의 비전전략과 맥을 같이 하여 연계성과 적합성이 양호함.

[미흡한 측면]

-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기관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전략방향, 세부추진전략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행복과 핵심가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체계에서는 피드백과 사업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및 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발전 방안]

- 현행의 사업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추어 목적과 연계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세부사업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시스템 및 사업관리 조직을 구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원조건은 민간보조로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사랑티켓 1:1 매칭 등의 기준 충족여부와 근거가 잘 제시되어 있음.
- 7개 세부사업에 있어서 재원분담의 적정성이 잘 확인됨.
 - 소외계층문화순회 : 사업 성격상 예술단체와의 재원 분담 가능성이 낮음
 - 사랑티켓: 전국 단위의 수혜대상 분포 및 대규모 예산 소요 등이 필요함에 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자체 매칭 의무화(50%) 및 지역별 사랑티켓 센터 운영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형성
 -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 : 공익성이 강하고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의 특성이 반영됨
 -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 사업의 특성상 재원 분담 가능성은 낮음
 -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지원사업 : 자부담 의무화 및 지방비 등의 외부 재원 매칭을 통해 사업비 대비 년 38~40%선의 타재원 유입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사업 성격상 예술단체와의 재원 분담 가능성은 낮음
 -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 10% 자부담 의무화를 통해 각 개별 사업 추진단체의 책임성 강화와 일정 수준 자구 노력을 강구

[긍정적인 측면]

- 사업 특성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과의 재원분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보조비율의 적정성 등이 검토됨.

[미흡한 측면]

- 재원분담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세부사업별로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일부 전액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적용 제외 인정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부담 원칙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발전 방안]

- 사업의 성격상 재원분담의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나, 장기적으로는 생활문화공동체와 같은 대상군의 육성 등을 통해 자생적 활성화에 사업목적 및 효과성을 더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7개 세부사업에 있어서 수혜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 소외계층문화순회 : 지원대상 - 소외계층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 의거
- 사랑티켓: 지원대상- 어르신(65세 이상) 및 아동·청소년(24세 이하)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 의거
-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방문예회관, 소외지역주민, 저소득계층/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 의거
-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 지원대상 - 소외지역주민,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 의거
-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지원사업 : 소외지역주민, 저소득계층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 의거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소외지역주민, 저소득계층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 의거
-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 장애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3에 의거

[긍정적인 측면]

○ 각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혜대상자 선정의 내용이 법에 근거하여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미흡한 측면]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의 문화소외계층의 경우 실제 사업수행 시, 그 기준과 대상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상그룹에 대한 분석 및 수요가 주기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사업의 성격상 소외계층의 정의가 보다 정교하게 요청되고 있는바,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향후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7개 세부사업에 있어서 지원방식 및 조건 등의 검토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은 문화예술의 대표성을 지닌 기관에서 총괄운영하고, 예술 단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사랑티켓 사업은 문화예술의 대표성을 지닌 기관에서 총괄운영하고, 지역별 공공 기관과 협력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의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적절함.
- 우수문학도서보급 사업은 독서활동에 대한 오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민간전문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적절함.
- 공공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지원 사업은 국내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총협의체 인한 박물관협회에 총괄운영하고, 각 박물관·미술관에서 세부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수행하며, 이에 대해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적절함.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한 생활문화공동체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타 지역으로 자발적 확산·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다만, 대상 집단 등은 불명확하다고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각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이 법에 근거하여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미흡한 측면]

- 세부사업의 지원방식 및 조건이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사업에 있어, 지원대상 등이 불명확하거나, 평가 등을 통해 연단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존재함.

- 우수문학도서보급 사업은 민간전문단체에 대한 전문성을 매년 검토, 경쟁 도입 등이 필요하고,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공모의 과정 및 대상의 명확화 등이 필요할 것임.

[발전 방안]

- 미흡한 점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 또는 지원대상 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연구를 통해 적절히 수요를 예측하여 추정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소외계층은 약 13,896,841명임.

[긍정적인 측면]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환경 및 수요대상 분석 및 기술이 명확하고, 정책효과성이 잘 나타남.

[미흡한 측면]

- 세부사업별로 사업수요예측방식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기준도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지원이라는 사업목적상 공통 기준 및 수요예측 프레임을 마련하고, 개별사업별로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트렌드 변화에 따른 추세변화 등을 잘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특히, 세부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예측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 것임.
 - － 소외계층문화소외: 수혜대상과 연관이 있는 유관기관의 사전 수요대상 시정기적인 리스트 파악을 위한 조사 풀의 마련 및 제시
 - － 사랑티켓: 단순 지원대상으로서의 전 국민과 잠재적 수요가 아닌 소외계층에 보다 초점을 맞춘 사업대상의 명확성 마련
 - －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지원 : 연단위 공연수요의 총괄적인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 － 우수문학도서보급 : 지원대상의 명확화 및 소외계층과의 관련성
 - － 공공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프로그램 : 연단위 전시수요의 총괄적인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 －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 장애인 전수 중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층의 명료화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수혜자 수 확대를 통해 문화양극화 정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수혜자 만족도는 항목별로 다양하게 측정하여 산식을 통해 반영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계량지표의 산출뿐 아니라, 사업내용과 관련된 비계량지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사업내용과 관련된 정량지표 뿐 아니라, 질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비계량지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2개의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는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만족도 조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결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외국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성과지표 발굴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발전 방안]

-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으나 계량지표 뿐 아니라, 비계량지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는 문화사업의 심리적인 효과는 무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량으로만 측정하는 것을 한계를 보일 수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측정산식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긍정적인 측면]

- 계량지표의 산출, 측정방법 등은 성과관리 이론에 충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흡한 측면]

- 전반적으로 사업마다 유사한 방식에 의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식에 의한 측정산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발전 방안]

- 수혜자 만족도 조사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같은 분야 연구원이 관여하게 되면 조사가 우호적으로 설계되고, 진행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전문 리서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의 목표를 매년 사업 실시 전 부처 성과관리계획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2013년 성과목표치와 달성치를 명시하였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 성과계획 시 설정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여타 평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수립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3년 계획 수립 시 이용된 2012년 달성치의 계획근거가 없음.
- 목표치 설정근거는 명확하나 이로 인해 설정된 목표치는 2013년이 유일함.

[발전 방안]

- 목표치의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달성치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목표치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만약, 2009~2012년의 목표치 설정된 근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목표치 수립 및 달성치에 대한 추세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목표치 설정에 있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없으며 계획 없이 달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목표치를 신뢰하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목표치 설정 근거가 명확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이 없어 보임.

[미흡한 측면]

- 명확한 목표치 설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 목표치를 설정하였지만 기록하지 않았거나 혹은 목표치 설정근거 수립이 늦었거나,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음.

[발전 방안]

- 목표치 설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성과관리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만약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목표치 설정근거를 바탕으로 과거년도의 목표치를 검토하여야 함.
- 성과지표 중 수혜자 만족도는 이미 달성치가 85%를 넘고 있고, 목표치 역시 90%에 이르고 있어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발전적인 대안 지표의 개발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별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개선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관람 횟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문화 사각지대에 대한 문화향유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수혜자 만족도는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
-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만을 제시하고, 달성여부는 이루어졌으나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함.

[발전 방안]

- 목표치 설정과 이의 달성여부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을 통해 실제 문화향유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만족도의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 형성은 성과목표 수립과 달성에 안일함을 갖게 하므로 보다 발전적인 지표 대안을 발굴해야 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2013년 예산집행률은 99.9%를 기록하였음.
- 최근 2개년간 예산집행률 100%를 기록하여, 예산집행률 상승은 의미가 없음.
- 분기별 집행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음.

[긍정적 측면]

- 자체 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검증을 통해 재원이 당초 계획된 주체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검증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바, 계획된 사업주체에 전달되는 과정을 알기 어려움.

[발전 방안]

-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사업별로 모니터링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수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다양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모니터링에 너무 많은 힘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고,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발전 방안]

-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해 가고 있으나, 현장 중심적인 모니터링 보다는 사후평가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이루어지므로 정기적이고, 사전계획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여러 발생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긍정적인 측면]

- 프로그램 다양화, 홍보의 강화 등은 외부의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료됨.

[미흡한 측면]

- 외부평가,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에 대한 반영 및 수정 등의 내용만 언급되었으나 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내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를 해소해 가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외부의 의견을 의식하여 사업방향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라고 판단됨.
- 외부의 지적사항은 참고사항이며 한편으로 최소한의 개선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높여가려는 노력일 필요할 것임.

[발전 방안]

- 공공박물관,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의 지원은 특별 전시프로그램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예산을 공급받고 있는 기관에의 추가지원이므로 여기의 예산배정은 가급적 적게 하고 사립 박물관, 미술관에의 지원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공공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임.
- 문화부문은 다양한 사업이 매년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큰 흐름을 갖고 성과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전체적으로 또 장르별, 부문별로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은 수혜자 만족도 97.7%, 수혜자 수는 99.5%를 달성함.

[긍정적 측면]

- 실적 및 목표관리를 세부사업별로 진행하는 노력이 돋보임.
- 이를 통해 성과 미달성 사유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사업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의 차이비교와 사업 참여경험이 문화예술관람, 문화복지 인식, 사회자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동 사업이 대체로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수혜자 만족도의 경우 달성률의 고른 분포가 이루어져 있으나, 수혜자 수는 세부사업별로 달성률의 편차가 큰 편임.

[발전 방안]

- 수혜자 수의 사업별 고른 달성률 분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업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정량적인 비율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방안을 도입하기 바람.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개선과제의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여부측면에서 본 과제는 예충, 공사립박물관, 문화원,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되는 문화나눔사업으로 문화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 문화향수권 신장이라는 사업목적수행에 부합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음. 특히 현장 모니터링과정과 관계기관별 협의기구를 통해 계획과 집행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인 유사사업에 따른 운영기관의 조정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여 운영주체 문제를 대처하였음.
- 개선과제 관리의 적정성 관점에서는 문화바우처사업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문화복지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타 기관과 여전히 중복적 소지가 남아있음. 특히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 사랑티켓 사업은 본 사업의 목적성에 맞춰볼 때 타겟과 시행범위를 재검토할 필요 있음.
- 각 지역 문화재단을 통해 집행되는 소외계층 나눔사업과의 실현체계를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지가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임. 문화원을 통해 집행되는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의 경우, 사회문화 환경이 바뀌면서 약화일로에 있던 문화원의 존립 근거와 역할기능을 보완해 주고 있는 측면에서 사업효과의 적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개선과제 이행완료 여부 측면에서 ① 일부 유사사업 통합운영을 위해 8가지 사업 유형을 4개의 집행체계로 조정하여 통합운영 진행, ② 지원효과 측정 계량화를 위해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인지도와 만족도 조사 수행 완료, ③ 컨설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문화복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평가단을 운영, ④ 부정행위 엄중조치 지적사항에 대해 미비점 및 부정방지 관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 실시 및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임.

[긍정적인 측면]

- 지적사항 개선노력 양호하고, 실현체계를 조정하여 유사사업 중복성 해소 노력이 양호함.
- 집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단체, 기관에 대한 배려와 참여 유도 노력이 양호함.

[미흡한 측면]

- 부처간 통합을 이룬 문화이용권 통합관리시스템과 사랑티켓의 분리운영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 있음. 특히 범용사업으로 확대된 사랑티켓사업의 대상을 사업목적성에 맞게 차차상위까지로 제한해야 함.
-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철학적 성찰, 문화적 해석, 사업설계 및 대안마련의 집중성이 요구됨.
- 소외계층이 직면한 문화나눔사업을 통한 소외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집행과정상에서 심사숙고해야 함. 소외계층의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식의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보다 꾸준히 정밀하게 찾아 시행해야 함.

[발전 방안]

- 범용사업으로 확대된 사랑티켓사업의 대상자를 사업목적성에 맞게 일반인을 배제하고 차차차상위까지로 지급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임. 중복성 있는 사업의 관계기관간 업무조정 협의를 통해 최선의 실현체계로 일원화가 필요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수행필요성에서는 5개지역 ‘작은방 문화나들이’ 사업은 문화나눔사업의 취지에 적절하나 문화나눔사업의 핵심사업임 8개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우수사례 또한 핵심사업 중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안행부와의 부처간 연대를 통해 문화영역은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안행부는 생필품 지원방식으로 지원하는 노력은 적절한 접근임.
- 다만 이 쪽방촌 나들이사업이 전시성 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 사유는 소외계층일수록 보다 잘 준비되고 갖춰진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 감상형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지 않기 때문임.
-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갈 경우도 높은 수준의 기획자, 창작자, 작가, 안무가, 연출자들이 결합하여 생산한 공동체적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됨. 과연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측면에서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관점으로 볼 때 쪽방촌 나들이를 통해 거둔 문화향수권 신장과 자활자립능력 제고효과는 추상적 해석에 머물고 있음. 이에 효과창출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측정하기 어려움. 아울러 평가지표와 개선과제에 충실했는지와 합당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문화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펼친 점은 양호하며, 특히 유관부처 합동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민관합작의 지원노력이 돋보임.
- 소외지역으로 구획화된 쪽방이라는 집산촌을 행사의 용어선택에서 배려한 네이밍 작업은 훌륭함.

[미흡한 측면]

- ‘작은방 나들이’가 1회성에 그친 행사를 넘어 지속적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과 계획의 마련이 요구됨.
- 본 사업이 우수사례로 추천되기 위한 비교평가 대상이 제시되지 않아 문화나눔사업의 우수사례로써의 성과측정이 다소 아쉬움.

[발전 방안]

-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생활문화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킬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우수사례 평가를 위한 우수사례 평가대상사업을 예시하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리하기 바람.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주요 추진활동 측면에서 쪽방촌 방문프로그램 개발 배치 추진. 안행부와의 연계활동을 전개하였고, 지역 상담센터와의 협조체계 유지, 소외계층 주민들의 초상권 보호조치 하였음.
-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행사장의 협소함과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매체노출 시 초상권 보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공연을 진행함.

[긍정적인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안전행정부, 지역상담센터, 출연자간 열악한 공연환경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문화와 생활을 같이 준비한 접근법은 추진기관 부서단위의 적극성을 갖춘 모습임.

[미흡한 측면]

- 우수사례 선정의 객관성을 위해 전국단위 우수사례 발굴과 선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전국단위 제반사업의 의미와 실천유형이 다양한데 동 사업이 우수사례인지 근거 제시가 미흡함.

[발전 방안]

- 우수사례 발굴과 선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문화예술분야 스태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질의 작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정량적 측면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5개 유관기관 참여 및 물품목록을 제시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상담센터 등 민관협작을 추진하였으며, 5개 지역 순회프로그램을 수행함.
- 정성적 측면에서 목적성과 세부사업내용의 합목적성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문화사각지대에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공연준비 노력이 양호함.

[미흡한 측면]

- 5개 지역순회공연물이 단순 아마추어적 국악공연 형태에 머물고 있으며, 장르별 다양한 준비와 레퍼토리의 변화가 필요함.

[발전 방안]

- 형식적 공연기회 제공이 아닌 지속적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해야 하며, 레퍼토리의 다양화와 참여형, 감상형 양질의 작품준비를 제공해야 함.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된 양질의 작품을 초청하여 진행 되어야 함.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삶의 지수 측면에서 쪽방촌사람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문화서비스로 자존감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그 파급효과(심리적 또는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부재함.
- 벤치마킹 측면에서 본 사업은 찾아가는 사업형태와 제반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반적 형태임. 특정할 만한 내용은 공공단위와 민간의 협업체계에 대한 협업모델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환류 측면에서 제시된 보고서에 환류를 위한 확산과 선순환 노력과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

- 민관합작에 의한 문화와 생활(생필품)지원의 결합으로 협업모델 마련과 소재지의 지역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여 접근한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제시된 이미지로 볼 때 공연물의 장르가 협소하고 획일적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과창출을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 있음.

[발전 방안]

- 지속적인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제작으로 문화사각지대에 실효적 효과 창출이 필요하며, 민·관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예술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작품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우수사례 추천의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의 통합 이전과 이후의 효과성 강조]

- 동 사업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만큼 사업의 연계 및 통합 이후 예산 분배 및 조정, 우선순위를 통해서라도 사업의 목적의식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통합 이전과 이후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달라지는 점, 사업공백의 방지책 등을 통합이후의 장·단점 관점에서 기술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되어 기술되어야 할 것임.

[정량성과 뿐 아니라 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성과지표 검토]

- 현행 성과지표는 수혜자 만족도는 항목별로 다양하게 측정하여 산식을 통해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내용과 관련된 정량지표와 질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비계량지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명확한 목표치 설정의 근거 수립]

- 현행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졌으나, 근거가 미약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현재 목표치 설정근거를 바탕으로 과거년도의 목표치를 검토하여야 함.
- 나아가 목표치 설정과 이의 달성여부를 검증하고, 사업시행을 통해 실제 문화향유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한편, 만족도의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이므로 성과제고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지표 대안을 발굴해야 함.

□ 집행

[사후평가 모니터링이 아닌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추진]

-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해 가고 있으나, 현장 중심적인 모니

터링 보다는 사후평가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이루어지므로 정기적이고, 사전계획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 중 발생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전파]

- 외부평가,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에 대한 반영 및 수정 등의 내용만 언급되었으나, 사업의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해결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성과

[계획된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

- 수혜자 만족도의 경우 달성률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으나, 수혜자 수는 세부사업별로 달성률의 편차가 큰 편이므로 사업별 고른 달성률 분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노력 강화]

- 전년도 지적사항인 유사사업에 따른 운영기관의 조정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여 운영주체 문제를 대처하였으나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철학적 성찰, 문화적 해석, 사업설계 및 대안마련의 집중성이 요구됨.
- 소외계층이 직면한 문화나눔사업을 통한 소외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집행과정상에서 심사숙고해야 함. 소외계층의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식의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보다 꾸준히 정밀하게 찾아 시행해야 함.

[우수사례 추천의 근거와 객관성 확보 장치 마련]

- 지속적인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제작으로 문화사각지대에 실효적 효과 창출이 필요하며, 민·관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예술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작품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우수사례 추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됨.

3. 지역문화 예술진흥

■ [301] 지역문예활동지원

3. 지역문화 예술진흥

- 지역문화예술진흥은 단일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이 해당됨.
- 동 단위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구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하는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진작을 위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에 맞추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동 단위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기관의 비전 및 전략체계는 적절히 부합하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실행 계획과 추진전략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동 단위사업의 주요성과로는 낙후된 지역의 활동공간과 활동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공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작가와 지역단체의 자긍심을 주었으며, 지원대상사업의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여건을 마련함.
- 다만, 지역의 필요사업들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분담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적정성이 보다 논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동 분과사업의 성과지표는 ‘비수도권 관람객 수’, ‘고객만족도’,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등 통계자료를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사업의 최종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사업의 목표를 궁극적 측면에서 접근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세부사업 내용에 착안한 보조지표 발굴이 요구되며, 이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전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간주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지역
문예활동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음.
- 동 분과사업의 전체점수는 금년도에 92.43점을 획득하여 매우우수 등급을 받
았고, 전년도의 83.00점과 비교하여 9.43점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음.
- 전년도 평가에 비하여 모든 부문에서 향상된 수준이며, 자생력이 취약한 지
역상황을 반영하고,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적절히 나타났으
며, 성과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인정됨.
- 향후,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예술의 불균형을 해
소하고, 지역별 특성화 필요에 충족하여 국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야 할 것임. 무엇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사업의 중요성 증가로 장
기적인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목적과 전략목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요구됨.
- 아울러 지역문화진흥법 이후, 수혜대상의 변화 등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성과창출을 위해 각 지역별, 참여단위별
협업체계 및 융합작업 시스템화가 요구됨.

[301] 지역문화활동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달성
- 지역 예술가(단체)의 기초 창작·발표 활동, 공연장과 공연단체 협력관계 조성을 통한 지역 공연장 활성화, 공연단체 창작 여건 개선 및 창작역량 강화
- (지역) 예술계와 주민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 공연예술 축제 육성
- 기금(보조금)과 지방비 매칭, 지역과의 상시적 협력활동(지원심의,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등)을 통해 지역 단위의 예술창작 관련 활동(사업) 지원
- 광역 지자체 및 광역문화재단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 1998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0,560백만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단체), 지역 공연장, 지자체 및 문화재단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30~50%), 정액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16개 시·도(간접보조: 문화재단),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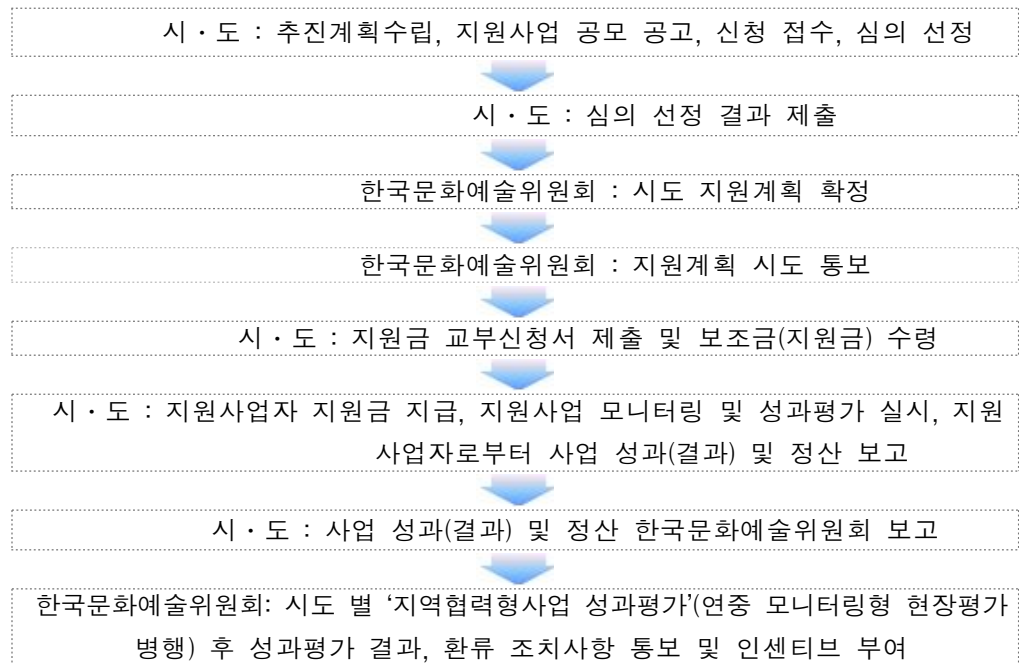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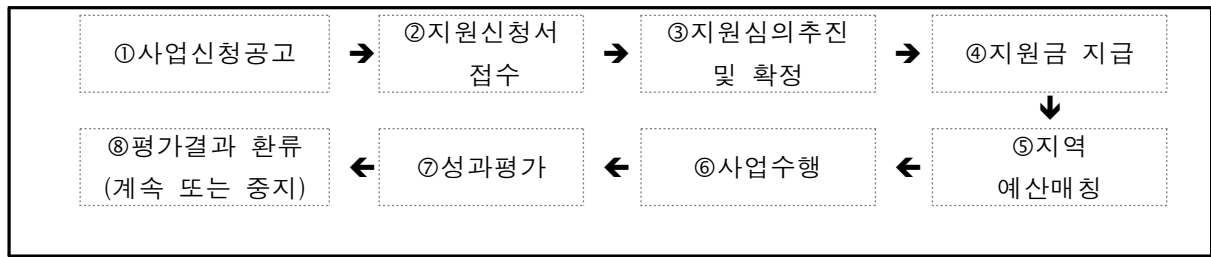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지역문화예술지원	20,241	20,549	24,820	4,260	
▪ 지역문화활동지원	19,941	20,249	24,590	4,330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300	300	230	△ 70	
□ 세출예산비목	20,241	20,549	24,820	4,27	
▪ 일반수용비	36	19	40	21	
▪ 위탁사업비	100	100	60	△ 40	
▪ 국내여비	3	28	10	△ 18	
▪ 사업추진비	2	2	10	8	
▪ 민간경상보조	200	200	170	△ 30	
▪ 자치단체경상보조	19,900	20,200	24,530	4,330	

□ 사업추진 절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지역협력형)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공모형)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4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4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4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8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0
		4-3 우수사례 평가	3	2.43
전체합계			100	92.43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 및 문제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지역 기반 창작활동 여건 미흡함을 반영하여 국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화 필요에 근거하고 있음.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 공연예술단체 육성 모델 개발에 기여하는 등 목적이 명확함.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공연예술 축제 및 시장 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사업은 중앙과 지역, 지역간의 협력·협업에 의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에 따른 반응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특성화 및 공연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성장이 어려운 지역의 문화예술 특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자생력이 취약한 지역지원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이 어떻게 되는지 반영하고, 기술할 수 있어야 함.

[발전 방안]

- 지원사업의 한시적인 정도 및 자생력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 있음.
- 아울러 종합적인 중·장기계획과 비전을 강구하는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함.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각각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사업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예술위의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창작을 활성화해 나갈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함.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은 지역간 공연 인프라 차이로 인해 공연장 활성화 정도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공연장상주사업을 통해 공연단체의 창작·발표활동 촉진에 기여함.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은 서울 중심의 공연예술 축제 및 시장 형성에 대한 반응으로 사업을 진행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사업은 중앙과 지역, 지역간의 연계·협력활동을 통하여 상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긍정적인 측면]

- 지역의 문화예술 진작을 위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요에 반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에 잘 대응하는 사업임.

[미흡한 측면]

- 급변하는 지역문화진흥 환경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체계 및 준비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광특회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지역 자원의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 특성이 부각되는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달성, 연관관계 등이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 등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임.

[발견 방안]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사업의 변화와 장기적인 로드맵, 사업목적과 전략목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4개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재정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의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지역 예술창작 역량 강화에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재정지원 확대가 요구됨.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예술계의 어려운 공연수익 구조나 민간영역의 기부제도 미정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의 우수 공연예술단체가 공적자금의 지원이 없거나 소액 다건식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양질의 공연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연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역 공연예술 축제 육성이 필요하나 지역 전시성·낭비성 축제, 축제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사업은 문화융성 기조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지역 보조금사업 규모 확대, 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간의 수평적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재정 필요성이 제기됨.

[긍정적인 측면]

- 자생력이 취약한 지역상황을 잘 반영하고,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음.

[미흡한 측면]

-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재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광특회계로 이관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함.

[발전 방안]

- 지원사업의 한시적인 정도 및 자생력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제안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전달체계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도 문화재단으로 지정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시·도로 전환기로 함.
-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기금의 효용성, 전달체계,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하고 치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등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한 대비책을 세부 조건별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성숙 및 예산규모 확대를 위해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함.
- 기존 문예기금 외 별도의 지역·생활문화 진흥 재원 확보를 이해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되는 효과성,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의 조속한 정립을 위해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거버넌스 체계의 관계성 변화 시의 공공자금의 비효율성을 증명해야 함.
- 지역 자율성 보장 취지에서 지역문화정책 예산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의 배분을 위해 현행방식과 포괄적 보조금 형태 시 장·단점과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 할 수 있어야 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추진의 목적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은 보조금과 지방비를 연계하여 지역협력형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생력을 도모함.
-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지자체는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지역협력형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와의 기능 및 사업의 유사·중복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다른 사업과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의 목적에 따른 추진방식, 사업내용 및 재원상의 특징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잘 나타낼 것으로 보여짐.

[미흡한 측면]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의 특성상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다름.
- 세부사업별로 유사성이 있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하고,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 내용을 충분히 기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미흡함.

[발전 방안]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의 특성상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다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사례의 제시, 세부사업별로 유사사업과의 목적성이 틀림을 명시, 혹여 유사성이 있을 경우는 유사사업간 협력,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노력 등의 기술이 충실하게 담겨야 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사업수혜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은 지역의 창작을 활성화하여 전국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핵심주체임.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이 사업 수혜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은 지역의 창작을 활성화하여 전국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핵심주체임.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은 1차적으로 지역 예술창작자, 2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사업 수혜자로 수혜대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사업은 지자체, 문화재단과의 협력활동에 의해 지역 예술현장 활성화에 따른 최종 수혜대상은 지역 예술가 및 지역 주민으로 수혜대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함.
- 특히, 지역협력형사업은 보조금과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 총괄기획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운영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지역협력형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보조사업이 아닌 지역협력 활동(지원심의,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환류)에 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중복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별첨이나 근거 자료 특히,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 차별적인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지 못함.

[발전 방안]

- 사업의 효과성과 중복성을 세부사업별로도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별첨이나 근거 자료, 특히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 차별적인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여 객관적인 기술을 해야 함. 추가적인 보완자료 제출도 필요함.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이후 수혜대상의 변화 등에 대해서 충실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다른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및 수혜대상의 중복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추진방식과 수행 주체라는 측면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은 보조금과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 총괄기획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운영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지역협력형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단순 보조사업이 아닌 지역협력 활동에 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차이가 남.
- 이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자체는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지역협력형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간의 기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간의 유사·중복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식임이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원활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이 잘 수행함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이 지금까지의 사업수행 등을 통해 잘 입증됨.

[미흡한 측면]

-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중복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임. 이에 대한 별첨이나 근거 자료, 특히 사업의 수행주체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업별 차별적 근거와 방식에 대한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사업의 효과성과 중복성을 세부사업별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별첨이나 근거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함.
- 특히 사업의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사업별 업무의 흐름도와 수행주체, 세부사업별로 차별적 근거를 제시하고,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이후 거버넌스 구조의 예상 변화 등에 대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하기 바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정부정책인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배분 및 사업으로서, 국정과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지역 상주단체 육성 및 문예진흥기금지역협력형 사업 확대에 해당됨.
- 문화융성위원회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에 해당됨.
- 지역의 자율성 강화 요구, 지역 예술의 특성화 전략 등에 부합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지역 간의 문화격차 심화, 예술 창조인력의 수도권 집중, 지역 기반 창작활동 여건 미흡 등 지역 문화예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고유문화를 특성화하여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

[긍정적인 측면]

- 기관의 비전 및 전략체계가 적절히 부합하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실행계획과 추진전략이 적정함.

[미흡한 측면]

- 지역의 필요사업들로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의 자생력 확보, 지역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적정성이 어떠한지 드러나지 않음.
- 세부사업들의 효과성이 모여 전체적인 사업목적을 완성하는 구조로 나타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논리적 체계가 미흡함.

[발전 방안]

- 기관의 비전 및 전략체계에 평가사업의 부합성, 기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실행계획 그리고 추진전략 연관도 등은 그림 형태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세부사업들의 시너지가 전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제시해야 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4개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재원분담 체계가 이루어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앙문예진흥기금과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매칭 하였음.
- 2013년 문예진흥기금 98.9억원의 2배를 상회하는 지역 매칭액 201.6억원 매칭하였고,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앙문예진흥기금과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매칭 함.
- 2013년 문예진흥기금 지자체경상보조금 80.1억원의 58%인 46.5억원을 지역에서 매칭 하였고,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의 1:1매칭으로 적절한 재원 부담 이루어짐.
-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운영은 협의체의 사업예산을 전액을 보조함.

[긍정적인 측면]

- 지역과의 역할분담 및 매칭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으로 지역의 자율, 책임성을 높 이려는 노력이 잘 드러남.

[미흡한 측면]

- 재원분담의 적절성 관련하여 협의체의 사업운영예산 전액 보조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매칭 가능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발전 방안]

- 타 협의체의 경우, 지자체의 각출이나 법인화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제고해야 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4개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혜자 선정이 이루어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창작을 활성화하여 전국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핵심 주체를 선정함.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이 수혜자로서 지역문화예술인은 지역의 창작을 활성화하여 전국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구현하고 있음.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을 위해 1차적으로 지역 예술창작자, 2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사업 수혜자로 수혜대상의 적정성이 인정됨.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을 위해 지자체, 문화재단과의 협력활동에 의해 지역 예술현장 활성화에 따른 최종 수혜대상은 지역 예술가 및 지역 주민으로 적정성이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수혜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고, 지금까지의 사업 수행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명확함.

[미흡한 측면]

- 수혜대상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성 및 환류시스템의 기술을 통한 선정과정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 사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현재 불특정 다수의 대상인 선정은 정확성이 떨어짐.

[발전 방안]

- 수혜대상자의 수혜효과 등이 면밀히 분석되어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매년 피드백되는 등의 기술이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4개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의 효율성이 인정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와 예산을 매칭하고, 지역의 매칭을 통하여 지역지원 재원 총량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함.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경상보조와 예산을 매칭하고,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은 공모형 사업운영을 통해 관광형·전시성 축제가 아닌 공연예술축제를 선정·지원하고, 전문기관 평가에 의한 등급 판정 및 환류가 이루어짐.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사업은 16개 지자체와 12개 광역문화재단의 여론 수렴 및 협력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지방비 매칭 및 경상보조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되며,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성을 일깨우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음.

[미흡한 측면]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등으로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은 지원방식 및 조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광특회계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지역 자율의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 특성이 부각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달성, 연관관계 등이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 등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함.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재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이 광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대비책 준비가 미미함.

[발전 방안]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등으로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세부사업별로 가능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지원방식의 기한 적정여부를 시나리오를 통해 검토되어야 하며, 일례로 사·전후지원, 직·간접지원, 전액지원 및 매칭, 공모전 형태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임.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4개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요예측이 양호하게 이루어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을 위해 2013년 지원신청건수는 9,339건으로 선정건수 4,466건의 2.1배에 이르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수요를 반증함.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을 위해 지역 문예회관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 53.1%(공연프로그램 가동률 32.1%)임. 지역 문예회관 전체 행사 중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5.2%로 낮고 특히 도 단위의 경우 38.7%로 문예회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로 인정됨.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을 위해 공모형 사업운영 및 평가에 의한 사업수요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을 위해 지역협력 활동 수요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지역의 수요에 따라 사업이 공공필요성이 높은 지역문화예술의 향유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됨.

[미흡한 측면]

-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보다 객관적인 타당성의 검증, 수혜대상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은 매년 체계적 기준을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술 및 대응 등이 다소 미흡함.

[발전 방안]

-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보다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혜대상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은 매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수혜대상 등에 대한 대상별 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 사업의 수요예측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서 보완되어야 할 것임.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 노력이 보임.

[긍정적인 측면]

- 비수도권관람객수, 지역공연장 가동률 등 기존 통계자료와 지원대상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성과지표에 포함시킨 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비수도권 관람객수, 지역공연장 가동률 등으로 지표를 추가 발굴 하려는 취지는 엿보이나, 이 사업의 효과로 보기에선 광대한 성과지표이므로 연계성, 상관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약함.
- 비수도권관람객수, 지역공연장 가동률을 지표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좋았으나 통계를 활용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 또는 세부항목을 융합해서 새로운 지수를 만들 수 있는 탐색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지표는 너무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이 지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관계가 설득적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발전 방안]

- 계량지표 뿐 아니라 사업내용과 관련된 비계량지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상관성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결과지표로는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사업의 효과를 거시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사업의 목표를 궁극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과 세부적이 내용에 착안한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임.

[발전 방안]

- 사업내용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결과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외부기관에 사업성과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산식측면에서는 특이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계량지표의 산출 및 측정방법 등은 성과관리 이론에 충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흡한 측면]

- 비수도권 관람객수와 같이 절대적인 수치로 성과지표로 설정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가령 분모를 비교 대상의 통계수치, 분자를 문예사업의 통계수치를 대입하는 성과지표 산식을 설정한다면, 사업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뛰어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발전 방안]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와 전체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위계를 가지고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의 목표를 매년 사업 실시 전 부처 성과관리계획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 성과계획 시 설정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여타 평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 중 비수도권 관람객 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수립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2013년 계획 수립 시 이용된 2012년 달성치의 계획근거가 없음.

[발견 방안]

- 목표치의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달성치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목표치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성과지표 중 비수도권 관람객 수의 경우, 만약 과거 2010~2012년의 목표치 설정된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목표치 수립 및 달성치에 대한 추세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비수도권 관람객 수의 성과목표치가 없어 달성결과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목표치를 신뢰하기 어려움.
- 고객만족도의 경우 전년 달성치에 비해 낮은 계획치를 수립하여 도전적인 목표설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비수도권 관람객 수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모든 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설정 근거는 지표별로 명확하게 제시함.
- 목표치 설정 근거가 명확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이 없어 보임.

[미흡한 측면]

- 명확한 목표치 설정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 특히 달성치가 75% 미만인 경우는 목표치 산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치가 형성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지역과의 상시적 협업 활동을 통한 성과제고 방안을 협의 및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임.

[긍정적인 측면]

-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관람 횟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문화 사각지대에 대한 문화향유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성과목표치 달성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성과유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향이 있음.
-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만을 제시하고, 달성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고민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발전 방안]

- 목표치 설정과 이의 달성여부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을 통해 실제 문화향유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2013년 예산집행률은 99.9%를 기록하였음.
- 최근 2개년간 예산집행률은 2011년 98.7%, 2012년 99.96%를 기록하여 예산집행률 상승은 큰 의미가 없음.
- 분기별 집행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음.

[긍정적 측면]

- 최근 3개년간 예산집행률 및 분기별 집행현황, 미집행 사유 등이 상세히 기술되었음.
- 자체 감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검증을 통해 재원이 당초 계획된 주체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검증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의 예산 과부족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사업 대상자의 재원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관리기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온라인 상 집행 보고만으로는 적정 집행문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발전 방안]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 잔액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고민한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지역협력관 등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지역문화협력관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이 기준의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연 1회 모니터링으로 그치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발전 방안]

- 연1회 모니터링이 많은데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수시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보조사업관리, 예산배분, 성과관리 등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측면]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 사업이 영남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간의 지원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대해 해결노력이 다소 미흡함.

[발전 방안]

- 문예기금 사업에서도 예산편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줄여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은 고객만족도 83.8%, 비수도권 관람객 수 83.0%,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은 102.9%를 달성하였음.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별로 계획대비 목표달성률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함.

[미흡한 측면]

-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의 경우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달성치가 61%에 그쳐 많은 분발을 요망함.

[발전 방안]

-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와 비수도권 관람객 수는 문화예술 콘텐츠 품질 향상 뿐 아니라 접근성 제고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들 목표치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됨.
-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또한 지역거점 중심 공연장 통폐합 추진 등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개선과제의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은 지역문화예술 격차해소 및 자생력 강화라는 성과목표에 걸맞게 수립된 계획의 절차적 과정을 잘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를 통한 세세부사업과 세부사업간 연계망을 구축한 점은 개선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성과목표의 견인 및 년차별 제고 노력의 성과가 계획대비 및 전년대비 저하된 결과로 귀결되었음.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역단위 요구를 논의할 협의 테이블을 갖춘 상태로 평가됨.
- 지역문화 분권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이 도출되고 시행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함.
- 전국의 지역단위별 집중적 요구사항의 하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집행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설계 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 및 지급형식의 조정을 요구하는 상태임.
- 특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문예진흥의 장르별 균형을 깨트리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지원비의 3/4정도가 공연예술 중심이므로 시각, 문학, 다원예술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원규모에서 소외되고 있음.
- 편중된 예산투입 대비 지원효과가 낮은 사업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임. 제반 지원사업은 향수권 신장 이외에 창작, 제작 등 창작지원이 강화되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현재 문학, 시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상태이고, 공연예술분야가 지원분야가 매우 강세이지만 이 또한 창작영역인 희곡, 작곡, 안무, 연출, 연기, 출연분야에 집중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런 실정이 아님.
-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공연예술활성화는 현재 지역단위 창작품의 무대화가 낮은 상태여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과물과 예술가들의 저작물 DB구축을 통해 호환되고 유통되며, 공유정보화가 가능하도록 저작물 및 창작자, 예술가들의 저장소 및 아카이브 등의 저작물과 저작물 저장시스템이 요구됨.
- 개선과제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지적사항과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의 마련 및 추진과정 관리가 적절함. 한국지역문화협의회를 통한 사업계획의 수립공유 및 각종 회의, 이해당사자간의 커뮤니티 형성 등 수행노력이 양호함.

- 개선과제 이행완료 여부 측면에서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이자 개선과제인 목적과 과제의 연계성을 갖춘 목표설정과 달성하는 노력을 경주함.
- 성과목표 달성 측면에서 볼 때 비수도권 관람객수가 전년대비 저하되었음. 또한 고객만족도가 2010년 이후 2013년에 이르러 가장 낮은 상태로 현저히 저하되었음. 공연장 가동율은 계획 59.3%에서 달성 61%로 상승하였음.
- 마지막으로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및 언론홍보 강화 개선과제는 평가결과에 기초에 시상 및 지원금 확대조치로 개선효과를 창출하였음. 또한 성과 공유과정을 통해 확산노력을 수행하였음.

[긍정적인 측면]

- 지역문화예술 격차해소 및 자생력 강화라는 성과목표에 따른 개선과제 해소노력이 양호함. 특성화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분권화를 유도한 점은 높게 평가하며, 업무설계 및 절차적 과정의 합리적 전개는 적절한 상태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문예진흥의 장르별 균형을 깨트리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바, 장르간 형평을 고려한 개선노력이 요구됨.
- 지원사업의 지역적 특화와 문화적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련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토록 지원사업의 지급범위 및 지급형식의 조정이 필요함.

[발전 방안]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문예진흥의 장르별 균형을 깨트리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장르간 형평성 있는 지원안배를 추진해야 함.
- 관람객수와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관련 지원사업을 각 지역이 자율 설계토록 지원사업의 지급범위 및 지급형식을 마련이 요구됨.
-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과물과 예술가들의 공유정보화 추진을 위해 창작물 및 창작자, 예술가들의 저장소 및 아카이브를 구축이 필요함.
- 지역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경제성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수요추정 및 추세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임.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사례선정의 적절성 측면에서, 경남 레지던스 프로그램 작가의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함.
- 수행 필요성 관점에서 지역문화자원과 지역소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콘텐츠의 창출을 돕는 활동은 유의미함. 특히 열악한 지역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를 창출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함.
- 목표와 세부사업 연계성 관점에서는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작가 지원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은 지역문화진흥의 목적성과 부합됨.
- 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측면에서 지역작가가 전국단위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점은 지역작가를 높이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권장할 만한 성과사례임. 그러나 우수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대상수상 작가라는 명분이 사업의 목적성과 부합되는지는 재평가가 되어야 할 것임.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목적성이 창작환경의 개선과 지원에 있는지 아니면 수상에 있는지는 우수사례 선정 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임.
- 본 우수사례는 생활 속 예술공간과 예술공간의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지역예술공간 지원사업의 기능과 의미에 부합하다는 선정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수상 성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임.

[긍정적인 측면]

- 지역작가의 사기진작에 맞는 우수사례 선정의 예이며,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주목함으로써 지역문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지역지원사업이 갖는 지원의 목적성과 견주어 볼 때 선정기준의 모호함이 문제로 볼 수 있음.

[발전 방안]

- 지원사업의 목적성에 맞는 우수사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적 영호남 안배 및 서울수도권 역차별을 시정하여 객관적 성과측정과 우수사례 선정기준이 필요함.
- 지역문화지원협의회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선정과정을 객관화 하되 참여기관, 참여단체가 합의 처리하는 선정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향후 우수사례 선정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지역의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반영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함.
- 인천시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지역예술사 정립작업”을 통해 후대에 문화유산을 전승하고자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하는 아카이빙사업이 돋보이며,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예술이 흐르는 공단”사업을 통해 문화사각지대 산업단지 공단에 생활 속 감성 공간 창출과 문예아카데미 운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모범사례임.
- 이어 서울시의 경우, 만리동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예술인 임대주택조성과 예술인조합 결성을 통해 LH 공사의 참여 속에 예술마을과 문화공간 재생사업을 높은 호응과 지원 속에 커다란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별로 지원사업의 합목적성과 높은 성공실적을 갖춘 지역별 우수사례를 배제한 채로 추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원사업의 목적성에 맞는 선정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음.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주요 추진활동 측면에서, 레지던스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을 통해 작가 육성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콘텐츠 개발 및 창출에 기여하며, 공연장 가동율과 운영관리 능력 제고로 지역공연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아울러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 및 기업의 후원 및 민관의 지원체계 구축의 계기 마련하였고, 지역주도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함.
-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작가들의 자긍심과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공연장 가동율 저하요인을 지원사업과 관계기관, 기업의 참여유도로 극복함.
-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관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채용인력 전문화에 촉진제 역할을 함.

[긍정적인 측면]

- 지역작가들의 예술적 활동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역할이 이루어졌으며, 공연장 가동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추진활동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 지역문화사업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여 양호함.

[미흡한 측면]

- 전국단위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사례의 검토가 필요하며, 목적성에 부합하는 성과사례 발굴 비교검토를 요망함.
- 지역지원사업의 필요조건인 문예진흥, 교육, 복지분야 관계기관 융합체계 구축 미흡하며, 관련사업과 유사사업, 인접사업 단위간 콜라보레이션의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사례의 발굴방안 마련 및 평가선정의 기준을 객관화하고, 지역지원사업의 문예진흥, 교육, 복지분야 관계기관 융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정량적 측면에서, 경남 레지던스프로그램의 경우, 5명의 국내외 입주작가를 지원하였고, 전국대전출품 대상을 수상 함.
- 정성적 측면에서 지역콘텐츠 개발환경 지원으로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효과를 창출하고, 취약한 지역공연장 및 상주단체 지원으로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며, 문화시설과 지역단체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계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함.

[긍정적인 측면]

- 낙후된 지역의 활동공간과 활동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공간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작가와 지역단체의 자긍심과 자존감 확보에 기여하고 지역성 개발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사업의 관계기관 협업체계 여건을 마련함.

[미흡한 측면]

- 사업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수혜 주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참여방식을 마련하여 보다 양질의 지원효과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의 지원명분과 효과측정을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성과의 환류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과결과를 개량화하기 위한 분석기법 개발 및 성과측정 산출제시가 미흡하며, 사례성과 창출과정에서 지역 주관처들의 역할이 단순 전달기능에 머물고 있음.
- 여타 시도의 성과사례를 살펴볼 때 우수사례로 선정된 두 개 사업은 전국적 확산 효과를 갖출 만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빈약함.

[발전 방안]

- 객관적인 전국단위 우수한 사례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서 합의 도출해야 할 것임. 사례성과의 홍보활동 및 환류장치 마련하여 우수사례의 전국홍보 및 지원사업의 명분을 강화하고, 보다 양질의 우수사례 성과창출을 위해 각 지역별, 참여단위별 협업체계 및 융합작업 시스템화가 요구됨.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삶의 지수 측면에서 경남레지던스의 경우, 지원을 통해 입주작가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제고되고 있으나 어떻게 나타났는가의 기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광산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지역민의 참여율과 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겠으나 그 만족도와 인지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판단이 어려움.
- 벤치마킹을 위해 관 우수사례를 통해 타도시의 지원사업 입장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스토리, 지역콘텐츠의 구체성과 내용성 제시가 필요함. 우수사례로써 선정된 로컬리티 창출의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에 대한 명료한 제시가 필요함.
- 환류 측면에서는 입주작가의 성공사례와 지역공연장의 성공사례의 성공 요인을 객관화하여 전국적 확산과 귀감으로 승화할 장치가 필요함.

[긍정적인 측면]

- 지역작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고려한 점과 지역단체 공연공간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미흡한 측면]

- 사업의 목적성과 선정의 객관성을 기반으로 선정사업의 확산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화된 객관적 지표와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함.
- 선정사업의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에 전국단위에 파급효과를 야기할 만한 성과유도가 필요함.

[발전 방안]

- 지원사업과 우수사례의 경제적, 관광적, 삶의 질적 파급효과의 계량적 산출작업을 수행하고, 지원사업의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및 협업체계를 정비하기 바람.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의 지원방식 및 문제점 대비 마련]

- 동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사업환경이 변화한 측면을 반영하여, 지원 방식 및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광특회계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지역 자원의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 특성이 부각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달성, 연관관계 등이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 등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함. 동 사업에서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재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광특회계로 이관한 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행 성과지표 검토]

-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비수도권관람객수, 지역공연장 가동률을 지표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좋았으나, 통계를 활용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 또는 세부항목을 융합해서 새로운 지수를 만들 수 있는 탐색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계량지표 뿐 아니라 사업내용과 관련된 비계량지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집행

[사업발전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연 1회 모니터링이 실시되었으나,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시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노력 강화]

- 동 사업에 대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예산편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요구됨.

□ 성과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은 고객만족도 83.8%, 비수도권 관람객 수 83.0%로 달성치 못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와 비수도권 관람객 수는 문화예술 콘텐츠 품질 향상 뿐 아니라 접근성 제고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목표치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됨.

[평가결과에 대한 충실한 환류 필요]

- 개선과제의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은 지역문화예술 격차해소 및 자생력 강화라는 성과목표에 걸맞게 수립된 계획의 절차적 과정을 잘 마련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환류되어야 함.
- 지역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경제성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수요추정 및 추세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임.
-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과물과 예술가들의 공유정보화 추진을 위해 창작물 및 창작자, 예술가들의 저장소 및 아카이브를 구축이 필요함.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우수사례 선정]

-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우수사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적 영호남 안배 및 서울수도권 역차별을 시정하여 객관적 성과측정과 우수사례 선정기준이 필요함.
- 지역문화지원협의회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선정과정을 객관화가 요구되며 참여기관, 참여단체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 [401]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
-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4.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의 단위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공공미술사업운영이 이에 해당됨.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기관홍보에 그치고 있어 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은 사업목표 제시가 다소 미흡하므로 경영효율화를 위해 연구할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에 기초하여 세부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은 공공재원의 한계로 예술지원 기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기부로 풀어나가겠다는 문제의식과 목적이 명확한 사업으로 평가됨. 공공미술사업 운영의 경우, 선택적 기금제 시행에 맞춰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아카이브·홍보 등을 추진하는 등 사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나타남.
- 동 단위사업의 사업목적과 특성을 종합해보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사업과 기초 예술정책 연구조사 사업은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각 사업별 주요성으로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은 문예연감의 발행으로 나타났고,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은 문예진흥 40년 지원정책 연구를 제시함. 이어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은 「예술나무키우기」의 명칭을 포함해 우수한 사업으로 추천되었고, ‘공공미술사업운영’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공공미술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음.

- 동 분과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금년도에 84.26점을 획득하여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전년도에 획득한 점수 81.50점에 비해 2.76점 소폭 향상된 결과를 보여줌.
-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은 금년도에 84.55점을 획득하였고, 전년도에 획득한 점수는 86.30점으로 1.75점 하락한 결과를 보였음.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는 금년도에 81.25점을 획득하였고, 전년도 79.50점에 비해 1.75점 상승한 결과를 보여줌.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은 금년도에 89.44점을 받았고, 전년도는 82.00점으로 7.44점 향상되어 동 단위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 차이를 나타냄.
- 공공미술사업운영은 금년도에 81.78점을 획득하였고, 전년도 78.10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3.68점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음.
-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하여 성과가 향상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공공미술사업운영으로 나타난 반면, 하락한 사업은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으로 나타남.
- 동 단위사업의 평가결과, 1개 사업의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3개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성과를 보였음. 이는 성과부문에서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특화된 운영을 위하여 타 기관과의 유사사업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의 영역과 사업 방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사업은 홍보의 주관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점이 아닌, 홍보의 수용대상인 국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전략 개발과 기초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사업의 경우, 기부금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며, 공공미술사업운영은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된 취지, 공공미술에 대한 사업적 관심 증대와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01]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

- 동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감소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기부나 협찬, 후원 등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은 단순한 홍보사업을 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속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사업활동은 기관 홍보에 그치고 있으며, 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동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참된 목표이므로 예술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성과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사업의 주요 성과로 문예연감의 발행은 뛰어난 사업이고, 기관의 홍보 등은 이전에 비해 적정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또한 언론사 담당기자 및 데스크 등 언론매체 모니터링은 각 층위별로 충실히 시행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협의체의 경우, 매월 수시로 시행되어 긍정적임.
- 아울러 성과달성을 위해 '언론보도 기사 건수' 101%, '미디어 노출 건수' 109%, '기획기사 노출 건수' 130%, '웹진 구독자 수' 111%로 계획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 무엇보다 국민들이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예술의 가치를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요성과 예술지원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예술지원의 생태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홍보 전략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홍보의 주관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점이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수혜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홍보를 펼침으로써 수혜자가 체감하는 전략이 검토되어야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일반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업 없음
- 사업규모 : 672백만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및 단체, 일반 국민, 외국인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지원조건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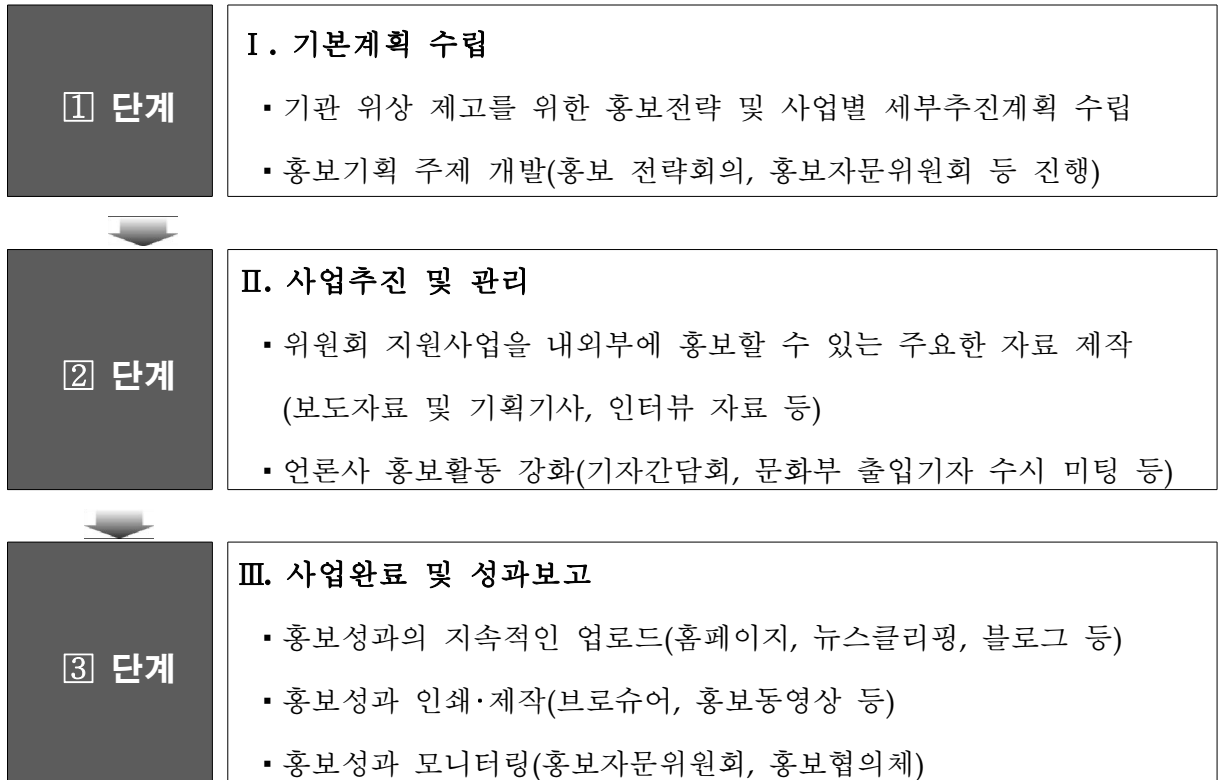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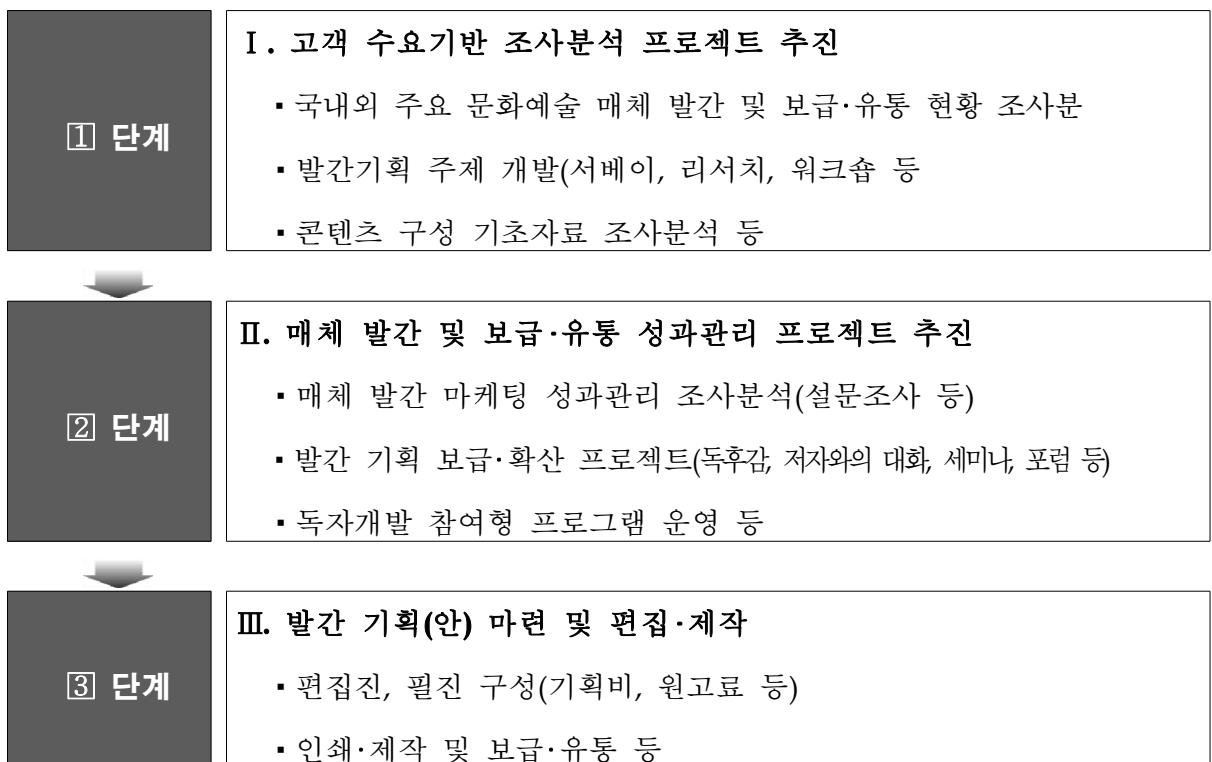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767	672	700	28	-
▪ 문화예술홍보	329	297	300	3	
▪ 문화예술간행물발간	438	375	400	25	
□ 세출예산비목					
▪ 일반수용비(홍보)	321	290	292	2	
▪ 사업추진비(홍보)	8	7	8	1	
▪ 일반수용비(간행물)	431	368	393	25	
▪ 사업추진비(간행물)	7	7	7	-	

□ 사업추진 절차

○ 문화예술홍보



○ 문화예술간행물발간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3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3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4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8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7.20
	4-3 우수사례 평가		3	1.35
전체 합계			100	84.55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일반에 널리 알림을 목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 최근 여러 가지 영향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감소하고, 기부나 협찬, 후원 등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은 단순한 홍보사업을 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기금을 활용한 예술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예술에 대한 국민의 기부와 관심을 촉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임.
- 특히 예술나무 운동 등 기부촉진 프로그램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민과 소통하고,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홍보하는데 그침.

[발견 방안]

- 기관홍보에서 벗어나 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홍보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본 사업의 참된 목표이자 성과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예술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성과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 홍보 및 발간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며, 성과목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인지도제고임.
- 대국민 소통강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광범위한 반면, 성과목표는 문예진흥기금의 인지도 제고로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됨.
- 예술나무와 같이 예술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적 활동을 고려할 때, 성과목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예술사업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긍정적인 측면]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측정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본 사업의 성과목표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제한됨으로써 본래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음.

[발전 방안]

- 단순한 홍보사업을 뛰어넘어 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대국민으로 확산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성과목표 체계 하에서 사업이 관리되어야 함.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예술이 갖는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기관 알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생태계의 근간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이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예술의 가치를 홍보·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요성과 예술지원의 필요성을 국민들 사이에 각인시켜 예술지원의 생태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예술진흥법 제3조와 18조를 들어 동 사업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술의 가치를 홍보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동 사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여주고 있어 다소 한계가 있음.

[발전 방안]

- 보다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사용처를 제시하여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예술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고유사업임.
- 특히 문예연감 발간 등과 같은 사업은 연 단위 예술의 성과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
- 다만,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하는 사업은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차별화 전략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문예연감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함.

[미흡한 측면]

- 기관 홍보에는 뛰어나지만,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웹진 등과 다소 중복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

[발전 방안]

- 문예연감의 발행은 뛰어난 사업이고, 기관의 홍보 등은 이전에 비해 적절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향후,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 홍보, 더불어 우리나라 예술지원 생태계 구축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예술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은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 수혜대상을 적절히 선정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측면]

- 다른 사업은 관계없으나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 확산이란 측면에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 대한 홍보 및 대국민 소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 확산이란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사업의 위치와 방향을 정해야할 것임.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각 사업을 경영전략본부의 정책평가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다른 사업과 중복됨이 없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특이사항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의 전략방향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이며, 이를 위해 세부사업은 사업홍보를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지도 제고, 한국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대국민 소통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를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사업목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는 다소 회의적임. 기관의 사업 홍보에는 적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질적인 사업목표인 ‘예술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에 있어서 특별한 사업이 없어 보여 아쉬움.

[긍정적인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무를 널리 알리고, 예술의 가치를 사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대부분의 사업은 기관을 홍보하는 일에 집중되어, 국민들 속에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예술지원의 생태계를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음.

[발전 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이루기 위해보다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의 본 사업에 대한 위상과 단순한 홍보를 뛰어넘어 예술의 가치를 알릴 수 있어야 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을 위해 소요된 총 예산은 672백만원, 문화예술홍보에 297백만원, 간행물 발간에 375백만원이 소요되었음.
- 전체예산은 줄었으나, 홍보비 및 간행물 등의 비용이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수용비 또한 적절히 사용되었음.

[긍정적인 측면]

-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전체예산규모가 감액되어, 본 사업에 대한 위상이 축소됨.

[발전 방안]

-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력과 예산증액이 요구됨.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홍보, 대안론 마케팅, 예술의 가치에 대한 홍보 등 여러 층위로 수용자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어려움.
- 다만, 한류의 확산을 위해 해외 대상자를 고려하여 영문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는 등의 노력은 인정됨.

[긍정적인 측면]

- 사업을 홍보와 발간업무로 나누고, 홍보는 온라인 홍보이벤트, 사업모니터링, 홍보 콘텐츠 강화로 나누고, 발간은 웹진과 문예연감, 한국예술해외소개 시리즈로 구분하고, 관리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측면]

- 각 수혜계층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이 미흡함.

[발전 방안]

-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 계층별로 상이한 입장이 있으므로 각 계층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차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홍보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맞춤형 홍보 전략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함.
- 한편, 국민수요예측이 불가능하다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또는 자문회의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한 의견수합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함.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수용주체인 국민들이 수용에 따른 의견 모니터링 과정 전반적인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발견 방안]

- 홍보의 주관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점이 아닌, 홍보의 수용대상인 국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을 유형화하고, 이에 맞춘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며 수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언론보도기사 건수’, ‘기획기사 건수’, ‘국민체감도’ 및 ‘웹진구독자수’는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근거로는 ‘언론보도기사 건수’가 양적 성과를, ‘기획기사 건수’가 질적 성과를, 또한 ‘국민체감도’가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지도 측정을 위한 지표로 적합하며 ‘웹진구독자수’는 타겟 그룹의 인지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성과지표가 사업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미흡한 측면]

- 각 지표별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언론 보도기사 건수’에 대한 성과지표별 답변을, 기존의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 및 소통(홍보)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된 주요 언론매체의 보도된 기사 건수로서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대신에 “2013년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분야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 및 소통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된 특히 어떤 분야의 언론매체의 보도된 기사 건수로서 목적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의미가 있음”과 같이 2013년 한 해의 특징들을 집어내주는 성과지표별 의견이 필요할 것임.

[발전 방안]

- 해당년도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성과지표별 기술에 있어 “기술(description)”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분석 및 해석 (interpretation)”을 덧붙이고, 긍정적 평가만이 아닌 한계 및 개선점 등을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임.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양적 측정산식 외에도 질적 측정산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긍정적인 측면]

- 각 성과지표별로 측정산식이 마련되어 있고 과거 5개년 실적을 활용한 목표부여 편차 평가 방법 적용을 적용하여 목표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이 미흡하며, 특히 5개년 실적을 활용할 때 5개년 간의 질적 성과와 비교하여 2013년 달성한 최종 성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술이 필요함.

[발전 방안]

- ‘언론보도기사 건수’ 및 ‘기획기사 건수’의 경우, FGI를 통한 각 성과지표별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 ‘웹진 구독자수’의 경우, 구독자수뿐 아니라 구독자의 성별, 연령별 분석을 통한 주요 소구층을 발굴하기 바람. 아울러 후 주요 소구층에게는 special edition 버전을 발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만족도 조사 시 필요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고, 측정산식이 다소 비합리적임.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국민체감도 조사 설문지”의 내용을 볼 때 대단히 형식적인 문장이 나열되어 이 설문 내용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불명확함.
- 오히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찰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제목 또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 후, 이 사업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인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국민 체감도를 측정하는 것과는 무관한 아래의 질문 활용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평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이나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전 방안]

- 만족도 조사 시, 넣어야 할 조사방법들 보충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기사와 매체에 대한 질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지 내용도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시행 전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 성과계획 시 설정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여타 평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국민체감도의 13년도 목표치는 5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2%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체 체감도의 수준 자체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발전 방안]

-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목표치가 향후 어떻게 상향될 수 있을 것인지 달성치를 통해 추세분석을 실시하면,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음.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의 계획 목표치를 상회하는 달성치를 보이고 있으며, 목표치의 설정 또한 과거 실적의 추세치를 분석하여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므로 목표치는 구체성과 합리성을 지님.

[긍정적인 측면]

- 각 성과지표별로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와 목표설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음.
- 전년도 추세치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목표부여방식에 의거 목표치를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상승에 의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본 지표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으며, 현 상태의 수준이 꾸준히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발전 방안]

- 성과지표 중 웹진구독자 수는 무한정 추세분석을 통해 상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대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목표치 설정이 구체적이며,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기획의 전략 마련, 언론보도별 매체와의 라운딩 프로그램 추진, 사업의 홍보 콘텐츠 설명을 위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사업방식의 개선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긍정적인 측면]

- 목표치 설정방법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지표별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성과제고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노력이 성과제고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선 노력으로 목표로써 게재 건수 외에도 매체가중치, 환산금액 등의 반영으로 목표치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2013년 문화예술홍보의 예산집행률은 98.9%이며, 문화예술간행물발간의 예산집행률은 100%를 달성함.
-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사업으로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짐.

[긍정적 측면]

- 최근 3개년간 예산집행률 및 '13년 분기별 집행현황, 미집행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었음.
- 문화예술간행물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하였으나, 문화예술 홍보사업은 경상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98.9% 달성에 그침.
- 문화예술 홍보사업의 98.9% 결과는 100%에 미달이나 2011년(96.0%), 2012년(98.3%) 보다 향상된 결과임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됨.

[미흡한 측면]

- 사업 예산 672백만 원에서 3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률 100% 미달성함.
- 분기별 집행률은 실적보고서상의 작성 오류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점이 나타났기에 향후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시 보다 정확한 데이터의 제시와 보고서상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발전 방안]

- 문화예술 홍보 사업과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사업을 구분하여 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우고, 문화예술 홍보 사업의 분기별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업무계획의 수립이 요망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협의체를 운영하여 매월 수시 모니터링 실시하여 사전·후 모니터링 및 홍보 아이템 도출, 사업 홍보 추진 등의 문제점을 점검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반기별 1~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언론사 문화부 데스크를 통해 홍보 방법 등의 조언을 얻고 있음.
- 한국현대예술해외소개시리즈 원어민 평가단 및 편찬위원회를 운영하여 1년에 2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간된 시리즈에 대해 콘텐츠, 표지 및 본문 디자인, 번역 수준, 판매 가격 등 전반에 관한 평가 및 제안 받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언론사 담당기자 및 데스크 등 언론매체 모니터링은 각 층위별로 충실히 시행하고,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협의체의 경우, 매월 수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됨.

[미흡한 측면]

- 일반 시민 혹은 본 사업의 소구 대상이 되는 소구자들의 모니터링은 없음.

[발전 방안]

- 일반 시민 및 본 사업의 소구 대상이 되는 소구자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성별, 연령별 FGI 조사를 통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망됨.
- 한국현대예술해외소개시리즈 원어민 평가단 및 편찬위원회 운영에서 평가단 및 위원회의 구성 기준이 무엇인지 기술해 주기 바람.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언론보도 및 심층기사를 위한 기자 설명 등 접근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담당자를 직접 대동하여 사업 설명을 진행함으로써 매체 파급력이 큰 메이저 언론사에 기획기사를 26건 달성하였고, 기사 내용의 질이 향상됨.
- 기획기사 발행의 시기를 볼 때 8월~12월이 12건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헤드로 한 기사보다는 인물 위주의 기사로 정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사는 많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

- 웹진 아르코의 콘텐츠 및 디자인 개선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으며, 보고서에서도 해결 실적을 콘텐츠 강화 부분은 개선 전·후를 명확하게 기술함.

[미흡한 측면]

- 기획기사의 질적 개선을 요망함. 특정 시기 기사 집중 노출을 지양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노출 지향하기 바람,
- 문화예술 소구층이 중장년층에만 몰려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보적 성향의 인쇄매체 및 팟캐스트 방송까지 포함하는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매체에 기획기사로 노출이 필요함.

[발전 방안]

- 기획기사를 위한 기자 접촉 시 보다 상시적, 직접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 실행해야 할 것임.
- 다양한 매체의 홍보 모색이 필요한 바, 인터넷 매체 혹은 팟캐스트 등의 보다 젊은 층에게 노출되는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성과지표 모두 100%를 상회하였고, 사전에 계획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함.

[긍정적 측면]

- 언론보도 기사 건수(101%), 미디어 노출 건수(109%), 기획기사 노출 건수(130%), 웹진 구독자 수(111%)의 성과지표 모두 100%를 상회하였고, 사전에 계획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문화예술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향수 강화를 위해 웹진 홍보강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웹진 구독자 수’가 전년도 실적대비 111% 상향된 실적을 달성한 것은 매우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현재 설정된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홍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구된 부분에 대해 관리방법은 적용되었으나 체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를 실행한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와 관련 지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는 단계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화된 실행방안이 요구됨.

[긍정적인 측면]

- 개선과제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이 시작됨.
- 사업별 예산집행 분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획기사 노출빈도 확대로 홍보 메시지 전략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전반적인 홍보 전략과 관련 성과지표 개발 등에 대한 평가가 홍보 메시지의 미디어 노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메시지 수용자 중심이 아닌 메시지 구성 주체의 편의적 혹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구성됨.
- 홍보사업에 대한 언론 노출 빈도를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인해 홍보내용에 대한 질적 가치가 파악되기 어려움. 따라서 홍보 사업 내용을 위원회, 사업, 문화예술 홍보로 재구성했으나 구분이 명료히 드러나지 않음.
- 특히 수요예측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언론사 부장단 중심의 홍보 자문회의 등은 메시지 구성 주체인 위원회가 수용자 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디어 선택(지면중심), 메시지 구성(체계화 및 다양성), 메시지 효율성 파악(노출도 중심) 등에서 한계를 지님.
- 홍보 메시지 전달에 있어 구체화된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용 시 미디어 유형, 메시지 유형, 수용자 유형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보 메시지 소구 대상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홍보 메시지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발전 방안]

- 미디어 유형의 경우 방송, 지면, 온라인 등으로 구별하고 수용자 속성(예: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 홍보 메시지 전달 미디어 선택이 요구됨(예: 20-30대 대상 온라인 미디어 활용, 40-50대 대상 신문 등).
- 매체 파워 등의 모호한 개념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해 각 언론사별 여론 지배력 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 수혜자 범위 등을 고려한 매체 선택을 요망함.
- 홍보 메시지 구성방식을 일반 혹은 기획기사로 국한시키는 한계 극복을 위해 기고, 사설, 광고 등으로 다양화하고 특히 방송 매체의 경우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요구됨.
- 보도 장르만을 통한 홍보 메시지 전달의 한계를 극복을 위해 교양 및 오락 장르 등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유형의 다변화를 제안함.
- 홍보 메시지 소구대상과 발간물 배포 범위 및 대상을 통계청의 인구 사회학적 통계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수용자 중심의 사업 효율성 측정 방안이 요구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기획기사 발굴은 문예 홍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과 관련해 사업 목표와의 연관성이 잘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비록 그 수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방식의 홍보 메시지 노출은 위원회 사업을 알리는 수준을 극복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의 목표가 국민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식제고, 위원회 사업 확산 등으로 수용자 중심의 홍보 내용에 관한 우수사례 선정이 다양한 세부사업 목표와의 연계성과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기획기사 노출빈도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은 추진 과정의 합리적 운영과 홍보메시지 확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음.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기획기사 노출 빈도 증가 의미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요구됨.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기획기사 노출빈도 증가로 인해 사업에 대한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하며, 이 사례를 통한 타 사업의 벤치마킹 수익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기획기사 노출빈도 증가의 계량화로 260% 증가하였고, 문예위원회 사업에 대한 신문 구독자 관심도 증가하였으며, 문예분야의 홍보 이슈 발굴 필요성도 부각시킴.

[미흡한 측면]

- 홍보 관련 기획기사 노출로 문예위원회, 문예사업,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수용자 반응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평가가 다소 미흡함.
- 신문 지면에 국한시킨 기획기사 대신 방송 및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메시지 전략 수립 방안을 요망함.
- 수용자 속성을 고려한 미디어 선택과 메시지 내용 구성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함.

[발전 방안]

- 기획기사의 내용 등과 연계한 구체화된 문예진흥기금사업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수용자 중심의 홍보 메시지 전달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해야 할 것임.
- 문예홍보 메시지 구성 이전에 메시지 소구 대상에 대한 속성 파악과 통계학적 자료 분석이 필요함.

4. 개선과제

□ 계획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사업목표 달성]

- 동 사업은 기금을 활용한 예술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예술에 대한 국민의 기부와 관심을 촉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 홍보에서 벗어나 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홍보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본 사업의 참된 목표이자 성과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다소 미흡하며, 예술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성과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기관 홍보를 넘어 예술의 중요성 홍보]

- 동 사업의 특성 상 기관 홍보에는 뛰어나지만,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웹진 등과 다소 중복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 따라서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 홍보와 우리나라 예술지원 생태계 구축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예술지원의 생태계를 만드는 근본적 목표 접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무를 널리 알리고, 예술의 가치를 사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기관을 홍보하는 일에 집중되어 국민들 속에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예술지원의 생태계를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기술 시 분석과 해석 필요]

- ‘언론보도기사 건수’, ‘기획기사 건수’, ‘국민체감도’ 및 ‘웹진구독자수’는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정함. 다만, 해당년도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성과지표별 기술에 있어 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분석 및 해석을 덧붙이고, 긍정적 평가만이 아닌 한계 및 개선점 등을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임.

□ 집행

[기획기사의 질적인 측면 개선 강화]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지속적으로 기획기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정 시기의 기사 집중 노출을 지양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노출 지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문화예술 소구층이 중장년층에만 몰려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보적 성향의 인쇄매체 및 팟캐스트 방송까지 포함하는 등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매체에 기획기사로 노출이 필요함.

□ 성과

[홍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 홍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구된 부분에 대해 관리방법은 적용되었으나 체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를 실행한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와 관련 지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는 단계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체화된 실행방안이 요구됨.

[홍보 메시지 구성방식 다양화]

- 홍보 메시지 구성방식을 일반 혹은 기획기사로 국한시키는 한계 극복을 위해 기고, 사설, 광고 등으로 다양화하고 특히 방송 매체의 경우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요구됨.
- 보도 장르만을 통한 홍보 메시지 전달의 한계를 극복을 위해 교양 및 오락 장르 등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유형의 다변화를 제안함.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우수사례 마련]

- 기획기사 노출빈도 증가로 인해 사업에 대한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하며, 이 사례를 통한 타 산업의 벤치마킹 수익성 효과를 제시할 수 있고, 수용자 속성을 고려한 미디어 선택과 메시지 내용 구성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함.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음.
- 동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문예진흥 40년 지원정책 연구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동 사업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연구 활성화와 정책연구 확산에 기여함.
- 또한 성과지표 ‘연구보고서 조회 실적’은 적극적인 홍보로 계획대비 130.6% 달성하였고, ‘연구과제 정책건수’는 100.8% 달성이 이루어져 긍정적으로 평가됨.
- 반면, 동 사업의 성과목표로 정책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 확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연구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에 기초하여 세부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임. 즉,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술현장에 대한 조사, 최근의 예술동향에 대한 연구, 예술지원사업의 현황과 체계 등 그 해에 직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임.
- 향후, 동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타 사업과 차별화를 꾀하고, 전략과제 달성을 위해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전략 개발과 기초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아울러 다수의 예술가를 참여시켜 학술적 측면과 현장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 및 예술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제1항 제6호

② 추진경위

- 문화예술진흥원(독임제)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합의제)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기능 근거 신설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제1항 제6호】

【참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기간 : 2006년~2013년(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520백만원
- 지원대상 : 예술가, 문화예술기관, 예술단체, 일반 시민 등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용역
- 지원조건 : 없음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수행기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501	411	500	89	21.6

□ 사업추진 절차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1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3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10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9	
	4-3 우수사례 평가	3	2.25	
전체 합계			100	81.25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 및 예술정책에 대해 분석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구 성과 확산을 통해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당연한 목표이나, 제시된 목표는 전자로 볼 경우와 후자로 볼 경우 확연히 차별됨.
- 전자의 경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다시 말해 예술지원의 사업방향과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임. 이는 국민정보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오히려 효율성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단 오히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의 내부고객에 비중을 맞추어야 함.
- 반면 후자라면, 전자의 목적은 상실할 필요도 있음. 즉, 예술지원의 담론과 성과 등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지원에 대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함. 그런데 동 사업은 이 두 가지 미션이 중복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초예술 조사 사업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부족한 예산에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두려면, 분명한 목표와 추진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발전 방안]

- 연구를 통해 얻을 것을 보다 분명히 정해 적은 예산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에 있음.
- 이를 위해 기관은 성과목표로 정책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 확산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목표로 보임.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려면, 성과목표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기여와 국민들에게 연구성과가 얼마나 확산했는지 등으로 설정되었어야 함.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통상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발전 방안]

- 향후 연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되며 어떠한 경로로 확산 되는가를 위해 분명한 목적을 내세우고, 이에 맞춘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사업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과거와 달리, 예술지원사업이 통상적 지원이 아닌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음.
- 다만, 연구사업을 확장시킬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적절한 연구사업 수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긍정적인 측면]

- 해외사례 등을 들어 본 사업의 지원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절히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특히 민간과의 교류 또는 역할 분담 등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발전 방안]

- 연구사업에 있어 오늘날 중시되는 개념은 ‘플랫폼’이며, 모든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집단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오늘날 추세임.
- 그런 점에서 향후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확실한 연구목표 및 민간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필연적으로 예술정책을 생산하는 문화관광연구원 등과 중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문화관광연구원과 다른 차별화 된 전략을 보여야 하지만, 연구주제 선정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로 관리한다는 측면 외에 차이를 찾기 어려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 및 예술정책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연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보다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함.

[긍정적인 측면]

- 가능한 문화관광연구원과 차별을 두고, 기초예술분야에 한정되어 연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그 차이가 두드러지거나 분명하지 않아 다소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

[발전 방안]

- 문화관광연구원과 차별화 및 전략과제 달성을 위해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전략 개발과 기초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조사하는데 한정하고, 그 방식 또한 다수의 예술가를 참여시켜, 학술적 측면보다는 현장의견 수렴 및 현장적인 가치가 두드러지도록 해야 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과 문화관광연구원 사업과 유사한 범위의 연구를 하고 있어 수혜대상이 중복될 수밖에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사업이므로 보다 타겟화 된 연구가 필요함.

[발전 방안]

- 여타 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특화된 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한 연구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해당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세부사업은 정책연구활성화와 정책연구성과 확산으로 되어 있음. 성과목표를 반영한 형태로 구성됨. 다만, 성과목표가 사업목적과 다른 만큼 세부사업이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연구할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에 기초하여 세부사업을 구성하기 바람. 즉,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술현장에 대한 조사, 최근의 예술동향에 대한 연구, 예술지원사업의 현황과 체계 등 그 해에 직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임.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세부사업을 구분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음.

[발전 방안]

- 사업목적에 맞추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 해야 할 사업영역을 나누고 그에 맞춰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을 위해 총 소요된 예산은 411백만원이며, 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되나 예산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각 세부사업에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는 알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세부사업이 2개임에도 하나의 사업명으로 표기되어, 각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움.

[발전 방안]

- 세부사업이 2개이므로 각각의 재원이 별도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인지, 예술가인지, 국민인지 추정하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특별한 수혜 대상을 선정해 놓지 않고 있음.

[발전 방안]

- 본 사업이 4억원이상 투입되는 연구사업 이므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임.
- 특히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본계획을 통해 과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수요예측이 적절히 이루어짐.
- 다만, 수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예술가,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긍정적인 측면]

-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개발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절차 상 과제개발 및 선정과정에 외부의 참여가 쉽지 않고, 예술가 등 직접적 이해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없어 아쉬움.

[발전 방안]

- 예술정책 관점에서 직접적 관계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연구과제 정책반영 성과’와 ‘연구보고서 조희실적’이라는 성과지표는 동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됨.
- 이에 사업의 내용 및 수혜 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설정되었고, ‘정책연구 활성화’와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성과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됨.

[긍정적인 측면]

- 적절한 성과지표로 판단되며,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있고, 결과지표의 설정이 적절함.

[미흡한 측면]

- 연구과제 정책반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목표 달성 여부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해 주기 바람.

[발전 방안]

- 연구과제 정책반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목표 달성 여부 검증 방식으로 기술함.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단순 투입, 산출 지표 대신 정책연구 활성화와 연구성과 확산의 정도를 성과지표로 삼고,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및 결과지표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도표화하여 긍정적으로 사료됨.
- 정책연구 활성화와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양적 성과지표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질적성과도 측정했음.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연구보고서 조희실적 점수를 2개년도 실적 평균 * 1.1을 통해 산출해내는 방식은 성과지표의 결과를 산출에 적절하다고 생각됨.

[긍정적인 측면]

- 적절한 성과지표 산출 방법과 이에 대한 충실한 기술이 적절히 이루어짐.

[미흡한 측면]

- 연구과제 정책반영 성과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정책연구 과제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예술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등의 측정방법 기술이 부족함.
- “정책반영(5점)/정책참조(3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밝혀주어야 하며, “반영”과 “참조”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발전 방안]

- 연구과제 정책반영 성과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정책연구과제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예술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시행 전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단순 투입·산출지표 대신 정책연구 활성화와 연구성과 확산의 정도를 성과지표로 채택함으로써 사업의 목적달성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 및 예술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구 성과 확산을 통해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 간에는 연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은 본 사업의 추세치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 특히, 범예술계 정책토론과 정책컨퍼런스와 연구보고서 조희실적 간 연계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12년 달성하지 못한 목표치를 유지하거나 하여야 하나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693.4 → 605.9)하였음. 이는 목표치에 대한 도전성이 약하다고 평가함. 이에 목표치 도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발전 방안]

-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목표치가 향후 어떻게 상향될 수 있을 것인지 달성치를 통해 추세분석하면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설정된 두 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는 달성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과달성은 목표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긍정적인 측면]

- 채택된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모두 기존의 사업성과 추세치 등을 감안하여 구체성·합리성·도전성을 지닌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일부 성과목표의 경우,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 성과목표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측정가능한 성과목표만을 중심으로 책정하고 있어, 성과측정의 객관성이 훼손된다고 사료됨. 이에 양적 성과측정이 아닌 질적 성과측정의 개선이 요구됨.

[발전 방안]

- 성과지표 중 향후에는 연구보고서의 단순 조회 실적 건수가 아닌 연구보고서의 인용 횟수 등의 유의미한 성과지표의 선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실적이 보다 보장될 필요가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계량지표의 산출, 측정방법 등은 성과관리 이론에 따라 충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흡한 측면]

- 양적 성과지표 목표치만 제시되고 있을 뿐,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통한 성과제고 노력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음.

[발견 방안]

- 성과제고 확산을 위한 연구보고서 조희실적 이외 인용횟수 등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79.0%로 확인됨.
- 이는 연구용역과제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사례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예산대비 결산의 차이가 111백만원으로 크게 나타나 계획수립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긍정적 측면]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개년의 예산집행률 및 '13년 분기별 집행현황, 미집행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었음.
- 전년대비 상·하반기 적정예산 배분과 사업운영으로 과거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 집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예산집행률이 79.0%로 미달성되었고, 연구조사 예산 중 성과확산과 관련된 비중이 30%정도로 다소 과도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
- 연구용역 사업 5건 중 4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점과 연구용역 사업이 4분기에 4건으로 집중된 것은 개선이 필요함. 이로써 연구용역기간이 40일에 약 2,800만원에 계약된 것은 연구의 성격과 내용, 기간 상으로 볼 때 개선이 요구됨.

[발견 방안]

-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체계 상 1분기에서 수요조사 혹은 연구과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 확산으로 4분기에 재원 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요구됨.
- 연구용역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안검토와 연구용역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기간을 배정될 수 있도록 사전 발주가 필요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과제선정을 위해 2회,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2회, 용역사업 관련하여 총 3회 진행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사업 총괄 정책평가부 및 외부전문가의 결합에 의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각 모니터링 위원회별로 주요점검 결과를 적시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모니터링 주체 및 점검 내용과 점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적절하게 제시하였고, 사업수행체계에 대해 전체 과정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느 단계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제시함.

[미흡한 측면]

- 문화관광정책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하므로 모니터링 과정에 있어서도 기초예술정책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모니터링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외부 전문가의 경우 기초예술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초빙으로 차별성을 가지고자 함을 부각시키는 기술이 필요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평가와 과제선정위원회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개발을 통해 해결실적을 제시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해결실적 기술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일반관객, 언론보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현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별로 계획대비 목표달성률을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연구보고서 조희 실적’은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총 791.3건을 달성해 계획 605.9건 대비 130.6% 달성하였고, 또한 연구과제 정책건수도 100.8%로 100% 이상 목표 달성이 이루어짐.

[미흡한 측면]

- 계획된 성과지표를 모두 100% 달성하였으나 보다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발전 방안]

-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의 관리방법은 각 세부 사업별로 적합하고, 체계성과 효율성이 입증됨.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리 방법을 일관되게 실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로 인한 개선과 혁신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됨.

[긍정적인 측면]

- 연구과제 활용도 조사 양식과 관련해 점검 결과서와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를 제시하였고, 모니터링 체계 설명 관련 보고서 내용의 내·외부 기관을 통한 추진체계를 명료화 함.
- 연구과제 추진시기, 모니터링, 조사양식 개발 등에 대한 지적 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었고, 조사 양식 개선 등으로 정책 반영여부 파악이 용이함.

[미흡한 측면]

- 연구성과 반영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연구성과 확산 정도를 제안된 정책과제 대비 사안별 반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연구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 반영 비율 등 파악이 요구됨.
- 연구 운영시기 안배 결과, 연구과제 추진과정 및 결과에서 어떠한 완성도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연구 결과물을 건별로 파악하기 보다는 연구 목표 관련 정책적 대안 제시 내용을 분류해 유형화시키고 사안별 정책 반영도를 파악하는 등 정책반영 여부를 구체화된 수준에서 파악해야 할 것임.
- 연구과제 추진시기 안배를 통한 효율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 체계의 정책 활용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표 설정이 요구되며, 연구과제 활용도 조사양식 항목에 예산 대비 연구내용을 적시하고, 결과 활용방안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문예진흥 40년 지원정책 연구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상 사업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문예진흥 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 필요성, 세부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성과지표인 정책연구 활성화와 정책연구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세미나 및 토론회 방식의 사업은 문예위원회 사업의 실질적 수용자 계층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이를 독려하고, 조사연구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대상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간담회 및 설명회 형식 운영의 필요성도 있음.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주요추진 활동인 토론회 등을 기획기사 등과 연계시키고 조사 연구 결과 내용과 일반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제안된 사업 목표 지표설정과 평가 척도 개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조사연구 사업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추상적이고 비구체적인 연구주제의 토론회보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논의방향과 지향점을 구축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평가기준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됨.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토론회, 포럼, 강연회 횟수 증가와 타 사업과의 관계 및 환류성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이 사례를 통한 타 사업의 벤치마킹 수익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제안된 정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파악해야 하나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

- 정책개발 활성화, 정책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정책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성과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 제고로 예술계 협업 시스템 구축 기반을 구축함.
- 문예분야의 조사 연구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부각시켜 긍정적으로 판단함.

[미흡한 측면]

- 토론회, 세미나, 강연 자체에 대한 수용자 평가가 미흡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사업, 문화예술 사업 확산과 조사연구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토론회, 세미나, 강연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전반적인 목표 설정 및 지향점 구축 기반을 위한 장기적 가치 지표설정 그리고 사업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발전 방안]

- 토론회, 세미나, 강연 등에 대한 연례 사업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예진흥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의 목표와 지향점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토론회, 세미나, 강연 참여자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의 정례화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예진흥 사업 홍보 전략 수립을 세우고, 토론회, 세미나, 강연 참가자 및 참여 가능 대상에 대한 속성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4. 개선과제

□ 계획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의 연계성 강화]

-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에 있음.
- 이를 위해 기관은 성과목표로 정책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 확산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목표로 보임. 따라서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려면, 성과목표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어떠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연구성과를 얼마나 확산했는가 등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타 사업과의 차별화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 및 예술정책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연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보다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함.
- 문화관광연구원과 차별화 및 전략과제 달성을 위해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전략 개발과 기초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조사하는데 한정하고, 그 방식 또한 다수의 예술가를 참여시켜, 학술적 측면보다는 현장의견 수렴 및 현장적인 가치가 두드러지도록 해야 함.

[사업목적과 긴밀한 세부사업 구성]

- 세부사업은 정책연구 활성화와 정책 연구성과 확산으로 되어 있으며, 성과목표를 반영한 형태로 구성됨. 다만, 성과목표가 사업목적과 다른 만큼 세부사업이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연구할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에 기초하여 세부사업을 구성하기 바람. 즉,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술현장에 대한 조사, 최근의 예술동향에 대한 연구, 예술지원사업의 현황과 체계 등 그 해에 직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임.

[성과제고 노력 반영]

- 성과제고를 위한 현행 성과지표 중 연구보고서의 단순한 조회 실적 건수가 아닌 연구보고서의 인용 횟수 등의 유의미한 성과지표 선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양적 성과지표 목표치만 제시되고 있을 뿐,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통한 성과제고 노력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집행

[재원 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체계 상 1분기에서 수요조사 혹은 연구과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 확산으로 4분기에 재원 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요구됨.

□ 성과

[사안별 정책 반영도 파악 및 결과 활용방안 제시]

- 연구 결과물을 건별로 파악하기 보다는 연구 목표 관련 정책적 대안 제시 내용을 분류해 유형화시키고 사안별 정책 반영도를 파악하는 등 정책반영 여부를 구체화된 수준에서 파악해야 할 것임.
- 모니터링 체계의 정책 활용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표 설정이 요구되며, 연구 과제 활용도 조사양식 항목에 예산 대비 연구내용을 적시하고, 결과 활용방안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질적 수용자의 참여가 활발한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로 선정된 문예진흥 40년 지원정책 연구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상 사업을 대표하는 사례임. 다만, 세미나 및 토론회 방식의 사업은 문예위원회 사업의 실질적 수용자 계층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이를 독려하고, 조사연구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사업대상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의 운영이 필요함.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동 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 공공재원을 통한 예술지원의 한계라는 현실에서 예술지원 확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술지원 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부로 풀어나가겠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낸 사업임.
- 예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의 균형발전으로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고, 후원하는 예술후원 기반 조성에 있음. 이에 기초하여 제시된 성과목표는 예술가치 인식확대와 후원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간기부 확대에 볼 수 있음. 특히, 사업의 일차적 목표인 ‘예술가치 확대’와 결과목표인 ‘민간기부 확대’를 각각 성과목표로 제시되어 있음.
- 동 사업의 주요성과로는 예술기부 캠페인으로 예술나무 운동의 확산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통한 재원구축 방안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예술나무키우기’는 명칭을 포함해 동 사업 사례뿐만 아니라, 타 사업 사례로의 벤치마킹 적용을 적극 추천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 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명을 브랜드화하여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추진 중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한 예술나무 운동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방안 도입을 통해 질적 및 양적 변화가 어떠한지 구체적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향후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 ‘예술나무키우기’ 사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예술나눔 기부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25.8% 가량 축소된 바, 예산 감축이 동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더불어 ‘예술나무키우기’ 사업 활성화와 기부금 예산 감축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의 논의를 통해 기부금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하여 예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의 균형 발전으로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고 후원하는 예술후원 기반을 조성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189억원
- 사업규모
 - 예술나눔기부 활성화
 - 예술후원 활성화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확대 추진, ‘예술나무 포럼’ 추진, 예술나무 포털 구축(2차), 문화예술나눔 통계 및 예술지수 조사, 크라우드펀딩 추진(39건/ 97백만원 모금),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56회 추진), 문화예술 후원주간 운영(10월) 등 예술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 및 후원참여 확대 추진
 - 개인 및 기업의 기부를 통해 총 637건, 169억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 기업과예술의만남 활성화
 - 기업-예술단체 결연 120건(중소/중견 90건, 대기업 30건)
 - 기업 지원금 총액 47억 원(매칭펀드 지원금 8억원 포함)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사업비 일부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 예술나눔기부활성화	15,272	17,515	12,995	△4,741	△25.8
▪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1,000	1,000	2,300	1,300	130.0
□ 세출예산비목					
▪ 일반수용비(210)	1,123	1,116	2,093	977	87.5
▪ 업무추진비(240)	6	6	7	1	16.6
▪ 민간경상보조비(320)	15,143	17,393	13,195	△4,198	△24.1

□ 사업추진 절차

○ 예술나눔기부활성화(기부금사업)



○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5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10.8	
	4-3 우수사례 평가	3	2.64	
전체 합계			100	89.44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공공재원을 통한 예술지원의 한계라는 현실에서 예술지원 확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존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술지원 기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기부로 풀어나가겠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기금고갈의 문제를 기부로 풀어나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진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의 목적은 예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의 균형발전으로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고 후원하는 예술후원 기반 조성에 있음.
- 이에 기초하여 제시된 성과목표는 예술가치 인식확대와 후원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간기부 확대에 불 수 있음.
- 사업의 일차적 목표인 ‘예술가치 확대’와 결과목표인 ‘민간기부 확대’가 각각 성과목표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본 사업의 추진배경인 예술기금의 고갈,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급증이 적절히 담고 있으며, 추진목적에 대해 민간기부 확보를 통한 재원확보 등을 명료하게 설명해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점은 없음.

[발전 방안]

-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예술기부의 확산을 위해서는 예술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국민들 속에 예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켜, 예술에 대한 공공적 투자 및 기부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인 것이며,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정당성 측면으로만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 시장상황 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측한다든지, 유사한 국내외 기관과 비교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요예산 추계를 보다 과학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발전 방안]

- 보다 상세한 내역이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재원지원의 필요성 및 규모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유사업으로 다른 분야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유사사업으로 한국메세나협회가 있으나,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과 중복되기 보단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대상일 뿐, 이의 존재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자체가 중복되지는 않음.

[긍정적인 측면]

- 예술에 대한 기부축발이 예술위 고유사업의 영역이라 보았을 때,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예술기부사업에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 등을 잘 설명하였으나 관련하여 협력이 필요한 한국메세나협회와 각 지역문화재단 등과의 협력적 관계가 잘 설명되지 않음.

[발전 방안]

- 예술기부를 유발하는 주체들인 한국메세나협회, 아름다운 재단, 각 지역문화 재단 등과 협력적 관계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은 특정한 수혜 대상이 있는 사업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은 특정한 수혜 대상이 있는 사업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세부사업은 ‘예술나눔 기부활성화’와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등으로 구성됨.
-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예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의 균형발전으로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고 후원하는 예술후원 기반을 조성’한다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예술후원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성이나 기부를 촉발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의 사업이 없어 이를 통해 충분한 예술후원 기반을 조성할지 고려해야 함.

[긍정적인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전반적인 예술후원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면 보다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발전 방안]

-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도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예술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은 예술위 고유사업으로 특정주체와 재원을 나눌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기업과 재원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며 이에 대해선 매칭 펀드 형태로 지원하고, 적절한 재원분담이 이루어짐.

[긍정적인 측면]

- 기업과 재원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미흡한 측면]

- 예술나눔 기부활성화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하는 협력적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부유발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발전 방안]

- 기부를 유발하는 여러 주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부후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해당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적절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짐.
- 다만, 전체적인 기부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바탕을 둔 목표를 설정했으면 보다 적절하고, 설명력 있는 목표제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전년도 수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짐.

[미흡한 측면]

- 전년도 수요를 바탕으로 예측이 이루어져, 전반적 기부시장 변화에 따른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음.

[발전 방안]

- 전체적인 기부시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경기변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기업보단 개인들의 기부를 촉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보다 안정적인 예술후원 기반을 조성하여, 적절한 수요예측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기부금사업 만족도’, ‘기부금 유치액’, ‘기부 유치실적’은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정함.
- 근거로는 ‘기부금사업 만족도’가 기부금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측정을, ‘기부금 유치액’이 예술 후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직접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결과로서의 기부액을, 또한 ‘기부금 유치실적’이 기부액과 별개로 개인과 기업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참여했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각각의 성과지표가 사업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게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및 결과지표 설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함.

[미흡한 측면]

- 기부금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내용 중 ‘시설 및 이용환경에 대한 질문’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발전 방안]

- ‘기부금사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물리적 시설 및 이용환경에 대한 질문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한 예로 “기부로 인해 2013년 00명의 예술가들이 000 한 혜택을 입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인지여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 결과로 얻고자 하는 바는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라 기부한 내역이 얼마나 보람 있게 쓰였는지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설문 형식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각 성과지표별로 측정산식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부서 성과보고인 별첨자료를 볼 때 각 사업별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됨.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결과 지표로 설정되어 있고,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이루어졌음.
- ‘기부금사업 만족도’의 경우, 설문대상인 기부금 사업의 기부자와 수혜자 수까지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항목의 수까지 기술하였으며 설문지까지 첨부하여 설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기부금 유치액’ 및 ‘기부 유치실적’은 해당 사업의 결과를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성과지표이나 ‘기부금 유치액’과 ‘기부 유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제시가 부족함.

[발전 방안]

- ‘기부금 유치액’과 ‘기부 유치실적’에 대한 통계 자료에 입각하여 향후, 기업 및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하고, 다음 해 동일 사업에서 전략과 활용효과에 대한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기부자와 수혜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기부를 할 수 있게 유도하며 기부참여건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기부 사업상 어떤 요소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 어떤 요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부금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는 적절함.
- 기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누적액수’와 ‘누적횟수’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 또한 적합한 방식임.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며 측정산식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의 효율성이 낮음.

[발전 방안]

- 세부사업의 영역을 분류하여 어느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어떤 연령별, 계층별, 기업별로 기부 받았는지를 기술하였으나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표시해주는 것이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의 목표를 매년 사업 실시 전 부처 성과관리계획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 성과계획 시 설정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여타 평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적절히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기에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음.

[발전 방안]

○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목표치가 향후 어떻게 상향될 수 있을 것인지 달성치를 통해 추세분석하면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기부금사업 만족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는 상승하였으나 13년도 계획대비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긍정적인 측면]

- 각 성과지표별로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와 목표설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음.
- 경기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부금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 상승으로 도전성을 반영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기부금사업 만족도가 목표대비 98.7%로 목표에 미달함.

[발전 방안]

- 기부금사업 만족도 제고방안이 요구되며, 기부금 유치액 목표치 설정 시 전년대비 향상이 아닌 해당연도 경제성장률 등 경기전망 지표 고려 또한 유치건수에 있어 개인건수 등을 분류함으로써 목표치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목표치 설정은 구체적이나 사업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성과제고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목표치 설정방법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기부금사업 만족도의 경우 최근 2개년동안 계획대비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발전 방안]

- 기부금사업 만족도의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서 결과지표에 의한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성과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상에서의 애로점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보다 바람직함.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2013년 기업과 예술의 만남활성화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100%를 달성하였으나, 예술나눔기부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98.1%를 달성함.

[긍정적 측면]

- 최근 3개년간 예산집행률 및 '13년 분기별 집행현황, 미집행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었음.
-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임.
- 예술나눔기부활성화 사업 98.1% 결과는 100%에 미달이나 2012년(83.3%) 보다 향상된 결과임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됨. 외부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한 결과라 평가함.

[미흡한 측면]

- 2013년도 예산 총 19,326백만 원에 대하여 98.2%의 집행률을 보여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임.

[발전 방안]

- '13년 분기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계획과 집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에 따른 집행이 되기를 요구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예술나눔 소위원회를 통해 연 2회 모니터링 실시하여 예술후원 활성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을 점검하며 연간 추진 계획을 검토 후, 예술후원 자문평가위원회에서 정책 실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및 환류 작업을 하고 있음.
- 예술나무 포럼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예술후원 촉진 방안을 도출함. 또한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회의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분기별 중간보고를 추진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수행 실태를 관리 감독함.
- 현장 모니터링을 연중 연 90회 실시함으로써 기금지원 결연커플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모니터링 시기를 적절히 안배하였고, 사업의 전과 후, 혹은 사업 성격에 따른 전수 조사를 실시함.

[미흡한 측면]

-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를 위한 기업문화 관련 전문가의 모니터링이 부족함.
-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에 있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의 전문가 뿐 아니라, 기업 문화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바, 어떤 인력이 이 사업의 외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서술이 요구됨.

[발전 방안]

-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예술인들이 갖는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기업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기부 전후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등에 대한 정교한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함.
-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이 커플예술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한 예술나무 운동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유관 기관, 기업,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공헌활동 세미나 등과 협력 모델을 구축함.
-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리-온라인 모금 캠페인 및 문화예술후원주간이나 포럼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함.
- 모금 전문 기관 10년 경력의 펀드레이저를 모금 전문가로 채용을 완료하였음.
- 후원자 접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모금플랫폼 구축을 위해 카드 단말기, 휴대폰 ARS, 태블릿 PC, 스마트모금함 등 신규 채널을 구축함.
- 후원자 예우 프로그램으로 감사문자, 행사초청, 후원결과 소식지 등을 발송함.

[긍정적인 측면]

-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 방안 도입하려는 노력으로 모금전문가 1명을 채용함.

[발전 방안]

- 향후, 해결방안 도입을 통해 질적 및 양적 변화가 도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었으면 함.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긍정적 측면]

- 기부금사업 만족도(98.7%), 기부금 유치액(115.4%), 기부 유치건수(105.0%)의 목표 달성이 100%이상 혹은 이에 근접함.
- 기부금 사업 대외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유치액 115.4% 달성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 사료됨.

[미흡한 측면]

- 세 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기부금 유치액의 큰 폭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기부금 사업만족도’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발전 방안]

-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부금 모금 관련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문화예술사회공헌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방법이 적용되고 있고 이 방법이 지적된 개선과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입증됨.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사업의 실행의 대부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 정량화된 수치로 입증됐으며 평가를 통한 개선과 성과의 공유가 대부분의 지적사항에서 나타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예술 나무 사업 확대를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의 전략 목표 설정을 명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음.
-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추진 상황과 결과의 정량적 제시로 설명력을 증대하였고, 성과지표 재설정 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함.
- 세부적 전략목표 설정으로 사업목표 달성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기부건수와 유치액 증가를 위한 다수 소액기부자의 기부빈도 확산 방안을 제시함.

[미흡한 측면]

- 전반적인 사업 전략과 관련 성과지표 개발 등에 대한 평가가 전체 모집단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이를 지역별, 지원 규모별로 정리해 사업성과의 효율성 방향 제시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 있음.
- 사업전략 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개발된 예술지수, 나눔기부 통계에 대한 척도 활용방안 제시가 필요함.
- CSR과 CSV를 활용 대상 기업을 목표 모금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유형별로 구분한 전략이 요구됨.
- 기부 유치 건수와 실적 등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별 불균형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안]

- 민간기부 활성화 목표의 타당성 구축을 위한 논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의 방향을 소액 다수 방향과 거액 소수 방향으로 구분해 각각의 방향에 맞는 사업 전략을 모색해야 함.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SNS 활성화, 젊은 연령 대상 이미지 구축, 예술지원에 대한 재미/흥미 등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진행하고, 후자의 경우 세제혜택, 이미지 제고, 사회공헌 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요망됨.
- 기부 건수와 유치액 증가는 서로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 기부 건수가 많다는 것은 참여자 수와 그 빈도가 많다는 것이고, 유치액의 증가는 사업효율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다른 가치 기준과 지표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

4-3. 우수사례 평가

[배점 근거]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예술 기부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의 확산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통한 지원 재원 구축 방안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재정 지원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술 후원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예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의 균형 발전으로 예술 향유 계층 확산이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성과지표와 사업 목표 달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주요추진 활동인 토론회 등을 기획기사 등과 연계시키고 조사연구 결과내용과 일반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을 요망함.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문화예술 후원 활동의 구체화된 세부사업인 ‘1인 1예술나무키우기’, ‘1기업1예술나무키우기’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 등 민간 분야에서 예술후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평가함.
- 주요 추진실적으로 나타난 만족도, 유치액, 유치건수, 참여자수, 기업 및 개인 유치금액 등의 정량적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결과로 평가함.
- 이 사업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전국적 확산 상황과 지역별 예술후원 성과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예술나무키우기’는 명칭을 포함해 이 사업 사례의 타 사업 사례로의 벤치마킹 적용을 적극 추천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 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사업명을 브랜드화할 것을 제안함.
- 타 사업의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 등에 이 사업의 내용을 환류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벤치마킹 과정에서 이 사업을 통해 예술 후원을 얻는 부분과 홍보를 인지도를 확산하는 문제를 별개로 구분해 그 연계성 고리를 명료화하지 않을 경우, 중복 사업의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사업 확산을 통한 예술후원 각종 척도 및 기준 즉, 유치액과 만족도 건수 등을 통해 현재 진행된 성공적으로 성과를 달성함.
-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홍보 방향 및 재원 확충을 통한 파트너십 마련 등 예술후원의 방향을 설정함.
- 이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추진 및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한 예술계 협업 시스템 구축 기반을 제공함.

[미흡한 측면]

- ‘예술나무키우기’ 사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예술나눔기부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25.8% 가량 축소됨. 이러한 예산 감축이 향후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요망됨.
- 예술나무키우기의 사업 활성화와 기부금 예산 감축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논의를 통해 향후 기부금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예술나무운동과 크라우드 펀딩 등이 전체 기부금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이 두 사업 간의 차별성을 명료하게 사업별 특색을 중심으로 기부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두 사업간 연계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발전 방안]

- 기부금 사업의 인지도 상승으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며, 기부금사업 참여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 전략 방안과 메시지 구축이 필요함.
- 예술나무 키우기 사업을 문화의 날 사업 등과 연계해 문화부 사업의 대표 브랜드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문화예술 기부금액, 기부인, 기부빈도 규모 확대와 이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균형문제와 클라우드 펀딩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전략 방안 논의가 필요함.

4. 개선과제

□ 계획

[재정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 시장상황 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측이 이루어지거나 유사한 국내외 기관과 비교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요예산 추계를 보다 과학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성과지표에 대한 통계자료 근거 구축]

- ‘기부금 유치액’ 및 ‘기부 유치실적’은 해당 사업의 결과를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성과지표이나 ‘기부금 유치액’과 ‘기부 유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제시가 부족함.
- 다만, ‘기부금 유치액’과 ‘기부 유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에 입각하여 향후, 기업 및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하고, 다음 해 동일 사업에서 전략과 활용 효과에 대한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집행

[문제점 해결을 통한 질적 및 양적변화 기술]

- 사업 추진 중 문제점 해결방안 도입을 통해 질적 및 양적 변화가 도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성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 ‘기부금 사업만족도’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부금 모금 관련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사업방향에 근거한 사업전략 마련]

- 문화예술사회공헌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의 방향을 소액 다수 방향과 거액 소수 방향으로 구분해 각각의 방향에 맞는 사업 전략을 모색해야 함.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SNS 활성화, 젊은 연령 대상 이미지 구축, 예술지원에 대한 재미와 흥미 등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진행하고, 후자의 경우 세제혜택, 이미지 제고, 사회공헌 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요망됨.

[효율적 기부 활용방안을 접목한 우수사례 제시]

- 기부금 사업의 인지도 상승으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며, 기부금사업 참여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 전략 방안과 메시지 구축이 필요함.
- 문화예술 기부금액, 기부인, 기부빈도 규모 확대와 이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균형문제와 클라우드 펀딩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전략 방안 논의가 필요함.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 동 사업은 연구조사·교육·아카이브·홍보 등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기반사업과 공공미술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미술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사업임.
- 특히, 선택적 기금제 시행에 맞춰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공공미술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임. 또한 공공미술이 처한 상황을 제도적, 운영체계, 사업추진 역량, 작품 및 인식수준의 관점 등 여러 측면의 진단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짐.
- 동 사업의 주요 성과로 예술장식에서 공공미술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또한 광주 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공공미술이 전국 최초로 추진됨에 따라 동 사업의 우수성이 인정됨.
- 한편,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으나 공공미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되는 수준이므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향후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타 사업의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서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된 취지, 공공미술에 대한 사업관심 증대와 발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함.
- 아울러 타 기관의 사업은 주체가 지역환경 개선 혹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등의 예술을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동 사업은 ‘예술의 공공성 확대’라는 예술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다른 주체들의 공공예술사업과 근본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함.
- 현재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초기단계이므로 인식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특징이 담긴 공공예술모델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각 지자체 및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신 건축주가 선택적으로 출연한 문예진흥기금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사업의 추진 체계 마련
- 연구조사·교육·아카이브·홍보 등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기반사업과 공공미술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미술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을 확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 2개년 사업 (2012~2013)
 - 시범사업 <공공미술2.0> : 2개년 사업 (2013~2014)
- 총 사업비 : '13년 10억원
- 사업규모
 - 공공미술 시범사업(7억원) : 충남(계룡시, 공주시), 경남(함양군), 부산(사하구), 인천(연수구), 경기(안양시), 광주(남구 양림동)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7건 추진
 - 기반사업(3억원) : ARKO 공공미술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공공미술제도 및 포털사이트 운영,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발간,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미술 교육, 공공미술 정책 심포지엄 및 성과전시, 건축물 미술 작품제도 및 선택적 기금제 홍보 등 3억원
- 지원대상 : 예술가, 예술단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매칭 의무
 -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 50:50
 - 시범사업 <공공미술2.0> : 총 지원액의 50% 이상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A)	'14년 예산(B)	증 감	
				(B-A)	%
□ 사업명	992	1,000	1,000		
▪ 공공미술기반조성	992	300	300		
▪ 지자체공공미술프로그램지원	-	700	300		
▪ 민간경상보조	-	-	400		
□ 세출예산비목	992	1,000	1,000	-	-
▪ 일반수용비	940	293	290		
▪ 공공요금	5				
▪ 임차료	9.7				
▪ 국내여비	14.8	3	5		
▪ 국외여비	13.5				
▪ 사업추진비	9	4	5		
▪ 자치단체경상보조	-	700	700		

2.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5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3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5.40	
	4-3 우수사례 평가	3	1.38	
전체 합계			100	81.78

3.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기준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선택적 기금제로 인한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 공공미술의 확산과 사회의 관심 증대에 따라 사업목적이 명료함.

[긍정적인 측면]

- 공공미술이 처한 상황을 제도적 관점, 운영체계 관점, 사업추진 역량 관점, 작품에 대한 관점, 인식수준의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여 제시, 충분한 검토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선택적 기금제에 따른 공공미술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임.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현재의 공공미술에 대해 다양한 조사 및 연구, 시범사업 추진 등을 시행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적합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기준 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하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공공미술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 확대에 목적을 둬. 이에 따라 제시된 성과목표는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시범적 공공미술사업 구현’으로 볼 수 있음.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는 ‘예술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성과목표로 보임.
- 그러나 ‘시범적 공공미술사업 구현’은 시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내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미술의 새로운 전형 제시’가 적절한 성과목표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수사적인 문제일 뿐, 전체적으로 보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긍정적인 측면]

- 공공미술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와 성과목표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시범적 공공미술사업 구현’ 이라는 성과목표를 향후에는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공공미술의 새로운 전형 제시’ 등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길 바람.

기준 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된 이후 공공미술의 전환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선택적 기금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택적 기금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예술장식에서 공공미술로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사업추진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기 어려움.
- 공공예술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되었으나, 수요예측 그리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등 현실적 수요에 맞춘 예산이 추계되어 있지 않아 다소 아쉬움.

[발전 방안]

- 예술장식에서 공공미술로의 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선택적 기금제’가 갖고 있는 효율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판단 하에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기준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차이점으로 ‘공공미술 기반강화 사업’, ‘공공미술 인적 역량 강화사업’, ‘공공미술 시범사업’ 등으로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사업과의 차이점, 또 유사사업인 마을미술프로젝트와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수행방식이나 대상의 차이일 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함.
- 본래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된 취지, 공공미술에 대한 사업적 관심 증대와 발전경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독특하고 차별화 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은 유사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긍정적인 측면]

- 지자체 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 등과의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 특히 유사사업인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시행주체, 사업목적, 수혜대상, 사업내용, 사업방식, 기대효과 등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있음.
- 여러 형태의 공공미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적절한 사업모델과 영역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타 사업과 차별을 보일 정도로 가시적이지 않음.

[발전 방안]

- 다른 어떤 주체와 달리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선택적 기금제를 운영함에 따라 무엇보다 차별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여타의 주체가 지역환경 개선이나 커뮤니티 조성 등 예술을 수단으로 활용

하는데 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예술의 공공성 확대’라는 예술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됨에 따라 적절한 전략과 수단만 갖춘다면 다른 주체들의 공공예술사업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형성할 것이라 판단됨. 그런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독특한 전략과 사업영역, 사업방식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

기준 2. 사업 수혜 대상이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는 유사사업과 사업 수혜대상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 여타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수혜 대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선택적 기금제의 운영에 따른 차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

[발전 방안]

- 특정지역의 혁신이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예술의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한 사업임.
- 이에 따라 사업수혜 대상도 다르며 전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는 자신의 예술성을 공공화하려는 작가와 일반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 선택적 기금제를 모은 성과라면 기금을 낸 후원자 등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사업수혜 대상을 정밀한 형태의 사업추진이 필요함.

기준 3.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여러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지자체이거나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같은 전문단체이며, 이에 반해 본 프로젝트의 사업수행 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임.

[긍정적인 측면]

- 사업목적에 맞춰 여러 사업주체들로 나뉘어져 있음.

[미흡한 측면]

- 그러나 사업방식 및 내용, 전략 등이 차별화 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밖에 보이지 않음.

[발전 방안]

- 각 수행주체의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기준 1.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의 세부사업은 ‘공공미술포털사이트 운영 및 네이버캐스트 공공미술 컬럼 연계, 공공미술심포지엄 등 담론활성화, 연구조사 사업, 전문가 양성, 공무원 교육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도시공원 예술로, 혁신도시 공공미술 공동추진 등으로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성과목표가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시범적 공공미술사업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사업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주어진 성과목표에 맞춰 세부사업을 잘 구성하여 운영함.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현재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초기단계이므로 인식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독특한 공공예술모델 개발 및 이의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 및 예술단체와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준 2.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의 예산은 총 10억원이며, 공공미술 기반 조성에 3억원, 시범사업 추진에 7억원을 배정하였음.
-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인 ‘도시공원 예술로’와 ‘공공미술 2.0’은 지자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혁신도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입주기관들이 부담토록 하였음.
- 위 내용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재원분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긍정적인 측면]

-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대상자인 지자체 및 입주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점이 긍정적으로 사료됨.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전체적으로 지자체와의 분담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있어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체 컨셉과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람.

기준 3.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수혜대상자가 차별화하여 적절히 선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기획자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히 사업수행자를 선정함.

[긍정적인 측면]

- 각 사업별 수혜대상자 및 이에 기초한 사업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

[미흡한 측면]

- 특이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향후, 현재와 같이 각 사업별로 수혜대상자를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기준 4. 지원 방식 및 조건 변경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긍정적인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측면]

○ 해당사항 없음.

[발전 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준 5.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2012년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사업추진 규모를 측정하고, 전체적인 수요를 예측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수요를 예측해 사업을 추진함.

[긍정적인 측면]

- 공공미술 2.0, 혁신도시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사업의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미흡한 측면]

- 전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요예측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예측이 과학적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음.

[발전 방안]

- 이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 운영이 요구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본 사업은 ‘공공미술 시범사업’과 ‘기반사업’으로 나뉘어 ‘기반사업’의 내용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공공미술제도 및 포털사이트 운영,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발간,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미술 교육, 공공미술 정책 심포지엄 및 성과 전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및 선택적 기금제 홍보 등으로 매우 다양한 세부 사업이 진행됨.
- 다만, 이러한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수’ 측정 및 ‘공공미술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점수’ 측정만을 제시하고 있음.
- ‘공공미술 시범사업’의 도시공원 예술로의 경우, 전문 문화예술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대면 면접조사와 같은 직접적 방식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나 앞서 언급한 ‘기반사업’의 성과를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수’ 측정만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 2인 공공미술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점수에 대한 측정 방법 및 표본수, 선정방법을 자세히 제시함.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 1인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수가 사업 내용의 성과를 부분적으로만 측정해 낼 수 있다는 점이 미흡함.

[발전 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공공미술제도 및 포털사이트 운영,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발간,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미술 교육, 공공미술 정책 심포지엄 및 성과 전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및 선택적 기금제 홍보와 같은 기반 사업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해야 함.

기준 2.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수 측정만으로는 공공미술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다고 생각됨.
- 방문자수 측정 자체도 연령별, 계층별 분류 없이, 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과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사람들과의 분류도 없는 기계적인 방문자수 측정은 큰 의미가 없음.

[긍정적인 측면]

- 도시공원 예술로의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측정 결과는 성과지표로 쓰기에 적절하며 사업목적과도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 대상사업지의 표본 수 및 조사 대상에 대한 선정도 적절하다고 생각됨.

[미흡한 측면]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발견 방안]

-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수 측정 외에도 개별 사업에 적합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목적의 최종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준 3.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성과지표의 정의는 명확하나 측정산식이 명확하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상세하며 다양한 통계 수치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어 있음.
- 도시공원 예술로의 평점부여방식으로 SI 지수 산정을 한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됨. ‘지역의 미적개선 효과’부터 ‘주민활동 활성화 기여’까지 다섯 개의 요소별 만족도 선정 또한 적절함.

[미흡한 측면]

- 공공미술포털사이트가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방문빈도가 높아질수록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 다만, 이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보다는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등 다른 이유로 사이트 방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발견 방안]

- 보다 정밀한 성과지표 산정 및 측정산식 제시할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기준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업시행 전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 성과계획 시 설정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여타 평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2012년의 경우 선택적 기금 출연규모와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수와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SI지수)로 성과지표를 재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음.

[발전 방안]

-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목표치가 향후 어떻게 상향될 수 있을 것인지 달성치를 통해 추세분석하면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기준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두 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는 달성치를 보이므로 성과달성은 평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긍정적인 측면]

- 성과목표에 대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임.

[미흡한 측면]

- 3개년 평균 점수인 71.3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2% 증가한 72.7을 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비교적 도전적이지 못하며 합리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됨.

[발전 방안]

- 성과지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과 관련해서는 보다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해당지표에 대해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기준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기준 충족 여부 및 근거]

- 설정된 두 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제고 노력을 적시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

-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성과제고 방안에 대해 실적보고서에 세부적으로 충실히 기술하고 있음.
- 연간 공공미술 포털 사이트 방문자수와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지표에 대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측면]

-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으며, 현재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발전 방안]

-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의 경우, 계량적인 만족도 점수의 상승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이를 사업의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공공미술기반조성 사업과 공공미술시범 사업의 경우 모두 예산 집행률이 100%로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짐.

[긍정적 측면]

- 최근 3개년간 예산집행률 및 '13년 분기별 집행현황, 미집행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었음.
- 공공미술기반조성 및 공공미술시범사업 모두 100% 집행이 이루어졌고, 집행 절차는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라 공개입찰, 심의 등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짐.

[미흡한 측면]

- 계획대비 집행의 불균형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4분기 집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분산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발전 방안]

- 분기별 재원 집행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실성 있게 설계가 필요함.

3-2.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등급 산정 근거]

- 공공미술사업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자문위원회 구성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됨.
- 지자체 협의체 및 개별 모니터링을 제도개선 설명회 때와 담당자 교육 시, 일상적으로도 실시함.
- 시범사업의 경우,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평가도 겸함으로써 모니터링의 현장성을 더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 단계별로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전문위원단의 구성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 각 전문가 모니터링단의 주요 경력 및 현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모니터링단의 적절성을 제시함. 점검내용 및 방법과 주요 점검 결과를 자세하게 제시함.

[미흡한 측면]

- 마을 주민 등의 수혜자 경우에도 ‘만족도 조사’라는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전문가 평가의 정성평가의 과정을 거쳤으면 함.

[발전 방안]

- 다년도 사업이므로 2013년도의 모니터링 인력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성과 지표 및 결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중재 혹은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계약 체결 성사 및 사업 추진 성과를 달성함.

[긍정적인 측면]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중재 혹은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계약 체결 성사 및 사업 추진 성과를 제시함.

[미흡한 측면]

- 공공미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부족함.

[발전 방안]

- 각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데이터화하고 매뉴얼화하여 이후 다른 지역에서 다른 담당자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함.

[긍정적 측면]

- 공공미술 포털 사이트 방문자수는 계획 대비 119% 달성, 그리고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는 계획 대비 106%를 달성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성 과 지 표 명	계 획(A)	달 성(B)	달 성 률(B/A)
공공미술 포털 사이트 방문자수	22,562	27,050	1.19
시범사업이용자 만족도(점)	72.7	76.7	1.06

[미흡한 측면]

- 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경우, 설문조사의 계량적 결과와 함께 개방형 설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발전 방안]

- 신규지표로 설정된 성과지표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경우는 설문조사의 계량적 결과뿐만 아니라 개방형 설문을 조사지에 포함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등급 산정 근거]

- 사업에 대한 핵심적 지적사항은 사업내용과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재설정함. 이와 관련해 공공미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과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 적용되는 수준이고, 이러한 관리 방법이 특정 영역에서만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상황으로 평가함.
- 특히 지적된 기금출연제도 홍보 및 설명회 강화와 만족도 조사 확대 추진과 관련해 비효율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소극적 관리방식을 취하고, 이는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학습과정으로 평가함.

[긍정적인 측면]

- 본 사업 성과지표 재설정을 위해 공공미술 포털사이트 방문자 수와 이용자 만족도 지수로 제안됐고, 이 지표와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설명함.

[미흡한 측면]

- 본 성과지표에서 제시한 방문자 수의 증가가 과연 공공미술 사회적 인식 확대의 양적 측면을 객관화 할 수 있는 자료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웹사이트 방문자수에 대한 산술적 수치보다 방문자의 웹사이트 이용시간, 이용현황, 이용목적 등 정례화된 빅 데이터 활용의 포괄적 유목화 작업을 통한 지표 구축이 요구됨.
- 만족도의 경우, 직접적 이용자인 시민, 기획자, 작가, 지자체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에 근거해 사업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마련해야 함.
- 공공미술기금 출연액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설명회 추진 시 적극적 홍보 전략 방안에 구축한 메시지 작업과 수용자 속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안을 기반으로 기금출연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해야 함.
- 공공미술 홍보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수용자 속성 분석에 근거한 메시지 전략, 미디어 활용방안, 이벤트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공공미술 관련 만족도 설문 대상을 구체화하고, 설문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며, 이들의 속성과 관련된 설문을 통해 종합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등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단순한 표본수의 증가가 아닌 소구 대상별 표본 수를 고려하고 단순 설문 외에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전문가 현장 인터뷰를 위한 만족도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함.

[발전 방안]

- 사업성과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 수립해야 함.
- 공공미술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선정, 설문구성, 설문분석 등에 있어 사업목표와 성과가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함.

4-3. 우수사례 평가

기준 1. 사례 선정 적절성

[배점 근거]

-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공공미술 공동 추진 사업이 우수 사례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 본 사례가 수행의 필요성과 세부목표와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와 목표와의 관계 적절성을 설명해야 하나 본 사례의 경우 성과지표로 제시한 방문자수 증가와 만족도 지표와 다소 무관함.

기준 2. 수행 적극성

[배점 근거]

- 공공기관 대상 공공미술 추진 제안으로 5개 기관에 대해 MOU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미술 사업의 재정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작품 제작여건 개선 방향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과 로드맵을 제시함.

기준 3. 사례 성과

[배점 근거]

- 본 사례가 도시환경 개선효과와 행정인력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 추진만으로 화시환경 개선과 행정·인력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기준 4. 파급효과

[배점 근거]

- 본 사례의 성공요인을 타 사업으로 환류시켜 그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음. 특히 벤치마킹과 관련해 본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소 미흡함.

[긍정적인 측면]

-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공공미술 공동추진 사업으로 인해 공공 미술 사업의 신규 추진이 이루어지고 전국 최초로 공공미술 공동 추진을 통해 본 사업의 가치를 확인함.
- 공공미술 공동추진으로 공공미술 필수 비용의 절감으로 작품의 질적 가치 상승이 기대됨.

[미흡한 측면]

- 추상적이고 검증 불가능한 주관적 내용 대신 정량화되고 평가 가능한 계량화된 기준을 중심으로 사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향후 이러한 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할 경우 협업 전과 후의 내용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만족도와 사이트 방문자 수 등과 연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도시환경 개선효과, 행정/인력비용절감, 추진 효율성, 홍보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발전 방안]

- 사업목적인 공공미술 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교육, 아카이브 홍보 등 공공 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기반 사업 구축을 위해 우수사례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홍보 전략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공공미술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분배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4. 개선과제

□ 계획

[선택적 기금제 운영에 따른 사업 차별화 증대]

- 동 사업은 다른 어떤 주체와 달리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선택적 기금제를 운영함에 따라 무엇보다 차별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여타의 주체가 지역환경 개선이나 커뮤니티 조성 등 예술을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예술의 공공성 확대’라는 예술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됨에 따라 적절한 전략과 수단만 갖춘다면 다른 주체들의 공공예술사업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형성할 것이라 판단됨. 그런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의 독특한 전략과 사업영역, 사업방식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

[기반 사업에 적합한 지표 개선]

-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수가 사업 내용의 성과를 부분적으로만 측정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공공미술제도 및 포털사이트 운영,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발간,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미술 교육, 공공미술 정책 심포지엄 및 성과 전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및 선택적 기금제 홍보와 같은 기반 사업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해야 함.

□ 집행

[사업추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매뉴얼화]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나, 향후 각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데이터화하고, 매뉴얼화하여 이후 다른 지역에서 다른 담당자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과

[공공미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반영]

- 공공미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과제로 지적에 대해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 적용되는 수준이고, 이러한 관리 방법이 특정 영역에서만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기 시작된 바,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웹사이트 방문자수에 대한 산술적 수치보다 방문자의 웹사이트 이용시간, 이용현황, 이용목적 등 정제화된 빅 데이터 활용의 포괄적 유목화 작업을 통한 지표 구축이 요구됨.

[우수사례 선정의 근거 및 계량적 입증 필요]

-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공공미술 공동 추진 사업이 우수 사례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본 사례가 수행의 필요성과 세부목표와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와 목표와의 관계 적절성을 설명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도시환경 개선효과와 행정인력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 추진만으로 화시환경 개선과 행정·인력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을 계량적으로 입증이 요구됨.

IV

개선과제

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개선과제

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개선과제

-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첫째, 사업목적에 근거한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둘째, 사업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 발굴 및 보완이 요구됨.
- 셋째,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한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 등이 개선되어야 함.
- 다섯째, 계획된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섯째, 우수사례 추천의 근거 및 객관성이 확보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실적보고서의 충실성을 담보하는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나타난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목적에 근거한 성과목표 설정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평가대상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성과계획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토록 사업을 설정하고 있음. 또한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목적간의 연계구조는 전략적 체계 속에서 확립되어 있으나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논리적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사업목적이 기관의 전략목표를 이루기까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하위 전략체계가 상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됨.
- 덧붙여 사업목적에 근거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회적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하고, 비전전략과 전체적 흐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노력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사업목적과 연계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사업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유기적인 시스템 및 사업관리 조직을 구비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량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 발굴 및 보완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평가대상 사업들은 양호한 수준에서 사업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 다만, 사업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선과제는 과거 기금사업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사업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계획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일부 사업의 경우, 과정 또는 산출중심의 성과지표가 있어 실제 사업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결과중심의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과 최종달성 여부 등이 비교검증이 되어야 함.
- 한편 성과지표 설정 시 전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문화사업의 심리적인 효과는 무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량으로만 측정하는 것을 한계를 보일 수 있음. 따라서 사업내용과 관련된 정량지표와 더불어 질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비계량지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입증해야 함.
- 가능하다면 각 사업별로 해외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성과지표를 비교할 필요도 있으며, 성과지표 발굴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일부 성과지표 이미 목표치와 달성치가 임계수준에 달하는 지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가령, 문화복지(문화 바우처)사업의 경우, ‘수혜자 만족도’, ‘카드 발급률’, ‘카드 이용률’ 모두 85% 이상의 달성치를 보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발전적인 대안지표의 개발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한 목표치 설정

- 전반적으로 각 사업들은 성과지표별로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와 목표설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음.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별로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와 목표설정사유를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환경 및 경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통계자

료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가령,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사업의 경우 ‘기부금 유치액’ 및 ‘기부금 유치실적’은 경제성장률 등 경기전망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거의 추세치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목표부여방식에 의거하여 목표치를 산출하며, 지속적 상승에 의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됨.
- 더불어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해당년도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성과지표별 서술에 있어 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분석 및 해석을 덧붙이고, 긍정적 평가만이 아닌 한계 및 개선점 등을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임.
- 종합적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달성여부를 넘어 사업시행을 통해 실제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됨.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

- 전반적으로 평가 대상 사업별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수시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으나, 일부 단편적인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어 사업추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주체 및 점검 내용과 점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적절히 제시되고, 사업수행체계에 대해 전체 과정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며, 어느 단계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공연예술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기, 실시 회수, 일시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따라서 모니터링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고,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가 모호하거나, 당연한 항목들로 구성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과 연계된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해결실적을 제시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종합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사업과 연계하여 과정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임.

□ 계획된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금번 평가대상 사업들은 양호한 수준으로 계획된 성과목표치 달성여부를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치를 달성치 못한 사업이 있으므로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현재 이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지역문예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치 달성 측면에서 ‘고객 만족도’는 83.8% 달성, ‘비수도권 관람객 수’는 83%로 미달성된 사례가 있었음.
-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상세히 기술하고, 성과목표치의 데이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과거자료를 제시하며,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요구됨.

□ 우수사례 추천의 근거 및 객관성 확보

- 금년도 평가에서 우수사례 평가는 처음 도입된 지표로서 각 사업별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평가대상 사업들은 대표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으나,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바, 우수사례 발굴과 선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우수사례 선정 시, 우수사례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와의 관계의 적절성을 제시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제시와 우수사례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일례로 공공미술사업운영의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공공미술 공동 추진 사업이 우수 사례에 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본 사례가 수행의 필요성과 세부목표와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와 목표와의 관계 적절성을 설명해야 하지만, 동 사례의 경우 성과지표로 제시한 ‘방문자 수’ 증가와 ‘만족도’ 성과지표와 다소 무관한 측면 있음.
- 따라서 우수사례와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을 긴밀히 하여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성적 및 정량적 측면이 제시된 우수사례 발굴이 요구됨.
- 나아가 사업의 성과산출을 제시함에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을 충실히 담길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벤치마킹 혹은 우수사례의 성공요인을 타 사업으로 환류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실적보고서의 충실성 담보

- 전반적으로 실적보고서는 지표체계 및 평가항목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나 서면 및 현장 평가 시, 실적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님.
- 따라서 실적보고서에 지표체계 및 평가항목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 평가근거 그리고 자료에 해당부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는 등 보고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도표 및 도식화를 활용하여 실적 보고서의 질을 담보하고, 별첨이나 근거자료, 특히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사업별 업무의 흐름도와 수행주체, 세부사업별 차별적인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여 객관적인 기술이 뒷받침되고,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V

사업 성과지표 분석

1. 성과지표의 개념
2. 성과지표 개발 원칙
3.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분석

1. 성과지표의 개념

1) 성과지표의 정의 및 특성

가. 성과지표의 정의

- 성과지표는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임.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줌.

나. 성과지표의 특성

- 첫째, 전략목표가 명확할 때 성과목표는 구조화되고, 구조화된 성과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도 구체화되어야 함. 전략목표가 모호하게 설정되면 하위 목표인 성과목표 또한 일관성 있게 구조화되기 어려움. 실제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성과목표, 나아가 전략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음.
- 둘째, 성과지표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내용을 대표하여야 함. 따라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응되는 명확하고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함. 특히 정책이나 사업을 대표하지 못하고 달성이 용이한 지표를 설정할 경우 실제 성과에 기초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단계부터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셋째,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기준을 구체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따라서 측정가능하고 계량화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만 평가자의 주관의 작용하지 않고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성과지표의 개발·활용 목적

- 성과지표의 개발·활용은 성과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짐.

- 각 기관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무와 비전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수행하는 정책·사업·과제·업무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함.
- 성과목표가 설정되면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정책 등의 추진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게 됨.
- 성과지표의 개발과 활용의 목적은 성과지표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자원배분, 인사·조직관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3) 성과지표의 유형

가.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함.
- 정량지표는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으며, 정성지표는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

나. 기준 사업에 따른 분류

- 기준 사업에 따라 기관 대표 성과지표와 단위과제 성과지표로 구분함.
- 기관 대표 성과지표는 조직 전체의 성과를 종합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관의 고유 임무를 기준으로 하며, 개발이 어렵지만 한번 개발되면 매년 목표치만 변화시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위과제 성과지표는 단위 과제의 당초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개발이 용이한 반면, 매년 단위사업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신규개발해야 함.
- 일반적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단위과제 성과지표이며, 경우에 따라 단위과제 성과지표를 기관 대표 성과지표로 병행하여 설정할 수도 있음.

다.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 성과지표는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제시되는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됨.
- 투입지표는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 집행과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줌.
- 과정지표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정도를 중간점검하는데 도움을 줌.
- 산출지표는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줌.
- 결과지표는 1차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줌.
-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단계별로 지표를 구성하여 보는 것이 필요함.

2. 성과지표 개발 원칙

1) 정책대표성

- 정책대표성은 성과지표 개발시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전략 목표와 성과목표의 핵심내용이 포함되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함을 의미함.
- 성과지표가 정책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목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과목표가 불분명할 경우 그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성과지표 역시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또한 성과지표는 성과 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전략 및 성과목표와 직접 연관이 있어서 조직과 개인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줄 수 있어야 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가 미흡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로 정책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연관이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함.

2) 적절성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함.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는 최근 '3년간 추세치'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며, '3년간의 평균 실적도 고려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는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목표치 설정의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특히 목표치가 3년간의 추세치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3년간의 추세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목표치 설정 수준의 적절성은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시에 반영됨. 즉,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선정한 기관보다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단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만 국한하여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인과성

- 성과지표의 인과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의 통제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 외부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목표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 보상이나 책무성 부여가 용이함.
- 또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당연히 달성되는 지표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만 하면 달성되는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정책의 수행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됨. 따라서 환율이나 유가 등 기관의 노력여부와 관계가 없는 변수들을 최소화하고, 단순한 예산 투입과 참여건수와 같은 지표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4) 구체성

- 성과목표 또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함.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정도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해주고,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를 쉽게 함.
- 성과지표는 성과 측정 및 관리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 구성원의 이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기관 내 의사소통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성과지표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함.

5) 측정가능성

- 성과지표가 정책대표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함.
-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은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먼저 자료의 성격이 지표와 맞는 것이어야 함.

- 기관 내부 통계 이용이라든지 자체조사에 의한 결과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계량화되어 측정의 객관성이 확보되었거나 국제적으로 통상 활용되는 국제 평가지수 또는 국가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6) 기한성

- 사업 종료 후 산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해당 연도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함.
- 장기적인 사업목표인 경우도 연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도록 함.
- 당해연도에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평가시점에서 산출 혹은 측정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당해연도에 수행한 과정과 내용을 왜곡없이 서술하고 결과로 제시할 내용과 일정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함.

7) 비교가능성

- 성과지표는 예산편성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성과 및 유사사업의 성과와 비교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이미 객관성이 확보되었거나 국제적으로 통상 활용되는 지표를 활용할 경우는 매년 동일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전 연도와의 결과 비교가 용이함.
- 여러 기관이 동일한 과제에 동시에 참여하게 되는 사업은 관련된 기관 간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이후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

3.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분석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이하 문예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지표 분석은 2014년 문예기금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전술한 성과지표 개발원칙에 근거하여 진행함.
- 문예기금사업 성과지표는 16개 사업 총 4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성과지표의 속성에 따른 분석인만큼 실제 평가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도 있음을 밝힘.

1) [101] 문학창작지원

- 문학창작 지원사업은 사업수혜자만족도, 평균창작활동 수,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을 사업성과지표로 정하고 있음.
- 사업수혜 만족도는 지원사업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추론함에 있어 허위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명확한 대상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평균 창작활동 수는 지원 건수에 대한 4가지 범주의 창작활동 수의 합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4가지 창작활동의 범주가 문학창작의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에서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은 지원대상자 중 문학상 수상실적을 추출하여 누계한 것으로 정책대표성, 인과성, 측정가능성은 가지고 있으나 지표속성이 산출(output)에 기인한 것으로 바람직한 성과지표라 하기는 어려움. 문학상 수상이 아닌 양질의 문학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에 있으므로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 중심의 지표 재설정이 요망됨.
- 문학창작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업수혜자 만족도	평균창작활동건수	주요문학상 수상실적
정책대표성	○	○	○
적절성	○	○	△
인과성	○	○	△
구체성	○	△	○
측정가능성	◎	◎	◎
기한성	◎	◎	◎
비교가능성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전반적으로 문학창작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기한성과 측정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주요문학상 수상실적의 경우, 적절성과 인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102] 시각 예술 창작 지원

- 시각예술창작지원사업은 지원대상만족도, 평균발표작품 수, 평균 관람객 수, 평균 창작비평건수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 지원대상 만족도는 PCSI를 바탕으로 향상도 측정산식을 적용하는데 지표 전반에 걸쳐 정책대표성과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추론함에 있어 허위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명확한 대상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평균 발표 작품 수는 공간, 행사분야에 한정된 지표로 지원사업당 평균 창작 작품 수를 집계하고 있는데, 정책대표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적절성과 인과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을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별 편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기한성 이외의 나머지 다른 요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구체성의 미흡이 두드러짐.
- 평균 관람객 수는 지업사원 당 평균 관람객 수를 집계하고 있으며, 정책대표성, 적절성, 인과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을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별 편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기한성 이외의 나머지 다른 요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구체성의 미흡이 두드러짐.
- 평균 창작비평건수는 지원 사업 당 평균 비평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평균 발표 작품 수, 평균관람객 수와 마찬가지로 정책대표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적절성과 인과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을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별 편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기한성 이외의 나머지 다른 요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구체성의 미흡이 두드러짐. 특히 비평의 경우 비평 하나를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비평의 깊이와 그에 대한 반향까지도 살펴야 하므로 비평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한 지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문학창작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지원대상 만족도	평균 발표 작품 수	평균 관람객 수	평균 창작비평건 수
정책대표성	○	◎	◎	◎
적절성	○	○	○	○
인과성	○	○	○	○
구체성	○	△	△	△
측정가능성	◎	◎	◎	◎
기한성	◎	◎	◎	◎
비교가능성	○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전반적으로 시각예술 창작지원 사업 성과지표는 정책대표성과 측정가능성, 그리고 기한성에 중점을 둔 지표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해당 지원사업을 각 사업에 대한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루고 있음이 성과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지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3) [103] 공연예술 창작지원

-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은 평균창작 작품 수, 사업 수혜자 만족도, 평균 관람객 수를 사업성과지표로 정하고 있음.
- 평균 창작 작품 수는 지원사업 건 수에 대한 지원사업 전체 창작 작품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대표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적절성과 인과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지원사업 당 창작 작품의 평균치를 지표로 삼은 것은 모든 사업을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업별 상이한 속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기한성 이외의 나머지 다른 요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구체성의 취약함이 두드러짐.
- 사업 수혜자 만족도는 PCSI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 수혜자에 대한 만족을 계량화한 것으로 동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음. 적절성, 인과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측정가능성과 기한성 역시 확실하며,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가지고 있는 여타 사업과의 비교도 가능함.
- 평균 관람객 수는 지원사업 건수에 대한 지원사업 전체 관람객 수로 나타냄. 이는 모든 사업을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업별 상이한 속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기한성 이외의 나머지 다른 요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구체성의 취약함이 두드러짐.
-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평균 창작 작품 수	사업수혜자 만족도	평균 관람객 수
정책대표성	◎	○	◎
적절성	○	○	○
인과성	○	○	○
구체성	△	○	△
측정가능성	◎	◎	◎
기한성	◎	◎	◎
비교가능성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x:미흡

- 공연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은 문학 창작 지원 사업과 거의 유사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가능성과 기한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구성한 것이 특징임.
- 그러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공연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서 평균 창작 작품 수와 평균 관람객 수를 함께 성과지표로 두고 있는 것은 작품의 창작 방향을 다수 관람객 유치에 둘 수 있어 공연예술작품의 작품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104] 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

- 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 사업은 평균 창작 신작 수, 평균 참여자 수, 평균 관람객 수를 사업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 평균 창작 신작 수는 지원 사업 건수에 대한 사업 전체 창작 신작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양한 신작을 창작함으로써 예술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바 정책 대표성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이나 신작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성과지표에서 다루고 있다는 실험성과 독창성 측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모든 신작이 예술 작품에 대한 색다른 시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시도가 있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만큼 해당 지표는 적절성과 인과성,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시 말해, 창작 신작 수가 많은 것이 예술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함.
- 평균 참여자 수는 지원 사업 건수에 대한 사업 전체 창작 참여자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 분야 협력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융합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단순히 창작 참여자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타 분야 협력 및 네트워크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본 지표는 적절성, 인과성,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음. 단순히 측정가능성과 기한성만 부합되는 지표로 사업지표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평균 관람객 수는 지원 사업 건수에 대한 공연, 전시 관람객 수와 행사 참여 관객 수의 합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융 복합형 예술의 인식확산 및 비평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 수 증가가 예술 다양성 증진에 갖는 상관성이 매우 미약하여 측정가능성과 기한성 외 다른 부합점을 찾기 어려워 사업지표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됨.
- 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평균 창작 신작 수	평균 참여자 수	평균 관람객 수
정책대표성	△	△	△
적절성	△	△	△
인과성	×	×	×
구체성	△	△	△
측정가능성	◎	◎	◎
기한성	◎	◎	◎
비교가능성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예술다양성증진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잘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목적과의 인과성이 결여된 지표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적합하지 않음.
- 기존 지표의 내용을 단순히 측정하는데 머물지 않고, 지표 내용이 사업목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깊이있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105]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사업은 아르코미술관운영과 예술가의 집을 통한 창작매개활동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아르코 미술관 운영은 이용자 수와 이용자 만족도, 예술가의 집은 예술가의 집 이용자 수와 예술가의 집 만족도를 사업 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지표의 속성은 동일하나 공간 활용 속성의 상이함을 위해 공간별로 지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용자 수는 아르코 미술관 및 예술가의 집의 관람 또는 대관을 통해 이용한 이용자 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들 공간 운영의 명분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한 자료라 판단됨. 사업과 관련한 적절성, 인과성 및 구체성을 갖추고 있으나, 측정가능성이 다소 부족함.
- 이용자 만족도는 PCSI를 바탕으로 아르코 미술관 및 예술가의 집 프로그램 참여 또는 대관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공간 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 사업과 관련한 적절성, 인과성 및 구체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자 수에 비해 측정가능성도 높은 편임.
- 전시·창작소통공간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용자수 예술가의 집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 예술가의 집 만족도
정책대표성	◎	○
적절성	◎	◎
인과성	◎	◎
구체성	○	○
측정가능성	△	◎
기한성	○	○
비교가능성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전시·창작소통공간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어 매우 적절하다 판단됨.
- 그러나, 시기별로 공간활용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프로그램 참여와 대관 이외 공간활용에 대한 지표 마련이 요구되며, 기존 지표의 다각적이고 참신한 활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 볼 것을 권장함.

6)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사업은 사업수혜자 만족도, 1인당 평균수상 및 초청 실적, 지속지원기반마련성과를 사업 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사업수혜자 만족도는 지원사업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추론함에 있어 허위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명확한 대상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1인당 평균수상 및 초청실적은 지원대상자 중 전체 수상 및 초청실적을 추출한 것으로 정책대표성, 인과성, 측정가능성은 가지고 있으나 지표속성이 산출(output)에 기인한 것으로 바람직한 성과지표라 하기는 어려움. 문학상 수상이 아닌 양질의 문학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에 있는만큼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 중심의 지표 재설정이 요망됨.
- 지속지원기반마련 성과는 MOU(양해각서 체결)를 비롯한 외부협력 연계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예술인력의 지속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대표성과 적절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지속지원기반이 마련된 그 자체가 예술인력육성과 연관된다는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함.
-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AYAF)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업수혜자 만족도	1인당 평균수상 및 초청실적	지속지원기반마련성과
정책대표성	○	○	◎
적절성	○	△	◎
인과성	○	△	○
구체성	○	○	○
측정가능성	◎	◎	◎
기한성	◎	◎	◎
비교가능성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x:미흡

- 전반적으로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AYAF)의 성과지표는 기한성과 측정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1인당 평균수상 및 초청 실적의 경우, 적절성과 인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속지원기반마련에 대한 지표의 인과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7) [107] 예술인력 재교육

- 예술인력 재교육사업은 교육생 만족도, 교육생 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교육생 만족도는 PCSI를 바탕으로 향상도 측정산식을 적용하는데 교육 사업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교육사업에 대한 정책대표성과 적절성, 인과성을 두루 갖추고 있음. 또한, 교육대상이 기존 예술인임을 감안하면, 교육생의 만족도는 현업에서의 적용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성과지표로서 구체성 또한 확보되었다 할 수 있음.
- 교육생 수는 무대예술 전문교육 수료생 수와 국제 공연예술 전문가 시리즈 참가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적절성, 구체성은 매우 좋은 편이나 교육생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이 반드시 교육프로그램의 우수함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과성은 다소 취약하다 할 수 있음.
- 예술인력재교육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교육생 만족도	교육생 수
정책대표성	○	◎
적절성	○	○
인과성	○	△
구체성	○	○
측정가능성	◎	◎
기한성	◎	◎
비교가능성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x:미흡

- 전반적으로 예술인력 재교육사업의 성과지표는 정책대표성과 측정가능성과 기한성에 비중을 두고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 현행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생 수 지표에 대한 인과성 확보를 위해 교육생 만족도와 구전(口傳)효과로 인한 교육생 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권장함.

8) [108]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국제교류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 평균 창작 작품 수, 특집행사 순회횟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는 대상이 지원 예술인·단체라는 점에서 국제교류 활성화로 인한 만족을 가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는 적절성과 인과성, 그리고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표라 판단됨.
- 평균 창작 작품 수는 지원사업 건 수에 대한 지원사업 전체 창작 작품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대표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적절성과 인과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지원사업 당 창작 작품의 평균치를 지표로 삼은 것은 모든 사업을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업별 상이한 속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기한성 이외의 나머지 다른 요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구체성의 취약함이 두드러짐.
- 특집행사순회횟수는 국제교류를 통한 특집행사의 총 순회 횟수를 계산하는데, 특집행사횟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체성과 인과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 또한 산출(output)에 근거한 지표로 올바른 성과지표라 보기 어려움.
-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	평균 창작 작품 수	특집행사 순회횟수
정책대표성	○	◎	◎
적절성	△	○	○
인과성	△	○	△
구체성	△	△	△
측정가능성	◎	◎	◎
기한성	◎	◎	◎
비교가능성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정책대표성에 중점을 둔 지표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지표는 정책대표성만을 담고 있을 뿐 사업활동과 결과에 인과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지표라 판단됨.
- 교류를 통해 지원을 받은 예술인·단체보다 교류 상대가 갖는 인식이 어떠한 지

악하는 것이 교류 활성화 사업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보다 더 바람직하다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지표를 개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9) [109]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해외창작거점 공간 수, 협력사업 추진 건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는 국제교류 지원 사업 건수에 대한 국제 교류 연계 사업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결과(outcome)를 반영한 매우 좋은 지표임. 정책대표성을 비롯한 성과지표의 요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음.
- 해외창작거점 공간 수는 기관 간 합의를 통해 해외 문화예술기관, 대학 등 예술가 해외진출 채널 공간 확보 수를 집계한 것으로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과정지표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협력사업 추진건수는 해외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으로 수행한 사업 수를 집계한 것으로 국제 교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제 교류사업 파생효과와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의 결과(outcome)로 나타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해외창작거점 공간 수	협력사업 추진건 수
정책대표성	◎	◎	◎
적절성	◎	○	◎
인과성	◎	○	◎
구체성	○	○	◎
측정가능성	○	◎	◎
기한성	◎	◎	◎
비교가능성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x:미흡

-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의 구성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는 파생효과 파악 요소를 다변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창작 거점 공간 수는 사업의 과정지표나 산출지표에 보다 적합한 지표로 결과지표로의 전환을 위한 고민을 필요로 함.

10) [201] 소외계층 문화복지(문화바우처)

- 소외계층 문화복지(문화바우처) 사업은 수혜자 만족도, 수혜자 수, 문화카드 발급률, 문화카드 이용률을 사업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수혜자 만족도는 PCSI를 바탕으로 향상도 측정산식을 적용하는데 지원사업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 정책대표성과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추론함에 있어 허위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명확한 대상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수혜자 수는 지원사업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지표로 정책대표성, 적절성, 인과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측정가능성도 높은 아주 우수한 지표로 판단됨. 그러나 현 지표는 동일 사업성과 지표 중 하나인 문화카드 발급률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문화카드 발급률은 문화카드 발급가능매수에 대한 실제 발급수로 산출하는데, 문화바우처 사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책대표성과 인과성,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이 높은 아주 우수한 지표로 판단됨. 단, 전술한 바와 같이 당 지표는 수혜자 수와 중복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문화카드 이용률은 문화카드 예산 대비 문화카드 이용금액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는데, 충분한 정책대표성과 적절성을 지니고 있고, 인과성 역시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나 문화카드 이용금액 전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혜자 개개인의 평균적 혜택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소외계층 문화복지(문화바우처)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수혜자 만족도	수혜자 수	문화카드 발급률	문화카드 이용률
정책대표성	○	◎	◎	◎
적절성	○	◎	◎	◎
인과성	○	◎	◎	○
구체성	○	○	○	△
측정가능성	◎	◎	◎	◎
기한성	◎	◎	◎	◎
비교가능성	○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x:미흡

- 소외계층 문화복지(문화바우처) 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격을 가진 지표라 할 수 있음.

- 일부 중복성향을 지니고 있는 수혜자 수와 문화카드 발급률을 검토하고, 문화카드 이용률은 총 사용금액보다 개인당 사용금액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확실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1) [202] 소외계층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

- 소외계층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 사업은 수혜자 만족도, 수혜자 수를 사업성과 지표로 두고 있음.
- 수혜자 만족도는 PCSI를 바탕으로 향상도 측정산식을 적용하는데 지원사업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 정책대표성과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추론함에 있어 허위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명확한 대상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수혜자 수는 지원사업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지표로 정책대표성, 적절성, 인과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측정가능성도 높은 아주 우수한 지표로 판단됨.
- 소외계층 문화복지(문화바우처)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수혜자 만족도	수혜자 수
정책대표성	◎	◎
적절성	○	◎
인과성	○	◎
구체성	○	○
측정가능성	◎	◎
기한성	◎	◎
비교가능성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소외계층 문화복지(문화바우처) 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한 일반지표만으로 구성된 아쉬움이 있으며, 동 사업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반영하여 참신한 지표를 개발한다면, 사업성과를 가늠하는데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12) [301]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관람객 수, 고객만족도, 지역공연장 가동율을 사업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비 수도권 관람객 수는 상주단체 관람객 수, 레지던스 관람객 수, 시도기획 관람객 수, 육성지원 관람객 수의 합을 산출하여 나타내는데, 이들 요소의 구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이 아쉬우며, 지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으나 비 수도권 관람객의 관람장소가 비 수도권 지역이어야 한다는 목시적 전제를 가지고 있어 인과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고객만족도는 PCSI를 바탕으로 향상도 측정산식을 적용하는데 지원사업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 정책대표성과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추론함에 있어 허위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명확한 대상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지역공연장 가동율은 비 수도권 공연장 평균 가동률을 측정한 것으로 성과지표 요소의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음. 하지만, 지역 공연장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대상을 사업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당 지표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구체성 부족 요인으로 지적됨.
-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비 수도권 관람객 수	고객만족도	지역공연장 가동율
정책대표성	○	○	◎
적절성	○	○	◎
인과성	△	○	◎
구체성	○	○	○
측정가능성	◎	◎	◎
기한성	◎	◎	◎
비교가능성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x:미흡

-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측정가능성과 기한성에 중점을 둔 지표들로 구성되었음.
- 향후 비 수도권 관람객 수의 보다 명확한 지표정의가 요망되며, 지역 공연장 가동율의 대상범위를 구체화 하여 사업효과로 인한 결과임을 분명하게 해 준다면 보다 우수한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임.

13) [401]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

-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은 언론보도 기사건 수, 미디어 노출건 수, 기획기사건 수, 웹진 구독자 수를 사업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언론보도 기사건 수와 미디어 노출건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언론보도기사 건수를 집계한 것인데, 보통 언론 보도 및 미디어 노출은 취재원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보도자료가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기사의 품질 또한 달라지는 측면이 있음. 하지만, 단순히 언론보도 한 건을 내기 위해 취재원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점은 해당 지표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해당 지표는 정책대표성과 인과성은 다소 있으나, 적절성과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기획기사 건수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언론보도 기사 건수 중 미디어 노출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단순히 수치만을 실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목적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수한 지표에 속함.
- 웹진 구독자 수는 자체적인 웹진 구독자 수를 집계하여 내는데, 웹진 구독자가 스스로 구독을 원하여 웹진을 받아 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관련 종사자들에게 메일을 통하여 일괄 발송한 웹진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인지 명확하지 않음.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사업성과지표로서의 적절성과 인과성, 측정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언론보도기사건 수	미디어노출 건 수	기획기사 건 수	웹진 구독자 수
정책대표성	◎	◎	◎	◎
적절성	○	○	◎	◎
인과성	◎	◎	◎	○
구체성	○	○	○	△
측정가능성	○	○	○	○
기한성	◎	◎	◎	◎
비교가능성	○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은 대체로 정책대표성과 인과성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사업의 지표에 비해 측정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특징임. 이는 지표의 측정에 개입할 수 있는 외부요인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해 사업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개선이 필요함.

13)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은 연구과제 정책반영성과, 연구보고서 조회실적을 사업 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연구과제 정책반영성과는 당해연도 연구조사과제의 정책반영 및 정책참조 건수를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매긴 것으로 단순히 정책연구의 실적만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을 감안한 매우 우수한 지표로 평가됨. 성과지표 전 요소에 걸쳐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며, 지속가능한 지표로서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연구보고서 조회실적 역시 연구조사의 총 조회 수를 건수로 나눈 절대치로 연구과제 정책반영성과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보고결과의 활용을 감안한 매우 훌륭한 지표임. 하지만, 조회 수 집계를 온라인에 의존할 경우 실제 조회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분명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측정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연구과제 정책반영성과	연구보고서 조회실적
정책대표성	◎	◎
적절성	◎	◎
인과성	◎	◎
구체성	◎	◎
측정가능성	◎	○
기한성	◎	◎
비교가능성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연구과제 정책반영성과사업의 성과지표는 대체로 사업산출이 아닌 결과지향 지표로서 타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지표임.
- 단, 연구보고서 조회실적의 경우, 단순히 조회 수만을 환산할 것이 아니라, 논문 및 타 보고서에의 인용실적까지 파악하면 보다 더 우수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14)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사업은 기부금사업 만족도, 기부금 유치액, 기부 유치건 수를 사업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기부금 사업 만족도는 PCSI를 바탕으로 향상도 측정산식을 적용하여 기부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부금 투입이 사업 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표는 본 사업과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 단순히 외형상 사업에 기부금이 투입되었다는 것과 그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만족을 창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기부금 유치액은 연간 기부금액을 누적 집계한 것으로 본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기부금을 얼마나 유치하였는가보다는 설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연구 및 사업에 투자 또는 기획 하였는가 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정책대표성과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인과성, 구체성, 측정가능성만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기부 유치 건수 역시 연간 기부건수를 누적 집계한 것으로 기부금 유치액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기부금 사업 만족도	기부금 유치액	기부 유치건 수
정책대표성	△	○	○
적절성	△	△	△
인과성	×	△	△
구체성	×	△	△
측정가능성	◎	○	○
기한성	◎	◎	◎
비교가능성	○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외에 다른 요소는 보통이거나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우선 문화예술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오로지 기부 밖에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임. 소액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문화기반시설 또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문화 및 예술진흥을 이루어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우리 민족 모두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한글연구에 대한 진전이 거의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한글학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한글연구 및 국어사전 발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할 것임.

- 또한, 문화 및 예술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본 사업이 가진 취지와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5)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 공공미술사업운영 사업은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수와 시범사업이용자 만족도를 사업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수는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자동확인 시스템인 웹로그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측정가능성에 염두에 둔 노력은 인정되나 이 수치가 성과목표로 설정한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의 결과라 할 수 있겠으나,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는 성과결과가 아닌 성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과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아쉬움.
-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로 지원사업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 정책대표성과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추론함에 있어 허위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명확한 대상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공공미술사업운영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수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정책대표성	○	○
적절성	○	○
인과성	×	○
구체성	△	○
측정가능성	◎	◎
기한성	○	◎
비교가능성	○	○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측정가능성에 비중을 둔 지표라 할 수 있음.
- 성과지표를 정할 때는 사업과의 관련성이 아닌 인과성을 고려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하여야 하며, 지표명의 수사에 얽매이지 않고 지표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 따라서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방문자 수의 경우, 공공미술포털사이트의 등록컨텐츠 수 등 방문자 수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로 성과지표를 재설정해야 하며, 시범사업 만족도 역시 시범사업의 공공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어야 함.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14년 7월
 - 편집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www.kipe.re.kr, 02-6277-3600)
 -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044) 233-2200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

